

문학박사학위논문

조선시대 영남지역 문과급제자 연구

2019년 6월

안동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한국사전공

김 인 호

조선시대 영남지역 문과급제자 연구

指導教授：鄭 震 英

이 論文을 文學博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安東大學校大學院 史學科 韓國史專攻

김 인 호

김 인 호의 文學博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2019年 6月

學位論文審查委員會

委員長：김 희근 (印)

委員：김 명자 (印)

委員：김 경란 (印)

委員：김 종복 (印)

委員：정 진영 (印)

安東大學校大學院委員會

목 차

I. 머리말	1
1. 문제 제기	1
2. 연구 현황	2
3. 연구 방향	5
II. 문과의 시행과 영남인의 참여	8
1. 문과의 종류	8
2. 문과의 시행	16
3. 영남지역 문과급제자의 실태	21
III. 영남지역 문과급제자의 출신 배경	39
1. 문과급제자의 전력	39
2. 문과급제자의 거주지	50
3. 문과급제자의 성관·가문 현황	56
1) 영남지역 급제자의 성관	56
2) 영남지역 급제자 가문	63
IV. 영남지역 문과급제자 가문의 변화	71
1. 15세기 영남사림파의 등장과 문과급제	72
2. 16~17세기 영남사림파의 성장과 문과급제	76
1) 16세기 李滉·鄭述 문인의 문과급제	76
2) 17세기 李玄逸 문인의 문과급제	86
3) 16~17세기 영남지역 급제자 가문	91
3. 18~19세기 영남 남인 가문의 문과급제	104
1) 18~19세기 정치적 변동과 영남의 대응	104
2) 영남 남인 주요 가문의 급제자 추이	117
4. 18~19세기 영남지역 신출노론의 등장과 한계	139
1) 18세기 노론 집권과 영남지역 신출노론의 등장	139
2) 영남지역 신출노론 급제자 가문	148

V. 영남지역 문과급제자의 시기별 관직 진출	159
1. 영남지역 문과급제와 삼관 분관	159
1) 문과급제자의 연령 분석	159
2) 문과급제자의 삼관 분관	163
2. 16~17세기 영남지역 문과급제자의 관직 진출	168
1) 문과급제자의 초직	168
2) 문과급제자의 승육	173
3) 문과급제자의 당상관 진출	179
3. 18~19세기 영남지역 문과급제자의 관직 진출	182
1) 문과급제자의 초직	182
2) 문과급제자의 승육	187
3) 문과급제자의 당상관 진출	190
4) 문과급제자의 최고관직	194
VI. 맺음말	201
참고문헌	207
영문초록	220

표 목차

<표Ⅱ-1> 식년시 초시 선발 인원 수	9
<표Ⅱ-2> 비정기시 종류와 시행방법	13
<표Ⅱ-3> 알성시 응시자 수	13
<표Ⅱ-4> 정시 응시자 수	14
<표Ⅱ-5> 조선시대 문과 시행 횟수	17
<표Ⅱ-6> 시기별 비정기시 실행 횟수	19
<표Ⅱ-7> 왕대별 문과 시행간격	20
<표Ⅱ-8> 영남 급제자가 포함된 문과 횟수	21
<표Ⅱ-9> 영남 급제자 포함된 비정기시 비율	23
<표Ⅱ-10> 비정기시 영남지역 급제자 왕대별 평균 간격	26
<표Ⅱ-11> 영남지역 급제자 수	28
<표Ⅱ-12> 영남지역 문과급제자 수 비교	29
<표Ⅱ-13> 왕대별 평균 급제자 수	32
<표Ⅱ-14> 각 도별 인구 수와 원전 결수	36
<표Ⅲ-1> 영남지역 문과급제자의 시기별 전력	40
<표Ⅲ-2> 영남지역 문과급제자의 왕대별 전력	40
<표Ⅲ-3> 관직관품자의 품계별 분포	42
<표Ⅲ-4> 영남지역 관직관품자의 관직과 인원 수	43
<표Ⅲ-5> 영남지역 급제자의 시험별 전력 분포	47
<표Ⅲ-6> 영남지역 관직관품별 참여 시험 유형	48
<표Ⅲ-7> 영남지역 문과급제자 배출지역과 인원	51
<표Ⅲ-8> 영남지역 군현 크기에 따른 문과급제자 현황	52
<표Ⅲ-9> 영남지역 군현 경제적 기반과 급제자 현황	54
<표Ⅲ-10> 영남지역 급제자의 성관	57
<표Ⅲ-11> 급제자 수에 따른 성관 비교	59
<표Ⅲ-12> 영남지역 문과급제자의 시기별 성관 분포	60
<표Ⅲ-13> 시기별 영남지역 문과급제자 배출 성관	62
<표Ⅲ-14> 영남지역 안동권씨 파별 문과급제자	64
<표Ⅲ-15> 안동권씨 복야공파 문과급제자	65

<표Ⅲ-16> 영남지역 진주강씨 파별 문과급제자	67
<표Ⅳ-1> 15세기 문과에 급제한 김종직 문인	74
<표Ⅳ-2> 16세기 문과에 급제한 이황 외 12인 문인	79
<표Ⅳ-3> 16세기 시기별 문인 급제자 수	82
<표Ⅳ-4> 17세기 문과에 급제한 이현일 외 7인의 문인	87
<표Ⅳ-5> 17세기 시기별 문인 급제자 수	89
<표Ⅳ-6> 16세기(중종~광해군) 영남 문과급제자 성관	91
<표Ⅳ-7> 17세기(인조~숙종) 영남 문과급제자 성관	93
<표Ⅳ-8> 16~17세기 거주지별 급제성관	95
<표Ⅳ-9> 15~18세기 영남지역 문과급제자 수의 변화	104
<표Ⅳ-10> 조선 후기 영남지역 왕대별 평균급제 인원	110
<표Ⅳ-11> 영조~고종 문과에 급제한 문인 수	118
<표Ⅳ-12> 영남지역 시기별 문인 급제자 수	120
<표Ⅳ-13> 순조~고종시기 영남지역 문과급제자 성관 수	122
<표Ⅳ-14> 19세기 거주지별 급제성관	124
<표Ⅳ-15> 16~18세기 영남지역 문과급제자 수의 변화	140
<표Ⅳ-16> 영남에 건립된 노론계 서원과 원우 현황	141
<표Ⅳ-17> 양송 문묘종사 운동에 참여한 영남지역 문과급제자	144
<표Ⅳ-18> 양송 문묘종사 운동에 참여한 영남 출신 인물	145
<표Ⅴ-1> 시기별 영남지역 문과급제자의 연령	160
<표Ⅴ-2> 왕대별 영남지역 급제자 평균연령	161
<표Ⅴ-3> 영남지역 급제자 분관인원	165
<표Ⅴ-4> 16~17세기 영남지역 급제자 초직 평균연령 · 기간	169
<표Ⅴ-5> 16~17세기 영남지역 급제자 초직 인원	170
<표Ⅴ-6> 16~17세기 영남지역 검열 · 주서 임명자 수	173
<표Ⅴ-7> 16~17세기 영남지역 급제자 승육 평균연령 · 기간	174
<표Ⅴ-8> 16~17세기 영남지역 급제자 승육 관직 인원	176
<표Ⅴ-9> 16~17세기 영남지역 홍문관 관직 임명자 수	177
<표Ⅴ-10> 16~17세기 영남지역 급제자 당상관 평균연령 · 기간	180
<표Ⅴ-11> 16~17세기 영남지역 급제자 당상관직 인원 수	181
<표Ⅴ-12> 18~19세기 영남지역 급제자 초직 평균연령 · 기간	182
<표Ⅴ-13> 18~19세기 영남지역 급제자 초직 인원 수	184

<표 V-14>	18~19세기 영남지역 검열·주서 임명자 수	185
<표 V-15>	18~19세기 영남지역 급제자 승육 평균연령·기간	188
<표 V-16>	18~19세기 영남지역 급제자 승육 관직 인원	188
<표 V-17>	18~19세기 영남지역 홍문관 관직 임명자 수	189
<표 V-18>	18~19세기 영남지역 급제자 당상관 평균연령·기간	191
<표 V-19>	18~19세기 영남지역 급제자 당상관직 인원 수	192
<표 V-20>	영남지역 문과급제자 최고관직 품계별 인원	194
<표 V-21>	영남지역 문과급제자 당상관 최고관직	195
<표 V-22>	영남지역 문과급제자 참상관 최고관직	196
<표 V-23>	영남지역 문과급제자 참하관 최고관직	197

그림 목차

<그래프Ⅱ-1> 시기별 영남지역 급제자가 배출 양상	22
<그래프Ⅱ-2> 시기별 영남급제자 인원 수	31
<그래프Ⅱ-3> 시기별 각 도 급제인원	34
<그래프Ⅲ-1> 영남지역 생원, 진사, 유학의 급제 추이	46
<그래프Ⅲ-2> 안동권씨 문과급제자 추이	64
<그래프Ⅲ-3> 진주강씨 문과급제자 추이	67
<가계도Ⅳ-1> 안동 안동권씨 가계도	98
<가계도Ⅳ-2> 상주 진주강씨 가계도	100
<가계도Ⅳ-3> 현풍·대구 현풍곽씨 가계도	101
<가계도Ⅳ-4> 예안 진성이씨 가계도 (계양-식-황-준-안도계 일부)	126
<가계도Ⅳ-5> 예안 진성이씨 가계도 (계양-식-황-준-순도계 일부)	127
<가계도Ⅳ-6> 예안 진성이씨 가계도 (계양-식-황-준-영도계 일부)	128
<가계도Ⅳ-7> 안동 진주강씨 가계도	129
<가계도Ⅳ-8> 단성 안동권씨 가계도	131
<가계도Ⅳ-9> 경주 여주이씨 가계도	132
<가계도Ⅳ-10> 인동 인동장씨 세계도 (현광-응일-옥계 일부)	134
<가계도Ⅳ-11> 인동 인동장씨 세계도 (현광-응일-영계 일부)	134
<가계도Ⅳ-12> 안동 의성김씨 가계도 (진-성일계 일부)	135
<가계도Ⅳ-13> 안동 의성김씨 가계도 (희삼-우굉계 일부)	136
<가계도Ⅳ-14> 신출노론 덕수이씨 세계도	149
<가계도Ⅳ-15> 신출노론 진주강씨 가계도	151
<가계도Ⅳ-16> 신출노론 평산신씨 세계도	152
<가계도Ⅳ-17> 신출노론 순흥안씨 세계도	153
<그래프Ⅴ-1> 시기별 영남지역 최고관직	198

I. 머리말

1. 문제 제기

‘嶺南’이라는 용어는 경상도 지역을 의미하며, 고려 성종 14년(995) 尙州牧 所管地를 嶺南道, 慶州 所管地를 嶺東道, 晉州牧 所管地를 山南道라 호칭한 데서 처음 등장한다. 그러므로 성종 당시에 영남이라는 용어는 조령이남 상주목 소관지만을 대상으로 일컬었지만, 차츰 경상도를 지칭하는 대명사로 변하였다.¹⁾ 하지만 ‘영남’이라는 용어가 단순히 지역적 분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옛날부터 ‘조선 인재의 반은 영남’·‘인재의 곳간’이란 말에서 알 수 있듯이,²⁾ 영남은 조선시대 많은 인물들이 배출되었으며, 8도중 田民과 郡縣의 數가 가장 많고, 물산도 풍부하여 재지사족이 성장하기 유리한 지역이었다.

영남의 재지사족은 주자학을 수용·보급하였다. 고려 말 주자학을 처음 수용한 安珦은 영주 출신이었으며, 15세기 후반~16세기 전반 鄭夢周-吉再-金宗直의 학통을 계승한 영남의 신진사류들이 중앙정계에 진출하면서 ‘영남사림파’라 불린다.³⁾ 이처럼 영남 사림의 정치세력화는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앞서고 있었다. 16세기 말이 되면 붕당에 의해 퇴계학과와 남명학과가 서로 대립하였고, 그 후 퇴계학과를 중심으로 영남 남인세력이 성장한다. 영남은 지역적으로 경상도 지역이며, 정치적으로는 남인 세력의 중심지이다. 이에 따라 문과를 통해 중앙 정계에 진출한 영남 급제자의 기본적인 수치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영남지역 문과급제자를 연구해야 되는 이유는 첫째, 영남지역의 문과급제자의 전체적인 양상을 살필 수 있다. 영남의 경우 전체 문과급제자 수가 서울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급제자에 대한 연구가 일부 가문이나 전체 급제자 수를 제시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는 문과가 조선후기가 되면 특정 성관의 급제자가 증가하고, 노론의 권력을 재생산하는데 이용되었다는 견해가 반영되어 그동안 각 지역별 문과급제자의 구체적인 실상이 주목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영남 급제자의 수치를 실증적으로 밝혀 시기별 영남 출신 인물의 문과 급제 추이를 제시하고자 한다.

1) 이수진, 『영남사림파의 형성』, 영남대학교출판부, 1979.

2) 이중환 저, 이익성 역, 『택리지』, 을유문화사, 2012.

3) 이수진, 『영남사림파의 형성』, 영남대학교출판부, 1979.

둘째, 정치적 변동에 따른 영남인의 성장과 쇠퇴를 살필 수 있다. 15세기에는 사림파의 중앙 정계 진출, 16~17세기에는 붕당의 성립과 복인 정권의 몰락, 18세기에는 노론의 집권과 무신란 등으로 인해 영남인은 정치적으로 浮沈을 겪었다. 그러므로 각 시기별 영남지역 문과급제자를 분석함으로써 영남인의 관직 진출 양상을 파악할 수 있다. 더불어 세도정치와 대원군 집권기의 영남 급제자를 분석하여 조선 중·후기 영남인의 정치적 변화를 정리할 수 있다.

셋째, 영남지역 문과급제자의 삼관 분관·승·당상관 진출 등 관직 진출 연구를 통해 영남의 정치적 소외 현상의 양상을 밝힐 수 있다. 갑술환국 이후 영남지역이 정치적으로 소외되었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본고에서는 영남인의 문과급제와 관직 진출을 통해 정치적 소외가 문과급제와 관직 진출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2. 연구 현황

조선시대 영남지역 정치집단에 대한 연구는 영남사림파의 분석에서 시작되었다. 이수건은 15세기 영남지역에서 관직에 진출한 인물의 사회·경제적 기반을 분석하여 영남사림파는 중소지주로서 金宗直의 영향을 받았다고 파악하였다.⁴⁾ 이수건 외에도 설석규와 정진영은 상소를 통한 영남지역 공론정치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⁵⁾

이수건은 1565년(명종 20), 1611년(광해 3), 1621년(광해 13), 1650년(효종 1), 1660년(현종 1), 1788년(정조 12), 1792년(정조 16), 1855년(철종 6), 1871년(고종 8), 1875년(고종 12) 등 10번에 걸친 영남의 儒疏 참여 인원을 분석하여, 조선후기가 될수록 상소에 참여 인원이 증가하지만 이들이 향촌사회의 대표보다는 특정 문종의 주요 인물이라는 사실을 강조하였다.⁶⁾ 이 연구는 16~17세기에 중앙 정계에 진출하여 정국을 운영했던 영남사림파가 17세기 후반~18세

4) 이수건, 『영남사림파의 형성』, 영남대학교출판부, 1979; 이수건, 『영남학파의 형성과 전개』, 일조각, 1995.

5) 선조대 이후 사림을 중심으로 정국운영이 확립되자 유생들이 정치의 주체가 되었으며 언관들의 在朝言論과는 별도로 유생이 주축이 된 在野言論이 형성되었다. 유생에 의해 주도된 공론은 정치세력간의 상호 공존과 견제를 지향하는 붕당정치에서 더욱 부각되었다. 이후 정치적 명분확보를 위해 치열하게 공론대결이 발생하였다 (김돈, 『조선전기 군신권력관계연구』, 서울대출판부, 1997; 설석규, 『조선시대 유생상소와 공론정치』, 선인, 2002).

6) 이수건, 「정조조의 영남만인소」, 『교남사학』 1, 1985; 이수건, 「조선후기 영남만인소에 대하여」, 『이병도박사구술기념한국사학논총』, 1987.

기가 되면 점차 재야 세력이 되는 상황을 잘 보여준다. 갑술환국(1694년)으로 노론의 일당 집권이 강화되면서 남인은 정계에서 완전히 배제되었으며 특히 무신란(1728년)으로 그 영향력이 급격히 감소했다.⁷⁾ 그럼에도 불구하고 18세기 이후 영남 남인이 정치적으로 완전히 몰락하지 않았는데 이러한 변화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였다.

조선후기 영남 만인소의 성격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었다. 설석규는 18세기 지역 유생들의 상소가 증가하자 영조가 謹悉제도를 통해 이를 통제하고자 하였고 이에 대한 반동으로 ‘만인소’라는 형태가 발전하였다고 보았다.⁸⁾ 정진영은 19세기 후반에 흥선대원군과 영남 남인과의 제휴가 만인소로 나타났다고 보았다.⁹⁾

영남 남인은 조선시대 정치적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자신들의 의견을 개진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정치적 변화와 영남 문과급제자간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연구가 진행되지 못하였다. 이는 조선후기가 되면 문과가 노론세력의 권력을 재생산하는 수단이 되었다는 선입견이 작용했기 때문인 듯하다. 지역을 대상으로 문과급제자에 대한 연구는 몇 편이 있지만¹⁰⁾ 지역 간의 비교 또는 특성을 파악하기에는 부족하다.

정치사적 측면에서 문과급제자를 분석한 연구는 성대경, 남지대, 차장섭, 이원명 등이 있는데 주로 서울 중심으로 문과급제자를 분석하였다. 특히 『文科榜目』에 기록된 성관·거주지 등을 활용하였다. 성대경은 『文科榜目』에 기재된 문과급제자의 거주지와 성씨를 분석하여, 흥선대원군이 자기의 세력을 확대하기 위해 왕실 종친과 인척을 대상으로 새로운 별시를 시행하였다고 주장하였다.¹¹⁾ 남지대는 정조대에서 철종대까지의 2천7백여 명의 문과급제자의 거주지와 성관을 살펴보고 18~19세기 정치세력에 대해 분석하였다. 식년시에는 지방 거주 유생이, 별시는 서울 거주 지배층이 주로 급제하여 문과를 통해 양

7) 이태진, 「18세기 남인의 정치적 쇠퇴와 영남지방」, 『민족문화논총』 11, 1990.

8) 설석규, 「16~18세기의 유소와 공론정치」, 경북대 박사학위논문, 1995.

9) 정진영, 「19세기 후반 영남유림의 정치적 동향」, 『지역과 역사』 4, 1997.

10) 정훈, 「조선시대 남원 지역 문과급제자에 대한 고찰」, 『전북사학』 29, 2006; 박노석, 「조선시대 전주출신의 문과급제자 현황」, 『전북사학』 30, 2007; 이규복, 「조선시대 제주지역 문과 운영과 급제자 실태 분석」, 제주대 석사학위논문, 2011; 김두현, 「조선시대 울산·언양 지역 과거 합격자 배출양상과 및 과거 시험의 개방성」, 『교육사학연구』 26, 2016; 김두현, 「조선시대 수원 지역 과거 합격자 과목별 배출 양상과 시기별 추이 분석」, 『교육사학연구』 28, 2018.

11) 성대경, 「대원군 정권 성격 연구」, 성균관대 박사학위논문, 1985.

반의 권력이 재생산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성관에 대해서도 문과급제자를 많이 배출한 성관의 서울 집중도가 시간이 갈수록 심화되어 결국 18~19세기에 서울에 거주하는 ‘유력한 큰 성관’이 정치세력으로 형성되었다고 하였다.¹²⁾ 이 주장은 이후 후학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다. 차장섭은 조선전기까지 검토시기를 확대하여 15~19세기 문과급제자의 前歷·연령·성관 등을 분석하여 조선 전 시기에 걸친 지배계층의 변화를 살폈다. 전체적으로 전주이씨·평산신씨를 포함한 6종의 성관에서 계속 문과급제자가 배출되었고, 후기에는 노론계열의 성관 급제자가 증가하였고, 남인 성관은 영조 이후 문과급제자를 배출하지 못하였다고 파악하였다.¹³⁾ 이원명은 생원·진사시와 문과에 급제한 주요 성관과 소수 성관을 분석하여 서울을 중심으로 京華士族이 등장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게 된 이유를 조선후기 왕실의 친·인척에 의한 과거제도의 문란으로 파악하였다.¹⁴⁾

이상의 연구는 공통적으로 조선후기에 이룰수록 특정 성관을 중심으로 문과급제자가 배출되었는데, 이들은 주로 서울에 거주하는 노론세력이라 하였다. 하지만 조정에서도 서울 집중 현상을 인식하고 지방의 유생들을 등용하였다. 특히 영조와 정조대는 탕평책이 시행되면서 영남을 비롯한 평안도의 급제자 비중이 증가하였다. 그리고 순조부터 철종대까지 문과의 설행을 통제하여 외적인 안정을 유지하였으며, 고종대는 응시를 제한하던 요소를 해소하여 응시 인원이 급증하고 直赴殿試者의 서울 편중 현상도 완화되었다.¹⁵⁾ 즉 조선후기가 되면 문과에 지역유생이 많이 문과에 급제하였다.

그렇지만 『문과방목』의 분석대상 중 하나인 성관 집단이 과연 정당한 기준인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루어졌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문과급제자가 특정 성관에 의해 독점되고 있다고 하였으나 성관 집단은 다양한 집단이 포함되어 있으며 전체적으로 강고한 조직 결합이 아니었다. 미야지마 히로시는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조선시대 인물을 기준으로 그 후손 중 다수의 급제자가 나타난 문중을 단위로 문과급제자를 분석해야 된다고 주장하였다.¹⁶⁾ 이러한 미야

12) 남지대, 「중앙정치세력의 형성구조」, 『조선정치사』상, 청년사, 1990.

13) 차장섭, 「조선전기 문과급제자의 성분」, 『조선사연구』 3, 1994; 차장섭, 「조선후기 문과급제자의 성분」, 『대구사학』 47, 1994.

14) 이원명, 『조선시대 문과급제자 연구』, 국학자료원, 2004.

15) 박현순, 『조선 후기의 과거』, 소명출판, 2014.

16) 미야지마 히로시, 「조선 후기 지배 계층의 재생산 구조: 비교 연구를 위한 초보적 탐구」, 『한국사학보』32, 2008.

지마의 주장은 문과급제자 분석 단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한편 문과급제자와 정국 운영 세력의 성격을 이해하기 위해 문과급제자의 관직 진출을 다룬 연구도 진행되었다. 박홍갑의 경우 문과급제자의 관직 진출 양상과 그 성격을 연구하였다. 그는 『經國大典』의 조문에 문과에 급제했다는 사실만으로 고위·핵심관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이미 부여되었고 초직 제수부터 빠르게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어 있었다고 주장하였다.¹⁷⁾ 김창현은 초직의 임용, 승진 등을 중심으로 문과의 실제 운영을 살펴보았다. 이에 의하면 법제적으로는 양인의 문과 응시에 제한이 없었지만 실제로 문과급제자의 대다수가 양반층의 자제였고, 고위 관료 자제의 경우 초직이나 진출상의 특혜가 주어진 것으로 파악하였다. 결국 문과는 개인의 능력에 바탕을 둔 개방적 성격을 가지고 있었지만 현실적으로 문과를 통해 신분 상승이나 계층 간의 이동보다는 양반계층의 권력을 재생산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었다고 파악하였다.¹⁸⁾ 남지대는 17세기부터 19세기까지 『都堂錄』 입록자를 분석하여 정국 주도 세력에 의해 청요직 임명이 운영되었다는 것을 밝혔다. 이를 통해 청요직의 임명과 당색과의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¹⁹⁾ 하지만 문과급제자의 관직 진출에 대한 연구는 주로 시기적으로 17~19세기에 집중되어 있었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문과가 서울 중심의 특정 성관이 권력을 재생산 한다는 인식에 의해 각 지역별 문과급제자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지 못하였다. 특히 영남지역은 서울 다음으로 많은 급제인원이 배출되었고 사림파를 비롯하여 남인의 중심지임에도 불구하고 문과급제자에 대한 연구가 전무하였다. 또한 연구의 대상이 문과방목에 기록된 성관, 거주지를 분석하였지만 정치적 변동에 따른 급제자의 변화와 가문별 급제자의 변동은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본고에서는 다음과 같이 연구를 진행시키겠다.

3. 연구 방향

영남지역 문과급제자에 대한 연구를 위해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시키겠다.

17) 박홍갑, 「조선초기 문과급제자의 분관과 진출」, 『사학연구』 50, 1995.

18) 김창현, 『조선초기 문과급제자 연구』, 일조각, 1999.

19) 남지대, 「조선후기의 당쟁과 청요직」, 『조선후기 당쟁의 종합적 검토』,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제Ⅱ장에서는 영남지역 문과급제자의 시기별 인원 수 추이를 살펴보겠다. 이를 위해서 먼저

조선시대 문과의 설행과 급제자 수를 제시하고자 한다. 문과의 시행 횟수와 인원은 연구자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重試와 재급제자에 대한 인원 포함 여부가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重試와 削榜·罷榜의 경우 분석대상에서 제외시켰으며 재급제자의 경우 한 명으로 인식하고 정리하였다. 이 수치를 바탕으로 영남지역 문과급제자가 참여한 시험의 종류와 급제 간격, 급제자 수의 추이 등을 살펴 조선시대 영남이 가지는 정치적 위치를 확인하겠다.

제Ⅲ장에서는 영남 급제자의 출신 배경을 정리·비교하였다. 이를 위해 방목에 기록되어 있는 영남 문과급제자의 전력, 거주지, 성관 등을 분석하겠다. 전력은 급제자가 시험을 볼 당시 본인의 지위를 나타내며, 크게 官職官品者와 未仕者로 분류한다. 또한 급제자가 많이 배출된 성관을 살펴보고 각 거주지와 성관과의 관계를 도출하겠다.

제Ⅳ장에서는 앞서 분석한 성관을 토대로 문과급제자가 많이 배출된 가문의 배출 양상을 분석하고자 한다. 시기별 영남지역 급제자 가문의 변화를 영남사림과의 중앙정계 진출과 성장이 이루어졌던 16~17세기와 영남의 정치적 영향력이 감소하였던 18~19세기로 구분하여 정치적 변동에 따른 급제자 추이를 제시하도록 하겠다. 또한 단순히 가계만을 제시하지 않고 『문인록』을 활용하여 문인집단과 문과급제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겠다.

제Ⅴ장에서는 영남 문과급제자의 관직 임명을 살펴보겠다. 크게 문과급제와 분관·초직·승육·당상관에 승진하는 단계로 분류하고 16~17세기와 18~19세기 영남인의 관직진출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각 단계별 주요 관직에 승진하기 전에 임명되었던 예문관 검열이나 홍문관 관직의 임명자 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정치적 변동에 따른 영남 남인의 정치적 소외 여부를 밝히겠다.

이를 위해 본고는 규장각에서 소장하고 있는 『國朝文科榜目』을 활용하여 문과급제자의 구체적 수치를 확인하였다. 하지만 문과방목은 18세기가 되면 방목의 형식이 무너지면서 거주지가 기록되지 않고 단지 아버지의 성명만 적힌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문과방목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에 따라 급제자의 수치의 차이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國朝文科榜目』뿐만 아니라 규장각에서 보관하고 있는 『嶠南科榜錄』과 비교하여 영남의 인물을 구분하였다. 『嶠南科榜錄』은 1938년 간행되었으며 1392부터 1906년까지 영남

지역 문·무과 및 생원·진사시의 합격자를 모아놓은 고서이다. 또한 『경북인물사전』과 같은 사전류는 물론 금석문과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작성한 한국역대인물 종합정보시스템과 같은 데이터베이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영남지역 급제자의 거주지와 출신 배경을 확인하였다. 또한 정치적 변동과 급제자 가문의 변화를 살피기 위해 『朝鮮王朝實錄』·『承政院日記』등과 같은 관찬사료, 『經國大典』·『續大典』과 같은 법전류는 물론 개인의 일기·간찰·고문서·문집 등을 사용하고 문인집단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25개의 『及門錄』을 모아놓은 柳鐸一의 연구와 다른 학자들의 논문을 확인하였다.²⁰⁾

20) 유탁일, 『영남지성사우 급문록집성』, 양민서고, 2005; 송웅섭, 「김종직 문인 그룹 형성 무대로서의 서울」, 『서울학연구』 31, 2008; 이수건, 「서애 유성룡의 학문과 학맥」, 『퇴계학과 유교문화』 23, 1995; 김형수, 「17세기 초 월천학단과 예안지역사회의 재건」, 『민족문화연구』 65, 2014.

II. 문과의 시행과 영남인의 참여

1. 문과의 종류

조선시대는 양반관료제사회로 인식된다.¹⁾ 고려시대는 소수 門閥을 중심으로 특권을 유지했던 사회라면, 조선시대는 양반층을 중심으로 관료가 임명되고 이들에 의해 국가가 운영되는 사회였다. 국가 운영의 주체인 양반은 크게 서울에 거주하는 在京兩班과 지방에 거주하는 在地兩班으로 나뉜다. 재경양반은 양반층 중 명문가로 고위 관직자가 많았다. 재지양반은 직계 조상 중 문과나 무과 합격자가 있었으며 조상의 제사, 손님 접대, 학문에 힘쓰는 등 양반의 생활양식을 보존하였다.²⁾ 재경양반과 재지양반은 관직 취득을 통해 자신들의 권위를 유지하고 정계에 참여하였다.

관료가 되는 방법에는 크게 과거와 門蔭, 薦擧가 있었다. 천거는 인재를 추천하는 것으로, 유교를 보급하고 인재를 널리 등용하기 위해 중종대에 활발히 실시되었다.³⁾ 많은 인원이 이 혜택을 입었지만 승진에는 현실적인 제약요소가 있었다. 문음은 아버지나 할아버지의 공훈 또는 문벌의 은덕에 의해 품계를 받거나 관직에 진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조선 초기에 음관들은 승진에 큰 제약이 없었으나 사림파의 성장으로 인해 정계에서 배척을 당하게 되고 청요직 문관전임제가 명문화 되면서 관료적 지위가 약화되었다.⁴⁾

이 연구의 중심주제가 되는 과거는 시험을 통해 관리를 등용하는 제도로 크게 문과, 무과, 잡과로 나뉜다. 그 중 조선사회는 문치주의적 성향이 강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문과가 중시되었다. 양반들은 문과에 참여하여 지속적으로 관료를 배출하고 자신들의 권위를 유지시키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문과는 생원·진사시와 구분하여 大科 또는 관용적으로는 東堂試라 불렸으며⁵⁾ 크게 정기시와 비정기시로 나눌 수 있다.

1) 한우근, 「양반관료국가의 성립」, 『한국사』 9, 국사편찬위원회, 1974, 1~13쪽.

2) 미야지마 히로시, 『양반』, 너머북스, 2014, 31~37쪽.

3) 정구선, 『조선시대 천거제 연구』, 초록배, 1995, 100~101쪽.

4) 임민혁, 『조선시대 음관연구』, 한성대학교 출판부, 2002, 107쪽.

5) 동당시는 과거의 본시험을 의미하며 동당은 궁중 안에서 국왕이 친시하는 곳을 의미한다. 고려시대 간헐적으로 이 용어가 쓰였다. 조선시대에는 문과초시를 동당초시, 문과방목을 동당방목이라 부르기도 하였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1991).

1) 정기시

정기시는 식년시로 3년마다 즉 式年인 子·午·卯·酉년에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시험이다. 다른 명칭으로 大比科라 한다.⁶⁾ 초시·복시·전시 등 3단계 시험이 있고, 초시와 복시는 초장·중장·종장으로 나뉘는데 이를 동당삼장이라 하였다. 식년시의 초시는 전년 가을에, 복시와 전시는 식년 봄에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이 때문에 春場試 또는 春場榜이라 부르기도 한다.⁷⁾

초시는 성균관 유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館試, 서울지역 유생들을 대상으로 한 한성시, 서울 이외 지역의 유생들을 대상으로 한 향시가 있었으며 각 지역별로 급제인원이 명문화되었다.⁸⁾ 식년시 초시에 배정된 지역별 급제인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Ⅱ-1> 식년시 초시 선발 인원 수

과명	관시	한성시	향시								계
			경기	충청	전라	경상	강원	평안	황해	함경	
인원	50	40	20	25	25	30	15	15	10	10	240

위 <표Ⅱ-1>을 보면 館試에 배정된 숫자가 가장 많은데 국가에서 키운 인물들을 관료로 등용하기 위해서였다. 한성시의 경우 館試 다음으로 가장 많은 인원이 배정되었다. 경기도 초시는 시행에 많은 우여곡절이 많았다. 태종대는 예조에서 시험 규정을 정하며 경기는 원래 서울의 직속이라는 이유로 경기도 유생들은 경기 향시가 아닌 한성시를 치르게 하였다.⁹⁾ 하지만 『경국대전』이 편찬되면서 경기 향시가 제도화되었다가 영조대 편찬된 『속대전』에서는 폐지된다.¹⁰⁾ 경기지역이 서울과 근접했다는 지리적 상황, 기호학과와 근기남인의

6) 『경국대전』 「예전」 諸科, “三年一試 前秋初試春初覆試殿試 文科則通訓以下(武科同) 生員進士 則通德以下許赴 守令則勿許赴生員進士試”; 『속대전』 「예전」 諸科, “式年三年一試 爲大比之科 今以子午卯酉年設行 名曰式年”

7) 문과방목에서 식년시를 춘장방, 춘방이라 하였으며 식년방이라 쓰인 것은 태종17년 ‘丁酉十七年式年榜’이 처음이다. 또한 1450년(문종0)에 식년시는 추장방이라 기록하였는데 1449년 가뭄이 심하여 다음 해 봄에 있을 시험을 가을로 옮겨 시행하였기 때문이다. 이후 증광시와 겹치거나 농사일 등의 이유로 시험을 가을로 미루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였다 (『세종실록』 125권, 세종 31년 7월 18일 병신).

8) 『경국대전』 「예전」 諸科.

9) 『태종실록』 33권, 태종 17년 윤5월 14일 기사.

정치적 부침이 경기 초시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¹¹⁾

한성시 다음으로 많은 인원이 배정된 곳은 경상도이다. 조선 초기 경상도는 수전농법이 발전하였고 다른 지역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농업적·경제적으로 선진지역이었다. 이러한 사실은 국가에서 파악하고 있는 전답의 수가 전국에서 첫 번째로, 인구의 수가 두 번째로 많다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영남의 유생들은 학문적·사상적으로 결합을 하여 중앙정계에 진출하였다.¹²⁾ 중앙 관료의 입장에서는 경제적·학문적으로 성장한 경상도 세력을 무시할 수 없었다.

이와 반대로 평안도를 비롯한 서북지역은 상대적으로 적은 인원이 배정되었다. 평안도는 상업적으로 발전한 지역이었으나 士族의 세력이 약하다는 이유로 지역차별을 받고 있었다. 서북 출신 인물은 청직에 들기 어려웠으며¹³⁾ 승문원에 분관 되지 못하였다.¹⁴⁾ 서북지역 유생들의 노력과 중앙 정계의 인식 변화로 조금씩 차별이 완화되었지만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미미한 수준이었다.¹⁵⁾

서울 외에도 각 지역마다 급제 인원을 배정한 것은 당시 지역적 상황이 적용된 것이다. 『경국대전』에서 배정된 선발 인원 수는 약간의 수정을 제외하고는 조선후기까지 계속 유지되었다. 한편 초시에서 240명이 합격하고 서울에서 다시 복시를 쳐서 33명이 선발되었다. 급제자 33명은 마지막으로 時御所에서 전시를 보고 갑과 3명, 을과 7명, 병과 23명으로 등수가 결정된다.¹⁶⁾ 전시는

10) 『속대전』 「예전」 諸科, “鄉試 京畿二十人 今廢 分赴於漢城試一二所”

11) 윤재환, 「근기남인학통의 전개와 성리학의 형성」, 『은지논총』 36, 2013.

12) 이수진, 『영남학파의 형성과 전개』, 일조각, 1995; 김건태, 『조선시대 양반가의 농업경영』, 역사비평사, 2004; 김성우, 『조선시대 경상도의 권력 중심이동』, 태학사, 2012; 정진영, 「농법으로 조선시기 ‘영남의 부침’을 읽다」, 『지방사와 지방문화』 16, 2013.

13) 『승정원일기』 309책, 숙종11년 7월 3일 신유, “又啓曰 德望表異 則不計世類 才華卓異 則不拘常白 固是取人之良規 而新除授掌令楊顯望 雖是西土之人 歷試內外 才望未著 除目之下 物情未允 請命改正 上曰 予非以楊顯望 有特異之才 而即今京外 人才眇然 故抄用西北人者 欲爲聳動之意矣 終至於彈劾 則誠爲過當矣 勿煩 新除授獻納趙宗著 時在京畿廣州地 請斯速乘駟上來 事 下諭 上曰 依啓”

14) 『승정원일기』 1017책, 영조23년 6월 10일 무진, “西北人調用之道 異於他道 而理山人金樾 雲山人白大成 自是其中兩班 昨年分館時 渠恃其家世 不爲上來周旋 而圈點猶有一紅矣 該曹升降之際 不知爲何許人 遂屬芸閣 事甚冤痛 會前如此之類 多有別爲調用之例 今此兩人 亦依國子例調用 似好矣在魯曰 關西人 若係鄉中兩班 則例許國子 卽朝家優待之意也 金樾 本理山鄉族 其父爲五衛將昌洲僉使 渠亦出入儒宮爲齋任 白大成 禮曹佐郎梁聖時之外孫 掌令李慶昌之曾孫瑛也 此兩人之屬於芸閣 宜乎稱冤 依國子例 調用似宜矣 上曰 依爲之”

15) 오수창, 「조선시대 평안도 출신 문신에 대한 차별과 통정」, 『한국문화연구』 15, 2008.

16) 급제자의 석차에 대한 명칭은 시기에 따라 변화가 있는데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급제 결정권을 국왕이 직접 행한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으며 이를 통해 왕권강화를 추구하였다.¹⁷⁾

2) 비정기시

비정기시는 나라의 경사가 있거나, 인재를 널리 등용한다는 명목으로 비정기적으로 시행하는 시험이다.¹⁸⁾ 조선 초기 『경국대전』에서는 식년시와 승진 시험인 重試에 대한 규정만 보였고 실록에서도 증광시와 알성시라는 명칭만 사용되었다.¹⁹⁾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다양한 비정기시 명칭이 등장하며 『속대전』에서는 增廣試, 別試, 庭試, 謁聖試, 春塘臺試 등을 科名으로 규정하였다.²⁰⁾ 하지만 법전에 규정된 시험 외에도 국왕이 친림하여 치른 시험인 親試, 전시 직부 자격을 하사하는 殿講, 節日製, 黃柑製,²¹⁾ 특정 부류를 대상으로 시험을 치는 外方別試·外方正試, 賢良科, 求賢科, 忠良科, 耆老科, 飾喜科, 改試 등이 있었다.

대표적인 비정기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증광시는 태종대 처음 시작되었고 즉위·등극과 같은 국가 또는 왕실 경사가 있을 때 시행되었다. 시행 방식은 대부분 식년시와 같으나 현종 대에 초시에서 館試를 없애고 대신 한성시에 인원을 추가 선발했다는 점이 다르다. 인원도 식년시와 같지만 큰 경사가 있을 때 설행한 대증광시는 40명을 선발하였다.

1393년(태조 2)~1411년(태종 11) 을과·병과·동진사, 1414년(태종 14) 을과 1등·을과 2등·진사·을과 3등·동진사, 1414년(태종 14)~1416년(태종 16) 을과 1등·을과 2등·을과 3등으로 쓰이다가 잠깐 을·병·동진사로 회복한다. 그러나 1438년(세종 20)~1465년(세조 11) 을과·병과·정과로 바뀌고 1460년(세조 6)~1466년(세조 12) 1등·2등·3등으로 쓰이다가 1468년(세조 14) 이후 갑·을·병으로 정착되었다.

17) “본조에서는 비록 지공거의 제도를 폐지하였으나 오히려 문생과 座主의 명칭이 남아서 술을 차려 찾아가 뵈기도 하고, 좌주가 죽으면 그의 집에서나 혹은 行喪하는 길가에서 다 같이 음식을 차려서 제사를 지냈다. 지금은 문생과 좌주가 서로 보기를 胡·越처럼 하여 도리어 서로 배격하니, 이것으로 역시 세상이 변한 것을 알 수 있다.” 위의 글을 통해 보면 신하들이 가지고 있던 인사권을 국왕이 독점하기 시작한 것을 알 수 있다 (『관직전고』, 『국역 연려실기술별집』 9, 한국고전번역원).

18) 정기시인 식년시와 그 외의 시험을 통합한 명칭은 연구하는 학자들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비정기시, 별시, 각종 별시, 또는 『속대전』에 있는 慶科를 이용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시험이 비정기적으로 시행되었다는 공통점이 있어서 여기서는 비정기시로 표현하겠다.

19) 김창현, 『조선초기 문과급제자 연구』, 일조각, 1999, 12쪽.

20) 『속대전』 「예전」 諸科, “增廣國有大慶 或合累慶 則特設增廣試 合慶最多者 名曰大增廣 稍加額數 則竝設文武科及生員進士雜科 而別試因重試對舉及邦慶設行 庭試同 庭試謁聖試春塘臺試 則只設文武科 諸科試 如殿講泮製之直赴殿試 通讀陞補合製之赴大小科覆試者 今竝入科額”

21) 박현순, 『조선 후기의 과거』, 소명출판, 2014, 159~165쪽.

별시는 重試의 對擧, 나라의 경사가 있을 때 시행하였다. 처음에는 일정한 규칙이 없었으나 영조대부터 초시, 전시의 단계가 생겼다. 정시는 원래 성균관과 사학 유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直赴殿試 또는 直赴會試였는데 1583년(선조 16) 정식 과거로 승격되고, 나라의 경사가 있을 때 시행되었다. 조선 전기에는 별시가 많이 실시되었지만 후기에는 정시가 별시를 대체하게 되었고, 慶庭試, 慶科庭試와 같은 다양한 호칭이 쓰이게 된다. 알성시는 국왕이 문묘에 제사를 지낸 후 명륜당에서 유생들을 대상으로 시행하였으며 유교를 진흥시킨다는 목적을 가진 시험이었다. 국왕이 친림하여 거행하였기 때문에 친림시라 불리기도 하였다. 춘당대시는 나라의 경사가 있거나 무과의 對擧로 창경궁 내 춘당대에서 실시한 시험이다. 외방시는 국왕이 지방에 行幸하거나 특정 지역 유생을 위무할 목적으로 실시한 특별시험이다.

현량과는 조광조를 비롯한 사림파가 주도하여 숨은 인재를 발탁한다는 명목으로 중종대에 일시적으로 시행하였다.²²⁾ 영조대에는 현인을 구한다는 뜻에서의 구현과²³⁾, 공신의 자손을 대상으로 한 증량과,²⁴⁾ 60~70세 이상의 유생을 대상으로 한 기로과, 정조의 성장을 축하한다는 뜻에서 식희과²⁵⁾ 등 특별시험이 자주 시행되었다. 改試는 인조대 한 번 시행된 시험으로 광해군대 부정으로 시험이 취소되자 이를 대체하여 임시적으로 시행하였다.

대표적인 비정기시인 증광시, 별시, 정시, 알성시, 춘당대시, 외방시의 특징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22) 현량과에 급제한 인물들을 살펴보면 대다수가 기호지방이며 경상도의 경우 6명이었다. 지방의 시험 응시자는 유향소→수령→관찰사→예조를 통해 천거를 받아 시험에 참여할 수 있었다 (이병휴, 「현량과 급제자의 성분」, 『대구사학』 12·13, 1977, 209~211쪽).

23) 구현과는 1775년(영조 51) 시행된 특별시험으로 전시 시험장을 설치하지 못해 전시는 치루지 않았다. 직부자 趙鎭寬은 특별히 갑과 장원이 되어 승지가 되었다. (『영조실록』 125권, 영조 51년 11월 14일 정해)

24) 증량과는 1764년(영조 40) 현질사와 증렬사에 배향된 사람의 후손이나 명 나라 후에만을 대상으로 치른 시험이다. 이때 金尙容, 金尙憲의 후손들은 과거에 합격하였지만 三學士의 후손들이 합격하지 못해 영조가 안타까워했다. (『영조실록』 103권, 영조 40년 1월 20일 임신; 『영조실록』 103권, 영조 40년 2월 8일 경인)

25) 식희과는 1769년(영조 45) 文孫 즉 정조가 잘 성장한 것[至誠相孚予見文孫]을 축하하기 위해서 치른 시험이다. 원래 삼일제(3월3일)에 시험을 보려고 했으나 신하들의 요구로 2월 10일에 시험을 시행하였다. (『영조실록』 112권, 영조 45년 2월 9일 임신)

<표Ⅱ-2> 비정기시 종류와 시행 방법

분류 과명	첫 실시 년도	시행 방법	선발 인원 수	기타
증광시	1401년(태종 1)	초시→복시→전시	33명	대증광시 40명
별시	1457년(세조 3)	초시→전시	임시품지(臨時稟旨)	초기 단일시 초시 300~600명
정시	1542년(중종 37)	초시→전시	임시품지(臨時稟旨)	초기 단일시
알성시	1414년(태종 14)	단일시	임시품지(臨時稟旨)	
춘당대시	1572년(선조 5)	단일시	임시품지(臨時稟旨)	
외방시	1460년(세조 6)	단일시	정해져 있지 않음	

<표Ⅱ-2>를 보면 정시와 춘당대시가 가장 늦게 시행된 것을 알 수 있다. 성종대 춘당대에 성균관 유생을 불러 시험을 실시한 전통이 있었으며, 선조 5년(1572)에 춘당대시를 시행한 기록이 보인다.²⁶⁾ 정시의 경우 선조 이전에 간헐적으로 시행되다가 선조대에 정식으로 채용된다. 예조에서 한 번의 시험에 4~44명까지 시대적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선발 인원을 정하여 국왕의 허가를 받았다.

증광시를 제외하고 비정기시의 공통적인 특징은 한 번의 시험으로 급제자가 결정되고, 시험 친 날에 바로 합격통보를 받을 수 있다[即日放榜]는 것이다. 게다가 시험 시행의 준비기간이 짧았고 錄名, 相避制 등이 적용되지 않았다. 또한 채점이 쉬운 표나 부가 시험 문제로 많이 제출되어 응시자들의 입장에서는 식년시와 비교했을 때 비정기시를 상대적으로 쉽게 여겼을 것으로 생각된다.

<표Ⅱ-3> 알성시 응시자 수

연도	1477년 (성종 8)	1534년 (중종 29)	1597년 (선조 30)	1610년 (광해군 2)	1632년 (인조 10)	1687년 (숙종 13)	1709년 (숙종 35)
응시자	1,400	6,299	2,000	4,000	1,583	10,000	1,700

26) 『신증동국여지승람』 2권, 「동국여지비고」 1권 경도; 『중종실록』 85권, 중종32년 10월 13일 기미 “前在成廟朝 移御于此關 則不時出自集春門 臨幸于成均館 聚時到儒生 或製述或講經 以施賞格 勸勵振作”

<표Ⅱ-4> 정시 응시자 수

연도	1597년 (선조30)	1638년 (인조16)	1642년 (인조20)	1644년 (인조22)	1648년 (인조26)	1649년 (인조27)	1712년 (숙종38)	1753년 (영조29)	1766년 (영조42)	1771년 (영조47)
응시자	1,978	1,563	2,325	2,755	3,461	2,042	1,700	9,000	12,700	14,670

※ <표Ⅱ-3>과 <표Ⅱ-4>는 박현순의 『조선 후기의 과거』 「17세기 과거 응시자 증가 현상에 대한 고찰」의 <표4~8>을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표Ⅱ-3>과 <표Ⅱ-4>는 비정기시 중 단일시인 알성시와 정시의 응시자 수를 살펴본 것이다. 17세기 전반에는 최대 3,000명~4,000명을 유지하다가 17세기 후반부터 급격히 응시자 수가 증가하기 시작하여 18세기에는 거의 10,000명에 육박하게 된다. 17세기 식년시 초시에서 입문 수 최대가 3,000명이 고 평균 1,500명을 상회한다는 점을 보았을 때 비정기시에 많은 사람들이 응시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²⁷⁾ 비정기시 응시자의 증가는 서얼 허통을 비롯한 과거 응시범위 확대 외에도 군역 충정과 관련된 사족층의 생존권의 문제, 과거 운영의 효율성 증대 등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생각된다.²⁸⁾

응시자 수의 증가는 문과 시행 때 관리가 더욱 어려워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증가한 인원 수에 따라 科場이 확대되어야 했으며, 시험을 치르는 과정에서 부정행위 방법이 개입될 가능성이 많아졌다. 또한 채점이 부실해지면서 예비 관료군의 질이 낮아질 우려도 존재하였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법률로서 과거 부정에 대한 처벌 조항을 적어놓았지만²⁹⁾ 실제로 시험 중에 隨從과 함께 들어가거나 代述·借述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였다.³⁰⁾ 심지어 숙종대 韓舜錫³¹⁾이나 광해군대 許筠처럼 정치세력과 연관되기도 하였으며,³²⁾ 壬辰科獄의

27) ‘숙답에 말하기를, 庭試·謁聖試에서는 맹인도 합격을 기대할 수 있다라 한다. 刻燭으로 시험 보여 뽑히는 자는 거의 모두 경술하고 요행을 바라는 무리이며, 表文의 공허한 말은 더욱 文體에 해가 되며 사람들의 心術을 무너뜨림이 특히 더욱 심하다.’ (『관직전고』, 『국역 연려실기술별집』 9, 한국고전번역원).

28) 배재홍, 「조선 후기 서얼 과거합격자의 성분과 관력」, 『조선사연구』 2, 1993; 이지영, 「조선 후기 서얼의 차대 철폐 운동과 그 지위의 변화」, 한남대 석사학위논문, 2012; 박현순, 『조선 후기의 과거』, 소명출판, 2014.

29) 『숙종실록』 34권, 숙종 26년 2월 17일 임오 기사 “謹按受教輯錄云 科場借述者 代述者帶率隨從者 不錄名闖入者 符同易書用奸者 首倡作亂罷場者 朝官生進 邊遠充軍 永停科舉 幼學降定水軍 永停文武科”

30) 우인수, 「조선 숙종조 과거 부정의 실상과 그 대응책」, 『한국사연구』 130, 2005, 88쪽.

경우에도 시관 李敦이 소론의 세력을 늘리기 위해 私的으로 합격자를 뽑았다고 하여 노론이 강력하게 비판을 하였다.³³⁾ 임진과옥은 노론이 소론을 견제하기 위한 사건으로 과거의 공정성이 당쟁으로 확대될 정도로 중요한 사항이었음을 보여준다.

문과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정에서는 문과 복시 이전 예비 시험인 照訖講이나 답안지를 회수하는 시간에 제한을 두는 등 새로운 제도를 마련하였으며, 효율적으로 응시자들을 평가하기 위해 단일시에서도 초시를 시행하였다. 정시를 예로 들어보면 초기에는 단일시였다. 하지만 앞에서 보듯 17세기 이후 응시자 수가 급증하고 정시의 관리가 어려워지면서 許筠의 代述이나 壬辰科獄과 같은 사건이 발생한다. 결국 영조는 과거의 폐단이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선비들의 습속이 변천해 간다는 명목으로 정시 초시를 시행하고 효율적으로 시험을 관리하고자 하였다.³⁴⁾ 초기에는 초시가 정착되지 못했지만 국왕의 의지로 정시 초시는 계속 시행되었고 또한 조흘강의 시행을 강화하자는 논의도 있었다.³⁵⁾ 1844년(헌종 10)에는 지방유생의 불편을 덜어준다는 의미에서 식년시와 같이 초시로 향시를 시행하였다.³⁶⁾ 초시라는 거름망을 통해 예비 관료군의 질을 높이고 과거의 부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한 것이다.

이상에서 보듯 조선시대 문과는 시대가 갈수록 종류가 세분화되고 그 수도 많아지게 되었다. 이는 법전의 문과 科名과 문과방목에서도 시험명칭이 다양

31) 『숙종실록』 6권, 숙종 3년 7월 3일 무인 “舜錫卽許積孽妹夫也 粗有文藝 而爲人悖惡 與僞造印信賊人金文赫 結黨爲盜 及文赫伏罪 徒黨皆繫獄 而舜錫藉積勢 獨漏網 至仕爲主簿 人莫不憤惋...蓋點子周道赴科時 每借述於舜錫故也 後舜錫被四館停舉 點爲知館事 勒令解罰 館官怵其威 不通四館 潛去罰榜 史官尹義濟等憤之 還付其罰榜”

32) 『광해군일기』 131권, 광해 10년 8월 23일 기묘 “廷弼與筠締結 故去庭試時及今會試初場 筠亦製文給之”

33) 차미희, 「조선 후기 숙종대 임진과옥 연구」, 『민족문화연구』 42, 2005, 273~280쪽.

34) 『영조실록』 57권, 영조 19년 1월 25일 경진, “始行庭試 初試之法 其法 大庭試取千人 小庭試取八百人 咸聚京師 分三所試取 以禮曹漢城府成均館爲試所 嘉善通政各一員及堂下二員 自吏曹備三望受點爲試官 定送臺監一人 以賦表兩題 分半試取 試紙封彌 只書其父名 殿試則設場於時御所殿庭 而試官則自政院擬入 遂罷分考之法 俾盡考試之方 試紙用監試試紙 連三幅封彌 具書四祖 割封查同枝同易書并依東堂例焉 時士習日渝 科弊日甚 上欲矯揉其紛雜之弊 下詢于諸臣 始命行之 行之十數年 仍廢不行”

35) 『정조실록』 54권, 정조 24년 4월 20일 임인, “向日庭試 適當千一大慶 八方觀光 至於十萬其數 場屋紛沓 勢所使然 而或認以科規之稍解 則大非朝家之本意... 監試照訖講 載在大典 此而能修明 則實爲嚴科場之要道”

36) 『헌종실록』 11권, 헌종 10년 12월 11일 계묘, “備局 以庭試初試 分京外試取節目啓 一 庭試初試依增廣式年初試例 分設於京外 而鄉試試所 則以各道監營都聚設行 道臣主試”

해지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그리고 문과를 크게 나누어 보면 3년에 1번씩 시행하는 정기시와 비정기시로 나눌 수 있다. 정기시의 초시는 각 지역의 성세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선발 인원을 배정하였다. 초시 외에도 두 차례 시험을 치러 평가를 엄정히 하고자 하였다. 비정기시의 경우 국가의 경사나 인재를 널리 등용한다는 명목으로 비정기적으로 시험을 실시하고 단 한 번의 시험으로 합격자를 결정하였다. 응시자들의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단일시가 부담이 적었다. 이에 따라 17세기 이후부터는 비정기시 응시자가 급격히 증가하게 되었다. 응시자의 증가로 과거 관리의 어려움이 발생하면서 여러 부정들이 발생하였고 결국 조정에서는 조흘강이나 초시 설치를 통해 부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과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였다.

2. 문과의 시행

조선시대 문과는 관리를 선발하는 기능을 담당하였으며, 공정성의 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1393년(태조 2)~1894년(고종 31) 502년간 총 747회의 시험이 설행되었는데 식년시 외에도 12종의 비정기시가 있었다.³⁷⁾ 이 중 改試는 임시적으로 시행된 시험으로 1618년(광해 10) 식년시와 1621년(광해 13) 별시에서 부정이 있다고 하여 전시를 시행하지 않고 급제자를 발표하지 못하고 있다가 1623년(인조 1)에 이전의 별시를 대체하여 치룬 시험이다.³⁸⁾

조선시대 설행된 문과 횟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³⁹⁾

37) 비정기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증광시, 알성시, 별시, 외방시, 정시, 춘당대시, 친시, 賢良科, 忠良科, 飾喜科, 求賢科, 改試 등이 있었다. 개시는 1618년(광해 10) 식년시와 1621년(광해 13) 별시에서 부정이 있다고 하여 전시를 시행하지 않고 급제자를 발표하지 못하고 있다가 1623년(인조 1)에 이전의 별시를 대체하여 치룬 시험이다.

38) 광해 10년 식년시의 경우 사서삼경 각 한 대문을 강경하는 七大文에서 시험문제가 유출되었다는 주장이 있어서 전시가 시행하지 않았다. 광해 13년 별시의 경우 柳希奮 한 집안에서 다섯 사람이 한꺼번에 합격하자 과거 부정이 있다고 비난하게 되고 결국 放榜을 하지 않았다 (『광해군일기』(중초본) 173권, 광해 14년 1월 25일 갑오).

39) 기타에는 현량과 1회(중종), 구현과 1회(영조), 식회과 1회(영조), 충량과 1회(영조), 탕평정시 1회(영조), 기로정시 5회(영조), 기로정시 1회(철종), 기로응제시 3회(고종) 시행되었다. 탕평정시는 1772년(영조48) 음관 유생을 대상으로 시행하였으며 기로정시는 60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치룬 시험이다.

<표 II -5> 조선시대 문과 시행 횟수

과명 왕대	식년시	비정기시										계	
		증광시	알성시	별시	정시	외방시	춘당대시	친시	개시	기타	소계		
태조	2												2
정종	1												1
태종	6	1	1					1				3	9
세종	10	1	2					5				8	18
문종	1	1										1	2
단종	1	1	1									2	3
세조	5		4	5		4						13	18
예종		1										1	1
성종	8		6	9				2				17	25
연산군	4	1	1	6								8	12
중종	13	1	8	25	1	2		1		1		39	52
명종	7	1	5	8	1			1				16	23
선조	12	5	9	19	8	3	1	1				46	58
광해군	3	5	7	5	4	2						23	26
인조	8	3	6	14	13	4			1			41	49
효종	3	2	3	3	1		2					11	14
현종	5	2		5	5	4	2					18	23
숙종	15	12	11	7	14	7	7					58	73
경종	2	2	1	1	3							7	9
영조	17	8	14	3	50	12	6			9		102	119
정조	8	3	7	3	11	5	1					30	38
순조	12	5	3	3	21	4						36	48
헌종	5	3	1	1	10	1						16	21
철종	4	2	1	1	14	2				1		21	25
고종	11	6	7	9	32	10				3		67	78
계 (%)	163 (21.8)	66 (8.8)	98 (13.1)	127 (17.1)	188 (25.2)	60 (8.0)	19 (2.5)	11 (1.5)	1 (0.1)	14 (1.9)	584 (78.2)	747 (100)	

<표 II -5>에 문과 횟수는 현직관리를 대상으로 시행한 重試와⁴⁰⁾ 인조 4년

40) 重試는 10년에 한번씩 문무관을 대상으로 시행한 시험이다. 또한 비정기적으로 시행한 重試로 登俊試, 拔英試, 進賢試, 擢英試도 수치에서 제외하였다.

별시·현종 9년 정시 등 罷榜한 시험을 제외한 수치이다. 인조 4년 별시는 試官의 아들·손자·조카사위 등이 급제자에 포함되어 ‘子婿弟姪榜’이라 불리기도 하였고, 답안지 제출 시간이 지났는데도 추가로 걷은 것이 문제가 되었다.⁴¹⁾ 현종 9년 정시는 시험문제가 이미 館試에 출제된 것이라는 문제가 제기되자 파방되었다.⁴²⁾ 또한 외방정시, 외방별시, 道科, 永義科를 포함하여 외방시라 설정하였다.⁴³⁾

조선시대 문과는 총 747회가 시행되었다.⁴⁴⁾ 그 중 정기시인 식년시는 163회가 시행되어 전체 문과 시행 횟수 가운데 21.8%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비정기시는 584회가 시행되어 78.2%의 비중을 점하였다. 식년시보다는 종류가 많고 자주 시행되었던 비정기시가 문과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비정기시를 시험별로 살펴보면 증광시 66회로 8.8%, 알성시 98회로 13.1%, 별시 127회로 17.1%, 정시 188회로 25.2%, 외방시 60회로 8.0%, 춘당대시 19회로 2.5%, 친시 11회로 1.5%, 개시와 기타의 경우 15회 2.0%였다. 비정기시 시행 횟수로 보았을 때 정시, 별시, 알성시, 증광시, 외방시, 춘당대시, 친시 순이었다. 식년시를 포함시켜도 정시가 가장 많이 시행된 것을 알 수 있다. 『文科榜目』에 정시라는 과명은 중종대에 처음 등장하였고 조선후기가 될수록 많이 등장하였다. 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정시가 별시를 대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⁴⁵⁾ 별시와 비교했을 때 정시는 시험에 소요되는 일수와 비용이 적게 들었

41) 『국조문과방목』(규장각한국학연구원[奎106]), 「丙寅四年別試榜」.

42) 『국조문과방목』(규장각한국학연구원[奎106]), 「戊申九年庭試榜」.

43) 외방시는 국왕이 친림하거나 중신을 대신 보내 주관한 시험으로 특정 지역민을 대상으로 삼았다. 초기에는 외방별시만 있다가 1624년(인조 2) 이괄의 난을 피해 인조가 공주에서 정시를 시행한 이후부터 1754년(영조 30)까지 외방정시라는 시험명이 사용되었지만 이후부터는 사용되지 않았다. 외방정시와 외방별시를 비교했을 때 확실한 차이는 없지만 외방정시의 경우 국왕이 친림한 경우에만 쓰인 것으로 보인다. 도과의 경우 1838년(현종 4)에 처음 시작되었고 평안도와 함경도에서만 실시되었으며 그 도의 감사가 주 시험관이 되었다. 영의과는 1893년(고종 30) 선조가 피난한 永柔와 義州의 유생을 대상으로 시행한 시험이다.

44) 문과의 시행횟수에 대해서는 연구자들마다 수치가 다르다. 그 이유는 중시의 포함 여부, 증광시와 별시의 구분에 의해 발생한 것이다. 여기서는 문과방목의 시험명과 시험 시행 이유를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세조6년 춘당방의 경우 국립중앙도서관의 『국조방목』에 별시방으로 적혀있는 것을 기준으로 별시로 구분하였다. 이를 기준으로 하면 식년시는 163회, 증광시는 66회, 각종별시는 518회 시행되었다. 김영모는 식년시 162회, 증광시 56회, 각종별시 571회로 보았다 (김영모, 『조선지배층연구』, 일조각, 1977) 송준호와 Wagner는 식년시 163회, 증광시 68회, 각종별시 513회로 나눴고, 차장섭의 경우 식년시 163회, 증광시 59회, 각종별시 523회로 분류하였다. 이원명의 경우 식년시 163회, 증광시 68회, 각종별시 513회로 파악하였다 (이원명, 『조선시대 문과급제자 연구』, 국학자료원, 2004).

다. 별시의 경우 영조대 이후 초시, 전시의 과정이 정립되었지만 정시의 경우에는 초시를 확립시키고자 하였지만 폐기되고 주로 단일시로 시행되었다.⁴⁵⁾

비정기시의 경우 시기별로 자주 시행되는 시험의 종류가 달랐는데 <표Ⅱ-6>과 같다.

<표Ⅱ-6> 시기별 비정기시 실행 횟수

과명 시기	증광시	알성시	별시	정시	외방시	춘당대시	친시	기타	계
15세기	6	14	16		4		8		48
16세기	5	22	53	8	5	1	3	1	98
17세기	21	24	34	35	13	8		1	136
18세기	18	26	9	68	21	10		9	161
19세기	16	12	15	77	17			4	141
계	66	98	127	188	60	19	11	15	584

*14세기는 비정기시가 없어서 표에서 제외시켰다.

<표Ⅱ-6>에서 보듯 비정기시는 15세기 이후부터 꾸준히 시행되고 있었다. 특히 18세기에는 가장 많은 비정기시가 실행되었는데 정시의 증가가 영향을 미쳤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조선 초기인 15·16세기에는 별시가 자주 시행되었지만, 17세기에는 증광시, 별시, 정시가, 18세기에는 정시와 춘당대시가, 19세기에는 정시가 자주 시행되었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18세기에 정시가 별시, 증광시를 대체하였고 19세기에는 춘당대시를 대체하며 정시가 조선후기에 대표적인 비정기시가 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외방시도 시기가 지날수록 증가하였는데 외방시를 통해 지방민들의 불만을 감소시켰을 것으로 추측된다.

<표Ⅱ-5>에 의하면 영조가 119회로 국왕 중 가장 많이 문과를 시행하였고 80~70회 문과를 시행한 국왕은 고종, 순종이고 60~50회는 선조, 중종이고 50~40회는 인조, 순조이며 나머지 국왕들은 20회 이하의 문과를 시행했다.

문과 시행간격을 살펴보면 태조에서 고종까지 502년간 식년시는 163회로 평균 3.1년, 비정기시는 584회로 평균 0.9년이었다. 정기시와 비정기시를 합치면 평균 0.7년마다 문과가 시행되고 있었다. 문과의 시행기간을 왕대별로 살펴보면 <표Ⅱ-7>과 같다.

45) 박현순, 『조선 후기의 과거』, 소명출판, 2014, 58쪽.

46) 『영조실록』 57권, 영조 19년 1월 25일 경진.

<표 II -7> 왕대별 문과 시행간격

왕대 분류	태조	정종	태종	세종	문종	단종	세조	예종	성종	연산	중종	명종	선조
정기시	3.0	2.0	3.0	3.2	2.0	3.0	2.6		3.1	3.0	2.9	3.1	3.4
비정기시			6.0	4.0	2.0	1.5	1.0	1.0	1.5	1.5	1.0	1.4	0.9
문과	3.0	2.0	2.0	1.8	1.0	1.0	0.7	1.0	1.0	1.0	0.7	1.0	0.7

왕대 분류	광해	인조	효종	현종	숙종	경종	영조	정조	순조	헌종	철종	고종	평균
정기시	5.0	3.3	3.3	3.0	3.1	2.0	3.1	3.0	2.8	3.0	3.5	2.8	3.1
비정기시	0.7	0.6	0.9	0.8	0.8	0.6	0.5	0.8	0.9	0.9	0.7	0.5	0.9
문과	0.6	0.5	0.7	0.7	0.6	0.4	0.4	0.6	0.7	0.7	0.6	0.4	0.7

전체적으로 국왕들은 정기시인 식년시를 3년에 한 번 시행하고자 노력하였다. 정종, 문종, 경종의 경우 재위기간이 짧기 때문에 식년시 시행간격이 전체 평균 3.1년보다 낮은 수치를 보이며, 세조와 순조대에도 수치가 낮는데 이전 국왕의 식년시 시행간격이 줄어든 여파로 보인다. 광해군대의 경우 식년시가 총 3회 시행되어 평균 5.0년으로 전체평균 3.1년보다 높은 수치를 보였다. 그 이유는 광해군 10년에 거행된 식년시는 부정이 있다고 하여 시험의 공정성에 문제가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파방과 削科를 놓고 대신들 간의 갈등이 있었는데 결국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이 여파로 3년 후인 광해군 13년에 식년시를 거행하지 못하면서 2번의 식년시가 시행되지 않았다. 이 문제는 인조대에 가서야 파방으로 결정되고 1623년(인조 1) 개시를 실행하였다.⁴⁷⁾

비정기시의 경우 선조대를 기준으로 후기로 갈수록 시험이 자주 시행되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인조, 경종대는 0.6년으로 평균 0.7년보다 낮은 수치를 보이며 영조, 고종대는 0.5년으로 가장 수치가 낮았다.

왕대별로 전체 평균치 0.7년보다 낮은 왕대는 광해군, 인조, 숙종, 경종, 영조, 정조, 고종이었다. 평균치 0.7년은 세조, 중종, 선조, 효종, 현종, 순조, 헌종이었으며, 전체 평균 0.7년보다 수치가 높은 국왕은 태조, 정종, 태종, 세종, 문종, 단종, 예종, 성종, 연산군, 명종 등으로 조선전기에 문과 시행간격이 길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선조대 이후부터 비정기시를 자주 시행되었으며 문과의 시행간격도 점차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47) 『광해군일기』 171권, 광해1 3년 11월 24일 신유, “司諫院啓曰 伏以遵先王之法而過者未之有也 三年大比之舉 卽金石之典 在今日不可廢者也 戊午式年 曾有物議 臺諫曰可罷 大臣曰可削 議啓已久 聖斷尙靳 遲延四載 舉行無期 辛酉式年 因此漸退 金石之典 將至中廢”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조선후기로 갈수록 비정기시가 자주 시행되면서 문과의 시행간격도 줄어들게 되었다. 새로 시행된 비정기시를 살펴보면 정시는 중종대의 문과방목에서 처음 등장하며 영조대 가장 많이 시행되었고, 춘당대시 또한 선조대에 처음 등장하고 숙종과 영조대 자주 시행되었다. 또한 영조는 평안도, 함경도 지역을 대상으로 한 외방시 외에도 탕평정시·구현과 등과 같이 탕평정치에 맞는 인물을 뽑기 위한 과거를 새로 개설하였다.

3. 영남지역 문과급제자의 실태

1) 영남지역 급제자가 포함된 科名 검토

지금까지 조선시대 시행된 문과의 종류와 횟수를 살펴보았다. 여기서는 영남 문과급제자가 포함된 시험 횟수를 살펴보고, 상대적으로 영남인들이 많이 급제한 시험명과 참여 수를 알아보겠다. 먼저 문과에서 영남급제자가 포함된 科名을 살펴보면 <표Ⅱ-8>과 같다.⁴⁸⁾

<표Ⅱ-8> 영남 급제자가 포함된 문과 횟수

과명 시기	식년시	증광시	알성시	별시	정시	춘당 대시	친시	외방시	현량시	개시	계
14세기	3										3
15세기	33	6	13	14			5	2			73
16세기	31	5	13	43	1	1	1		1		96
17세기	31	19	2	22	8			1		1	84
18세기	33	17	3	5	14	1					73
19세기	32	16	4	12	52						116
계(%)	163 (36.6)	63 (14.2)	35 (7.9)	96 (21.6)	75 (16.8)	2 (0.4)	6 (1.4)	3 (0.7)	1 (0.2)	1 (0.2)	445 (100)

* 이 표는 『문과방목』과 『교남과방목』을 비교하여 영남을 거주지로 한 인물들의 수치를 정리한 것이다.

영남의 급제자가 포함된 문과 횟수를 살펴보면 총 445회였다. 정기시인 식

48) 영남 급제자가 포함된 문과 횟수와 조선시대 시행된 문과 횟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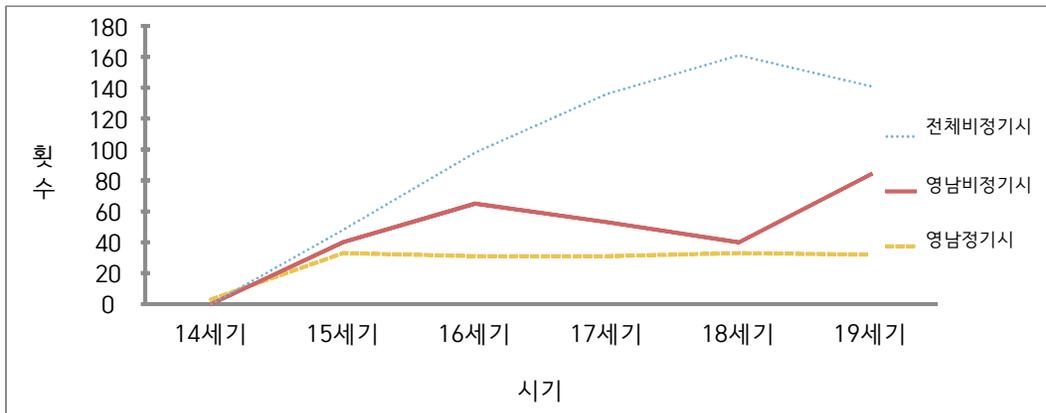
	식년시	증광시	알성시	별시	정시	춘당대시	친시	외방시	현량시	개시	계(회)
영남	163	63	35	96	75	2	6	3	1	1	445
조선전체	163	66	98	127	188	19	11	60	1	1	734

년시는 163회로 시행될 때마다 영남의 응시자들이 참여하였다. 정기시는 영남의 급제자가 포함된 문과 전체 횟수 가운데 36.6%를 차지하였으며, 비정기시의 경우 282회로 63.4%의 비중을 점하였다.

비정기시의 과명별로 살펴보면 별시 96회로 21.6%, 정시 75회로 16.8%, 증광시 63회로 14.2%, 알성시 35회로 7.9%, 친시 6회로 1.4%, 외방시 3회로 0.7%, 춘당대시 2회로 0.4%, 현량시·개시 2회로 0.4%로 식년시, 별시, 정시, 증광시, 알성시, 친시, 외방시, 춘당대시, 현량시, 개시 등의 순으로 영남인이 급제한 것을 알 수 있다.

시기별로 영남인이 급제한 과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래프Ⅱ-1> 시기별 영남지역 급제자가 배출 양상



정기시의 경우 모든 식년시에 영남인들이 급제하였기 때문에 전체 수치와 차이가 없다. 하지만 비정기시의 경우 시기별 수치의 변화가 극심하였다. 16세기 이전에는 전체 비정기시와 같이 수치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16세기를 정점으로 전체 비정기시와 영남 비정기시의 수치 차이가 발생한다. 전체 비정기시의 경우 18세기까지 시행횟수가 증가하다가 19세기에 감소하게 된다. 하지만 영남의 비정기시의 경우 16세기 이후 줄어들다가 18세기에 최저점이 되고 19세기에 다시 증가하였다.

16세기 이전에는 알성시, 별시의 수치가 높았는데 이 시기에 영남인이 중앙 정계에 많이 진출하였으며 이들을 통해 서울에서 시행하는 비정기시에 대한 정보를 쉽게 접한 것으로 생각된다. 19세기 수치 증가는 정시의 증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1844년(헌종 10) 초시인 향시가 성립되면서 영남의 응시자

들이 많이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

비정기시 수치를 살펴보면, 별시, 정시, 증광시에 영남 응시자들이 자주 참여하였는데 별시와 정시의 시행 횟수가 증가했다는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조선시대 전체의 문과 설행과 영남 응시자들이 참여한 비중을 살펴보겠다.

<표Ⅱ-9> 영남 급제자 포함된 비정기시 비율

분류 \ 科名	增廣試	別試	庭試	謁聖試	親試	外方試	春塘臺試	기타
전체문과 횟수	66	127	188	98	11	60	19	15
영남문과 횟수(%)	63 (95.5)	96 (75.6)	75 (39.9)	35 (35.7)	6 (54.5)	3 (5.0)	2 (10.5)	2 (13.3)

<표Ⅱ-9>를 통해 보면, 실제로 전체 문과와 비교했을 때 영남지역 급제자가 많은 시험은 증광시(95.5%), 별시(75.6%), 친시(54.5%), 정시(39.9%), 알성시(35.7%)의 순이다. 즉 식년시, 증광시, 별시를 중심으로 영남 응시자들이 많이 참여하였다.

식년시는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시행되는 시험으로 지역민들의 입장에서는 시험 시기를 예측하여 미리 준비할 수 있었다. 또한 식년시 복시에서는 경학을 강화하기 위해 초장에 講經을 중장과 종장은 製述을 시행했는데, 시험 점수 중에 講經 점수가 높아지는 17세기 이후부터 상대적으로 강경에 강한 지방 출신 유생들이 시험에 많이 참여한다.⁴⁹⁾

증광시는 식년시처럼 향시가 있으며 국왕의 즉위, 세자의 책봉 등과 같은 국가의 큰 경사 이후 시행되었기 때문에 지역 유생들에게 있어서 시험을 미리 예측할 수 있었다. 예안의 유생인 金垚은 1606년 2월 2일에 선조 즉위 40년을 축하하기 위해 정월 15일에 축하 행사와 대사면이 내려지고 장차 증광시가 실시된다는 편지를 받게 된다. 이 편지는 金垚의 큰 처남이자 황산찰방을 지낸 洪劼이 보낸 것으로 국가적 경사가 있을 때 서울에 있거나 벼슬을 하는 사람들을 통해 시험 소식이 지방에 전파되는 것을 볼 수 있다.⁵⁰⁾

49) 식년시 급제자 중 지방 거주자의 비율을 보면 명종대 44.3%, 선조대 54.5%, 광해군대 62.0%, 인조대 72.2%, 숙종대 84.4%로 후기로 갈수록 급격히 증가하고 있었다 (박현순, 「조선 후기 문과에 나타난 경향간의 불균형 문제 검토」, 『한국문화』 58, 2012, 11쪽).

별시는 16세기 영남인이 많이 합격하였으나 17세기에 급제자 수가 줄었다. 16세기는 金宗直, 金駟孫, 鄭汝昌을 비롯한 영남사람과가 중앙정계에 진출하여 개혁을 실시하던 시기였으며, 李滉·鄭述에게 수학한 유생들이 관료로 성장하였다. 17세기는 점차 남인과 북인의 영향력이 감소해 영남 남인의 급제 비율이 떨어졌으며 별시의 대부분이 정시로 대체되었다. 정시의 경우 영남지역 급제자가 포함된 비중이 적었는데 서울을 중심으로 한 노론 세력의 권력을 창출하는 수단으로 정시가 이용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조선 초기에 짧게 실시된 친시와 임시적으로 실시된 중종대의 현량시, 인조대의 개시를 제외한다면 알성시, 외방시, 춘당대시는 영남의 응시자들이 적게 참여한 시험이었다. 외방시에서 영남의 급제자가 등장하는 경우는 세조대의 온양별시·고성별시, 인조 대의 공주정시 총 3회였다. 외방시는 임금이 행행한 장소의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시험을 시행하였지만 세조대에는 출신지 제한 없이 시험을 시행하였다. 인조대의 경우 이괄의 난이 평정된 것을 축하하며 서울 출신을 제외하고 다른 지역 유생과 어가를 호종한 사람을 대상으로 시험을 시행하였다.⁵¹⁾ 이 때문에 영남도 포함될 수 있었다.

춘당대시는 관무재의 對擧로, 알성시는 알성례의 對擧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행이 비정기적이었고, 서울에서 시험이 치러지기 때문에 시일이 촉박하여 지방 유생들이 상대적으로 참여하기 어려웠다. 실제 金垞의 사례를 살펴보겠다.

홍우형의 편지를 보니 알성시는 이번 달 12일로 정해졌고 표나 사운시가 출제된다고 한다. 나에게 서울로 올라오라고 하는데 脹症이 있으니 어찌하리오.⁵²⁾

金垞은 큰처남인 洪劼의 아들 洪遇亨에게 알성시의 소식을 듣고 시일이 촉

50) 최은주, 「일기를 통해 본 조선시대 영남지방 지식인과 과거시험의 형상화」, 『대동한문학』 38, 2013, 250쪽.

51) 『인조실록』 4권, 인조 2년 2월 15일 기해 “上引見大臣 備局諸臣 領相李元翼曰 賊适已誅 宜速定回鑾之期 兵曹判書金瑬曰 訓局之兵 不日將到 可備宿衛之用 全羅軍兵 宜自此罷遣 上曰十六日設科 十八日回程可也 宰臣請設科於駐蹕之地 聳動士心 故有是命 元翼曰扈駕之人 亦令許赴 則京人鄉人之文 自有優劣 恐本道之人不得參也 上曰京人不可許赴 瑬曰扈從中 蔭官儒生 亦有舉業之人 不可不許赴 上曰扈從蔭官儒生及武人 令吏兵曹預爲籍記 待還都後 卽爲設場 今則只許兩湖人赴擧可也”

52) 김령, 『계암일록』, 1610년 5월 6일, “見洪遇亨書 謁聖定今月二十日 表四韻中爲之 邀余上京 病痞奈何”

박하고 병에 걸렸다는 이유로 걱정하였지만 시험을 치르러 서울로 가게 된다.⁵³⁾ 1610년(광해군 2) 8월 28일 金宏弼, 鄭汝昌, 趙光祖, 李彥迪, 李滉 등 오현을 문묘에 종사하고 9월 9일 알성례를 실시하였으며 날이 어두워져 12일에야 합격자를 발표하였다.⁵⁴⁾ 영남의 四賢을 종사하는 이유로 시행된 시험임에도 불구하고 영남인 중 급제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金垓처럼 과거 소식을 늦게 접하거나 준비기간이 짧았던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정시, 알성시, 춘당대시 등 비정기시는 단일시이며 시험을 치른 날에 급제자가 바로 발표되기 때문에 응시자의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쉬운 시험으로 인식되었다. 하지만 지방 응시자의 입장에서는 시험 시행이 비정기적이라 예측이 어려웠다. 설령 소식을 듣더라도 서울에서 시행되고 경쟁률도 높았기 때문에 합격이 어려웠을 것이다. 따라서 여러 차례 시험을 거치지만 시행 이유가 확실하고 시험 시기도 정기적이며, 향시도 있는 식년시나 증광시에 영남지역 응시자들이 많이 참여했을 것이다.⁵⁵⁾

이러한 점은 영남지역의 문과 합격 간격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502년간 445회로 평균 1.1년간 급제자가 배출되었다. 식년시의 경우 모든 식년시에 영남의 응시생들이 참여했기 때문에 전체 평균인 3.1년과 같은 수치였으며, 비정기시의 경우 1.8년으로 전체 평균 0.9년보다 높은 수치를 보였다. 이는 비정기시에 영남의 응시자들이 덜 참여했으며 그만큼 급제자가 적었음을 의미한다.⁵⁶⁾

비정기시 시험명별로 살펴보면, 증광시는 63회로 평균 8.0년, 별시는 96회로 평균 5.2년, 정시는 75회로 6.7년, 알성시는 35회 14.3년으로 별시, 정시, 증광시, 알성시 순으로 영남지역 급제자가 포함되었다. 조선시대 시행된 문과 횟수는 정시, 별시, 알성시, 증광시 순인데 영남지역 급제자의 경우 별시와 증광시에 많이 급제하였다. 별시와 증광시가 적게 시행된다는 것은 영남지역 급제자

53) 김령은 8월 26일 길을 떠나 9월 9일 알성시를 치르고 떨어진 후 10월 15일 별시에 참여하게 되고 10월 22일 합격자를 확인하고 10월 26일 고향으로 돌아간다. 김령, 『계암일록』 1610년 10월 15일, “曉起 與察訪會伯赴庭試 至泮猶未明 平明由集春門入後苑 上已臨瑞蔥臺 松樹交翠 有水田 其中季華義精伯溫諸人 皆得見之 別試見屈 以庭試皆留 四拜已辰未已初 表題甚易 卽占十餘句 日甚早 雕刻從容 正書呈之 則以過刻不受 可笑 還自入門出 得見季華而和仲植諸公 又見季華于東大門內寓所 還已夜矣 余之初試 皆云二上 李葦入庭試 可謂無忌憚”; 1610년 10월 22일, “陰甚寒 午榜出 嶺南左道皆闕 右道惟鄭蘊宋遠器得中”

54) 『국조문과방목』(규장각한국학연구원[奎106]), 「庚戌二年謁聖榜」.

55) 상주 출신 權相一의 경우 향시가 있는 식년시, 증광시에 모두 참석하지만 서울에서 시행하는 별시, 정시, 알성시, 춘당대시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전경목, 「조선후기 지방유생들의 수학과 과거응시」, 『사학연구』 88, 2007).

56) 전체 급제 평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의 합격 간격이 늦어지고 비정기시에서 영남지역 급제자 수가 감소한 원인이 되었다.

참고로 왕대별로 급제 간격을 살펴보면 <표 II-10>과 같다.

<표 II-10> 비정기시 영남지역 급제자 왕대별 평균 간격

왕대 분류	태종	세종	문종	단종	세조	예종	성종	연산	중종	명종	선조	광해
시행횟수	3	5	1	2	10	1	15	7	27	10	30	10
영남지역 급제간격	6.0	6.4	2.0	1.5	1.3	1.0	1.7	1.7	1.4	2.2	1.4	1.5
문과 시행간격	6.0	4.0	2.0	1.5	1.0	1.0	1.5	1.5	1.0	1.4	0.9	0.7

왕대 분류	인조	효종	현종	숙종	경종	영조	정조	순조	헌종	철종	고종	계
시행횟수	21	3	5	15	2	22	10	17	12	15	39	282
영남지역 급제간격	1.2	3.3	3.0	3.1	2.0	2.4	2.4	2.0	1.3	0.9	0.8	1.8
문과 시행간격	0.6	0.9	0.8	0.8	0.6	0.5	0.8	0.9	0.9	0.7	0.5	0.9

문과 시행 간격과 영남 급제자가 포함된 시험의 시행 간격을 살펴보면, 전체 평균인 0.9년보다 간격이 넓은 1.8년이였다. 전국적으로는 비정기시에서 약 1년마다 급제자가 배출되었지만 영남지역에서는 약 2년 내외로 비정기시에서 급제자가 나온 것이다. 이는 비정기시에 영남의 응시자들이 덜 참여해 그만큼 급제자가 적었음을 의미한다.

비정기시가 세분화되지 않았던 태종, 세종대에는 지방의 유생의 참여가 어려웠다. 하지만 성종 이후부터 영남의 평균인 1.8년보다 좁은간격이 나타난다.

왕대 분류	태조	정종	태종	세종	문종	단종	세조	예종	성종	연산	중종	명종	선조
정기시	3.0	2.0	3.0	3.2	2.0	3.0	2.6		3.1	3.0	2.9	3.1	3.4
비정기시			6.0	4.0	2.0	1.5	1.0	1.0	1.5	1.5	1.0	1.4	0.9
문과	3.0	2.0	2.0	1.8	1.0	1.0	0.7	1.0	1.0	1.0	0.7	1.0	0.7

왕대 분류	광해	인조	효종	현종	숙종	경종	영조	정조	순조	헌종	철종	고종	평균
정기시	5.0	3.3	3.3	3.0	3.1	2.0	3.1	3.0	2.8	3.0	3.5	2.8	3.1
비정기시	0.7	0.6	0.9	0.8	0.8	0.6	0.5	0.8	0.9	0.9	0.7	0.5	0.9
문과	0.6	0.5	0.7	0.7	0.6	0.4	0.4	0.6	0.7	0.7	0.6	0.4	0.7

이러한 현상은 영남사림과가 중앙정계에 진출하던 시기인 성종, 중종, 선조, 인조대에 1.6년 또는 1.4년의 간격으로 좁아졌다. 알성시와 별시가 평균 간격에 많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 중앙정계에 있는 사람을 통해 시험의 정보를 얻기 쉬웠다. 또한 사림과의 입장에서 자신들의 세력 확대를 위해 과거를 적극 활용하였다.⁵⁷⁾ 하지만 인조 이후부터 합격간격이 약 3년으로 늘어났는데 노론세력이 집권을 하면서 영남지역이 중앙정치에서 소외된 것으로 보인다. 영조대 급제 간격이 일시적으로 늘어났다가 다시 세도정치기와 고종대 전체 문과 평균 간격과 영남지역 급제 간격이 유사해졌는데 정시의 잦은 시행, 초시로 향시가 시작된 것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이처럼 전국은 평균 0.7년마다 시험에서 급제자가 배출되었는데 영남지역은 약 1년 간격으로 급제자가 배출되었으며, 식년시·증광시·별시를 중심으로 급제자들이 배출되었음을 알 수 있다.

2) 영남지역 문과급제자 수의 추이

다음으로 영남지역 문과급제자 수를 살펴보겠다. 방목을 살펴보면 급제자의 거주지가 적혀 있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사마방목』의 거주지,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제공하는 전산자료, 한국향토문화대전, 『경북인물사전』⁵⁸⁾ 등을 활용하여 급제자의 거주지를 파악하였다. 이를 통해 영남지역에서 급제한 인원을 과명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57) 영남 급제자 포함 시험을 살펴보면 성종대 별시 9회·알성시 6회, 중종대 별시 21회·알성시 4회, 선조대 별시 14회·알성시 7회, 인조대 별시 10회·알성시 1회로 다른 시기와 비교했을 때 많은 수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58) 한국지역인문자원연구소, 『경북인물사전』, 경상북도, 2015.

<표 II -11> 영남지역 급제자 수

과명 왕대	식년시	비정기시										계
		증광시	알성시	별시	정시	외방시	춘당 대시	친시	개시	현량시	소계	
태조	7											7
정종	1											1
태종	16	2	3					2			7	23
세종	36	4	4					6			14	50
문종	8	5									5	13
단종	4	5	5								10	14
세조	26		6	6		3					15	41
예종		6									6	6
성종	45		12	13				1			26	71
연산군	20	5	3	12							20	40
중종	68	6	5	45						6	62	130
명종	30	8	1	25							34	64
선조	67	22	7	27	2		3	1			62	129
광해군	16	35	1	4	1						41	57
인조	67	19	1	24	5	1			2		52	119
효종	27	4		2							6	33
현종	36	8		5							13	49
숙종	98	42		4	1						47	145
경종	9	8									8	17
영조	101	46		6	12		1				65	166
정조	73	14	3	1	6						24	97
순조	110	20		5	17						42	152
헌종	45	10	1		17						28	73
철종	38	14		1	27						42	80
고종	78	23	6	26	56						111	189
계	1,026	306	58	206	144	4	4	10	2	6	740	1,766

조선시대 영남인은 445회 문과에서 1,766명이 급제하고 있었다.⁵⁹⁾ 정기시인 식년시의 경우 163회로 1,026명이 급제했는데 영남의 전체 급제자 중에 58.1%를 차지하였다. 비정기시는 282회 740명으로 41.9%의 비중을 점하고 있었다. 비정기시를 과명별로 살펴보면 증광시 306명으로 영남 전체 급제자 중 17.3%, 알성시 58명으로 3.3%, 별시 206명으로 11.7%, 정시 144명으로 8.2%, 외방시 4명으로 0.2%, 춘당대시 4명으로 0.2%, 친시 10명으로 0.6%, 개시 2명으로

59) 李涵의 경우 1600년(선조 33) 찰방으로 별시에 급제하였지만 도교의 문장을 썼다는 이유로 삭과되었다가 1609년(광해 1) 증광시에 재급제하였다. 鄭度仁의 경우 1867년(고종 4) 정시에 급제하였는데 시험 답안을 바꾸었다는 이유로 삭과되었다가 1875년(고종 12) 별시에 재급제하였다. 이에 따라 총 4번의 급제가 있었지만 여기서는 재급제 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총 2명으로 계산하였다.

0.1%, 현량시 6명으로 0.3%를 차지하고 있었다. 증광시, 별시, 정시, 알성시, 친시, 현량시, 외방시, 춘당대시, 개시 순으로 급제자가 많았다. 이러한 수치는 앞서 영남지역 응시자들이 식년시, 증광시, 별시에 많이 지원했다는 사실과 일치하였다.

과명별로 전체 급제자 수와 영남지역 급제자 수를 살펴보면 <표Ⅱ-12>와 같다.⁶⁰⁾

<표Ⅱ-12> 영남지역 문과급제자 수 비교

과명 분류	식년시	증광시	별시	정시	알성시	친시	현량시	외방시	춘당시	개시
영남(%)	1,026 (17.0)	306 (11.3)	206 (10.4)	144 (5.7)	58 (7.5)	10 (8.7)	6 (21.4)	4 (1.1)	4 (3.0)	2 (8.3)
전체	6,030	2,713	1,987	2,515	778	115	28	353	133	24

*전체 인원의 경우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전산자료를 활용하였다.

현재까지 과명에 따른 지역별 급제 인원들이 정리되어 있지 않아 비교 대상이 부족하다. 이 때문에 조선 전체 과명별 급제인원과 비교하였다.⁶¹⁾ <표Ⅱ-12>에 의하면 식년시는 전체 급제자 중 17.0%, 증광시는 11.3%, 별시는 10.4%, 정시는 5.7%, 알성시는 7.5%, 친시는 8.7%, 현량시는 21.4%, 외방시는 1.1%, 춘당대시는 3.0%, 개시는 8.3%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영남의 경우 문과 전체와 비교했을 때 특수한 시험이었던 현량시를 제외하고⁶²⁾ 식년시, 증광시, 별시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식년시, 증광시 외에도 별시가 많은 부분을 차지한 것은 16세기 사림파를 등용하는 시험으로 별시를 활용하였기 때문이다.⁶³⁾ 또한 친시의 경우 중시 對擧로 시행되었는데 중시

60) 전체 인원의 경우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전산자료를 활용하였다. 급제 인원의 경우 시험의 분류와 중시의 포함여부에 따라 연구마다 수치가 달랐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전산자료에서는 총 급제 인원이 14,687명이었다.

61) 남원지역의 경우 식년시에 500명, 별시에서는 64명이 합격하였다 (정훈, 「조선시대 남원지역 문과급제자에 대한 고찰」, 『전북사학』 29, 2006); 제주지역의 경우 식년시 18명, 정시 18명, 외방시 8명, 증광시 6명, 별시 6명, 친시 1명이 합격하였다 (이규복, 「조선시대 제주지역 문과운영과 급제자 실태 분석」, 제주대 석사학위논문, 2011).

62) 현량시는 중국 한나라의 현량방정과를 본떠 만든 것으로 예조와 유향소에서 천거한 인물들을 대상으로 대책을 시험하여 인재를 선발하였다. 기묘사화로 시험이 파방되었다가 1568년(선조1) 復科되었다. 이때 선발된 영남인은 안동의 權頤, 청도의 金大有, 성주의 都衡, 청송의 閔世貞, 상주의 金顥, 진주의 李翎이었다.

63) 무오당적의 인원 분석을 통해 사림파의 세력 확대에 별시가 많은 영향을 주었다는 사실은 이미 연구되어 있다 (차장섭, 「조선전기 문과급제자의 성분」, 『조선사연구』 3, 1994, 8쪽).

는 10년에 1번 시행되어 상대적으로 시험을 미리 준비할 수 있었다. 하지만 친시는 조선 전기에만 활용되고 선조 대 이후로 시험이 실시되지 않고 별시나 정시로 대체된다.

식년시는 총 163회 시행되어 5,379명이 선발되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6,030명이 선발되었다. 이는 直赴殿試와 관련되어 있다. 直赴는 각종 과거에서 초시를 건너뛰고 복시 혹은 전시에 응시하는 것으로 조선시대 會試 直赴 5,567명, 殿試 直赴는 2,093명이고 이 중 2,344명이 문과에 급제하였다. 直赴者의 거주지 분포를 보았을 때 서울, 경기, 충청, 경상, 평안, 전라, 함경, 황해, 제주, 강원도의 순으로 영남지역이 191명으로 4번째로 많은 直赴者를 배출하였다.⁶⁴⁾ 영남지역 문과급제자 중 直赴가 차지하는 비중은 10.8%였는데 정시, 알성시, 춘당대시보다 많은 수치이다. 또한 조선 후기가 되면 식년시, 증광시 외에도 별시와 정시에 직부들이 참여가 가능해지면서 직부가 문과에 급제하는 하나의 통로로 활용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조선왕조실록』에 직부로 문과에 급제한 영남 인물을 살펴보면, 총 89명이 있었다.⁶⁵⁾ 이들의 특징은 18세기 영조, 19세기 정조 대에 직부 인원이 집중되어 있고 89명 중 83명이 직부전시라는 것이다. 영조의 경우 향시와 경시 또는 지방에 유리한 강경과 서울에 유리한 제술로 시험문제를 나누어 각각 수석을 뽑았다. 고종의 경우 급제자가 드문 가문에서 급제할 경우 樂工을 보내 격려하는 모습도 자주 등장한다.⁶⁶⁾ 이는 국왕이 급제자에 대한 지역적 안배와 성씨에 따른 균형으로 직부를 활용하였음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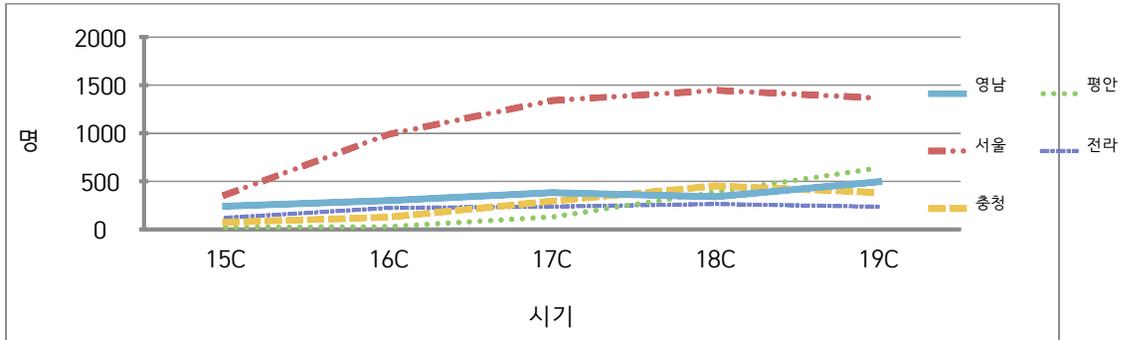
다음으로 영남지역 급제자의 시기별 추이를 살펴보겠다.

64) 직부자는 서울 1,246명, 경기 224명, 충청 205명, 경상 191명, 평안 143명, 전라 104명, 함경 79명, 황해 41명, 제주 44명, 강원 35명이다 (원창애, 「조선시대 문과직부제 운영 실태와 그 의미」, 『조선시대사학보』 63, 2012, 120쪽).

65) 왕대별 직부자 수를 살펴보면 중종 2명, 명종 1명, 인조 3명, 숙종 3명, 영조 11명, 정조 3명, 순조 6명, 헌종 2명, 철종 7명, 고종 51명이었다. 이 수치는 실록 중에 인명이 확인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더욱 많은 인원이 직부에 혜택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66) 『고종실록』 5권, 고종5년 5월 10일 병술 “昭顯世孫後承 二百年廢積之餘 幾不得保有華閤矣 今番此人之始占科名 可以繼得家聲 曷勝喜幸 直赴李載英 賜樂”; 『고종실록』 11권, 고종11년 3월 15일 정사 “此家科聲 適在是年 事甚稀貴 直赴朴斗陽 賜樂 又教曰 直赴洪淳馨 賜樂”; 『고종실록』 21권, 고종21년 3월 1일 병자 “直赴黃鍾岐 皇朝人後裔也 是年科聲 不可無示意 特爲賜樂”

<그래프 II-2> 시기별 영남급제자 인원 수



지역 \ 시기	15C	16C	17C	18C	19C
영남	241	300	383	339	495
서울	360	990	1,340	1,446	1,366
충청	73	127	295	452	383
평안	20	28	129	388	639
전라	120	224	237	264	236
전체(명)	1,818	2,386	2,997	3,606	3,781

전체 문과의 경우 시간이 지날수록 급제자 수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하지만 영남의 경우 17세기까지 증가를 하다가 18세기에 잠시 감소하고 19세기에는 다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수치의 변화는 정치 주도 세력의 변화에 따라 영남인들이 적극적으로 중앙 정계에 참여하기도 하고 소외되기도 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노론세력이 강했던 충청도 지역과 비교해 보면 영남지역 급제자 수가 감소하던 18세기에 충청도는 급제자 수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18세기 충청도에는 대표적인 호론계 인물인 權尙夏, 韓元震이 활약한 시기로 문과에 급제하는 인원이 많았다. 하지만 19세기 서울 중심의 낙론 학맥들이 정계에 등장하면서 충청도의 급제자 수가 감소하였다.⁶⁷⁾ 영남의 경우 충청도에 급제자 수가 많았던 18세기에 급제자 수가 감소하지만 19세기가 되면 충청도 급제자 수가 감소하고 대신 영남의 급제자 수가 증가하였다. 또한 19세기는 탕평책의 일환으로 평안도지역의 급제자가 증가하였으며 영남지역도 세도정치와 대원군 집권으로 다시 중앙정계에 진출하였다. 한편 전라도는 전답과 인구가 많았지만 그에 비해 급제자 수가 적었다.

67) 권오영, 「18세기 호론의 학풍과 사상의 전승」, 『조선시대사학보』 63, 2012.

전체 급제자 중 영남지역 급제자가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14세기에는 8.1%의 비중을 점하고 있으며, 15세기는 13.3%, 16세기는 12.6%, 17세기는 12.8%, 18세기는 9.4%, 19세기는 13.1%를 차지하고 있다. 전체 급제자에서 영남 지역 급제자가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15세기를 정점으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19세기에 다시 반등을 하였다. 전체적으로 급제자 수가 늘어나면서 영남 지역 급제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 같지만 전체 비율로 따지면 감소하고 있었다. 18세기에 크게 감소했다가 19세기에 다시 이전의 수치를 회복하였다.

이러한 양상을 왕대별로 평균 급제자 수를 살펴보면 <표Ⅱ-13>와 같다.

<표Ⅱ-13> 왕대별 평균 급제자 수

왕대 분류	태조	정종	태종	세종	문종	단종	세조	예종	성종	연산	중종	명종	선조
영남평균	1.0	0.5	1.3	1.6	6.5	4.7	3.2	6.0	2.8	3.3	3.4	2.9	3.2
전체평균	11.0	16.5	14.8	14.6	36.5	35.3	23.8	33.0	17.8	20.9	23.7	21.5	27.1

왕대 분류	광해	인조	효종	현종	숙종	경종	영조	정조	순조	헌종	철종	고종	계
영남평균	3.8	4.6	3.3	3.3	3.2	4.3	3.2	4.0	4.5	4.9	5.7	6.1	3.5
전체평균	32.9	29.3	24.5	26.7	31.1	45.8	40.8	32.3	30.9	30.3	33.6	56.9	29.3

전체 문과급제자의 흐름을 살펴보면, 태조대에는 매년 평균 11명을 뽑다가 태종·세종대에는 매년 약 15명을 뽑게 된다. 이는 관료제가 정착되면서 새로운 신진관료가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세조대 이후부터는 약 20명 정도가 급제하게 되었는데 공신세력을 억제하고 신진세력을 키워 왕권을 강화하려는 노력으로 볼 수 있다.⁶⁸⁾ 광해군대부터 숙종대까지 평균 30명 내외를 선발하다가 경종·영조대에 이르면 40명으로 증가하였다. 정조대부터는 인사 적체를 해결하기 위해 문과급제자 수를 조정하여 다시 30명대를 유지하다가 고종대에는 50명으로 선발하였는데 응시 인원의 증가와 과거의 잦은 설행으로 많은 인원이 뽑히게 된 것이다.

영남의 경우 매년 3.5명이 급제하였다. 조선 초기에는 훈구파의 세력이 강

68) 성종대의 경우 다른 왕대와 비교했을 때 적은 수치인데 이는 이전 왕조가 격변기로 많은 관리들이 조정에서 쫓겨났고 이를 보충하기 위해 급제자 수가 늘어났다. 성종대에 이르면 정치적으로 안정되면서 급제자 수가 상대적으로 줄어든 것이다.(한영우, 『과거, 출세의 사다리(1)』, 지식산업사, 2013, 294쪽.)

성하였고 영남의 사족들은 향촌 개발에 주력하였기 때문에 급제자 수가 극히 적었다. 하지만 문종·단종의 시기에 이르면 급제자 수가 늘어났는데, 짧은 시간에 왕이 교체되면서 증광시가 치러졌기 때문이다. 이후 매년 약 3.0명이 급제하고 광해군, 인조대에는 3.8명, 4.6명이 급제하였다. 이후 조금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데 중앙정치에서 영남 세력들이 소외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은 李重煥의 『택리지』에서도 잘 드러나 있다.

과거에 국정을 운영하는 자들은 모두 경상도 사람이었고 김굉필, 정여창, 이언적, 이황 등 문묘에 종사한 4현도 경상도 사람이다. 인조가 울곡 이이, 우계 성혼, 백사 이항복의 문인 자손들과 함께 반정을 일으킨 후부터 서울에서 세거하는 가문만 치우쳐 등용하였다.⁶⁹⁾

조선 전기 사림파로 중앙정계에 진출하던 영남 출신자가 인조 이후 서울 지역 서인들을 중심으로 정계가 재편되자, 점차 정치적으로 소외받기 시작했다. 이에 대한 반동으로 탕평책이 실시되면서 전체 평균 급제자 수가 다시 증가한다. 하지만 영조대 영남의 평균 급제자 수는 증가하지 않고 이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는 영조의 탕평책이 경상도를 비롯한 기존지역보다는 서북지역 인물 등용에 집중하였기 때문이다.⁷⁰⁾ 고종대는 영남지역에서 많은 인원이 선발되었는데, 문과가 인재를 등용하는 역할 외에도 지역적 급제자 수의 안배를 통해 사회를 안정화시키는 역할을 수행하였음을 볼 수 있다.

시기별로 차이가 있지만 영남지역은 매년 3.0명 이상이 급제자로 선발되었고 18세기 급제자가 급감하지만 19세기에는 다시 급제자 수가 증가하였다. 이는 무신란과 노론의 집권, 세도정치와 대원군의 집권 등 정치적 변동에 따라 영남인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음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영남지역이 조선 전체 지역에서 어느 정도 위치를 차지하였는지를 문과급제자 수를 통해 확인하겠다.⁷¹⁾

도별 급제자 수를 살펴보면 서울 다음으로 많은 급제자를 배출한 지역이

69) 이중환, 『택리지』, 「팔도총론」, 慶尙道條, “我朝則廟以前秉國者 皆是道人 四賢從祀文廟者 又是道人 仁廟與栗谷李珣牛溪成渾白沙李恒福門生子弟 靖亂自是 偏用京城世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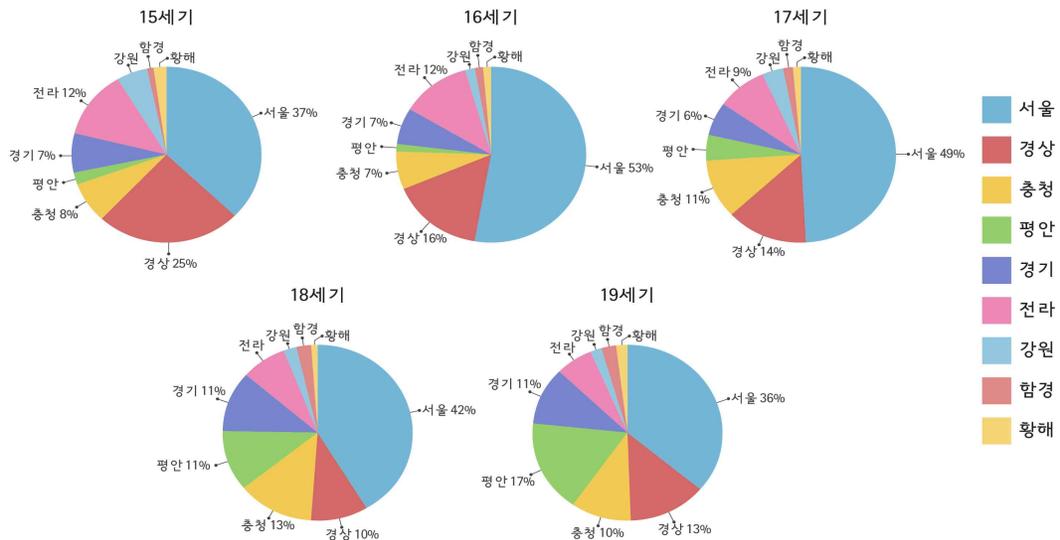
70) 에드워드 와그너, 『조선왕조 사회의 성취와 귀속』, 일조각, 2007, 54~70쪽.

71) 여기서 전체 급제자 수는 이원명의 자료를 활용하여 인원을 추가하였다. 이원명은 경상도 급제 인원을 1,750명으로 파악하였으나 본고에서 파악한 인원은 1,766명이었다. 방목에서는 거주지가 표시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부 인원이 제외된 것으로 보인다. 거주지의 파악은 다른 방목이나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한국역대인물 데이터베이스, 시도에서 발간한 인물사전을 활용하였다.

경상도이다.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전산자료를 보면 문과급제자는 14,687명이며 이 중 경상도 급제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1,766명으로 전체에서 12.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또한 이원명의 연구에 의하면 15세기부터 19세기까지 전체 12,802명이 급제하였다고 보았는데 영남의 경우 1,758명으로 13.7%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⁷²⁾ 기호남인과 노론세력이 강성하였던 충청도·경기도 지역과 비교해도 많은 인원이 문과에 급제하였다.

조선시대 시기별 각 도별 급제자 인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래프 II -3> 시기별 각 도 급제인원



※ 시기별 조선시대 각 도의 급제인원 순위

- 15세기: 서울(37%), 경상(25%), 전라(12%), 충청(8%), 경기(7%), 강원(6%), 황해(2%), 평안(2%), 함경(1%)
- 16세기: 서울(53%), 경상(16%), 전라(12%), 충청(7%), 경기(7%), 강원(2%), 함경(1%), 평안(1%), 황해(1%)
- 17세기: 서울(49%), 경상(14%), 충청(11%), 전라(9%), 경기(6%), 평안(5%), 강원(3%), 함경(2%), 황해(1%)
- 18세기: 서울(42%), 충청(13%), 평안(11%), 경기(11%), 경상(10%), 전라(8%), 함경(2%), 강원(2%), 황해(1%)
- 19세기: 서울(36%), 평안(17%), 경상(13%), 경기(11%), 충청(10%), 전라(6%), 함경(3%), 강원(2%), 황해(2%)

72) 영남지역을 제외한 다른 도의 급제수는 이원명의 연구를 활용하였다. 그 구체적 수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원명, 『조선시대 문과급제자 연구』, 국학자료원, 2004).

	서울	경상	충청	평안	경기	전라	강원	함경	황해
15세기	360	241	73	20	71	120	52	9	21
16세기	990	300	127	28	124	224	30	29	23
17세기	1340	383	295	129	166	237	93	48	34
18세기	1446	339	452	388	388	264	81	83	37
19세기	1366	495	383	639	401	236	73	100	64
계(명)	5,502	1,758	1,330	1,204	1,150	1,081	329	269	179

위 <그래프Ⅱ-3>에서 보듯 시기별로 차이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조선전기에는 영남지역에서 급제자가 많이 배출되고 있었고 조선후기에는 영남지역의 급제자 수가 줄어들었다. 서울을 제외한 지역을 살펴보면 15세기에서 17세기까지 경상도가 서울 다음으로 많은 급제자를 배출하였다. 하지만 17세기 기호지방 특히 충청도의 급제율이 상승하여 18세기에는 2번째 순위를 차지하였다. 평안도 지역의 경우에도 18세기 급제율이 급증하는데 탕평책의 일환으로 평안도 인물을 대거 등용되었기 때문이다. 19세기가 되면 서울 출신 급제자 수가 조금 줄어들면서 지역적 안배가 이루어지고 다시 경상도가 3번째 순위에 위치하였다. 또한 18세기 2번째 순위를 차지하고 있던 충청도 지역은 5위로 급감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처럼 문과급제 인원은 당시 정치적 변동이나 국왕의 의지에 따라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위에서 보듯 영남의 경우 16·17세기 서울 다음으로 많은 인원들이 문과에 급제하여 중앙관료로 성장하였다. 18세기 이후 그 수치가 급격히 줄어들었지만 19세기에 이르면 이전의 수치를 회복하였다. 급제자 수로 보면, 조선시대 영남은 서울 다음으로 많은 인물들이 문과를 통해 중앙 정계에 진출하는 지역이었다.

영남에서 이렇게 많은 급제자를 배출한 배경을 살펴보면 조선 초기 경상도 지역이 경제적 선진지역이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경상도는 평지에 저수지, 산골짜기에 천방이 집중적으로 설치되면서 이양법이 발전하였고, 인구 또한 많았다.

경상도의 지역개발은 주로 재지사족의 주도로 이루어졌다. 사족들은 산간과 계곡이 있는 임내지역으로 이주하여 천방을 설치하고 이양법을 시행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역개발을 하였다.⁷³⁾ 이후 이 사족들은 중소지주적 기반을 갖춘 영남사림파로 성장하여 중앙정계에 진출하였고 퇴계학을 중심으로 결집하여 남인 세력을 형성하였다.⁷⁴⁾

이를 1789년 『호구총수』의 인구 수와 元田 평균 결수로 파악하면 다음과 같다.⁷⁵⁾

73) 김성우, 『조선시대 경상도의 권력 중심이동』, 태학사, 2012, 81~90쪽.

74) 이수진, 「고문서를 통해 본 조선조 사회사의 일연구」, 『한국사학』 9, 1992.

75) 오기수, 「조선시대 각 도별 인구 및 전답과 조세부담액 분석」, 『세무학연구』 27, 2010; 손병규, 「18세기 말의 지역별 ‘호구총수’, 그 통계적 함의」, 『사림』 38, 2011.

<표Ⅱ-14> 각 도별 인구 수와 원전 결수

지명 분류	서울	경상	충청	평안	경기	전라	강원	함경	황해
총 인구	193,783	1,582,102	871,057	1,283,239	662,992	1,226,247	329,455	683,966	579,845
총 호수	43,929	365,220	221,625	300,944	159,160	319,160	81,876	123,882	137,041
원전평균 결수		293,595	246,413	114,913	126,992	323,711	45,127	75,658	116,582
급제인원 등수	1	2	3	4	5	6	7	8	9

<표Ⅱ-14>는 조정에서 세금을 걷기 위해 조사한 것이다. 정확한 수치라고 할 수 없지만 당시 조정에서 파악한 지방의 규모를 보여준다. 인구 수로 살펴보면 경상도, 평안도, 전라도, 충청도, 함경도, 경기도, 황해도, 강원도, 서울 순으로 경상도가 가장 많은 인원을 차지하고 있었다. 元戶로 살펴보면 경상도, 전라도, 평안도, 충청도, 경기도, 황해도, 함경도, 강원도, 서울 순으로 경상도에서 가장 많은 호가 있었다. 원전의 경우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경기도, 평안도, 황해도, 함경도, 강원도 순이었다.

서울을 제외하고 인구 수와 元田 수로 볼 때 평안도와 전라도는 다른 지역과 비교해 인원과 元田 수가 많지만 상대적으로 급제자 수가 적었다. 특히 평안도의 경우 元田 수가 5등이었지만 상업 활동으로 인해 경제적 성장이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18~19세기가 되면 급제자 수가 늘어나게 된다. 경기도와 충청도의 경우, 전라도·경상도와 비교했을 때 인원과 元田이 적었으나 상대적으로 급제자 수가 많았는데 기호사림을 비롯한 노론세력이 거주하던 지역과 일치하였다.

경상도의 경우 조선시대 인구가 가장 많았고 元田의 경우에도 전라도 다음으로 많았다. 이는 전통적으로 조선에서 경상도의 경제적인 비중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식년시 향시에도 경상도가 가장 많은 인원을 배정받았고, 문과에서도 두 번째로 급제자를 배출하고 있었다. 경상도 지역은 전통적으로 조선의 경제적 부분을 많이 담당하였던 지역이었으므로 조정의 입장에서는 영남인의 불만을 무시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이러한 경제적 기반을 토대로 영남지역은 학문이 성장하였다. 세종대 편찬

된 『경상도지리지』에 의하면 인물이 많이 배출되고 文을 숭상한 지역으로 영남을 인식하였다.⁷⁶⁾ 이러한 인식은 18세기 李瀾(1681~1763)의 글을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다.

퇴계는 소백 아래에 남명은 두류 동쪽에 태어났으니 모두 영남지역이다. 상도는 인을 숭상하고 하도는 의를 주장하니 유학의 감화와 기개를 숭상하는 것이 넓은 바다와 높은 산과 같았다. 우리의 문명이 여기에서 절정에 달하였다.⁷⁷⁾

李瀾은 기호남인 계열로 영남 남인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평가가 중립적이라고 할 수 없다. 하지만 영남의 경우 李滉과 曹植의 영향력이 컸으며 학파가 한 지역에만 머무르지 않고 다른 지역까지 전파되어 근기 남인을 형성하기도 하였다. 이후 남명학파는 鄭仁弘을 중심으로 대북정권과 결탁하여 정권을 운영하다가 인조반정으로 인해 그 영향력이 감소하고 일부는 퇴계학파에 흡수된다. 퇴계학파는 金誠一, 柳成龍, 鄭述를 거치면서 학파가 분화되었고 김성일의 학문은 張興孝, 李玄逸, 李象靖, 柳致明에게 전해지면서 학문적 결집이 강화되었다. 학파의 변화와 유지는 영남 남인을 특정하는 요소이자 정치적 변화에 따라 남인의 정계 진출에 장·단점이 되었다.

이상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조선시대는 관료제 사회로 관료를 선발하기 위해 문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문과는 크게 정기적으로 치르는 식년시와 비정기적으로 시행하는 비정기시가 있었다.

영남은 총 445회의 시험에서 1,766명이 급제하였는데 평균적으로 약 2년마다 1명씩 급제자가 배출되었다. 이러한 급제자 수는 서울 다음으로 많은 수치인데 영남은 전통적으로 경제적 선진지역이고 퇴계학을 중심으로 다양한 학단이 형성되었기에 가능했다. 조정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영남을 무시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科名별로 살펴보면 식년시에서 1,026명, 증광시 306명, 별시 206명, 정시 144명, 알성시 58명, 친시 10명, 현량시 6명, 외방시·춘당대시 각 4명, 개시 2명이었다. 주로 식년시와 증광시를 중심으로 급제하였는데 상대적으로 시험을 미리 준비하기 쉬웠고 향시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시기별로 살펴보면 14세기

76) 하연, 『경상도지리지』, 「총론」(奎 10007).

77) 이익, 『성호사설』 1권, 「천지문」, 한국고전종합 데이터베이스.

8명, 15세기 241명, 16세기 300명, 17세기 383명, 18세기 339명, 19세기 495명이었다. 15~17세기까지 많은 인원이 급제하다가 18세기 이후 급격히 급제자 수가 감소하고 19세기에 다시 이전의 수치를 회복하였다. 왕대별 평균 급제자 수를 살펴보면 명종대와 영조대 평균 급제자 수가 급격히 감소하였다. 16~17세기 영남지역의 급제자 수가 증가하고 있었는데 영남사림파가 중앙정계에 진출하였기 때문이다. 이들은 별시·현량시를 통해 자신들의 세력을 확대하였다. 하지만 인조반정 이후 서인의 세력이 강화되고 李玄逸의 실각, 무신란 등으로 인해 영남인은 정치적으로 소외되었다. 19세기가 되면 정치적으로 소외되면서 영남의 불만이 증가하였다. 영남지역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19세기에 직부 전시자의 수가 증가하였으며 정시에서도 향시를 실시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고 문과에서 지역안배가 이루어진다.

일반적으로 영남은 17세기 중반 특히 숙종대 갑술환국 이후 정치적으로 소외를 받게 되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었다. 물론 전체적인 흐름을 본다면 전체적인 비중이 감소하고 있었지만 정조 이후 19세기가 되면 이전의 수치를 서서히 회복하였다. 즉 기존의 인식과 달리 영남지역은 조선시대 부침이 있었지만 지속적으로 문과급제자를 배출하였다. 그렇다면 영남지역 문과급제자의 출신 배경을 전력·거주지·성관·가문으로 구분해 분석하여 영남지역 급제자의 실체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를 다음장에서 서술하겠다.

Ⅲ. 영남지역 문과급제자의 출신 배경

Ⅱ장에서는 영남의 시기별 급제 인원을 파악하였다. 시기별·왕대별 부침이 있었지만 16·17세기에는 영남에서 많은 급제자가 배출되었으며 18세기에는 감소하고 19세기에는 다시 급제자 수치가 증가하였다. 즉 조선 전 시기에 걸쳐 서울 다음으로 영남지역에서 많은 인물들이 급제하였다.

이 장에서는 기존의 연구 방법을 이용하여 영남의 문과급제자 수를 『문과방목』에 기록된 문과급제자의 전력과 성씨, 거주지 등으로 구분하였다. 이를 통해 영남의 전체적인 문과급제자의 구체적인 모습을 제시하고, 영남에서 문과가 가지는 특징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1. 문과급제자의 전력

『문과방목』을 보면 응시자의 자격 검증을 위한 여러 가지 장치가 있었다. 그 중 하나가 응시자 본인의 前歷을 기록한 것이다. 물론 응시자의 전력이 본인의 신분을 의미하지 않는다. 다만 방목에 전력이 대부분 기록되어 있어¹⁾ 조선 전 시기의 변화 흐름을 파악하거나, 응시자의 신분적 지위를 추측할 수 있는 기초가 된다.

먼저 영남지역 문과급제자를 크게 실직이나 품계가 없는 未仕者와 전·현직 관리, 그리고 품계만 있는 散階者인 官職官品者²⁾로 나누어 시기별로 살펴 보겠다.

1) 전력이 없는 경우에는 『국조문과방목』 외에도 『국조방목』 또는 『교남과방목』과 『사마방목』을 활용하여 추가하였다.

2) ‘未仕者’는 錄事, 忠義衛, 生員, 進士, 幼學, 業儒, 新榜生員, 直赴 등이며 전·현직관리, 산계자 등은 ‘官職官品者’로 분류하였다. 전·현직 관리와 산계자를 합쳐 부르는 용어는 ‘官僚郡’, ‘官職者’, ‘元有階者’ 등 다양한 호칭으로 불리고 있다. 여기서는 차장섭이 호칭한 ‘관직관품자’를 이용하겠다 (차장섭, 「조선후기 문과급제자의 성분」, 『대구사학』 47, 1994, 13쪽).

<표Ⅲ-1> 영남지역 문과급제자의 시기별 전력

분류 \ 시기	14세기	15세기	16세기	17세기	18세기	19세기	계
未仕者(%)	8 (100)	181 (75.1)	258 (86.0)	290 (75.7)	310 (91.4)	478 (96.6)	1,525 (86.4)
官職官品者(%)		60 (24.9)	42 (14.0)	93 (24.3)	29 (8.6)	17 (3.4)	241 (13.6)
계(%)	8 (100)	241 (100)	300 (100)	383 (100)	339 (100)	495 (100)	1,766 (100)

영남지역 문과급제자 1,766명의 전력을 살펴보면 未仕者는 1,525명으로 영남 전체 급제자 중에 86.4%를, 관직관품자는 241명 13.6%를 차지하였다. 급제자의 대부분이 벼슬이 없는 사람들이었으며 시기별로 살펴보면 시간이 갈수록 未仕者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었다. 관직관품자의 경우 17세기를 정점으로 그 수가 급격히 줄어들었다. 17세기 이후 未仕者의 수치 증가는 조선후기 문과급제자 중 未仕者 수치 증가와 같은 경향이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조선시대 전체 급제자의 전력과 영남지역 급제자의 전력을 정리하면 <표Ⅲ-2>와 같다.³⁾

<표Ⅲ-2> 영남지역 문과급제자의 왕대별 전력

분류	왕대	태조	정종	태종	세종	문종	단종	세조	예종	성종	연산	중종	명종	선조
		未仕者	영남(%)	7 (11.1)	1 (3.7)	20 (8.8)	45 (13.8)	9 (23.1)	10 (17.2)	26 (16.8)	2 (14.3)	47 (18.1)	36 (17.7)	118 (15.3)
	전체	63	27	227	325	39	58	155	14	260	203	772	364	746
官職官品者	영남(%)			3 (7.7)	5 (3.6)	4 (11.8)	4 (8.0)	15 (9.8)	4 (21.1)	24 (13.0)	4 (8.3)	12 (9.3)	7 (6.5)	30 (8.2)
	전체	3	2	39	138	34	50	153	19	185	48	129	108	365

분류	왕대	광해	인조	효종	현종	숙종	경종	영조	정조	순조	헌종	철종	고종	계
		未仕者	영남(%)	36 (14.2)	96 (20.5)	22 (16.4)	38 (16.5)	121 (16.0)	15 (13.8)	149 (10.3)	94 (13.8)	146 (15.7)	73 (18.1)	77 (18.6)
	전체	254	468	134	231	758	109	1,444	681	928	403	415	1,601	10,679
官職官品者	영남(%)	21 (8.8)	23 (7.9)	11 (9.9)	11 (6.5)	24 (3.6)	2 (2.7)	17 (2.5)	3 (3.1)	6 (5.0)		3 (5.4)	8 (5.0)	241 (6.0)
	전체	239	292	111	168	666	73	680	96	119	52	56	161	3,986

* 비율(%)은 각 왕대별 전체 未仕者, 官職官品者 중 영남지역 급제자가 차지하는 비중이다.

3) 전체 전력은 차장섭의 연구를 활용하였다 (차장섭, 「조선전기 문과급제자의 성분」, 『조선사연구』 3, 1994, 12~13쪽; 차장섭, 「조선후기 문과급제자의 성분」, 『대구사학』 47, 1994, 13쪽).

조선시대 문과급제자 중 未仕者는 총 10,679명이고, 관직관품자는 총 3,986명이고 未仕者와 관직관품자의 비율은 약 73:27이다. 영남지역 급제자는 未仕者 1,525명, 관직관품자는 241명으로 전체 가운데 14.3%와 6.0%를 차지하였으며 未仕者와 관직관품자의 비율은 약 86:14이다. 조선 전체 문과는 未仕者가 관직관품자보다 훨씬 급제률이 높았고, 이는 영남도 마찬가지였다. 다만 조선 전체보다 영남지역 급제자 중 未仕者가 더 많이 급제했을 뿐이다.

시기별 추이를 살펴보면, 未仕者는 세종 대부터 급제률이 높아져 문종대에 30.8%를 차지해 최고점을 찍었다. 이후에도 약 15% 이상의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선조·광해군대에 일시 비율이 낮아졌으나 인조부터 숙종대까지 다시 높아졌다. 영조·정조대에는 탕평정치를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수치가 줄어들었고 세도정치기에 다시 상승하였다.

관직관품자의 경우 세조대부터 성종대까지 높은 수치를 유지하다가 이후 낮아져 숙종부터 정조대에 크게 감소했다가 이후 약간 증가한다. 조선 전기에 높은 수치를 유지한 이유는 당시 문과가 인재 등용 외에도 기존 관인들의 품계를 올리는 역할을 담당하였기 때문이다.⁴⁾ 조선 후기 전역 중 관직관품자가 크게 감소하는 것은 음직자에 대한 연한 규정이 『속대전』에 명문화되면서 음직자의 문과 참여가 어려워졌으며,⁵⁾ 영남지역 급제자 수가 감소하며 영남 출신 관직자 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관직관품자의 전력을 관직자와 산계자로 분리하여 품계별로 살펴보면 <표 III-3>과 같다.⁶⁾

4) 김창현, 『조선초기 문과급제자 연구』, 일조각, 1999, 41쪽.

5) 이준구, 『조선후기 신분직역변동연구』, 일조각, 1993, 138~139쪽.

6) 전직 중 실직과 산직이 함께 있을 경우 실직을 기준으로 파악하였다. 기타는 幫辦, 教導, 敎官이다. 방판은 1882년(고종19) 기기국·전환국 또는 개항한 부산·인천·원산 세 항구 감리서의 실무자다. 李采淵은 전우국방판으로 1894년 문과에 급제하였다.

<표Ⅲ-3> 관직관품자의 품계별 분포

품계	분류	영남				계	전체				
		관직자		산계자			관직자		산계자		계
		문반	무반	문반	무반		문반	무반	문반	무반	
정3품						30	15	17		62	
종3품	1				1	29	2	2	1	34	
정4품						7	12		1	20	
종4품	3			1	4	91	1	1	5	98	
정5품	4	2	54	1	61	40	31	954	17	1,042	
종5품	8			1	9	217	7	11	15	250	
정6품	7	4	2	1	14	134	105	42	21	302	
종6품	25		13	3	41	348	41	107	31	527	
정7품		2	1		3	3	52	18	6	79	
종7품	10				10	89	5	21	20	135	
정8품	4	1	5		10	1	25	30		56	
종8품	7		2		9	99	3	13	21	136	
정9품	13	3	8	4	28	6	66	38	14	124	
종9품	27		9		36	675	14	49	7	745	
기타	15				15						
계(비율)	124 (51.4%)	12 (5.0%)	94 (39.0%)	11 (4.6%)	241 (100%)	1,769 (49.0%)	379 (10.5%)	1,303 (36.1%)	159 (4.4%)	3,610 (100%)	

<표Ⅲ-3>을 보면 영남지역 급제자 중 관직관품자는 241명 중 관직자가 136명이고 산계자가 105명으로 관직자가 산계자보다 조금 더 많이 급제하였다. 조선 전체를 보면 관직자 2,148명과 산계자 1,462로 관직자가 많이 급제해 영남도 조선전체와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좀 더 세분해 문반직과 무반직으로 살펴보면 영남지역 급제자 중 문반직 관직자 124명(51.4%), 문반직 산계자 94명(39.0%), 무반직 관직자 12명(5.0%), 무반직 산계자 11명(4.6%) 순이었다. 조선 전체를 보면 문반직 관직자 1,769명(49.0%), 문반직 산계자 1,303명(36.1%), 무반직 관직자 379명(10.5%), 무반직 산계자 159명(4.4%) 순으로 영남도 조선전체와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영남이 문반직 산계자가 조금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품계별로 살펴보면 영남지역 급제자 중 참상관이 130명, 참하관이 97명으로 참상관과 참하관의 비율이 57:43이었다. 조선 전체 참상관은 2,335명, 참하관은 1,275명으로 비율은 67:35로 영남의 참하관 비율이 전체보다 약간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많은 급제자를 배출한 단일 품계는 정5품, 종6품, 종9품, 정9품 순이었다.

영남지역 급제자의 전력 중 관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Ⅲ-4> 영남지역 관직관품자의 관직과 인원 수

분류	전력 인원(명)	관직
관 직 자	25	참봉
	15	훈도
	11	교도
	9	찰방
	8	교수, 현감, 직장, 봉사
	5	도사
	4	사과, 승
	3	별제, 사용, 감찰, 군수, 교관
	2	령, 사직
	1	별좌, 정랑, 사평, 좌랑, 부술, 시직, 부사, 부령, 현령, 능직, 방판
산 계 자	54	통덕랑
	10	선교랑
	9	장사랑
	8	종사랑
	5	통사랑
	3	효력부위, 선무랑
	2	승의랑, 수의부위, 승사랑
	1	과의교위, 진용교위, 무공랑, 부위, 선략장군, 현신교위, 병절교위

영남지역 관직자의 전력 중 가장 많은 관직은 참봉(25명)이고 다음은 훈도·교도·교수를 비롯한 교수관, 찰방(9명) 등이었다. 조선시대 관직자 전력으로 참봉·현감·직장·관관·주부가 많은 수를 차지했는데⁷⁾ 영남지역 관직관품자 전력의 경우 관관·주부는 등장하지 않았고 현감·직장의 경우 각 8명이 등장하였으며, 찰방·교수관이 많았다.⁸⁾ 참봉은 전체적인 흐름과 같이 많

7) 문과급제자의 전력 가운데 관직을 조선전체와 영남지역 급제자로 나누어 표로 작성하면 다음과 같다. 전체 전력은 차장섭의 연구를 활용하였다 (차장섭, 「조선전기 문과급제자의 성분」, 『조선사연구』 3, 1994, 16~19쪽; 차장섭, 「조선후기 문과급제자의 성분」, 『대구사학』 47, 1994, 20~25쪽).

	참봉	훈도	찰방	교수	현감	직장	봉사	도사	사과	승	별제	사용	관관
영남	25	15	9	8	8	8	8	5	4	4	3	3	
전체	415	95	41	36	215	88	89	62	98	41	39	23	47

	감찰	군수	령	사직	별좌	정랑	사평	좌랑	부술	시직	부사	부령	현령	주부
영남	3	3	2	2	1	1	1	1	1	1	1	1	1	
전체	14	65	18	31	21	8	10	70	24	15	26	3	53	51

8) 敎導, 교관까지 포함한다면 교수관은 37명으로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참봉은 종9품 관직으로 殿·廟·陵 외에도 다양한 관청의 하급 관리로 존재하고 있었으며 관직수도 많았던 것으로 추측된다.⁹⁾ 비록 하급 관직이었지만 능력의 경우 국왕 또는 유력가와 친분을 맺을 기회가 많았으며, 조선 후기가 되면 인사 적체를 푸는 도구로 활용되었다. 그리고 친제 이후 陞六하는 것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음직의 청직으로 인식되었다.¹⁰⁾ 영남의 경우 17세기에 14명으로 인원이 가장 많았지만 18세기에는 한 명도 존재하지 않았다.¹¹⁾ 이는 능관직의 변화 때문이다. 능관의 경우 참봉 2명이었으나 18세기 참봉 1명 외에 직장, 령, 봉사 등 다양한 관직 1명으로 참봉의 수가 줄어들었다.

敎導는 15세기에 집중적으로 등장한다. 교도는 지방 향교에 파견되는 교관으로 생원·진사 출신이 담당하였다.¹²⁾ 교도가 되면 성균관 원점과 관계없이 문과에 응시할 자격이 주어졌으며 녹관으로 인정받아 시험 없이 벼슬에 나아갈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음사의 한 통로로 인식되었다. 결국 전직 교도라는 직책만 얻고 거주지에서 멀리 떨어진 지방의 학관에 가지 않았다. 교도의 확보가 어려워졌고 이에 따라 훈도제도로 대체되었다. 조선 중기 이후에는 향교 교육이 유명무실화되면서 교도·훈도제는 폐지되고 대신 敎養官이 임시적으로 파견되었다.¹³⁾ 세종대 이후 전력 중 교도·훈도의 비중이 증가하였는데¹⁴⁾ 영남지역 급제자 중 15세기에 교도가 11명, 임시적으로 향교에 파견된 교관은 17세기 2명, 18세기 1명 등 총 14명이 있었다.

종6품 敎授와 종9품 훈도는 지방 향교에 파견되는 교수관으로 도호부 이상 군현의 교수관은 삼관의 권지들을 임명하였다. 하지만 權知者는 지방보다는 중앙 관료 진출을 희망하여, 조선후기가 되면 교수관의 교육 역할을 수행하지

9) 참봉에 대한 연구는 능참봉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으나 구체적인 연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못했다. 『대전통편』 「이전」을 통해 보면 경관직은 90員, 외관직은 6員 이었으므로 96員 이상의 관직수를 차지할 것으로 추측된다.

10) 김충현, 「『명릉선생안』을 중심으로 본 조선후기 능관의 변화와 운용」, 『장서각』 39, 2018, 199~200쪽.

11) 18세기가 되면 관직자 수가 줄다가 19세기에 약간 늘었다. 18세기 관직자의 전력을 보면 현감 3명, 봉사 2명, 시직 1명이 있었다.

12) 『태종실록』 32권, 태종16년 8월 10일 기사, “文科出身六品以上敎授官 稱某官儒學敎授官 參外稱訓導官 生員進士稱敎導 又醫學敎授官改稱某道醫學敎諭”

13) 여영기, 「15세기 地方敎官政策의 정비와 訓導制의 성립」, 『교육사학연구』 23, 2013.

14) 조선 전기 전력 중 교도·훈도는 세종 9.4%, 문종 21.9%, 단종 13.2%, 세조 9.4%, 예종 12%, 성종 5.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김창현, 『조선초기 문과급제자 연구』, 일조각, 1999, 36~37쪽).

않게 되었다. 영남지역 급제자의 전력을 보면 16세기 이후 교수관이 등장하지 않는다. 찰방의 경우 16세기 4명, 17세기 5명이 있었다. 찰방은 중6품 외관직으로 1535년 찰방체제가 확립되면서 문음 초입자들이 많이 진출하였다.¹⁵⁾

산계자의 경우 통덕랑(54명)이 대다수로 17세기 31명, 18세기 20명이었다.¹⁶⁾ 통덕랑은 정5품 품계로 1623년(인조 1) 이후 대가 할 수 있는 산계로 한정됨에 따라 그 수가 증가하였다.¹⁷⁾

영남지역 급제자 중 관직관품자의 전력을 살펴보면, 17세기 이전까지는 관직자의 수가 많았다. 특히 참봉·교수관·찰방의 수치가 높은데, 이 직역들은 조선시대 문음출신자들이 임명되던 관직으로 영남 출신 인물이 중앙 관직에 진출하던 시기에 많았다. 17세기 이후에는 산계자가 늘었는데, 특히 통덕랑이 많았다. 이는 代加制의 변화로 지방민들이 민감하게 반응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향리의 호장들이 스스로 통덕랑이라 자처하였다.

전력 중 未仕者의 직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유학 789명, 생원 450명, 진사 276명, 기타 10명이었다.¹⁸⁾ 이 중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조선 전기에는 생원·진사가, 후기로 갈수록 유학의 수가 많았다. 생원은 영남지역 급제자 중 450명으로 25.5%,¹⁹⁾ 진사는 276명으로 15.6%, 유학은 789명으로 44.6%를 차지하였다. 시기별로 살펴보면 <그래프Ⅲ-1>과 같다.²⁰⁾

15) 박홍갑, 「조선전기 찰방」, 『사학연구』 40, 1989; 조병로, 「조선후기 찰방의 교체실태와 찰방해유문서에 대한 일고」, 『역사와 교육』 10, 2010.

16) 전체 문과급제자 전력 산계 관직과 영남 문과급제자 전력 산계 관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체 문과급제자 전력은 차장섭의 연구를 활용하였다 (차장섭, 「조선전기 문과급제자의 성분」, 『조선사연구』 3, 1994, 16~19쪽; 차장섭, 「조선후기 문과급제자의 성분」, 『대구사학』 47, 1994, 20~25쪽).

	통덕 랑	선교 랑	장살 랑	중사 랑	통사 랑	효력 부위	선무 랑	승의 랑	수의 교위	승사 랑	과의 교위	진용 교위	무공 랑	선략 장군	현신 교위	병절 교위
영남	54	10	9	8	5	3	3	2	2	2	1	1	1	1	1	1
전체	951	82	49	38	30	14	25	33	5	13	1	13	18	4	7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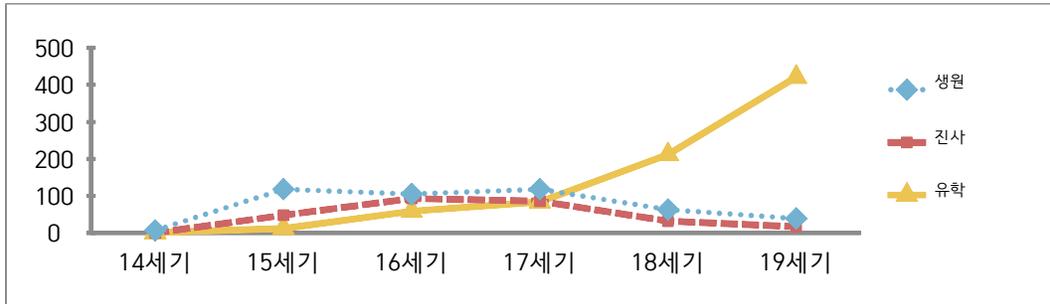
17) 최승희, 「조선시대 대가 관련 고문서와 문과방목 급제자의 문·무산계기제」, 『조선시대사학보』 63, 2012, 168~169쪽.

18) 기타에는 녹사 3명, 업유 3명, 충의위 3명, 직부 1명이었다. 녹사는 사족들의 자제들이 받은 음관으로, 영남 합격자 중 15세기에만 나타난다. 충의위는 공신 자제들을 위해 설치되었는데 실적이 없는 체아직이었으며 후기가 되면 명목상으로만 존재하는 벼슬이다. 16세기에 1명, 17세기에 2명이 급제하였다. 업유는 18세기 3명이 있는데 이 시기에 업유는 서얼층을 의미하는 직역이었다. 직부는 직부의 혜택을 받았다는 의미로 고종 대에 1명이 등장한다.

19) 생원 중 6명은 新榜生員으로 15세기 5명, 16세기 1명이 급제하였다. 신방생원은 생원시, 진사시, 대과를 함께 쳐서 한 해에 소과와 대과를 모두 통과한 사람들이다.

20) 전체 생원·진사·유학은 차장섭의 연구를 이용하였다 (차장섭, 「조선전기 문과급제자의 성분」, 『조선사연구』 3, 1994, 12~13쪽; 차장섭, 「조선후기 문과급제자의 성분」, 『대구사학』

<그래프Ⅲ-1> 영남지역 생원, 진사, 유학의 급제 추이



분류	시기	14세기	15세기	16세기	17세기	18세기	19세기
		생원	전체 84 영남 7	865 118	855 105	456 118	358 63
진사	전체 4 영남	301 48	868 93	477 86	367 32	223 17	
유학	전체 2 영남	115 12	516 59	658 84	1,509 212	1,365 421	

생원은 15세기에 최고점을 찍고 17세기까지 약 100명 이상의 수치를 유지하고 있다가 이후 급격히 감소하였다. 진사의 추이는 진사시와 관련이 있었다. 진사시는 태조대 폐지되었지만 세종 20년(1438)에 복구되었고 세종 26년에 다시 폐지되었다. 단종 원년(1453) 복구된 후 과거제도가 폐지될 때까지 유지된다.²¹⁾ 시기에 따라 변동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생원이 진사보다 우대를 받고 있었다. 이에 따라 진사의 수는 전체적으로 생원보다 적은 수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진사시가 복구된 15세기에 급격히 성장하였다가 17세기 이후 감소한다.

조선시대에는 小科가 총 230회 시험이 시행되어 38,386명의 생원·진사가 배출되었다. 이 중 경상도는 5,398명이었으며²²⁾ 문과급제자의 전력이 생원·진사인 사람은 729명이었다. 영남지역 생원·진사 중 문과에 급제하는 비중은 13.5%였다. 그 외에도 敎導·訓導를 비롯한 교수관이나 관직자 중 생원·진사

47, 1994, 13~14쪽).

21) 『태조실록』 3권, 태조2년 3월 16일 신유, “敎書一款節該 科擧之法 本以爲國取人 通三場相考入格者 送于吏曹 量才擢用 監試革去”; 『세종실록』 103권, 세종26년 1월 27일 정축, “又聞雖年過三十四十之人 所居官減年以報 則三館雖欲糾擧 終不能矣 因此冒年之人 製給童雉者頗多 永罷進士試”; 『단종실록』 4권, 단종즉위년 12월 26일 갑인, “今復立進士試 請依甲子年例 漢城試取二百人 京圻七十人 忠淸全羅道各七十五人 慶尙道一百人 江原黃海咸吉道各四十五人 平安道六十人 會試一百人 其擧子分所及試取時 詩賦等第分數 亦依生員試例”

22) 최진옥, 『조선시대 생원진사연구』, 집문당, 1998, 169쪽.

출신을 포함한다면 그 수는 더욱 늘어날 수 있다. 즉 조선 전기에는 小科를 통해 문과에 급제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었던 것이다. 또한 17세기까지 진사보다 생원이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생원시는 유교 경전을 외우는 시험으로, 주자학이 강성하였던 영남지역에서 생원시를 중시하였다. 이에 따라 영남의 유생들은 명경과를 치루는 식년시·증광시에 많이 참여하였다.²³⁾

유학은 17세기 이후 증가하기 시작하여 18·19세기에 급증하였고, 상대적으로 생원·진사 수가 급감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조선시대 전체적인 추이였다. 17세기 중반에는 30%를 상회하다가 18~19세기에 60%, 19세기 말에는 70%를 차지했다. 유학은 벼슬이 없고 성균관·사학·향교에 입적한 학생이나 교생이 소·대과에 나갈 때 사용하는 직역이었다.²⁴⁾ 처음에는 양반의 직역이었으나 18세기 이후 모칭유학이 증가하고 서얼 출신자도 유학 호칭이 가능해지면서 유학이라는 직역에 다양한 계층이 혼재하였다. 또한 16세기 이후 성균관 외에도 사학이나 지방의 향교에서도 圓點 취득이 가능해지면서 유학의 문과 응시가 많아졌다.

다음으로 시험별 전력을 살펴보겠다.

<표Ⅲ-5> 영남지역 급제자의 시험별 전력 분포

과명 직역	식년시	증광시	별시	정시	알성시	친시	현량시	외방시	춘당시	개시	계
유학	495	97	67	108	15	2	1		2	2	789
생원	257	90	54	20	21	5	1	1	1		450
진사	142	56	52	12	10	1	1	1	1		276
통덕랑	39	12	3								54
참봉	8	10	5	1	1						25
훈도	11	1	2		1						15
교도	5	3	1		2						11
찰방	2	3	5								10
선교랑	5	4	1								10
장사랑	6				1						7
종사랑	5		3								8
교수	6	1	1								8
현감	1	6					1				8
직장	3	1	1		1		1				7
봉사	2		2	2	1						7
계	987	284	197	141	53	8	5	2	4	2	1,683

* 급제인원이 7명 이상인 인물의 전력을 정리하였다.

23) 박현순, 『조선 후기의 과거』, 소명출판, 2014, 277~280쪽.

24) 이준구, 「유학과 그 지위」, 『조선후기 신분직역변동연구』, 일조각, 1993, 126~132쪽.

영남지역 급제자 중 未仕者는 대체적으로 모든 시험에서 유학, 생원, 진사 순이었지만 알성시·친시에서는 생원의 수가 유학보다 많았다. 알성시와 친시는 조선 초기에 시행된 시험으로 이때는 유학의 범위가 좁았다. 증광시는 시간이 지날수록 유학과 생원의 폭이 줄어들었으며 정시는 유학의 수가 많았다. 유학은 식년시와 조선 후기 정시에 많이 급제하였으며, 생원·진사는 식년시에 많이 급제하였지만 유학과 달리 증광시·별시·알성시에 더 많은 인원이 급제하였다.

관직관품자의 경우 식년시에 통덕랑·교수관 출신이 많았고, 참봉은 식년시·증광시·별시에 고르게 분포하고 있었다. 특히 증광시는 현감이 특별히 많았고, 별시는 찰방이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즉 증광시는 외방직이 선호했음을 유추할 수 있다.²⁵⁾ 과명별 급제자의 전력 차이는 시험의 특징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정기시의 경우 시험이 시행되는 시기가 정해져있고 향시가 있어서 지방 유생이 참여하기 유리하였다. 하지만 비정기시의 경우 시험이 불규칙적이어서 시험의 소식을 듣기 쉬운 관직관품자가 많이 응시하였다.

영남지역 관직관품자가 선호한 시험을 유추하기 위해 각 시험별로 관직자·산계자의 비중을 살펴보면 <표Ⅲ-6>과 같다.

<표Ⅲ-6> 영남지역 관직관품별 참여 시험 유형

과명 분류		식년시	증광시	별시	정시	알성시	계(명)
		관직자	20 (16.5)	18 (32.7)	11 (34.4)	1 (25.0)	2 (22.2)
	참하관	29 (24.0)	15 (27.3)	12 (37.5)	3 (75.0)	6 (66.7)	65 (29.4)
산계자	참상관	51 (42.1)	19 (34.5)	6 (18.7)			76 (34.4)
	참하관	21 (17.4)	3 (5.5)	3 (9.4)		1 (11.1)	28 (12.7)
계(%)		121(100)	55(100)	32(100)	4(100)	9(100)	221(100)

25) 찰방(9명), 현감(8명), 군수(3명), 현령(1명) 등 외방직을 살펴보면, 식년시 5명, 별시 5명, 증광시 10명, 현량시 1명으로 증광시가 가장 많았다.

<표Ⅲ-6>에 의하면 식년시 121명 가운데 산계자 참서관이 51명(42.1%), 관직자 참하관 29명(24.0%), 산계자 참하관 21명(17.4%), 관직자 참서관 20명(16.5%) 등으로 산계자 참서관이 많았다. 음직이나 천거로 품계를 받은 인물들이 식년시를 통해 승진하고 있었다. 비정기시 중 증광시의 경우 산계자 참서관이 19명(34.5%), 관직자 참서관 18명(32.7%), 관직자 참하관 15명(27.3%), 산계자 참하관 3명(5.5%), 별시의 경우 관직자 참하관 12명(37.5%), 관직자 참서관 11명(34.4%), 산계자 참서관이 6명(18.7%), 산계자 참하관 3명(9.4%)으로 관직자 참서관·참하관이 증광시와 별시를 통해 승진하는 사례도 적지 않은 비율을 보인다. 이는 관직자가 시험에 대한 소식을 접하기 쉬웠으며 비정기시의 성격이 기존 관인층을 승진시키는 기능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영남지역 급제자의 전력을 살펴보면 기존의 관직이나 품계가 있는 인물보다는 벼슬을 하지 않은 유학·생원·진사가 대부분이었다. 시기별로는 17세기 이전까지 영남지역 관직관품자의 수가 증가하다가 18세기에 급격히 감소하게 되었다. 17세기 이전까지는 영남 출신 인물이 지속적으로 중앙관료로 진출하여 성장하였다. 하지만 정계 변동으로 인해 영남 남인의 정치적 영향력이 감소하고, 중앙관료로 남아있던 사람들도 시험을 통해 승진하여 고위 관료로 성장하기 어려워지며 18세기가 되면 관직관품자가 감소하였다.

전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참봉·교수관·찰방 등의 수가 많았는데 다른 급제자들과 비교해 승진하기 유리했기 때문이다. 산계자는 통덕량이 많은데 17세기에 대가제의 변동으로 통덕량이 중요한 지위가 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관직관품자는 증광시·별시에서 상대적으로 급제를 많이 하였다. 이는 다른 응시자에 비해 시험에 대한 소식을 더 쉽게 접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未仕者는 17세기 이전에는 생원·진사가, 17세기 이후에는 유학이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유학의 급증은 향리나 서얼의 허통운동이 작용했을 것으로 생각된다.²⁶⁾ 未仕者는 정기시 외에도 비정기시에 활발히 참여하였는데 특히 정시가 눈에 띄었다. 정시는 조선후기 자주 설행된 비정기시 중 하나로 조선 후기 정시 초시가 진행되며 지역의 유생이 많이 참여하였다.

전력에 나타난 영남지역 급제자 양상은 영남은 조선시대 전체적인 흐름과

26) 배재홍, 「조선후기의 서얼 허통」, 『복현사림』 10, 1987; 이훈상, 「조선후기 경상도 감영의 영방과 안동의 향리사회」, 『대동문화연구』 55, 2006; 이수환, 「조선후기 안동 향리 권희학 가문의 사회·경제적 기반과 봉강영당 건립」, 『대구사학』 106, 2012.

유사하다. 다만 조선전기 문과가 관원들의 승진이나 인재 등용이라는 역할을 수행하였지만, 후기가 되면 인재 등용 외에도 지역의 불만을 해소하는 목적으로 적극 활용되었다. 이에 따라 18세기에 정치적으로 소외되었던 영남에서 19세기가 되면 未仕者를 중심으로 문과급제자가 증가하였다.

2. 문과급제자의 거주지

1) 영남지역 급제자의 거주지 현황

본관제는 고려시대 백성들의 거주를 안정화하고 신분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이용되었다. 하지만 여말선초 왜적의 침입, 토지 개발과 같은 사회적 변화에 의해 본관지를 떠나는 사람들이 증가하면서 의미가 변했다. 조선시대 본관은 가문을 표시하고, 거주지는 징세와 調役의 기준이 되었다.²⁷⁾

이로 인해 문과에 응시자들은 성명, 본관, 4祖 單子는 물론 거주지도 기재하여 錄名所에 제출하여야 했다. 특히 정기시의 초시는 지역에 따라 합격 인원이 배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本道 原居住地를 적어야 했다. 하지만 방목의 거주지 정보가 완벽하다고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사마방목』의 교차검증을 통해 거주지를 파악하고 있다.²⁸⁾ 본고에서는 『사마방목』, 『교남과방목』에 기록되어 있는 거주지를 이용하고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한국역대인물 종합정보시스템’,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등의 인터넷 사이트와 『경북인물사전』²⁹⁾을 활용하여 거주지를 확인하였다. 이상의 기준으로 거주지를 파악하면 영남지역의 급제자는 총 1,766명이었다. 영남지역 문과급제자 배출지역과 인원은 <표Ⅲ-7>과 같다.

27) 원창애, 「조선시대 문과급제자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박사학위논문, 1997, 139~140쪽.

28) 이원명, 『조선시대 문과급제자 연구』, 국학자료원, 2004, 66쪽.

29) 한국지역인문자원연구소, 『경북인물사전』, 경상북도, 2015.

<표Ⅲ-7> 영남지역 문과급제자 배출지역과 인원

구분	지역별 인원	계
200명 이상 (1개 지역)	안동 243명	243명
199~100명 (2개 지역)	상주 149명, 榮川 105명	254명
99~50명 (7개 지역)	선산 97명, 성주 85명, 예천 78명, 진주 66명, 예안 67명, 경주 59명, 永川 58명	510명
49~40명 (5개 지역)	대구 49명, 의성 43명, 단성 44명, 금산 41명, 함창 40명	217명
39~30명 (7개 지역)	칠곡 34명, 풍기 34명, 밀양 33명, 영해 32명, 창녕 31명, 함양 31명, 용궁 30명	225명
29~20명 (6개 지역)	함안 24명, 합천 23명, 순흥 22명, 고령 22명, 김해 20명, 인동 21명	132명
19~10명 (7개 지역)	안의 17명, 청도 16명, 거창 15명, 의령 12명, 현풍 11명, 영산 10명, 문경10명	91명
9명 이하 (28개 지역)	산청 9명, 창원 8명, 초계 8명, 봉화 8명, 삼가 7명, 군위 6명, 칠원 6명, 청송 5명, 동래 4명, 양산 4명, 고성 4명, 영덕 4명, 사천 2명, 영양 2명, 의흥 2명, 하동 2명, 지례 2명, 울산 1명, 홍해 1명, 경산 1명, 개령 1명, 비안 1명, 진보 1명, 진해 1명, 하양 1명, 의안 1명, 기계 1명, 안강 1명	94명
계(63개 지역)		1,766명

위 <표Ⅲ-7>에 의하면 63개 지역에 1,766명이 급제하였다. 『대전회통』에 의하면 관원이 파견된 경상도 군현이 75개 지역이었으며, 그 중 급제자가 배출된 곳이 63개 지역으로, 경상도의 84.5%의 지역에서 급제자가 배출되었다. 또한 조선 전체 문과급제자 배출 지역인 370개 지역 중에서도 63개 지역(17%)을 차지하였다.

100명 이상의 급제자를 배출한 지역은 안동, 상주, 榮川이었다. 특히 안동은 서울, 정주 다음으로 많이 급제하였다. 이와 달리 1명만 배출한 지역은 11개 지역으로 17.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특정 군현을 중심으로 많이 급제하였으며 적은 인원이 급제하는 군현별 불균형이 있었다.

영남지역의 군현 크기와 경제적 기반을 분류하여 군현별 불균형이 발생한 이유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다. 먼저 군현의 크기에 따라 검토해 보면 <표Ⅲ-8>과 같다.

<표Ⅲ-8> 영남지역 군현 크기에 따른 문과급제자 현황

군현	영남지역 문과급제자 수	영남(%)	전체(%)
부(부윤) (1개 지역)	경주 59명	59명 (3.3)	539명 (8.8)
대도호부 (2개 지역)	안동 243명, 창원 8명	251명 (14.1)	392명 (6.4)
목 (3개 지역)	상주 149명, 성주 85명, 진주 66명	300명 (17.1)	1,798명 (29.4)
도호부 (14개 지역)	선산 97명, 대구 49명, 칠곡 34명, 밀양 33명, 영해 32명, 함양 31명, 순흥 22명, 인동 21명, 김해 20명, 거창 15명, 청송 5명, 동래 4명, 하동 2명, 울산 1명	366명 (19.0)	1,031명 (16.8)
군 (11개 지역)	榮川 105명, 예천 78명, 永川 58명, 금산 41명, 풍기 34명, 함안 24명, 합천 23명, 청도 16명, 초계 8명, 양산 4명, 흥해 1명	392명 (24.0)	1,103명 (18.1)
현(현령) (4개 지역)	의성 43명, 고성 4명, 영덕 4명, 경산 1명	52명 (2.9)	242명 (3.9)
현(현감) (25개 지역)	예안 67명, 단성 44명, 함창 40명, 창녕 31명, 용궁 30명, 고령 22명, 안의 17명, 의령 12명, 현풍 11명, 영산 10명, 문경 10명, 산청 9명, 봉화 8명, 삼가 7명, 군위 6명, 칠원 6명, 사천 2명, 의흥 2명, 영양 2명, 지례 2명, 개령 1명, 비안 1명, 진보 1명, 하양 1명, 진해 1명	343명 (19.4)	1,014명 (16.6)
기타 (3개 지역)	의안 1명, 기계 1명, 안강 1명	3명 (0.2)	
계 (63개 지역)		1,766명 (100)	6,119명 (100)

* 군현의 크기는 『대전회통』의 기준을 이용하였다.

* 전체 급제자의 현황은 이원명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영남지역 급제자의 비율은 조선 전체가 아닌 영남의 비율이다. 다만 비교를 위해 조선 전체 수치도 함께 제시하였다 (이원명, 『조선시대 문과급제자 연구』, 국학자료원, 2004).

영남의 경우 부는 영남 전체 급제자 중 3.3%, 대도호부는 14.1%, 목은 17.1%로, 도호부는 19.0%로, 군은 24.0%로, 현(현령)은 2.9%로, 현(현감)은 19.4%로, 기타는 0.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즉 급제자 수를 보면 영남은 군, 현(현감), 도호부, 목, 대도호부, 부, 현(현령) 순이었다. 조선시대 전체 급제자 수를 보면 목, 군, 도호부, 현(현감), 부(부윤), 대도호부, 현(현령) 순으로 군현의 크기로 보았을 때 영남이 상대적으로 군과 현(현감)의 급제자 수가 많았으며 군현의 크기가 같더라도 급제자의 많고 적음의 차이가 현격하였다. 이러한 차이는 사족의 유무와 문화·경제적 기반 등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조선시대 전체 군현 크기별 평균 급제자 수를 살펴보면 대도호부(98명), 목(95명), 부(90명), 도호부(28명), 군(28명), 현(현감, 24명), 현(현령, 24명)의 순이었으며, 영남은 대도호부(126명), 목(100명), 부(59명), 군(35명), 도호부(22명), 현(현감, 10명), 현(현령 10명)순으로 전체적으로 같은 수치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전체적인 평균과 큰 차이가 없었다.³⁰⁾ 군현의 단위와 급제자의 수가 일치하는 이유는 원칙적으로 군현별에 따라 예비 응시자인 학생의 수가 달랐기 때문이다.³¹⁾ 다만 영남의 경우 군에서 도호부보다 많은 인원이 급제하였다.

대도호부 중 안동의 급제자는 243명으로 이러한 수치는 서울·정주 다음으로 많은 인원이 급제하였고 이로 인해 대도호부의 평균 수치가 증가하였다. 안동은 사족의 세력과 퇴계학맥이 강성하여 급제자가 많이 배출되었다. 목 중 상주는 경상도·충청도에 접경하였으며 당색에 상관없이 다양한 가문과 혼인하고 퇴계학과와 우암학과 등 학문교류가 활발한 지역이었다.³²⁾

군 중 榮川의 경우 생원·진사가 많이 배출된 지역이고 鄭道傳을 비롯한 조선 개국 인물의 고향이었으며 단종 복위를 주도한 지역이었다.³³⁾ 이밖에 진주·선산은 曹植, 金宗直을 중심으로 한 학파가 형성되어 15~17세기에 중앙 정계에 많이 진출하였다.

15·16세기에는 재지사족이 군·현의 외곽지역인 임내지역을 적극 개발해 새로운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15세기 말 李滉의 조부인 李繼陽이 예안현 온계에 북거하게 되면서 이곳을 개발하여 진성이씨가 안동·예안의 대표적인 사족으로 성장하는 기반을 만들었다.³⁴⁾ 물론 의안·기계·안강 같이 사족의 세력이 약한 속현에서도 급제자가 배출되기는 하였지만 일시적인 현상이었고 이후 지속적으로 급제자를 배출하지 못했다.

다음으로 군현의 경제적 기반을 살펴보겠다. 丁若鏞이 지은 『경세유표』에 의하면 民戶의 많고 적음, 田結의 넓고 좁음에 따라 군현의 등급을 매겼다. 구

30) 군현별 평균 급제인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대도호부	목	부	군	도호부	현(현감)	현(현령)
영남	126	100	59	35	22	10	10
전체	98	95	90	28	28	24	24

31) 부·대도호부·목의 학생은 각 90명씩이고 도호부는 70명, 군은 50명, 현은 30명으로 총 14,950명의 정원이 있었다 (최진욱, 『조선시대 생원진사연구』, 집문당, 1998, 170쪽).

32) 송석현, 「17세기 상주지역 사족의 동향」, 『영남학』 27, 2015.

33) 안병걸, 「16세기 榮川의 지성계에 대한 소고」, 『퇴계학』 22, 2014; 김의환, 「영주지역 생원·진사 입격자와 사회적 지위」, 『국학연구』 35, 2018.

34) 정진영, 「재지사족, 향촌의 지배자가 되다」, 『조선시대사』 2, 푸른역사, 2015, 97~98쪽.

체적으로 살펴보면 민호와 전결을 합쳐 2만 5천 이상은 大州, 2만 이상은 大郡, 1만 5천 이상은 中郡, 1만 이상은 小郡, 8천 이상은 大縣, 6천 이상은 中縣, 4천 이상은 小縣으로 분리하였다.³⁵⁾ 19세기라는 시대적 한계성을 가지고 있지만 간접적으로 경제적 기반이 문과급제 수에 미친 영향을 유추할 수 있다.

경제적 기반에 따른 영남지역 급제자의 거주지를 살펴보면 <표Ⅲ-9>와 같다.

<표Ⅲ-9> 영남지역 군현 경제적 기반과 급제자 현황

분류	15~18세기 영남 급제자 수	계	19세기 영남 급제자 수	계
대주	안동 163명, 상주 101명, 성주 64명, 진주 45명, 대구 41명, 경주 33명, 밀양 23명	470 (37.3%)	안동 80명, 상주 48명, 경주 26명, 성주 21명, 진주 20명, 밀양 10명, 대구 8명	213 (43.1%)
대군	김해 15명, 고성 4명	19 (1.5%)	김해 4명	4 (0.8%)
중군	선산 74명, 예천 65명, 영川 50명, 의성 36명, 창녕 13명, 울산 1명	239 (19.0%)	선산 21명, 창녕 18명, 예천 12명, 영川 8명, 의성 7명	66 (13.4%)
소군	금산 38명, 함안 20명, 청도 11명, 창원 8명	77 (6.1%)	청도 5명, 함안 4명, 금산 3명	12 (2.4%)
대현	합천 20명, 함양 18명, 거창 14명, 영산 8명, 의령 7명, 현풍 7명, 인동 6명, 하동 2명, 양산 1명	83 (6.6%)	인동 14명, 함양 13명, 의령 5명, 현풍 4명, 양산 3명, 합천 2명, 영산 2명, 개령 1명, 거창 1명, 진해 1명	46 (9.3%)
중현	榮川 87명, 용궁 25명, 안의 11명, 초계 8명, 삼가 5명, 군위 4명, 동래 4명, 문경 4명, 영덕 4명, 사천 2명, 비안 1명, 의흥 1명, 흥해 1명	157 (12.4%)	榮川 18명, 문경 6명, 안의 6명, 용궁 5명, 군위 2명, 삼가 2명, 경산 1명, 의흥 1명	41 (8.3%)
소현	합창 40명, 예안 37명, 풍기 26명, 영해 25명, 칠곡 19명, 단성 18명, 고령 14명, 순흥 12명, 봉화 7명, 칠원 6명, 산청 5명, 청송 3명, 지례 2명, 영양 1명, 하양 1명	216 (17.1%)	예안 30명, 단성 26명, 칠곡 15명, 순흥 10명, 풍기 8명, 고령 7명, 영해 7명, 산청 4명, 청송 2명, 봉화 1명, 영양 1명, 진보 1명	112 (22.7%)
계 (비율)		1,261 (100%)		494 (100%)

* 속현인 기계, 안강, 의안에서 급제한 3명은 제외하였다.

35) 정약용, 『경세유표』 4권, 「천관수제」 군현분등.

<표Ⅲ-9>는 속현인 의안·기계·안강과 14세기 영남지역 급제자를 제외한 수치이다. 丁若鏞의 분류에 따른다면 15~18세기 영남지역 문과급제자는 대주(37.3%), 중군(19.0%), 소현(17.1%), 중현(12.4%), 대현(6.6%), 소군(6.1%), 대군(1.5%)의 순이었으며, 19세기에는 대주(43.1%), 소현(22.7%), 중군(13.4%), 대현(9.3%), 중현(8.3%), 소군(2.4%), 대군(0.8%)의 순이었다. 영남 전체와 19세기 급제자 수를 비교하면 대현과 중현의 순서가 바뀌었지만 그 수치는 크게 차이나지 않았다. 또한 19세기가 되면 소현이 증가하는데 특히 예안과 단성의 급제자가 증가하였다. 대군의 경우에는 소속된 군현의 수가 적어 급제자가 적었지만 김해지역을 중심으로 급제자가 많이 배출되었다. 김해지역은 曹植이 학문을 강론하였으며,³⁶⁾ 19세기가 되면 許傳이 김해부사가 임명되며 많은 인물이 그의 문하에 수학하였다.

인구나 전답의 결수가 많던 대주와 중군은 급제자를 많이 배출했으나 소현의 경우에는 중군과 급제자 수가 크게 차이나지 않는다. 소현의 경우 인구는 약 2천~3천명이었고, 전답도 평균 약 2천 정도로 경제적 요인이 약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급제자가 많은 이유는 순흥(도호부), 칠곡(도호부), 영해(도호부), 풍기(군)와 같이 행정적으로 상급 군현이거나 함창, 고령, 단성, 예안과 같이 사족들이 세거한 지역이 많았기 때문이었다.

대군의 고성, 중군의 의성·창녕은 모두 縣이었고 경제적 기반이 풍족하였으나 의성·창녕에서는 급제자가 많이 배출되었지만 고성은 급제자의 수가 적었다. 왜냐하면 고성은 경남 해변에 위치한 변방이었고 조선 초기 왜적의 침입이 잦아 토성이 성장하기 어려운 환경을 가지고 있었다. 게다가 임란 이후 의병활동을 하며 관직을 받고 일부가 재지사족으로 성장했지만 중앙 관료로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이다.³⁷⁾

영남의 군현 중 급제자를 배출하지 못한 지역도 있다. 거제(도호부), 곤양(군), 남해(현령), 경산(현령), 웅천(현감), 자인(현감), 신녕(현감), 청하(현감), 영일(현감), 장기(현감), 기장(현감), 언양(현감) 등 12개 지역이다. 이 군현은 경산·신녕처럼 군현의 변동이 심하거나, 거제·곤양·남해·웅천·청하·영일과 같은 해안지역, 자인·청하·장기·기장·언양과 같이 경제적 기반이 약한 지역이었다. 물론 이 군현에도 사족이 존재하고 이들이 분동이나 면약을 주도하기도 하였으나 다른 지역과 비교하였을 때 상대적으로 사족의 세력이

36) 송희복, 「남명 조식의 시문에 나타난 김해의 지역적 성격」, 『국제언어문학』 34, 2016

37) 장동표, 「조선중기 고성지역 재지사족의 형성과 발전」, 『지역과 역사』 6, 2000.

약했다.³⁸⁾

영남지역 문과급제자 거주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영남은 84.5%의 지역에서 급제자를 배출했으나 특정 지역에 인원이 집중되었고, 급제자를 한명도 배출하지 못한 지역도 있었다. 이러한 군현별 불균형은 군현의 크기와 경제적 기반이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16세기 사족들이 군현의 임내지역을 개발하면서 사족들의 세거지로 발전한 지역으로 학문적인 성장을 이룬 지역에서 급제자가 많이 배출되었다.

3. 문과급제자의 성관·가문 현황

1) 영남지역 급제자의 성관

문과급제자의 출신과 관련하여 확인해야 할 것은 姓貫이다. 고려 태조는 후삼국통일 후 지방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군현의 개편을 시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지방 세력에게 각기 출신지·거주지별로 성관·본관을 책정하였다. 일반 양인의 경우에도 거주지를 본관으로 편제하여 대민통제를 강화하였다. 조선시기에 여전히 성관을 가지지 못하는 무성층이 존재하지만 조선후기를 거치면서 이들도 성관을 가지게 되었다.³⁹⁾

따라서 성관의 분석을 통해 문과급제자 중에 어떠한 신분이 있었는지를 규명할 것이 우선적으로 검토할 사항이다. 1,766명 중 성관을 확인할 수 있는 인원은 1,764명으로 99.8%로 대다수를 확인할 수 있었다.⁴⁰⁾ 먼저 급제자의 성관을 살펴보면 <표Ⅲ-10>과 같다.⁴¹⁾

38) 채상식, 「18, 19세기 동족·특수부락의 실태: 신례 언양현호적대장을 중심으로」, 『인문논총』 26, 1984; 이광우·이수환, 「자인, 경주 지역 재지사족의 동향」, 『고문서연구』 41, 2012; 이광우, 「1784년~1945년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향약계의 성격」, 『한국민족문화』 56, 2015.

39) 김경관, 「조선후기 무성층의 존재형태와 성관 획득 경로」, 『사학연구』 110, 2013.

40) 성관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는 총 2회로 태조2년 병자 식년시에 급제한 盧異, 중종9년 갑술별시에 급제한 黃有中이었다.

41) 남양홍씨의 경우 洪天河가 시조이고 洪殷悅이 중시조인 당홍계와 洪先幸을 시조로 하는 토홍계로 분류하여 파악하였다. 안동을 본관으로 하는 김씨의 경우에도 金叔承이 시조인 상락김씨와 金宣平이 시조인 안동김씨로 분류하였다. 선산김씨의 경우에도 김선궁이 시조인 선궁계와 김추가 시조인 추계가 있었다. 위 성관은 본관은 같지만 혈연적 관계가 다른 가문이므로 여기서는 분류하여 파악하였다.

<표Ⅲ-10> 영남지역 급제자의 성관

급제자 수	성관 수	성관
105	1	안동權
74	1	진주姜
59	1	진성李
57	1	의성金
35	1	김해金
33	1	밀양朴
31	1	창녕曺
29	1	여주李
28	1	벽진李
27	1	인동張
25	1	전주李
23	3	선산金(선공계), 영양南, 광주李
22	4	예산金, 상락金, 경주李, 영천李
21	2	함양朴, 풍산柳
20	1	영일鄭
19	4	현풍郭, 상산金, 반남朴, 동래鄭
18	2	경주孫, 진양河
17	2	풍산金, 전주柳
16	4	과평尹, 성주李, 진양鄭, 창원黃
15	1	성산李
14	5	순천金, 순천朴, 야로宋, 순흥安, 전의李
13	4	고성李, 풍양趙, 화순崔, 경주崔
12	8	봉화琴, 선산金(추계), 성주都, 창녕成, 청주鄭, 하동鄭, 한양趙, 함안趙
11	5	광주安, 성산呂, 밀양孫, 영산辛, 평산申
10	1	인천蔡
9	8	경주金, 광산金, 성산裴, 흥해裴, 아주申 , 재령李, 진주崔, 장수黃
8	8	예천權, 광주盧, 여흥閔, 단양禹, 연안李, 해주鄭, 남양洪(당홍), 평해黃
7	8	서흥金, 연안金, 함창金, 풍천盧, 고령朴, 무안朴, 함안李, 부계洪
6	11	안동金, 대구徐, 거창愼, 남원梁, 함종魚, 진주柳, 우계李, 한산李, 합천李, 초계鄭, 김해許
5	12	신천康, 개성高, 남평文, 분성裴, 원주邊, 안동孫, 청송沈, 덕수李, 홍양李, 나주丁, 풍기秦, 청주韓
4	9	능성具, 해평金, 의령南, 감천文, 고창吳, 옥천全, 용궁全, 서산鄭, 상주周
3	17	강릉金, 안강盧, 군위朴, 비안朴, 대흥白, 달성徐, 여산宋, 영해申, 함양吳, 영천尹, 행주殷, 경산李, 풍천任, 흥해崔, 양천許, 하양許, 덕산黃
2	22	안동高, 해평吉, 수안金, 영동金, 청도金, 수성羅, 죽산朴, 충주朴, 충주石, 고령申, 의령余, 해주吳, 고령俞, 서산柳, 예산李, 순천張, 창녕張, 경산全, 연안車, 영천崔, 신창表, 진주邢

1	85	합포甘, 제주高, 청주郭, 금산金, 김녕金, 부령金, 성산金,梁山金, 언양金, 영덕金, 영암金, 영양金, 영천金, 영해金, 용궁金, 울산金, 인동金, 진주金, 천안金, 청풍金, 고성南, 청도盧, 고성朴, 문의朴, 삼척朴, 울산朴, 은풍朴, 춘천朴, 온양方, 달성襄, 초계下, 이천徐, 화원石, 경주葉, 비안孫, 덕산宋, 은진宋, 은풍申, 안강安, 탐진安, 밀양楊, 제주梁, 상주嚴, 거창劉, 문화柳, 인동柳, 탐진兪, 예천尹, 공주李, 광평李, 담양李, 사천李, 陽山李, 양성李, 웅진李, 울산李, 인천李, 하빈李, 나주林, 예천林, 평택林, 덕수張, 안동張, 울진張, 담양田, 안동全, 연안田, 행주田, 경주鄭, 봉화鄭, 영덕鄭, 수안趙, 임천趙, 횡성趙, 웅천朱, 여양陳, 평강蔡, 안동千, 영양千, 양천崔, 충주崔, 영순太, 곡산韓, 남양洪(토홍), 영천皇
계		237종

영남지역에 급제한 성관 수를 살펴보면 총 237종이다. 전체 문과급제자 성관 수는 연구자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 730종 정도였을 것으로 추측되며⁴²⁾ 영남은 문과급제자 전체 성관 수 중에 32.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세종실록지리지』에 의하면 영남의 성관은 망성을 제외하고 904종이나 되었으며⁴³⁾ 이 중 26.2%(237종)의 비율로 급제자가 배출되었다.

영남의 경우 105명이 급제한 성관부터 1명만 급제한 성관이 존재할 정도로 다양한 성관에서 급제자가 배출되었다. 안동權은 105명으로 가장 많은 급제자를 배출하였으며, 다음으로 진주姜이 74명을 배출하고 있었다. 60~50명은 진성李·의성金, 40~30명은 김해金·밀양朴·창녕曺 순이었다. 40명 이상 급제자를 배출한 성관은 4종으로 영남 전체 성관 중에 1.7%를, 39~20명은 17종으로 7.2%를, 19~10명은 36종으로 15.2%를, 9~4명은 56종으로 23.6%를, 3~2명은 39종으로 16.4%를, 1명만 급제한 성관은 85종으로 35.9%를 차지하고 있었다.

다수 급제자를 배출한 성관의 수는 많지 않으며, 다양한 성관에서 소수 급제자가 배출되고 있었다. 다양한 성관에서 문과급제자가 배출된다는 것은 명문거족 외에도 상대적으로 한미한 가문에서도 관리로 진출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 문과급제자가 많이 배출된 성관과 영남지역에서 문과급제자가 많이 배출된 성관을 살펴보면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다.

42) 이원명은 총 성관 수를 664종으로 파악하였으며,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한국역대인물 종합정보시스템의 경우 798종의 성관이 등장하였다 (이원명, 『조선시대 문과급제자 연구』, 국학자료원, 2004)

43) 이수건, 「조선초기 '토성' 연구」, 『민족문화논총』 17, 1997, 129쪽.

<표Ⅲ-11> 급제자 수에 따른 성관 비교

급제순위	전체		영남	
	급제 성관	문과급제자 수	급제 성관	문과급제자 수
1	전주이씨	866명	안동권씨	105명
2	안동권씨	367명	진주강씨	74명
3	과평윤씨	346명	진성이씨	59명
4	남양홍씨	331명	의성김씨	57명
5	안동김씨	320명	김해김씨	35명
6	청주한씨	284명	밀양박씨	33명
7	밀양박씨, 광산김씨	263명	창녕조씨	31명
8	연안이씨	253명	여주이씨	29명
9	여흥민씨	240명	벽진이씨	28명
10	진주강씨	223명	인동장씨	27명
11	경주김씨	209명	전주이씨	25명
12	한산이씨	202명	광주이씨, 영양남씨, 선산김(선궁계)	23명
13	반남박씨	200명	경주이씨, 영천이씨, 예산김씨, 상락김씨	22명
14	동래정씨	199명	풍산유씨, 함양박씨	21명
15	청송심씨, 광주이씨	196명	영일정씨	20명
16	전의이씨	188명	동래정씨, 반남박씨, 현풍곽씨, 상산김씨	19명
17	풍양조씨	186명	경주손씨, 진양하씨	18명
18	평산신씨	178명	전주유씨, 풍산김씨	17명
19	경주이씨	175명	성주이씨, 창원황씨, 과평윤씨, 진양정씨	16명
20	연안김씨	163명	성산이씨	15명

※ 전체 성관의 순위는 한영우의 연구를 활용하였다 (한영우, 『과거, 출세의 사다리(1)』, 지식산업사, 2013).

<표Ⅲ-16>은 문과급제자 인원 수가 많은 성관 순서로 20위를 설정하여 정리한 것이다. 전체 문과급제자와 영남지역 급제자가 일치하는 성관은 안동권씨, 진주강씨, 밀양박씨, 안동김씨(상락김씨), 전주이씨, 경주이씨, 동래정씨, 반남박씨, 과평윤씨 등 9종이었으며 안동권씨(전체2위, 영남1위), 밀양박씨(전체7위, 영남6위), 동래정씨(전체14위, 영남16위) 등은 비슷한 순위를 유지하고 있었고 그 외의 성관은 순위의 차이가 심하였다.

나머지 25종은 주로 경상도 지역에 본관을 둔 성씨로 진성이씨, 의성김씨, 김해김씨, 선산김씨, 창녕조씨, 벽진이씨, 인동장씨, 영양남씨, 영천이씨, 예산김씨, 풍산유씨, 함양박씨, 영일정씨, 현풍곽씨, 경주손씨, 상산김씨, 진양하씨, 풍산김씨, 성주이씨, 성산이씨⁴⁴⁾, 진양정씨, 창원황씨 등 22종이었고 나머지 3

44) 성주이씨의 경우 신라 말 인물인 李純由를 시조로 하며, 성산이씨의 경우 고려 개국공신인

중은 다른 지역에 본관을 가진 성관이였다. 영남의 문과급제자 중 대부분이 영남지역에서 성장한 성관이였으며, 몇몇 성관은 來姓으로 영남에서 상당한 세력을 구축하고 있었다.

『용재총화』에는 15세기까지 명문거족으로 분류한 76개의 성관이 있으며, 『명현세보』에는 조선 초에서 정조 때까지 129개의 성관이 기록되어 있다.⁴⁵⁾ 이 두 사료에 근거하면 조선시대에는 총 155개의 성관이 명문거족으로 성장하였다. 이 중 영남에서 문과급제자를 배출한 성관은 97개였다. 즉 명문거족이라고 할 수 있는 성관에서 급제자를 많이 배출했다. 영남지역 문과급제자의 성관을 시기별로 분석하면 다음 <표Ⅲ-12>와 같다.

<표Ⅲ-12> 영남지역 문과급제자의 시기별 성관 분포

분류	성관	14세기	15세기	16세기	17세기	18세기	19세기	계
77명이상 (A군)	2종 (0.8)		25명 (10.4)	32명 (10.7)	33명 (8.7)	33명 (9.7)	56명 (11.3)	179명 (10.2)
60~50명 (B군)	2종 (0.8)		4명 (1.7)	13명 (4.3)	25명 (6.5)	23명 (6.8)	51명 (10.3)	116명 (6.6)
40~30명 (C군)	3종 (1.3)	1명 (14.3)	30명 (12.4)	15명 (5.0)	13명 (3.4)	16명 (4.7)	24명 (4.8)	99명 (5.6)
29~20명 (D군)	14종 (5.9)	1명 (14.3)	37명 (15.3)	40명 (13.4)	87명 (22.7)	67명 (19.8)	96명 (19.4)	328명 (18.6)
19~10명 (E군)	36종 (15.2)	2명 (28.6)	57명 (23.7)	88명 (29.4)	121명 (31.6)	107명 (31.6)	133명 (26.9)	508명 (28.8)
9명~5명 (F군)	47종 (19.8)		49명 (20.3)	54명 (18.1)	64명 (16.7)	61명 (18.0)	90명 (18.2)	318명 (18.0)
4명~1명 (G군)	133종 (56.2)	3명 (42.8)	39명 (16.2)	57명 (19.1)	40명 (10.4)	32명 (9.4)	45명 (9.1)	216명 (12.2)
계(%)	237종 (100)	7명 (100)	241명 (100)	299명 (100)	383명 (100)	339명 (100)	495명 (100)	1,764명 (100)

* 盧異와 黃有中 2명은 성관을 알 수 없어서 총 인원이 1,764명이 되었다.

李能一을 시조로 한다. 두 성씨 모두 성주를 본관으로 삼았다.

45) 成侃의 『용재총화』는 한국고전종합DB에 원문과 번역문을 제공하고 있다. 『명현세보』(한고초58-나6)는 작자·연대는 미상으로 조선 초부터 정조대까지 유명 성씨와 명사들이 기록되어 있다.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과평윤·한양조·여흥민·양천허·덕수이·인천채·남양홍·광주이·청주한·전의이·단양우·경주김·경주이·김해김·안동김·안동권·진주강·성주이·상산김·밀양박·청송심·거창신·창녕성·창녕조·고령신·동래정·영일정·순흥안·의령남·선산김·장수황·능성구·여산송·평산신·연안이·문화유·함중어·풍천임·이천서·인천이·죽산박·양성이·서산유·밀양손·영산신·하동정·하양허·광산김·순천박·제주고·신천강·전주이·한산이·여주이·벽진이·우계이·진성이·예산이·청풍김·연안김·강릉김·의성김·순천김·풍산김·언양김·해주정·진양정·초계정·청주정·풍양조·임천조·함안조·횡성조·고령박·함양박·무안박·진주유·전주유·풍산유·부계홍·전주최·화순최·은진송·영양남·창원황·해주오·광주안·대구서·인동장·덕수장·나주임·평택임·남원양·제주양·광주노·평강채·청주곽이었다.

시기별로 살펴보면 급제자 수로 살펴보면, 15세기 이후부터 17세기까지 지속적으로 문과급제자가 배출되었고 18세기에 잠시 감소하였다가 19세기에 급증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모든 군에서 비슷한 현상이었으나 A군의 경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였고, B군은 17세기까지 증가하다가 18세기에 잠시 감소하고 19세기 증가한다. B군과 같은 추세는 D·E·F군에서도 나타났다. C군은 15세기에 가장 많았고 이후 감소하다가 19세기에 증가하였으며, G군은 16세기까지 증가하다가 이후 감소하고 19세기에 증가하였다. 또한 19명에서 10명의 급제자가 배출된 E군에서 급제자가 가장 많았다. 평균 급제자 수로 살펴보면 A군부터 G군까지의 순이었다.⁴⁶⁾

영남의 급제자 중 각 군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E-D-F-G-A-B-C군 순으로 5~19명의 문과급제자를 배출한 성관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시기별로 보았을 때 A군은 급제자 수와 다르게 16세기까지 많은 비중을 차지하다가 17세기 감소하고 이후 다시 증가하였다. B군은 후기로 갈수록 증가하였으며, C군은 후기로 갈수록 감소하였다. G군 또한 C군과 마찬가지로 16세기 이후 감소하였다. D군은 17세기 이후 감소하였으며 E군은 18세기 이후 감소하였다. F군은 16세기에 증가하다가 17세기에 감소하고 19세기에 다시 증가하였다.

30명 이상 급제자를 배출한 성관은 17세기까지 늘어나다가 18세기에 잠시 감소하고 19세기에 증가하였다. 5명에서 29명까지 급제자를 배출한 성관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였다. 영남은 눈에 띄게 급제자를 많이 배출한 성관이 존재하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다양한 성관에서 문과급제자를 배출했다. 시기별로 급제자가 배출된 성관을 살펴보면 14세기에는 7종의 성관에서 7명의 급제자가 배출되었고,⁴⁷⁾ 15세기에는 96종, 16세기에는 124종, 17세기에는 127종, 18세기에는 112종, 19세기에는 137종으로 17세기까지 다양한 성관에서 문과급제자가 배출되다가 18세기 잠시 감소하고 19세기 다시 다양한 성관에서 급제자를 배출했다.

시기별 문과급제자를 많이 배출한 성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46) 평균 급제자 수를 살펴보면 A군은 90명, B군은 58명, C군은 34명, D군은 24명, E군은 14명, F군은 7명, G군은 2명이었다.

47) 14세기 문과급제자가 배출된 성관은 김해김씨, 선산김씨, 진양하씨, 봉화금씨, 연안전씨, 예천윤씨, 행주은씨였다.

<표Ⅲ-13> 시기별 영남지역 문과급제자 배출 성관

순위 시기	1	2	3	4	5
15C	안동권(17)	김해김(13), 진주강(13)	창녕조(11)	화순최(9), 선산김(9), 진양하(9)	영일정(7)
16C	안동권(19)	진주강(13)	현풍곽(10)	의성김(9)	창녕조(7)
17C	안동권(24)	의성김(16)	영양남(11)	진주강(9), 함양박(9), 영천이(9), 진성이(9)	현풍곽(8), 벽진이(8), 경주이(8)
18C	안동권(20)	의성김(13), 진주강(13)	영양남(12)	진성이(10)	광주이(8), 김해김(8), 동래정(8)
19C	진성이(35)	진주강(29)	안동권(27)	여주이(17), 인동장(17)	의성김(16)

* 성관 옆에 ()안에 숫자는 급제자 수를 의미한다.

<표Ⅲ-13>에서 보듯 18세기 이후 10명 이상의 급제자를 배출한 성관이 늘었다. 이는 18세기 이후 향촌사회에서 가문의 영향력이 강화되면서 특정 성관에서 급제자를 배출한 것을 뜻한다.

15세기에서 18세기까지 가장 많은 급제자를 배출한 성관은 안동권씨였다. 안동권씨는 18세기 후반부터 급제자 수가 감소하기 시작하여 19세기에는 급감한다.⁴⁸⁾ 하지만 영남의 안동권씨는 18세기까지 높은 순위를 유지하다가 19세기에는 3위를 유지했다. 전체 안동권씨의 급제자 수가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영남의 안동권씨는 지속적으로 급제자를 배출하였다.

19세기가 되면, 안동권씨 대신 진성이씨에서 많은 급제자가 많이 나왔다. 진성이씨는 17세기부터 급제자가 증가하여 19세기에 급제자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진성이씨는 총 58명이 급제하였는데 그 중 46명이 예안·안동 출신이었다. 17세기 퇴계학이 강화되면서 영남에서 진성이씨의 세력이 강화되었고 19세기에 이르면 안동에서 공론을 주도하였다.⁴⁹⁾

진주강씨는 17세기를 제외하고 2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 급제자의 거주지를 살펴보면 17세기 이전에는 경상우도 출신이 많다가 17세기 이후부터는 좌도 출신자가 늘었다. 의성김씨는 16세기부터 급제자를 배출하여 17~18세기에 2위를 차지한다. 의성김씨 중 안동 내앞마을에 사는 金璣의 다섯 아들이 모두 문과에 급제하면서 가문의 세력이 강성해졌다.

48) 이원명, 『조선시대 문과급제자 연구』, 국학자료원, 2004, 24~26쪽.

49) 김경숙, 「조선후기 사대부가의 연명정소활동과 공론형성」, 『사학연구』 109, 2013, 237~239쪽.

현풍곽씨는 16~17세기에 집중적으로 급제자를 배출했다. 이 가문은 임진왜란 때 의병을 일으켰고 남명학과와도 활발히 교류하였다.⁵⁰⁾ 하지만 북인정권의 몰락과 함께 가문의 영향력이 약화된다. 영양남씨는 안동과 영해에 세거하던 대표적인 사족으로 17세기 李徽逸, 李玄逸 등 퇴계학과를 계승한 인물들과 교류하였다. 문과급제자를 많이 배출한 성관 중 안동권씨와 진주강씨는 쏠 시기에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2) 영남지역 급제자 가문

영남에서 가장 많은 급제자를 배출한 성관은 안동권씨 105명, 진주강씨 74명, 진성이씨 59명, 의성김씨 57명이었다. 이들 4개의 성관은 영남 전체 급제자 중 17%의 급제자를 배출할 정도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하지만 성관 집단이 문과급제자의 과점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단위로서 적당한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며 문중을 단위로 문과급제자의 집중되는 문제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이 제기되었으며 여기서는 이러한 의견을 검토하여 위 4개의 성관의 파별 급제자 수를 살펴보겠다.⁵¹⁾

안동권씨는 고려 태조를 도와 권씨 성을 하사받은 權幸을 시조로 하며, 시조로부터 10세 때에 15개의 파로 분류된다.⁵²⁾ 영남지역에서는 15개 파 가운데 8개 파에서 문과급제자를 배출하였다. 이 중 1명을 제외하고⁵³⁾ 총 82명의 급제자는 가계를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를 정리하면 <표Ⅲ-14>와 같다.

50) 박병련, 「“광해군 복립모의” 사건으로 본 강안지역 남명학과」, 『남명학』11, 2002.

51) 미야지마 히로시, 「조선 후기 지배 계층의 재생산 구조」, 『한국사학보』 32, 2008.

52) 가장 오래된 족보인 『성화보』에서는 추밀공파, 북야공파, 별장공파만 있고 1605년 부정공파와 중윤공파, 1701년에 시중공파가 1794년 동정공파, 좌윤공파, 검교공파가 1982년에 급사중공파가 족보에 편입되었다 (미야지마 히로시, 「『안동권씨성화보』를 통해서 본 한국 족보의 구조적 특성」, 『대동문화연구』 62, 2008, 207~208쪽).

53) 불명자는 權守平으로 1483년(성종 14) 식년시에 급제한다. 문과방목에 아버지가 權虞, 할아버지가 權簡으로 되어 있으며, 주세붕의 『유청량산록』을 보면 부포에 가면서 자기 할머니의 아버지인 권우가 거처한 곳이라고 소개하며 다음날 권간의 묘에 배례한 것을 보아 권수평은 권간의 후손으로 파악된다. 권간의 윗대부터 안동 부포에 세거하고 있었지만 아들 권우가 처가인 칠원에 살게 되면서 안동에서의 영향력이 상실된 것으로 보인다. 부포리에서는 자손이 없어서 재산을 불우한 마을 노인들에게 희사한 권간에게 고마움을 보답하기 위해 매년 시사를 지냈다고 한다 (안동민속박물관, 『안동의 동제』, 1994, 177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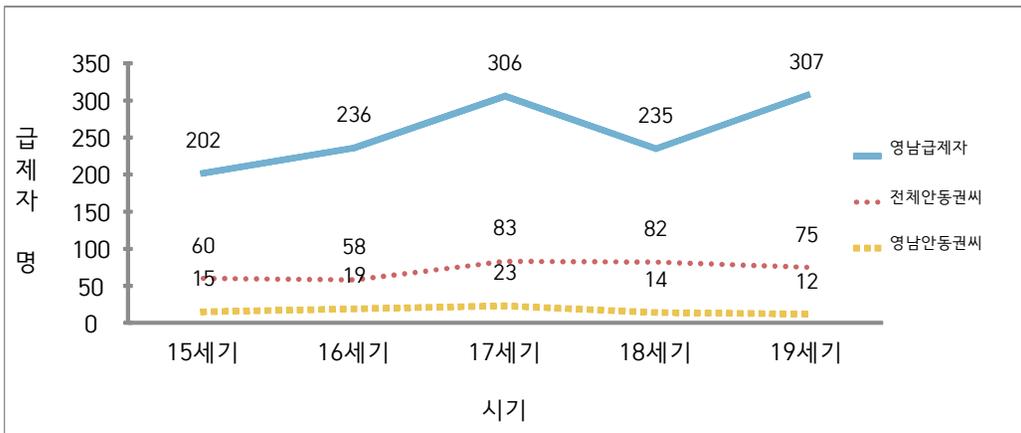
<표Ⅲ-14> 영남지역 안동권씨 파별 문과급제자

계과 \ 시기	15세기	16세기	17세기	18세기	19세기	계
복야공과	6	5	13	6	12	42
부정공과	1	2	4	5		12
검교공과	4	2	2			8
급사중공과	1	5				6
추밀공과	1	1	1	2		5
좌윤공과		1	3	1		5
별장공과		2				2
중윤공과	1	1				2
불명	1					1
계	15	19	23	14	12	83

<표Ⅲ-14>에 의하면 영남의 안동권씨는 복야공과를 중심으로 급제자를 많이 배출했다. 안동권씨 전체 급제자 수는 추밀공과, 복야공과, 시중공과, 부정공과, 검교공과, 급사중공과, 좌윤공과, 별장공과 순이었으며⁵⁴⁾ 영남의 안동권씨는 복야공과, 부정공과를 중심으로 급제자를 많이 배출했다.

시기별로 살펴보면 15세기부터 급제자 수가 늘어나기 시작하여 17세기에 정점을 찍은 후 감소하였다. 이러한 추세를 안동권씨 전체 급제자와 비교하면 <그래프Ⅲ-2>와 같다.

<그래프Ⅲ-2> 안동권씨 문과급제자 추이



54) 미야지마 히로시의 연구에 의하면 추밀공과 199명, 복야공과 73명, 시중공과 27명, 부정공과 15명, 검교공과 14명, 급사중공과 9명, 좌윤공과 7명, 별장공과 3명, 검교공과 3명, 동정공과 1명이었다 (미야지마 히로시, 「조선 후기 지배 계층의 재생산 구조」, 『한국사학보』 32, 2008, 224~225쪽).

<그래프Ⅲ-2>는 영남지역 안동권씨 급제자와 안동권씨 전체 급제자 수를 표시한 것이다. 이에 의하면 두 대상 모두 17세기까지 급제자가 증가하였고 18세기 이후 영남 안동권씨는 감소하고 전체 안동권씨는 18세기까지 유지하다가 19세기 약간 감소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영남지역의 안동권씨는 영남이라는 지역적 특성에 많은 영향을 받았으며 19세기에는 안동권씨 북야공파보다는 다른 파에서 문과급제자가 더 많이 배출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를 살펴보기 위해 북야공파의 문과급제자 수를 살펴보면 <표Ⅲ-15>와 같다.

<표Ⅲ-15> 안동권씨 북야공파 문과급제자

지역 분류	15세기	16세기	17세기	18세기	19세기	계
영남	6(33.3%)	5(71.4%)	13(86.7%)	6(54.5%)	12(54.5%)	42(57.5%)
전체	18	7	15	11	22	73

<표Ⅲ-15>에서 보듯 북야공파는 영남지역 북야공파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영남의 북야공파는 權穰의 후손으로 영남사림파가 많이 진출했던 16~17세기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하지만 18세기가 되면 영남지역 급제자가 감소하면서 북야공파의 비중도 감소하고 대신 17세기 이후 추밀공파의 급제자가 늘어났다.⁵⁵⁾ 영남 내부에서도 안동의 안동권씨 북야공파의 급제자 수가 감소하는 대신 안동의 진주강씨와 진성이씨, 경주에 세거하고 있던 여주이씨, 인동에 거주하고 있는 인동장씨, 단성에 거주하는 순천박씨와 전주이씨에서 급제자가 많이 배출했다.⁵⁶⁾

이외에도 별장공파의 문과급제자는 權春蘭과 그의 아들 權泰一이었다. 權春蘭은 안동 가구리에서 태어났는데 할아버지 대부터 사환하지 못하였다. 이후 具鳳齡에게 학문을 배우고 1573년 식년시에 합격하여 예문관 검열, 사헌부 장령, 사간원 사간을 역임하였다.⁵⁷⁾ 1603년에 관직을 사직하고 고향으로 돌아오

55) 추밀공파는 15세기 27명, 16세기 33명, 17세기 55명 18세기 54명, 19세기 30명이었다 (미야지마 히로시, 「조선 후기 지배 계층의 재생산 구조」, 『한국사학보』 32, 2008).

56) 의성김씨의 경우 안동권씨와 같이 19세기가 되면 급제자 수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여주이씨의 경우 고려 때 향공진사 이세정을 시조로 하여 경주에 세거하고 있었다. 조선시대 대표적인 유학자인 이언적을 배출하기도 하였다. 인동장씨는 장금용을 시조로 하며 구미시 인동에 세거하고 있었다. 유학자 장현광을 배출하였다. 단성의 순천박씨는 임진왜란 때 의병 활동을 했던 박이장의 5대손 박상제가 단성에 이거하였다. 전주이씨는 특정 지역보다는 여러 군현에서 문과급제자가 배출되고 있었다.

고 관직에 나가지 않았다.⁵⁷⁾ 1617년 사망하였는데 이 때 후사가 없어 동생의 아들 權泰一을 양자로 삼았다. 權泰一은 1599년 문과에 급제하고 승지, 참의 등의 벼슬을 역임하였다.

중윤공파의 경우 權受益과 그의 아들 權雲이 문과에 급제하였다. 중윤공파는 權謙이 안동 부포에 이거하였으며 그의 아들 權受益은 1486년 문과에 급제하였고 그의 딸은 趙大春과 혼인하여 趙穆을 낳았다. 또한 그의 아들 權雲은 1516년 문과에 급제하였지만 요절한다. 안동권씨 중윤공파는 복인정권과 밀접한 연계를 맺고 있었는데 인조반정 이후 큰 타격을 받았다. 또한 그들이 거주하는 지역인 부포가 침수가 잦아 경제적 성장도 감소하면서 향촌사회에서 영향력이 감소하였다.⁵⁹⁾ 급사중공파의 경우 1982년에 족보에 편입된 것으로 보아 파의 형성이 늦었고 그 가계도 확실하다고 할 수 없다.

안동권씨 다음으로 문과급제자가 배출한 성관은 진주강씨이다. 진주강씨는 고구려때 장군이었던 姜以式을 시조로 한다. 이후 고려시대 姜啓庸을 중시조로 하는 박사공파, 姜民瞻을 중시조로 하는 은열공파, 姜邯贊을 중시조로 하는 인헌공파, 姜渭庸을 중시조로 하는 소감공파, 姜遠庸을 중시조로 하는 시중공파 등 크게 5개 파로 분류된다. 조선시대에는 박사공파계가 10개 파로, 은열공파계는 6개 파로, 인헌공파계는 4개 파로, 소감공파, 시중파 등 총 22개 파로 나뉘었다.

진주강씨는 역사가 오래되고 파도 많아 모든 파를 분석할 수 없어 22개 파로 분류된 중분류로 살펴보고려고 한다.⁶⁰⁾ 영남에는 22개 파 중 5개 파에서 문과급제자를 배출하였다. 그 자세한 내용을 정리하면 <표Ⅲ-16>과 같다.

57) 『선조실록』(수정본) 20권, 선조 19년 7월 1일 갑오.

58) 유권중, 「회곡 권춘란의 생애와 학문」, 『철학담구』 26, 2009.

59) 김명자, 「부포마을의 역사와 세거성씨」, 『안동 부포마을』, 예문서원, 2012, 26쪽.

60) 박사공파는 여은공파·자은공파·사인공파·침사공파·양희공파·통정공파·통계공파·소감공파·계신공파·진원공파이며, 은열공파는 밀직공파·침사공파·학사공파·호부사공파·사평공파·진사공파이며, 인헌공파는 갑파·을파·병파·정파이며, 소감공파와 시중파는 후손이 번성하지 못해 파가 세분화되지 못하였다 (성씨이야기편찬실, 『진주강씨 이야기(상·중·하)』, 울린피플스토리,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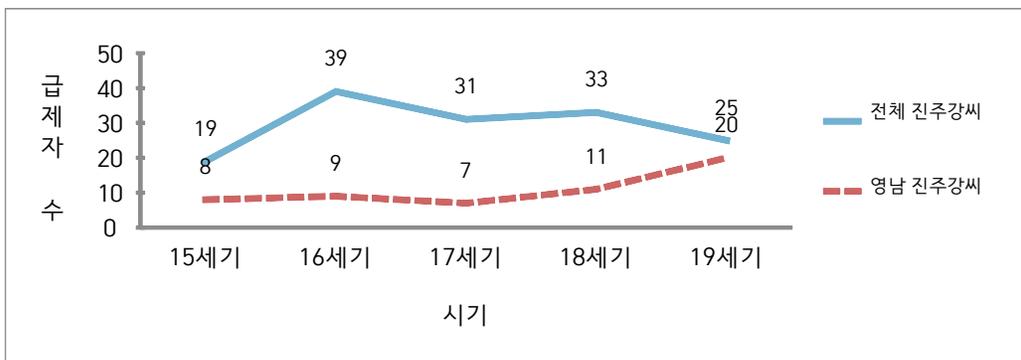
<표Ⅲ-16> 영남지역 진주강씨 파별 문과급제자

계과 \ 시기	15세기	16세기	17세기	18세기	19세기	계
첩사공과	1	1	2			4
학사공과			1	1	1	3
통정공과	2	2	1		2	7
통계공과	4	6	2	9	17	38
관서공과	1					1
불명			1	1		2
계	8	9	7	11	20	55

진주강씨는 통계공과를 중심으로 많은 인물들이 급제하였다. 통정공과의 경우 15~16세기에, 통계공과의 경우 19세기에 집중적으로 문과급제자가 배출되었다. 이 2개의 과는 姜啓庸을 시조로 하고 姜昌貴를 중시조로 하는 진원부원군파의 후손들이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초기에는 진주와 상주에서, 후기에는 안동에서 급제자를 많이 배출했다.

진원부원군파 姜昌貴는 고려 후기 사족이 되었고, 조선 초기에는 姜蓍와 그의 아들인 淮伯·淮仲계를 중심으로 관직에 진출하였다. 이후 이들은 문과나 음서를 통해 서울의 명문거족으로 성장하였다. 하지만 병자호란을 겪으면서 일부 세력이 안동 춘양으로 이거하게 되는데 이들이 바로 통계공과의 후손들이다. 이들은 안동 이거 후에도 노·소론과 학문적 교류를 유지하였다.⁶¹⁾ 진주강씨 급제자 추이를 정리하면 <그래프Ⅲ-3>과 같다.

<그래프Ⅲ-3> 진주강씨 문과급제자 추이



61) 안수연, 「봉화 진주강씨문중 누정의 건축적 특성에 관한 연구」, 안동대학교 건축공학과 석사학위논문, 2015; 김태환, 『봉화의 전통마을』, 봉화문화원, 2006.

<그래프Ⅲ-3>에 의하면 전체 진주강씨는 16세기에 문과급제자가 가장 많이 배출되고 이후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19세기 급격히 감소하였다. 하지만 영남의 진주강씨는 15세기 이후부터 일정 수준을 유지하다가 18세기에 급증하기 시작하여 19세기에 급격히 증가한다.

영남의 진주강씨는 명문거족으로 성장해 서울과 경기지역에 세거하면서 문과·음직을 통해 중앙정계에 진출하여 재상, 공신, 부마 등 왕실뿐만 아니라 다양한 당파에 영향력을 미쳤다. 하지만 호란이후 일부세력이 척화를 주장하면서 다시 영남으로 내려왔다. 18세기 탕평책과 세도정치로 노론세력이 약화되자, 대체세력이 성장했는데⁶²⁾ 특히 진주강씨가 눈에 띄었다.

특정 계파가 급제자를 독점하는 현상은 진성이씨와 의성김씨에서도 보인다. 진성이씨는 상계파 34명, 송당파 8명, 온계파 7명, 망천종파 2명, 온혜파 2명, 주촌파 2명의 급제자를 배출했다.⁶³⁾ 시기별로 살펴보면 진성이씨는 15세기 1명, 16세기 3명, 17세기 9명, 18세기 10명, 19세기 32명이었으며, 19세기에 상계파가 가장 많은 급제자를 배출하고 있었다. 상계파 급제자는 李滉의 가계의 인물이 많았다. 의성김씨는 52명이 급제했는데 모두 첨사공파로 金璣과 金希參의 후손이었다. 의성김씨의 경우 15세기 2명, 16세기 9명, 17세기 16명, 18세기 12명, 19세기 13명으로 17·19세기에 많은 사람들이 급제하였다.

이상에서 급제자를 많이 배출한 성관을 분석했다. 각 파 별로 균등하게 배출된 것이 아니라 특정 파에 집중되었다. 문과가 특정 가문에 집중되는 현상이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시기별·지역별에 따라 급제자 수도 변화하였다.

지금까지 영남 문과급제자의 출신을 전력·군현·성관별로 살펴보았다.

전력에서는 살펴보면 전체 문과급제자와 비교해 官職官品者 보다는 未仕者

62) 법전에 정착한 강흡은 노론 계열로 아우인 강각은 소론계열로 분류되었으며, 영남 유력 가문과의 혼맥을 통해 영남의 학풍과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었다.

63) 진성이씨는 진보현의 아전 이석의 아들 이자수가 안동에 이거하면서 그의 후손들이 안동에서 번창하게 된다. 이자수의 후손 중 퇴계 이황의 경우 유학자로서 명망을 떨치게 된다. 진성이씨 계파는 1747년 구체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하여 1912년 죽보에는 지역을 단위로 세분화된다. 여기서는 이황을 파조로 하는 상계파, 이우를 파조로 하는 송당파, 이해를 파조로 하는 온계파, 이계양을 파조로 하는 온혜파, 이정을 파조로 하는 주촌종파, 이홍양을 파조로 하는 망천파로 분류하였다 (김문택, 「16~17세기 안동의 진성이씨 문중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5; 이재희, 『진성이씨안동파세보』, 뿌리찾기범국민계몽회, 2000).

의 비율이 높았다. 조선 초기에는 많은 영남인이 관직에 진출하고 그의 자제들이 문음을 통해 실직을 받는 경우도 많이 있었다. 하지만 17세기 이후 점차 정치적 영향력이 감소하면서 未仕者의 비율이 높아졌다. 未仕者 중 유학의 비중이 많았다. 특징적으로 15세기에 敎導가 많았고 17세기까지 생원이 많았다. 官職官品者는 전체적인 추세와 비교해 찰방·교수관과 같이 외방적인 경우가 많았다.

군현별 특징을 살펴보면 부·목·도호부와 같이 상급행정기관 외에도 군·현(현감)과 같이 하급행정기관과 경제적 규모가 작은 지역에서도 급제자를 배출하였다. 반대로 문과급제자를 한 명도 배출하지 못한 지역을 살펴보면 경제 규모가 적고 군현의 변동이 심해 사족의 세력이 약한 지역이었다.

성관을 살펴보면 영남에서는 총 237종의 성관에서 문과급제자를 배출하였다. 50명 이상 많은 급제자를 배출한 성관은 조선 후기가 될수록 더 증가하였다. 반면 30명 이상~50명 이하 급제자를 배출한 성관은 오히려 후기가 될수록 급제자 수가 감소했다. 10명 이상~20명 이하 급제자를 배출한 성관도 후기가 될수록 급제자를 많이 배출했다. 이는 조선 초기에 30~50명의 급제자를 배출한 성관은 지속적으로 급제자를 배출했으나, 조선 후기가 되면서 특정성관에 급제자가 집중되었고, 10명 이하 소수 급제자를 배출하는 성관도 많아졌음을 의미한다. 조선 후기 특정성관을 중심으로 문과급제자를 배출한 성관은 안동의 안동권씨·진주강씨·진성이씨·의성김씨가 대표적이다.

이러한 변화는 당시 정치적 변동과 관련있다. 15~16세기에는 영남사림파가 중앙 정계에 진출하여 현량과 등을 시행하면서 정치적 영향력을 강화하고자 노력하였다. 이 시기 영남지역 급제자는 金宗直, 金駟孫의 영향을 받은 인물이 많았다. 이후 사회로 피해를 입었지만 17세기 사림파가 정국을 주도하는 봉당 정치가 전개되었다. 하지만 갑술환국, 이현일의 실각, 무신란 등 다양한 이유로 18세기에 영남의 문과급제자가 감소한다. 18세기 상황은 다음의 글을 통해 단편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영남의 70주 중 좌도는 남인이 많고 우도는 서인이 많으며, 上道는 유생이 많고 下道는 부호가 많았다. 논의는 반드시 上道에서 나오고 소란은 매번 좌도에서 시작되니, 한 도의 풍습이 그러하다.⁶⁴⁾

64) 『승정원일기』 875책, 영조 14년 7월 22일 임신.

위의 글은 안동의 김상헌서원 건립을 찬성하며 정언 李壽海가 영조에게 올린 상소의 한 대목이다. 선산 출신의 李壽海는 노론 계열의 사람으로 후에 李玄逸의 구원을 요청한 吳遂采를 탄핵하였다. 노론의 입장에서 당시 영남 좌상도 즉 안동은 소란을 일으키는 지역이었으며, 영남 우상도인 상주는 노론의 입장을 대변해 주는 지역이었다. 이에 따라 노론은 당시 영남의 공론을 주도하고 있던 안동에 대해 지속적으로 공격을 하고 내부적으로 분열을 조장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노론의 공론에 참여하고 그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신출노론 세력을 형성하여 지역사회에 많은 갈등을 조장하였다.

IV. 영남지역 문과급제자 가문의 변화

Ⅲ장에서 영남지역 전체 문과급제 인원과 급제한 과명, 전력을 분석하여 조선시대 영남지역 합격자 현황과 합격자가 배출된 지역, 성관 등을 살펴보았다. 또한 방목에 적힌 전력을 이용하여 官職官品者와 未仕者로 분류하여 未仕者를 중심으로 급제자가 많이 배출되었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거주지로 살펴보면 안동, 상주, 滎川과 같이 군현의 크기가 크고 경제적으로 발전한 지역에서 급제자가 많이 배출되었으며 예안과 같이 군현의 크기가 작은 곳에서도 급제자가 많이 배출되었는데 사족의 유무가 영향을 미친 것이다. 또한 시기별에 따라 급제자 성관의 변화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장에서는 위의 성관들을 중심으로 권역별로 정치적 성향과 학문적 사승 관계를 살펴보겠다. 그리고 성관 집단이라고 하는 단위는 큰 것으로부터 작은 것까지, 그 자체가 극히 다양한 집단을 포함하고 있다고 하며 기존 성관 중심 문과급제자 연구의 문제점을 지적한 주장¹⁾을 수용하여 각 성관 중 급제자가 많이 배출된 가계를 알아보겠다. 또한 15~19세기 25개의 『문인록』을 분석하여 이 중 문과급제자를 살펴보고 학단과 문과급제자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겠다.²⁾

1) 미야지마 히로시, 「조선 후기 지배 계층의 재생산 구조」, 『한국사학보』 32, 2008.

2) 이 장에서 살펴볼 『문인록』은 유탁일의 문인록 집성과 논문을 재인용하였다. 『문인록』에 기재된 총 문인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김종직(1431~1493, 60명), 김굉필(1454~1504, 67명), 이황(1501~1570, 316명), 조식(1501~1572, 79명), 신원록(1516~1576, 62명), 유성룡(1542~1607, 39명) 조목(1524~1606, 19명), 박승업(1517~1586, 50명), 김언기(1520~1588, 189명), 김우옹(1540~1603, 56명), 정구(1543~1620, 339명), 광재겸(1547~1615, 50명), 장현광(1544~1637, 356명), 장흥효(1564~1633, 221명), 유직(1602~1662, 343명), 이현일(1627~1704, 357명), 이재(1657~1730, 65명), 최홍원(1705~1786, 122명), 이상정(1711~1781, 271명), 김굉(1739~1816, 75명), 유치명(1777~1859, 472명), 허전(1797~1886, 493명), 유주목(1813~1872, 320명), 김도화(1825~1912, 322명), 김홍락(1827~1899, 692명)

(유탁일, 『영남지성사우 급문록집성』, 양민서고, 2005; 송웅섭, 「김종직 문인 그룹 형성 무대로서의 서울」, 『서울학연구』 31, 2008; 이수건, 「서에 유성룡의 학문과 학맥」, 『퇴계학과 유교문화』 23, 1995; 김형수, 「17세기 초 월천학단과 예안지역사회의 재건」, 『민족문화연구』 65, 2014).

1. 15세기 영남사림파의 등장과 문과급제

조선 초기 정계는 공신을 주축으로 한 훈구세력에 의해 주도되었다. 훈구세력은 功臣田과 科田을 통해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였고 문음과 문과를 통해 권력을 재생산하였다. 특히 세조의 즉위와 정치적 격변으로 靖難功臣·佐翼功臣이 책봉되었고 예종대 翊戴功臣이 책봉되면서 정치적 위상이 강화되었다. 성종대는 院相制를 강화하면서 권력을 독점하였다.³⁾ 향촌에서는 중소 지주적 기반을 바탕으로 성리학을 체화한 인물들이 중앙정계에 진출하였다. 이들은 金宗直의 문인으로 영남에 기반을 둔 인물들이 많았기 때문에 영남사림파라 불리게 된다.⁴⁾

金宗直은 아버지 金叔滋에게 학문을 배웠으며, 1459년(세조 5) 식년문과에 급제하여 이조좌랑·수찬·참판 등을 역임하였다. 그는 전 생애에 걸쳐 후진 양성에 힘썼으며, 문인록에 오른 인물은 60여명이다. 이들 제자의 入門은 직접적인 수학을 통해 맺어지기도 하였고 科次를 통해 맺어지기도 하였다.⁵⁾ 이후 金宗直의 문인이 중앙정계에 진출하면서 정치 세력화하였다.

史臣이 논평하기를, ‘김종직은 경상도 사람이며, 博文하고, 문장을 잘 지으며 가르치기를 즐겼는데, 전후에 그에게서 受業한 자 중에 科擧에 급제한 사람이 많았다. 그러므로 경상도의 선비로서 朝廷에서 벼슬하는 자들이 宗匠으로 推尊하여, 스승은 제 제자를 칭찬하고, 제자는 제 스승을 칭찬하는 것이 사실보다 지나쳤는데, 조정 新進의 무리도 그 그른 것을 깨닫지 못하고, 따라서 불췌는 자가 많았다. 그 때 사람들이 이것을 비평하여 ‘경상도 선배의 무리[慶尙先輩黨]’다.’라 하였다.

史臣이 논평하기를, ‘김종직이 문장을 잘 짓기 때문에 특별히 知遇를 입어, 承政院에 들어가 좌부승지로 옮겼다가 차서를 뛰어넘어 도승지에 除授되니, 士林이 다 눈을 씻고 그가 하는 일을 바라 보았다.’⁶⁾

위 글은 金宗直이 임금의 총애를 받아 특별히 도승지에 임명되면서 史臣이 당시 사림파에 대한 평가를 적은 것이다. 이에 의하면 金宗直은 사림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金宗直 문인은 15세기에 정계에 진출하였으며 이들 대다수가 영남 출신이었다. 金宗直 문인의 성장은 성종의

3) 이병휴, 「16세기의 정국과 영남사림파」, 『동방한문학』 22, 2002, 5~6쪽.

4) 이수건, 『영남사림파의 형성』, 영남대학교출판부, 1979, 18~22쪽.

5) 한충희, 「조선초기 洛中 사림파의 형성과 전개」, 『한국학논집』 40, 2010.

6) 『성종실록』 169권, 성종 15년 8월 6일 경신; 『성종실록』 169권, 성종 15년 8월 6일 경신.

왕권강화와 밀접하게 연관되어있다. 성종 7~성종 15년에는 왕권강화를 위해 홍문관의 설치와 대간의 영향력을 강화되었으며, 성종 16~성종 25년에는 金宗直의 제자들이 대거 대간에 등용되어 훈구재상을 견제하였다.⁷⁾

임금이 말하기를, 간원에서 梁誠之와 申澣을 탐욕스럽고 혼탁하며, 청렴하지 못하다고 하였다. 이것은 비록 公論에서 나온 것이지만, 大臣에게 아직 나타난 허물이 없는데, 한갓 外間의 物議를 가지고 이를 탄핵한다면 뒷날 폐단이 있을까 두렵다. … 司經 曹偉가 아뢰기를, 宋나라 때에 어떤 한 諫臣이 말로써 대신을 排斥하였기 때문에, 대신이 諫官을 注擬할 때에 반드시 사사로이 좋아하는 자를 간관이 되게 하여 자기의 羽翼을 삼고, 자기와 뜻을 달리하는 자는 배척함에 따라 마침내 위태로운 풍속이 이루어졌으니, 진실로 편벽되게 외부의 논란을 들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 일만은 말하는 자가 한 사람이 아니고, 諫하는 자도 한 사람이 아니니, 청컨대 臺諫의 말을 따르도록 하소서.⁸⁾

위의 글은 성종 10년 梁誠之와 申澣이 권력을 이용해 남의 재산을 탈취하였다는 혐의로 간원들에게 탄핵을 받자 曹偉가 이들의 탄핵을 적극 지지한 내용이다. 梁誠之는 당시 대표적인 훈구파였으며, 申澣은 申叔舟의 아들로 1471년 佐理功臣에 책록된 인물이다. 曹偉는 金宗直의 문인으로 학문이 뛰어나 성종대 처음 시행한 사가독서에 포함되었다. 이후 향사례와 향음주례의 실행을 건의하고 무오사화가 일어나자 金宗直의 詩稿를 수찬한다. 당시 사림파는 당상관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던 훈구파에 대항하기 위해 언관직에 진출하여 훈구파의 부정을 비판하고 정계에서 축출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金宗直의 문인록에 등재된 문인 중 과거합격자는 총 42명이었다. 이 중 영남의 인물은 21명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다.⁹⁾ 문인록에 등재된 문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7) 한중희, 「왕권의 재확립과 제도의 완성」, 『한국사』 22, 1995, 137쪽.

8) 『성종실록』 104권, 성종 10년 5월 1일 병진.

9) 송웅섭, 「김종직 문인 그룹 형성 무대로서의 서울」, 『서울학연구』 31, 2008, 54~55쪽.

<표IV-1> 15세기 문과에 급제한 김종직 문인

순서	성명	본관	거주지	문과급제 연도
1	李仁亨	함안이	진주	1468년(세조 14) 식년시
2	姜謙	진주강	진주	1480년(성종 11) 식년시
3	姜渾	진주강	진주	1486년(성종 17) 식년시
4	表沿沫	신창표	함양	1472년(성종 3) 식년시
5	兪好仁	고령유	함양	1474년(성종 5) 식년시
6	鄭汝昌	하동정	함양	1490년(성종 21) 별시
7	金驥孫	김해김	청도	1482년(성종 13) 알성시
8	金駿孫	김해김	청도	1482년(성종 13) 알성시
9	金駟孫	김해김	청도	1486년(성종 17) 식년시
10	康伯珍	신천강	선산	1477년(성종 8) 식년시
11	康仲珍	신천강	선산	1495년(연산 1) 증광시
12	鄭錫堅	해주정	금산	1474년(성종 5) 식년시
13	曹偉	창녕조	금산	1474년(성종 5) 식년시
14	李宗準	경주이	안동	1485년(성종 16) 알성시
15	李胄	고성이	안동	1488년(성종 19) 알성시
16	朴漢柱	밀양박	함안	1485년(성종 16) 알성시
17	方有寧	온양방	합천	1489년(성종 20) 식년시
18	蔡壽	인천채	함창	1469년(예종 1) 증광시
19	李鐵鈞	벽진이	성주	1496년(연산 2) 식년시
20	權五福	예천권	예천	1486년(성종 17) 식년시
21	周允昌	상주주	칠원	1480년(성종 11) 알성시

<표IV-1>에 의하면 21명의 金宗直 문인록에 등재된 문인 중 진주·함양·청도 각 3명, 선산·금산·안동 각 2명, 칠원·함안·합천·함창·성주·예천 각 1명으로 진주를 중심으로 경상우도에 많은 인물들이 급제하였다. 그 문하생 중 대표적인 인물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蔡壽는 1469년(예종 1) 문과에 급제하고 1478년 任士洪의 탄핵에 참여하였다.¹⁰⁾ 연산군대는 외직에 있었으며 1499년(연산군 5) 관직을 그만둔다. 하지만 중종반정에 참여하여 공신에 책봉된다.¹¹⁾

兪好仁은 1474년 문과에 급제하고 사가독서에 포함되었다. 이후 金宗直과 교류가 있던 姜希孟의 추천을 받았으며¹²⁾ 홍문관 박사·부수찬·수찬에 임명되었다. 1480년 부친상으로 고향인 함양으로 내려갔는데 1485년 경상도관찰사 李克基가 임금의 명을 받아 曹偉와 兪好仁의 시를 책으로 만들어 올렸다.¹³⁾

10) 『성종실록』 91권, 성종 9년 4월 28일 기미.

11) 『중종실록』 1권, 중종 1년 9월 8일 갑신.

12) 『성종실록』 144권, 성종 13년 8월 24일 경신.

13) 『성종실록』 175권, 성종 16년 2월 28일 경진.

이후 다시 관직에 나가 경연관으로서 성종의 신임을 받았다.

姜渾은 17세에 金宗直의 문인이 되었고 金駙孫, 金宏弼, 鄭汝昌, 南孝溫 등과 교류하였다. 1486년 식년시에 급제하고 사가독서에 포함되었으며, 1498년 무오사화 때 朋黨을 지었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았다.¹⁴⁾ 1506년 중종반정이 일어나자 이에 참여하여 靖國功臣 3등으로 旰川君에 봉해졌다. 또 단종의 생모 폐비 권씨의 복위에 앞장서서 이를 관철시키기도 하였다.¹⁵⁾

鄭汝昌은 金宏弼과 함께 대표적인 金宗直의 문인으로 효행과 경연에 밝다는 이유로 추천을 받았다.¹⁶⁾ 1490년 문과에 급제하고 1492년에는 天文과 算學을 익히는 문신으로 추천되었으며,¹⁷⁾ 시강원설서에 임명되어 경연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金宗直의 문인은 康仲珍, 康伯珍과 같이 혈연관계이거나 문하에서 수학한 인물이었다.¹⁸⁾

한편 무오·갑자사화가 발생하자 일부 인물들은 金宗直과의 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형벌을 피하였다. 李仁亨은 金宗直과 같은 시기에 정계에 진출하였고 아들 李翹이 宗直의 사위가 되었으나 「조의제문」의 내용이 잘못되었으니 죄를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하였다.¹⁹⁾ 하지만 金駙孫·權五福·姜謙·鄭汝昌·金宏弼·表浴沫·康伯珍·朴漢柱·姜渾·曹偉 등을 비롯한 대다수의 인물들은 큰 피해를 입게 된다.²⁰⁾ 이후 1504년 昭陵 복위 문제와 갑자사화가 발생하면서 金宗直의 문인은 다시 피해를 입었다.²¹⁾ 특히 진주강씨의 경우 그 피해가 컸다. 姜子平의 아들 姜諶, 姜謙, 姜訢은 무오사화 때 귀양 갔으며 갑자사화 이후 姜訢을 비롯한 가족들이 모두 연좌되어 죽임을 당한다.²²⁾ 이후 일부 사람들은 상주로 이거한다.

14) 『연산군일기』 30권, 연산 4년 7월 26일 경신.

15) 황의동, 「진주 강문 유학자들의 학문과 사상」, 『한국사상과 문화』 50, 2009, 373~374쪽.

16) 『성종실록』 242권, 성종 21년 7월 26일 병자.

17) 『성종실록』 270권, 성종 23년 10월 18일 을묘.

18) 『연산군일기』 30권, 연산 4년 7월 17일 신해, “駙孫對曰 申從漢 宗直在京時受業 曹偉以宗直妻弟 自少受業 蔡壽 金詮 崔溥 申用漑 權景裕 李繼孟 李胄 李龜 製述科次 鄭錫堅 金諶 金訢 表浴沫 俞好仁 鄭汝昌亦皆受業 其歲月則不知 李昌臣爲弘文校理 宗直時爲應教 昌臣以史記質疑 康伯珍以三寸姪 自少受業 柳順汀受韓文 權五福則宗直同知成均時居館 朴漢柱以慶尙道儒生受業 金宏弼 宗直遭喪時受業 所謂其餘尙多者 李承彥 郭承華 莊子健等也”

19) 李仁亨은 1502년(연산 8) 한성부우윤까지 임명되나 갑자사화에 연루되어 부관참시 된다. 表浴沫 또한 조의제문의 문제를 지적하였지만 김종직의 행장을 썼다는 사실과 昭陵을 없앤 일들을 비난했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게 된다 (『연산군일기』 30권, 연산 4년 7월 17일 신해).

20) 『연산군일기』 30권, 연산 4년 7월 26일 경신.

21) 『연산군일기』 56권, 연산 10년 10월 1일 무오.

22) 『연산군일기』 56권, 연산 10년 10월 4일 신유.

김해김씨의 경우 갑자사화 이후 金駟孫의 가계에서 문과급제자를 배출하지 못한다. 金駟孫의 가문은 청도에 세거하고 있었다.²³⁾ 駟孫 할아버지인 金克一은 吉再의 문인이었으며, 아버지 金孟 또한 金叔滋에게 학문을 배웠다. 그의 아들 중 金駿孫, 金驥孫, 金駟孫이 문과에 급제하게 되는데 특히 金駟孫은 金宗直 문인 중 대표적인 인물로 중앙정계에 진출하여 적극적으로 훈구파와 대립한다. 하지만 그의 강직한 태도는 무오사화의 발단이 되고, 결국 죽게 된다. 金駟孫의 추승 작업에 가장 힘을 기울였던 인물은 조카 金大有였다. 金大有는 金駿孫의 아들로 趙光祖, 曹植 등과 교류를 하며 1519년 현량과에 급제하였다. 그는 청도의 사림과 함께 金駟孫을 제향하는 紫溪祠를 건립하였다. 이후 金宗直의 도학사상은 李滉에게 전과되어 영남학파가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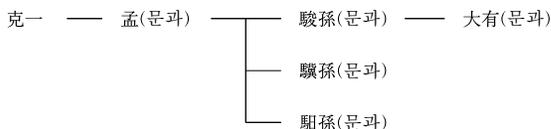
2. 16~17세기 영남사림파의 성장과 문과급제

1) 16세기 李滉·鄭述 문인의 문과급제

16세기(중종~광해군)는 훈구파와 지역사회에서 중앙정계로 진출한 사림파 간의 대립이 심화되었다. 권세가들에 의해 수탈이 심화되면서 농민들의 부담이 가중되었고 농민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던 재지 중소지주인 사림파는 자신들의 경제적 기반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중앙정계에 적극적으로 진출하였다.²⁴⁾ 이 시기 사림파의 대표적인 인물 趙光祖·金宏弼·李滉 등이다. 이들은 성리학적 군주를 강조하며 훈구파와 대립하였고 일부 세력은 정치적 부침을 겪었지만 결국 사림파에 의해 정국이 주도된다.

16세기가 되면 연산군이 축출되고 중종반정이 발생한다. 이 시기에 崔重演, 魚泳濬, 文瓘, 權機, 權希孟, 金璠 등을 비롯한 영남의 인물들이 이미 언관직에 임명되어 있었다. 특히 權機의 경우 趙光祖의 개혁정치에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였으며 훈구파와 사림파의 사이를 조정하였다. 文瓘은 한림에 임명되었고 정랑·지평에 임명되어 언론활동을 통해 훈구파를 견제하였다.²⁵⁾ 이러한 활동

23) 삼현파의 문과급제자 가계를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4) 이수건, 『영남사림파의 형성』, 영남대학교출판부, 1979.

에 의해 반대세력에 공격을 받았다.

어떤 사람이 밤중에 글을 화살에 묶어서 의정부의 문과 사간원의 문에 쏘았었는데 그 글에 ‘金淨·趙光祖·李紆·韓忠·金安國·權櫟·柳仁淑·申光漢·孔瑞麟·文瓘·金絳·尹自任·鄭鷹·崔山斗·李清·李若氷·柳庸謹·奇遵·張玉·金湜·朴薰·朴世熹·李希閔·梁彭孫 등 30여 명이 국정을 변경하고 어지럽혀서 사직을 위태롭게 하나, 밝으신 임금이 간사한 술책을 모르고 있는데, 대신은 어찌하여 묵묵히 편안하게 앉아 있는가.’라 하였다. … 또 신진들은 탄핵이 너무 지나쳐서 老成한 이 중에 廢棄된 자가 많았으므로 조정의 재상이 다 자신을 보전하지 못할 것처럼 위태롭게 여기는 마음을 가졌었다. 이 때 문에 원한이 골수에 사무쳤다.²⁶⁾

1518년 사림파를 비판하는 투서가 발견되었는데 여기에 趙光祖를 비롯한 기호사림과 외에도 文瓘, 權櫟 등 영남사림파의 인물도 포함되었다. 權櫟은 이후 기묘사화와 양재역벽서사건에 연루되어 귀양지에서 사망한다. 이에 반해 文瓘은 폐비신씨의 복위를 주장한 朴祥과 金淨 등 기호사림과 대립하게 된다.

이 시기 영남 사림파의 대다수는 趙光祖 세력과의 일정한 거리를 두면서 기묘사화 때 적은 피해를 입었다. 특히 16세기 金安國의 영향을 받으며²⁷⁾ 李彦迪, 李滉, 曹植과 같은 대표적인 유학자가 배출되었고 그의 문인을 중심으로 학파가 형성된다. 曹植은 중앙정계에 진출하지 않았지만 향촌에서 많은 제자들을 길러내고 있었고, 李彦迪, 李滉은 상소와 경연 활동을 통해 성리학적 군주론을 주장하였다.

侍讀官 李滉이 아뢰기를, 임금이 힘써야 할 일은 經術을 택하고 王道를 높이고 霸功을 억제하는 것일 뿐인데, 조금만 잡되어도 패도로 흐르게 됩니다. 지금은 정신을 가다듬어 다스려지기를 도모할 때여서 바야흐로 왕도가 행해지려 하고 있습니다.

이황은 평소에 의관을 단정하게 하고 앉아 있기를 비록 캄캄한 방이라 하더라도 일찍이 조금도 게을리하지 않았다. 아들 하나가 있는데 잘못하는 것이 있으면 꾸짖지 않고 단지 시침을 시켜 타일러 고치게 할 뿐이었다. 또 살림살이에 마음을 쓰지 않았으며, 일찍이 고을살이를 그만두고 돌아오는데 독 안에는 조 두어 말이 있을 뿐이었다.²⁸⁾

李滉은 인간의 心은 理와 氣로 이루어졌으며 理가 氣를 주재하며 氣가 理

25) 『중종실록』 26권, 중종 11년 10월 9일 정사.

26) 『중종실록』 34권, 중종 13년 8월 21일 무자.

27) 이병휴, 「조선전기 소외관인의 은거생활:김안국·김정국의 경우」, 『역사교육논집』 31, 2003.

28) 『명종실록』 13권, 명종 7년 5월 8일 기축; 『명종실록』 18권, 명종 10년 2월 18일 계미.

의 가치를 가리지 않고 드러낼 것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正心과 修身을 이루고 家와 國, 천하에 까지 도달하면 그 왕성한 기운을 누구도 막을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²⁹⁾ 이러한 그의 학문은 이후 문인의 出處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李彦迪은 1514년 문과에 급제하고 중앙정계에 진출한다. 하지만 1530년 사간이 되어 金安老의 등용을 반대하다가 파직된다. 이후 다시 정계에 나가 인종대 權檣과 함께 원상에 위치하고 있었지만 소윤과 문정왕후 그리고 훈구대신이 결탁하여 을사사화를 일으키자 이를 비판하고 파직된다. 具壽福의 경우 趙光祖와 친척관계였으며,³⁰⁾ 사림과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檢討官 具壽福은 아뢰기를, 비록 과거 출신이 아니라도 師儒를 임용해야 한다는 일을 대신은 법에 구애되어 未便하다 여기나, 대저 사람을 쓰는 것은 어진지의 여부에 있지 文藝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과거에 구애되어 쓸 만한 사람인데도 쓰이지 않는다면 治道에 방해가 될 것이니, 대신은 비록 이렇더라도 상께서는 헤아리셔야 합니다.³¹⁾

위의 글은 기존의 과거로는 인물을 선발하기 어려우니 현량과를 통해 신진 사류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해야 한다는 具壽福의 주장이다. 이후 현량과의 협력이 이루어지면서 具壽福은 趙光祖와 私黨을 만든 인물로 평가받았다.³²⁾

曹植, 李滉, 李彦迪의 문인은 상소를 통해 五賢[金宏弼, 鄭汝昌, 趙光祖, 李彦迪, 李滉]을 문묘에 종사하였다.³³⁾ 또한 임진왜란 때 의병을 주도하여 향촌에서의 신망을 얻고 향약·동약 등의 조직을 통해 향촌 내에서의 영향력을 강화하였다.³⁴⁾ 문인록에 등재된 문인 중 16세기 문과에 급제한 인물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9) 김태형, 「퇴계의 개별 인간자아론」, 『퇴계학보』 109, 2011, 47~56쪽.

30) 『중종실록』 76권, 중종 28년 12월 19일 정해.

31) 『중종실록』 35권, 중종 13년 12월 7일 임신.

32) 『중종실록』 37권, 중종 14년 12월 14일 갑술.

33) 김용곤, 「16세기 사림의 문묘종사운동」, 『김철준박사화갑기념사학논총』, 1983; 이희권, 「동방오현 문묘종사 소고」, 『전북사학』 7, 1983; 설석규, 「조선시대 유생의 문묘종사 운동과 그 성격」, 『조선사연구』 3, 1994; 이수환, 「16세기 전반 영남사림과의 동향과 동방오현 문묘종사」, 『한국학논집』 45, 2011.

34) 정진영, 『조선시대 향촌사회사』, 한길사, 1998, 211~219쪽.

<표IV-2> 16세기 문과에 급제한 이황 외 12인 문인

순번	성명	본관	스승	거주지	급제시기
1	黃俊良	평해항	신원록	풍기	1540년(중종35)
2	朴承侃	반남박	신원록	榮川	1540년(중종35)
3	柳仲郢	풍산유	신원록	안동	1540년(중종35)
4	朴承任	반남박	이황	榮川	1540년(중종35)
5	張文輔	순천장	신원록	안동	1546년(명종1)
6	金克一	의성김	이황,신원록	안동	1546년(명종1)
7	邊永淸	원주변	이황	안동	1549년(명종4)
8	金八元	강릉김	이황,신원록	안동	1555년(명종10)
9	鄭琢	청주정	조식,이황,신원록	안동	1558년(명종13)
10	鄭惟一	동래정	이황	안동	1558년(명종13)
11	具鳳齡	능성구	이황	안동	1560년(명종15)
12	權文海	예천권	이황	예천	1560년(명종15)
13	李光俊	영천이	신원록	군위	1562년(명종17)
14	裴三益	흥해배	이황	안동	1564년(명종19)
15	柳成龍	풍산유	이황	안동	1566년(명종21)
16	文命凱	감천문	이황	榮川	1568년(선조1)
17	金誠一	의성김	이황,신원록,곽재겸	안동	1568년(선조1)
18	黃應奎	창원황	이황	풍기	1569년(선조2)
19	金復一	의성김	이황	안동	1570년(선조3)
20	權斗文	안동권	박승임	榮川	1572년(선조5)
21	權春蘭	안동권	이황,조목	안동	1573년(선조6)
22	李閔道	진성이	이황	예천	1576년(선조9)
23	李逢春	진성이	이황	안동	1576년(선조9)
24	金玠	예안김	이황,박승임	榮川	1576년(선조9)
25	權宣	안동권	이황	안동	1579년(선조12)
26	安霽	순흥안	이황	안동	1580년(선조13)
27	黃曙	창원황	박승임	풍기	1580년(선조13)
28	鄭士信	청주정	유성룡	안동	1582년(선조15)
29	柳宗介	풍산유	유성룡,조목	예안	1585년(선조18)
30	金澤龍	예안김	이황,조목	예안	1588년(선조21)
31	申之悌	아주신	정구,김언기	의성	1589년(선조22)
32	金垓	광산김	조목	예안	1589년(선조22)
33	金涌	의성김	조목	안동	1590년(선조23)
34	金蓋國	연안김	박승임	榮川	1591년(선조24)
35	成安義	창녕성	정구	榮川	1591년(선조24)
36	李民成	영천이	장현광	의성	1597년(선조30)
37	權泰一	안동권	정구,김언기	안동	1599년(선조32)
38	李民奐	영천이	장현광	의성	1600년(선조33)
39	權曄	안동권	김언기,조목	안동	1601년(선조34)
40	洪瑋	남양홍(당홍)	유성룡	군위	1601년(선조34)
41	琴愷	봉화김	조목	예안	1601년(선조34)
42	琴(卜+業)	봉화김	조목	예안	1601년(선조34)
43	裴龍吉	흥해배	유성룡,조목	안동	1602년(선조35)
44	吳汝機	고창오	장흥효	榮川	1603년(선조36)
45	安聃壽	순흥안	유성룡	안동	1603년(선조36)
46	李汝黻	우계이	박승임	榮川	1605년(선조38)
47	全以性	용궁전	정구	용궁	1606년(선조39)
48	金中淸	상락김	정구,김우옹,박승임,조목	예안	1610년(광해2)

49	金允安	순천김	정구,박승임,곽재겸,유성룡	안동	1612년(광해4)
50	金榮祖	풍산김	정구	안동	1612년(광해4)
51	金友益	예안김	장현광	榮川	1612년(광해4)
52	金奉祖	풍산김	정구,유성룡	안동	1613년(광해5)
53	趙錫朋	횡성조	조목	예안	1615년(광해7)
54	都衡	성주도	김광필	성주	1519년(중종14)
55	金希參	의성김	신원록	성주	1540년(중종35)
56	盧守愼	광주노	조식,이황	상주	1543년(중종38)
57	金冲	상산김	신원록	상주	1551년(명종6)
58	宋鉉	야로송	이황	성주	1556년(명종11)
59	高應陟	안동고	이황	선산	1561년(명종16)
60	金宇宏	의성김	조식,이황	상주	1566년(명종21)
61	金宇顒	의성김	이황,조식	성주	1567년(선조0)
62	裴應襲	성산배	박승임	성주	1576년(선조9)
63	金弘微	상산김	조식,유성룡	상주	1585년(선조18)
64	鄭經世	진양정	정구,곽재겸,유성룡,조목	상주	1586년(선조19)
65	趙翊	풍양조	유성룡	상주	1588년(선조21)
66	盧景任	안강노	정구,장현광	선산	1591년(선조24)
67	李埈	흥양이	유성룡	상주	1591년(선조24)
68	宋光啓	야로송	정구,김우옹	성주	1601년(선조34)
69	李彦英	벽진이	정구,장현광	성주	1603년(선조36)
70	全湜	옥천전	유성룡	상주	1603년(선조36)
71	趙靖	풍양조	정구,김우옹	상주	1605년(선조38)
72	曹友仁	창녕조	조목	상주	1605년(선조38)
73	申楫	영해신	정구	상주	1606년(선조39)
74	崔睨	전주최	정구	선산	1606년(선조39)
75	宋遠器	야로송	정구,김우옹	성주	1610년(광해2)
76	李廷賢	성산이	정구	성주	1612년(광해4)
77	金寧	선산김(선궁)	정구,장현광	선산	1612년(광해4)
78	鄭樟	청주정	정구	성주	1612년(광해4)
79	黃紐	장수황	정구	상주	1613년(광해5)
80	朴宗胤	고령박	김언기	고령	1615년(광해7)
81	周世鵬	상주주	신원록	칠원	1522년(중종17)
82	曹淑	창녕조	신원록	안의	1540년(중종35)
83	盧禎	풍천노	조식	함양	1546년(명종1)
84	河晉寶	진양하	조식	진주	1555년(명종10)
85	林希茂	나주임	조식	함양	1558년(명종13)
86	姜文佑	진주강	이황	진주	1558년(명종13)
87	吳健	함양오	조식,이황	산청	1558년(명종13)
88	文益成	남평문	조식	합천	1561년(명종16)
89	曹光益	창녕조	이황	창원	1564년(명종19)
90	吳灋	고창오	이황	함안	1566년(명종21)
91	李晁	성주이	조식	단성	1567년(선조0)
92	周博	상주주	이황	칠원	1568년(선조1)
93	金大鳴	울산김	장흥효	진주	1570년(선조3)
94	權文任	안동권	조식	단성	1576년(선조9)
95	李魯	고성이	조식	의령	1590년(선조23)
96	朴明搏	밀양박	정구	안의	1590년(선조23)
97	曹挺立	창녕조	장흥효	합천	1609년(광해1)
98	鄭蘊	초계정	정구	안의	1610년(광해2)
99	權漣	안동권	장현광	단성	1612년(광해4)

100	姜縑	진주강	정구	함양	1613년(광해5)
101	權濤	안동권	정구, 장현광	단성	1613년(광해5)
102	權濬	안동권	정구	단성	1613년(광해5)
103	曹挺生	창녕조	장현광	합천	1613년(광해5)
104	許燾	김해허	정구, 장현광	합천	1616년(광해8)
105	金大有	김해김	조식	청도	1519년(중종14)
106	郭珣	현풍곽	조식	永川	1528년(중종23)
107	郭趨	현풍곽	신원록	대구	1552년(명종7)
108	郭越	현풍곽	신원록	대구	1556년(명종11)
109	郭越	현풍곽	곽재겸	대구	1556년(명종11)
110	孫英濟	밀양손	이황	밀양	1561년(명종16)
111	李聃龍	담양이	신원록	밀양	1570년(선조3)
112	全慶昌	경산전	이황, 곽재겸	대구	1573년(선조6)
113	孫起陽	밀양손	정구, 곽재겸	밀양	1588년(선조21)
114	李潤雨	광주이	정구, 곽재겸	대구	1606년(선조39)
115	郭永禧	현풍곽	정구	대구	1606년(선조39)
116	姜弘重	진주강	장현광	동래	1606년(선조39)
117	安璠	광주안	정구	밀양	1609년(광해1)
118	李之華	전의이	장현광	대구	1613년(광해5)
119	李之英	전의이	정구, 장현광, 김우옹	대구	1613년(광해5)
120	李宜活	여주이	정구, 김우옹	경주	1618년(광해10)

<표IV-2>에 의하면 중복된 인물을 제외하면 문인록에 등재된 문인 중 총 120명이 문과에 급제하였다. 각 학단별로 살펴보면 李滉(33명), 鄭述(32명), 申元祿(16명), 曹植(15명), 趙穆(13명), 張顯光(13명), 柳成龍(12명), 朴承任(8명), 金宇顒(6명), 金彦璣(4명), 張興孝(3명), 郭再謙(1명), 金宏弼(1명) 순으로 李滉·鄭述의 문인 중 급제자가 많았다. 문인 중 영남의 문과급제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살펴보면 李滉 10.4%, 鄭述 9.4%, 申元祿 25.8%, 曹植 19.0%, 趙穆 68.4%, 張顯光 3.6%, 柳成龍 30.7%, 朴承任 16.0%, 金宇顒 10.7%, 金彦璣 2.1%, 張興孝 1.4%, 郭再謙 2.0%로 李滉, 趙穆, 柳成龍, 曹植의 문인 중 문과급제자의 비율이 높았다. 申元祿의 경우 문인록 보다는 交友錄의 성격이기 때문에 여러 인물들이 포함되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³⁵⁾

李滉 문인록에 등재된 문인 중 급제자의 거주지를 살펴보면 안동 14명, 榮川 3명, 상주·성주·예천 각 2명, 선산·대구·밀양·산청·예산·진주·창원·칠원·풍기·함안 각 1명으로 안동을 중심으로 하였으며, 鄭述 문인록에 등재된 문인 중 거주지를 살펴보면 성주 5명, 안동·상주 4명, 선산·대구 3명, 단

35) 16세기 문인 급제자 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李滉	鄭述	申元祿	曹植	趙穆	張顯光	柳成龍	朴承任	金宇顒	金彦璣	張興孝	郭再謙
영남	33	32	16	15	13	13	12	8	6	4	3	1
전체	316	339	62	79	19	356	39	50	56	189	221	50

성·밀양·안의 각 2명, 경주·榮川·예안·용궁·의성·함양·합천 각 1명으로 성주·상주 외에도 영남의 여러 지역에서 급제자가 배출되었다.

16세기 문인록에 등재된 문인 중 문과에 급제한 인물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IV-3> 16세기 시기별 문인 급제자 수

왕대	스승	이황	정구	신원록	조식	조목	장현광	유성룡
중종		2		6	3			
명종		17		8	7			
선조		14	15	2	5	11	5	10
광해군			17			2	8	2

왕대	스승	박승임	김우용	김언기	장흥효	곽재겸	김굉필	계(명)
중종							1	12
명종						1		33
선조		6	2	3	2			75
광해군		2	4	1	1			37

16세기 문인은 명종~선조대는 李滉과 曹植, 선조~광해군대는 鄭述와 趙穆·柳成龍 등의 문인에서 급제자가 많이 배출되었다. 16세기 말 李滉의 문인으로 중앙정계에 진출한 인물 중 柳成龍과 金誠一이 대표적인 인물이었다. 金誠一은 1568년 문과에 급제하고 언관직에 임명되어 활발히 언론활동을 전개하였다. 盧守愼의 탄핵, 崔永慶의 신원 등을 주도하였으며³⁶⁾ 임진왜란 때 사망한다. 이후 그의 가문을 중심으로 많은 급제자가 배출된다. 柳成龍은 李滉의 高弟로 임란을 극복하는데 많은 역할을 하였다. 또한 李滉의 학통을 계승하여 鄭經世, 李垞, 全滉, 張興孝 등에게 전승하면서 퇴계학의 영향력을 강화되었다. 하지만 1598년(선조 31) 북인세력의 탄핵에 의해 柳成龍이 실각하면서 광해군대 趙穆의 문인인 金澤龍, 金中淸, 李沆, 李苙, 李慕, 李葦, 琴愷, 琴慄 등이 대거 문과에 급제한다. 柳成龍과 경쟁관계에 있던 趙穆의 문인들이 북인과 연합하여 중앙 정계에 진출하였다.³⁷⁾

성주·상주에는 金宇宏, 金宇顒, 盧守愼 등이 李滉과 曹植의 문하생으로 있었다. 특히 金宇顒은 '퇴계의 正脈을 평생토록 사모했다.'³⁸⁾라 할 정도로 李滉

36) 『선조실록』 8권, 선조 7년 윤12월 22일 임진; 『선조실록』 25권, 선조 24년 8월 8일 경자.

37) 이수건, 「서애 유성룡의 학문과 학맥」, 『퇴계학과 유교문화』 23, 1995, 12쪽.

38) 『갈암집』 부록 2권, 「만사」.

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1573년 朝講에서 盧禎, 金誠一 등이 李滉에게 시호를 내리기를 청하자, 金宇顒도 이에 찬성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³⁹⁾ 李滉은 군주의 修身을 강조하며 임금이 나라를 공정히 다스리는 ‘建極’을 강조하였는데⁴⁰⁾ 金宇顒 또한 이러한 ‘建極’을 현실정치에서 실현시키고자 노력하였다.

김우옹이 상에게 아뢰기를, 요즘 조정이 화평하지 못한 이유는 대체로 沈義謙과 金孝元이 서로 배척하는 데에 연유된 것입니다. … 이 두 사람이 서로 배척함으로 인하여 조정이 안정되지 않기 때문에 대신들이 그것을 걱정하여 두 사람을 외방으로 내보낼 계책을 세운 것으로 이는 본래 진정시키고자 해서 한 것이었습니다. … 그러나 김효원에게도 경솔한 병통이 있으니 일을 처리함에 있어 어찌 다 훌륭할 수 있겠습니까. 심의겸 또한 공로가 있고 별로 국가에 화를 끼친 죄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대부간의 의논이 같지 않아 거의 반반에 이르고 있으니 이것으로서 사람의 선악을 논할 수는 없습니다. 상께서는 마땅히 大公至正한 마음으로 위에서 표준을 세워서 피차를 가릴 것 없이 오직 선한 자에게는 상을 내리고 악한 자에게는 벌을 내리소서. 그렇게 하시면 자연히 편당은 사라지고 훈훈한 기운으로 크게 화합될 것입니다.⁴¹⁾

선조대는 동·서 분당으로 인해 사람의 분열이 이루어진 시기로 金宇顒은 동·서인 양자를 선악으로 구분하지 않고, 군주가 공정하게 당과의 인물들을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建極’의 견해가 군주의 修身뿐만 아니라 분열된 사람의 통합까지 확대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후 그는 다양한 인물들을 등용할 것을 주장하며 鄭述와 郭再祐 등의 인물을 추천하였다.

金宇顒이 아뢰기를, 지난번에 兪曹에서 山野의 조행이 있는 선비를 써서 아뢰었는데, 대개 다 착한 선비입니다. 幼學 鄭述는 나이가 가장 젊어서 대신들이 모르지만 학문이 通明하여 장래가 있는 사람입니다. 李滉을 따라 글을 배웠고 전에 曹植의 문하에 왕래하였으며 才識이 있는데다가 학문도 있습니다. 신은 정구와 같은 동리에 살기 때문에 그 사람됨을 잘 압니다.⁴²⁾

金宇顒과 鄭述는 李滉과 曹植에게 같이 수학하며 친분을 쌓았고 金宇顒의 문인인 趙靖, 宋遠器, 宋光啓 등도 鄭述에게 수학하였다.

鄭述는 퇴계·남명학을 통합·발전시킨 사람으로 洛中지역[김천, 상주, 선산, 인동, 칠곡, 성주, 대구, 경산, 현풍, 고령, 영산, 창녕, 함안, 청도, 밀양, 김

39) 『선조실록』 7권, 선조 6년 11월 26일 임인.

40) 『퇴계선생문집』 권6, 「戊辰六條疏」, “臣愚伏願 聖上唯當顧謨天之明命 恭己南面 推誠腹心 明目達聰 建中于民 建極于上”

41) 『선조실록』 13권, 선조 12년 3월 25일 경오.

42) 『선조실록』 7권, 선조 6년 12월 22일 무진.

해]에 많은 문인들이 분포하고 있었다.⁴³⁾ 그는 李珥, 金宇顒의 추천을 받았지만 관직에 나가지 않았고 1584년 동북현감으로 벼슬을 시작하였다.⁴⁴⁾ 1603년 鄭仁弘이 李彦迪·李滉을 문묘에서 추방하려고 하자 이를 비판하며 영남 사림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1607년에는 안동부사에 부임하여 鄭述의 문인이 안동까지 확대되었다. 또한 대구지역을 중심으로 한강학단이 확대되며 현풍곽씨를 중심으로 鄭述 문인이 형성되었다.⁴⁵⁾ 16세기 현풍곽씨는 대구 7명, 현풍 2명, 永川 1명으로 대구·현풍 지역을 중심으로 급제자가 배출되었다.⁴⁶⁾ 郭承華는 金宗直의 문인이었으며 손자인 郭之藩이 문과에 급제하고 之藩의 아들 郭越, 郭赧가 문과에 급제하면서 가세가 번성하였다. 鄭述의 문인인 郭再謙의 경우 之藩의 손자였으며 徐思遠, 孫處訥과 같이 회연서재로 가서 鄭述에게 수학하였고 金宇顒과도 활발히 교류하였다.⁴⁷⁾ 임진왜란 때는 郭再祐와 의병을 일으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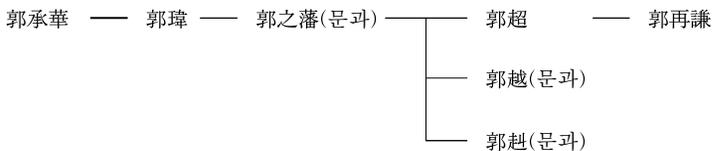
성주·상주를 중심으로 대구·안동으로 鄭述의 문인이 증가하면서 한강학단의 외연이 확대되었다. 하지만 1610년 성주의 朴而立이 鄭述를 모함하면서 위기를 겪게 된다. 鄭述의 문인은 金寧을 소두로 하여 ‘辨寒岡先生被誣疏’를 작성하였는데 이 소회에 참석한 인물이 223명(鄭述문인 46명)이었다.⁴⁸⁾ 또한 宋遠器, 朴宗胤이 지속적으로 상소를 하여 鄭述를 보호하였다.⁴⁹⁾ 朴而立 사건의 배후는 鄭仁弘이 있었다.

당시 정구가 향리에 돌아와 있었는데, 鄭仁弘의 門徒가 미워하여 헐뜯고 배척하였으나, 정구는

43) 정구의 문인은 총 342명으로 이 중 90%가 영남 출신이었으며, 62%가 낙동강 연안지역이었다 (김학수, 「조선중기 한강학파의 등장과 전개」, 『한국학논집』40, 2010, 112쪽).

44) 『선조수정실록』 18권, 선조 17년 3월 1일 무인.

45) 경주권의 객재겸의 문인은 4명으로 郭越, 全慶昌, 李潤雨, 孫起陽으로 鄭述에게 수학하기도 하였다.



46) 郭再謙의 가계도를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47) 장운수·임종진, 「한강 정구와 조선 중기 대구권 성리학의 연계성에 관한 연구」, 『동양사회사상』 8, 2003, 11~13쪽.

48) 김학수, 「조선중기 한강학파의 등장과 전개」, 『한국학논집』 40, 2010, 122쪽.

49) 『광해군일기』(중초본) 33권, 광해 2년 9월 18일 경신.

쟁론하지 않았다. 박이립이 몹쓸 행실이 있으면서 정인홍의 당인들과 함께 정구가 불측한 일을 했다고 날조하고 또 姓字를 讖說에 맞추어 계속 낭설을 퍼뜨리니, 정구가 관부에 나아가 대죄하였다. 감사가 그 사실을 듣고 조정에 보고하자 왕이 감사에게 조사하여 다스리도록 하였는데, 감사가 이립의 나이가 70이 넘어 刑訊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회계하자 왕이 그만두고 다스리지 않았다. 이에 준민이 상소하여 다시 끝까지 조사하도록 청하였으나 왕이 허락하지 않은 것이다. 왕이 이미 정구의 恩義를 온전하게 해야 된다는 논의를 혐의했고 또 정구가 정인홍과 너무 반목하는 것을 이유로 더욱 소원하게 대하니, 정구는 화가 미칠까 걱정하여 깊은 산중으로 옮겨가 문도들을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다.⁵⁰⁾

16세기 영남 전역으로 鄭述의 문인이 증가하자 당시 정권을 장악하고 있었던 대북인은 鄭述의 문인을 견제하기 위해 단순한 모함 사건을 확대시켰다. 이후 鄭述과 鄭仁弘은 정치적 입장 차이로 계속적인 갈등을 벌였다.

또한 이 시기 상주의 학자로는 盧守愼도 유명하였다. 그는 李滉·曹植의 문하에 출입하였으며, 李延慶과 李彦迪의 영향을 받았다. 1543년 문과에 급제하고 인종 즉위 때는 대운의 편에 서서 ‘간사한 자의 우두머리’라고 비난받았으며⁵¹⁾ 1545년 을사사화로 이조좌랑에서 파직된다.⁵²⁾ 학문적으로는 李滉의 이기호발설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기일원론을 주장하였는데 이 학설은 이후 張顯光에게 영향을 미친다.

한편 진주를 중심으로 명종대 曹植의 문인 중 급제자가 증가하게 된다.

曹植은 성품이 方正廉潔하고 형제가 함께 살면서도 자기 물건을 私有로 하지 않았다. 부모상 삼년 동안 몸에서 최질을 벗지 않았고 집안이 매우 궁색했어도 영달을 구하지 않았다.⁵³⁾

위의 글은 명종 7년 인재를 천거할 때 曹植에 대한 당시 조정의 평가이다. 이에 의하면 그는 청렴한 인물로 주자학을 몸으로 체화한 인물로 인식되었다. 이로 인해 지속적으로 관직에 임명되었으나 나가지 않고 향촌에서 후학양성에 힘을 쏟았다. 그의 문하생인 盧禎은 1546년(명종 1) 문과에 급제하고 지례현감으로 있다가 청백리로 천거를 받았다.⁵⁴⁾ 이후 1558년(명종 22) 홍문관 관직을 거쳐 1560년(명종 15) 참의를 거쳐 판서에까지 임명된다. 하지만 명종대에 문

50) 『선조실록』 19권, 선조 18년 1월 미상; 『선조실록』 7권, 선조 6년 12월 22일 무진.

51) 『인종실록』 1권, 인종 1년 윤1월 15일 무인.

52) 『명종실록』 2권, 명종 즉위년 9월 12일 임신.

53) 『명종실록』 13권, 명종 7년 7월 11일 신묘.

54) 『명종실록』 13권, 명종 7년 3월 9일 신묘.

과에 급제한 曹植 문인 중에 당상관에 오른 인물은 많지 않고 대다수가 향촌으로 돌아갔다. 吳健은 학문이 뛰어났고 이조정랑에 임명되었으나 당파싸움을 피해 낙향한다. 이때 같은 문인인 盧禎이 만류를 하였지만 이를 거부하였다.⁵⁵⁾ 李晁 또한 1567년 문과에 급제하여 사헌부감찰에 임명되었지만 귀향하여 학문에 정진한다.

16세기 초 曹植의 문인들은 중앙정계에 진출하였지만 정계가 혼란해지자 이를 피해 다시 향촌에서 학문에 몰두하였다. 이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향촌에 머무르던 曹植의 문인들은 의병을 일으켰으며, 鄭仁弘을 중심으로 다시 많은 인물들이 중앙 정계에 진출하였다. 하지만 鄭仁弘이 ‘晦退辨斥疏’를 제기하게 되자 曹植의 문하생 중 많은 인원들이 퇴계학파로 이동하였다.⁵⁶⁾ 16세기 후반 鄭述 문인의 증가는 이러한 현상을 반증하는 것이다. 또한 인조반정으로 복인 정권이 몰락하게 되면서 남명학파의 정치적 영향력은 급감한다.

인홍의 악행은 誅戮을 기다릴 것도 없이 날로 드러났으며, 그 문도가 모두 나쁜 사람이 되었다. 이로 인해 영남 하도에 학자가 없었다. 오직 한강만이 온전한 인물이었다.⁵⁷⁾

曹植의 학문은 門路가 純正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의 문하에서 鄭仁弘이 나왔으니, 이는 筍卿의 문하에서 李斯가 나온 것과 같습니다. 조식이 右道에 살았기 때문에, 우도 사람들은 오로지 氣節을 숭상하였습니다.⁵⁸⁾

위의 의견을 제시한 李植은 서인으로 광해군대 정계에 은퇴한다. 그는 대북과 鄭仁弘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하였다. 복인에 대한 견제는 서인이 집권 하면서 더욱 강화되었다. 또한 이후 영남에서 퇴계학파의 영향력이 강화되고 鄭仁弘이 李滉을 비판했다는 사실이 약점이 되어 남명학파가 크게 성장하지 못한다.

2) 17세기 李玄逸 문인의 문과급제

17세기(인조~숙종)가 되면 광해군과 대북정권이 몰락하고 인조반정이 일어나면서 서인과 남인의 연합으로 정권이 주도된다. 문인록에 등재된 문인 중 17세기 문과에 급제한 인물을 살펴보면 <표IV-4>와 같다.

55) 『선조실록』 6권, 선조 5년 윤2월 1일 정사.

56) 김익재, 「내암 정인홍의 현실대응과 그 문인집단의 사승의식」, 경북대 박사학위논문, 2008.

57) 『택당집』 권15, 「示兒代筆」.

58) 『영조실록』 52권, 영조 16년 12월 5일 신축.

<표IV-4> 17세기 문과에 급제한 이현일 외 7인의 문인

순번	성명	본관	스승	거주지	급제시기
1	金應祖	풍산김	장현광	안동	1623년(인조 1)
2	申達道	아주신	장현광, 조목	의성	1623년(인조 1)
3	申悅道	아주신	장현광, 조목	의성	1624년(인조 2)
4	裴尙益	성산배	정구	榮川	1624년(인조 2)
5	金柱宇	상락김	정구, 장현광	예안	1624년(인조 2)
6	金是權	의성김	장홍효	안동	1630년(인조 8)
7	李廷相	영천이	장현광	의성	1638년(인조 16)
8	朴廷蓍	함양박	유직	예천	1639년(인조 17)
9	申弘望	아주신	장현광	의성	1639년(인조 17)
10	金沓	의성김	장현광	예천	1639년(인조 17)
11	柳貞立	전주유	유직	안동	1646년(인조 24)
12	南天漢	영양남	유직	용궁	1646년(인조 24)
13	申瀚	평산신	장현광	인동	1646년(인조 24)
14	南之望	영양남	유직, 장홍효	예천	1648년(인조 26)
15	李廷機	영천이	장현광	의성	1648년(인조 26)
16	柳挺輝	전주유	유직	안동	1651년(효종 2)
17	南夢賚	영양남	유직	의성	1651년(효종 2)
18	柳經立	전주유	유직	안동	1654년(효종 5)
19	洪汝河	부계홍	유직	안동	1654년(효종 5)
20	姜象先	진주강	유직	용궁	1654년(효종 5)
21	朴居華	함양박	유직	예천	1654년(효종 5)
22	權迪	안동권	유직	예천	1660년(현종 1)
23	金啓光	상락김	유직	안동	1660년(현종 1)
24	宋光璧	야로송	유직	榮川	1663년(현종 4)
25	金學培	의성김	유직	안동	1663년(현종 4)
26	柳英立	전주유	유직	안동	1663년(현종 4)
27	金聖佐	상락김	이현일	의성	1663년(현종 4)
28	辛蕃	영산신	유직	예천	1666년(현종 7)
29	柳世鳴	풍산유	유직	안동	1675년(숙종 1)
30	權聖矩	안동권	이현일	봉화	1678년(숙종 4)
31	羅學川	수성나	이현일	榮川	1683년(숙종 9)
32	李後榮	고성이	유직	안동	1684년(숙종 10)
33	金汝鍵	의성김	이현일	안동	1687년(숙종 13)
34	權大臨	안동권	이현일	영해	1687년(숙종 13)
35	李碩意	경주이	이현일	榮川	1687년(숙종 13)
36	金世欽	의성김	이현일	안동	1687년(숙종 13)
37	朴安道	반남박	이현일	예천	1690년(숙종 16)
38	金昌錫	의성김	이현일	안동	1690년(숙종 16)
39	全命三	용궁전	이현일	용궁	1691년(숙종 17)
40	趙德隣	한양조	이현일	영해	1691년(숙종 17)
41	鄭堯天	동래정	유직	안동	1693년(숙종 19)
42	趙鳳徵	한양조	이현일	榮川	1693년(숙종 19)
43	黃壽巖	창원황	이현일	榮川	1693년(숙종 19)
44	金泰重	김해김	이현일	예천	1693년(숙종 19)
45	柳敬時	전주유	이현일	안동	1694년(숙종 20)
46	權斗紀	안동권	이현일	안동	1696년(숙종 22)
47	朴泰斗	무안박	이현일	영해	1699년(숙종 25)

48	權斗經	안동권	이현일,유직	안동	1710년(숙종 36)
49	金侃	풍산김	이현일	안동	1710년(숙종 36)
50	權斗紘	안동권	이현일	안동	1713년(숙종 39)
51	柳升鉉	전주유	이현일	안동	1719년(숙종 45)
52	申正模	아주신	이현일,이재	의성	1719년(숙종 45)
53	金天漉	의성김	정구	성주	1624년(인조 2)
54	金輅	해평김	정구,김우웅	성주	1624년(인조 2)
55	張應一	인동장	정구	성주	1629년(인조 7)
56	李尙逸	벽진이	장흥효	선산	1630년(인조 8)
57	李道長	광주이	정구,장현광	성주	1630년(인조 8)
58	呂孝曾	성산여	장현광	성주	1635년(인조 13)
59	李惟碩	성산이	장현광	고령	1639년(인조 17)
60	金是榮	의성김	유직	성주	1657년(효종 8)
61	李英甲	경주이	유직	함창	1660년(현종 1)
62	孫萬雄	경주손	이현일	상주	1669년(현종 10)
63	金元燮	선산김(추)	이현일	선산	1672년(현종 13)
64	裴正徽	성산배	이현일	성주	1673년(현종 14)
65	蔡獻徵	인천채	이현일	함창	1679년(숙종 5)
66	呂聖舉	성산여	이현일	성주	1683년(숙종 9)
67	朴來朋	순천박	이현일	성주	1693년(숙종 19)
68	金聖欽	순천김	이현일,이재	선산	1715년(숙종 41)
69	金宗一	경주김	정구,장현광	경주	1625년(인조 3)
70	鄭好仁	영일정	장현광	永川	1627년(인조 5)
71	李汝翊	벽진이	장현광	창녕	1630년(인조 8)
72	都愼修	성주도	정구	대구	1627년(인조 5)
73	蔡琳	인천채	정구	칠곡	1633년(인조 11)
74	孫湍	안동손	유직	대구	1660년(현종 1)
75	李碩蕃	영친이	유직	대구	1663년(현종 4)
76	尹東魯	파평윤	이현일	창녕	1699년(숙종 25)
77	李基命	광주이	이현일	칠곡	1699년(숙종 25)
78	鄭弘緒	하동정	정구	함양	1628년(인조 6)
79	盧碩賓	광주노	이현일	초계	1679년(숙종 5)

<표IV-4>를 보면 중복된 인물을 제외하여 문인록에 등재된 문인 중 총 79명이 문과에 급제하였다. 각 문인별로 살펴보면 李玄逸(32명), 柳稷(24명), 張顯光(15명), 鄭述(10명), 張興孝(3명), 李栽(2명), 趙穆(2명), 金宇顒(1명) 순으로 李玄逸, 柳稷, 張顯光의 문인 중 급제자가 많았다. 17세기 문인 중 영남의 문과급제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살펴보면 李玄逸 9.0%, 柳稷 7.0%, 張顯光 4.2%, 鄭述 3.0%, 張興孝 1.4%, 李栽 3.1%, 趙穆 10.5%, 金宇顒 1.8%로 李玄逸 문인 중 문과급제자의 비율이 높았다.⁵⁹⁾

59) 17세기 문인 급제자 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李玄逸	柳稷	張顯光	鄭述	張興孝	李栽	趙穆	金宇顒
영남	32	24	15	10	3	2	2	1
전체	357	343	356	339	221	65	19	56

李玄逸 문인록에 등재된 문인 중 급제자의 거주지를 살펴보면 안동 9명, 榮川 4명, 영해·성주 각 3명, 선산·예천·의성 각 2명, 봉화·상주·용궁·창녕·초계·칠곡·함창 각 1명으로 안동을 중심으로 영해, 예천, 의성 등 안동 주변부에 문과급제자가 많이 배출되었다. 17세기 문인록에 등재된 문인 중 급제자를 시기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IV-5> 17세기 시기별 문인 급제자 수

왕대 \ 스승	이현일	유직	장현광	정구	장홍효	이재	조목	김우용	계(명)
인조		4	15	10	3		2	1	35
효종		7							7
현종	4	9							13
숙종	28	4				2			34

<표IV-5>에 의하면 인조대에 張顯光·鄭述, 효종·현종대는 柳稷, 숙종대는 李玄逸의 문인이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張顯光은 鄭述에게 수학하였으며 柳成龍과 교류하였다. 그는 理와 氣가 날줄과 씨줄의 관계로 이를 통해 道를 이룬다는 經緯說을 주장하였다. 이는 사림의 보합을 지향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⁶⁰⁾ 張顯光의 문인 중 주목할 가문으로는 의성의 아주신씨가 있다. 이 가계는 申元祿의 후손이다. 申元祿은 周世鵬, 曹植, 李滉 등에게 수학하였으며 다양한 인물들과 교류하였다. 申元祿의 손자인 適道·達道·悅道는 모두 張顯光의 문인이었다. 申適道는 정묘호란이 발발하자 의병을 일으키고 병자호란 때에는 척화를 주장하였다. 申達道는 언관직에 임명되어 서인 李貴를 탄핵하였다.⁶¹⁾

17세기 초반 퇴계학의 대표적인 인물은 鄭經世였다. 그는 柳成龍의 문인으로 1586년(선조 19) 문과에 급제하였으며 여러 청요직을 거쳐 1602년에는 참의에 임명되었다. 특히 광해군대 鄭仁弘이 李彦迪과 李滉을 문묘에서 추방하려고 하자 鄭經世가 이를 적극적으로 막아내며 퇴계학을 호위하였다.⁶²⁾ 또한 인조대 적극적으로 서인과 대립한다. 서인이 대동법을 시행하려고 하자 이를 반대하였으며, 李貴가 흉년을 들어 호패법을 연기하려고하자 鄭經世는 조속한

60) 이희평, 「여헌 장현과의 이기경위설 연구」, 『한국사상과 문화』 17, 2002; 설석규, 「여헌학의 역사적 위상」, 『선주논총』 8, 2005.

61) 『인조실록』 16권, 인조 5년 6월 15일 경술.

62) 김성운, 「영남의 유교문화권과 지역학파의 전개」, 『조선시대사학보』 37, 2006, 154~155쪽.

시행을 주장하였다.⁶³⁾ 하지만 공신인 서인세력과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남인의 영향력이 점차 감소하였다.

이에 따라 일부 세력은 서인과 교류를 하였다. 鄭經世는 상주권의 대표적인 영남 남인이었으나 宋浚吉을 사위로 맞이하며 서인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鄭經世의 문인 申碩蕃의 경우 1650년 이후 서인으로 전향하여 남인에게 배척을 받았다. 張顯光의 문인인 金就文의 경우 그의 둘째 아들인 金宗儒가 대표적인 서인 가문인 기계유씨와 혼인을 맺었으며, 成渾의 문인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학문적 유연성으로 인해 후에 상주를 중심으로 많은 신출노론이 등장한다.

현종과 효종대는 소수지만 柳稷의 문하생들이 문과에 급제하였다. 柳稷은 1635년 李珥와 成渾의 문묘 종사 운동이 일어나자 疏首로 반대 상소를 주도하였다. 이후 관직에 나가지 않고 후진 양성에 주력한 인물로 퇴계학을 고수한 인물이라 할 수 있다. 17세기 후반이 되면 李玄逸을 중심으로 다시 퇴계학이 결집되는 모습을 보인다. 李玄逸의 문인 가운데는 안동권씨 權機가계, 의성김씨 金璣가계의 인물들이 많았다. 李玄逸 학단이 성주·선산으로 확대된 것은 金宇泰, 全五益 등 洪汝河의 문인이 그의 문하에 출입하면서 부터이다. 이후 많은 성주·선산의 유생들이 학문적 자문을 구하기 위해 李玄逸과 교류하였다.⁶⁴⁾ 李玄逸은 현종 즉위년에 3년복을 주장하는 儒疏의 草稿를 지었으며 숙종 초기에 친분이 있던 許穆의 천거로 관직에 나갔다.⁶⁵⁾ 이후 향촌에 내려갔으나 기사환국 이후 산림에게 주어지던 司業에 임명된다. 이때 경연에 참여하여 임금을 자문하고 국정운영에 참여하여 대사헌, 이조참판, 이조판서까지 역임하였다. 하지만 韓重赫, 金春澤의 역모혐의를 계기로 숙종 20년 갑작스럽게 갑술환국이 발생한다. 임금의 주도로 언관직에 서인계 인물이 임명되고 남인에 대한 공격이 본격화되었다.⁶⁶⁾ 서인은 李玄逸을 영남 남인의 주요 인물로 인식하고 정치적으로 공격하기 시작하였고 당시 이조판서였던 李玄逸은 인현왕후를 모해하였다는 이유로 유배를 간다.⁶⁷⁾ 이후 그의 문인은 정계에 계속 남아있었지만 金汝鍵의 경우와 같이 서인의 공격을 받아 귀양을 가는⁶⁸⁾ 등 남

63) 김형수, 「17·18세기 상주·선산권 지역사회와 서원·사우의 동향」, 『영남학』 7, 2005, 133~134쪽.

64) 김학수, 「갈암학파의 성격에 대한 검토」, 『퇴계학』 20, 2011, 83~85쪽.

65) 『숙종실록』 6권, 숙종 3년 4월 3일 기유.

66) 정만조, 「조선후기 정국동향과 갈암 이현일의 정치적 위상」, 『퇴계학』 20, 2011, 21~23쪽.

67) 『숙종실록』 26권, 숙종 20년 4월 11일 무인.

68) 『숙종실록』 28권, 숙종 21년 6월 6일 병신.

인 세력이 위축되었다. 李玄逸의 실각은 지속적으로 서인들이 영남 남인을 공격하는 하나의 이유로 이용된다. 이후 영조대 무신란으로 인해 남인계 문과급제자가 급격히 감소한다.

16~17세기 몇몇 성관을 중심으로 문과급제자가 집중되고 있었는데 이 가문들은 학문적으로 李滉과 鄭述의 영향을 받은 가문들이 많았다. 다음절에서는 16~17세기 문과급제자가 집중적으로 배출된 가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3) 16~17세기 영남 급제자 가문

(1) 영남 급제자 현황

16~17세기가 되면 사림파가 중앙정계에 진출하면서 영남에서 많은 인물들이 문과에 급제하였다. 이를 사림파가 성장하고 광해군대 복인 정권이 수립된 16세기와 인조반정 이후 남인들이 문과에 많이 급제한 17세기로 구분하여 당시 영남의 급제 성관과 거주지를 살펴보겠다.

16세기 영남의 급제 성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IV-6> 16세기(중종~광해군) 영남 문과급제자 성관

성관	16세기 왕대별				
	중종	명종	선조	광해	계(명)
진주강	4	4	7	2	17
개성고			3		3
안동고		1	1		2
현풍곽	3	5	2		10
능성구	1	1			2
안동권	10	1	9	5	25
예천권		1			1
봉화급	1		2		3
해평길		1	1		2
강릉김		1			1
경주김	3				3
광산김	1		1	1	3
김해김	2	1	1		4
상락김	2		1	2	5
상산김	2	1	3		6
선산김(선궁)	4		1	1	6
선산김(추)	1			1	2
순천김	1	1	1	1	4
안동김	1				1
양산김	1				1
언양김	1				1

성관	16세기 왕대별				
	중종	명종	선조	광해	계(명)
거창유			1		1
문화유			1		1
전주유				1	1
진주유		1	1		2
풍산유	3	1	1		5
파평윤			2	1	3
경주이	1		1		2
고성이	3	1	1		5
공주이		1			1
광주이			1		1
광평이			1		1
담양이			1		1
벽진이	1		2		3
사천이	1				1
성산이				1	1
성주이	1	1	2	1	5
양산이	1				1
여주이	2	1		1	4
연안이		1	1		2
영천이	2	1	2	5	10
예안이			1		1

연안김			1		1
영양김	1				1
예안김	2		2	1	5
울산김			1		1
의성김	1	3	5	1	10
풍산김	1			3	4
함창김			1		1
해평김	1				1
영양남			1		1
광주노	1				1
안강노		1	1		2
풍천노	1	1	1		3
성주노	2	1			3
감천문	1		1		2
남평문		1	3		4
여흥민	1				1
고령박				3	3
무안박		1	2		3
문의박	1				1
밀양박	2	1	1	1	5
반남박	2				2
비안박	1				1
삼척박			1		1
순천박			1		1
죽산박		1	1		2
함양박	5			2	7
달성배	1				1
분성배	2			2	4
성산배		1	1		2
홍해배		1	1		2
원주변		1			1
이천서		1			1
충주석		1			1
창녕성	1		1		2
밀양손		2	1		3
안동손			1		1
야로송	1	1	2	1	5
아주신			1		1
영산신	3	1	1	1	6
영해신			1		1
평산신			1		1
광주안	2	2		1	5
순흥안	2	1		3	6
안강안	1				1
남원양		1			1
함종어	1				1
성산여			2		2
고창오		1	1	2	4
함양오		1	1		2
단양우		1			1

웅진이	1				1
우계이			2	1	3
재령이				1	1
전의이				2	2
전주이				1	1
진성이	2		3		5
함안이	1				1
합천이	4	1			5
홍양이			1		1
나주임		1			1
평택임	1				1
순천장		1			1
울진장			1		1
창녕장		1			1
경산전			2		2
안동전		1			1
옥천전			1		1
용궁전			1		1
동래정	1	1	2		4
서산정			1	1	2
영일정	2		2		4
진양정		1	1		2
청주정		1	1	1	3
초계정	1			1	2
하동정	1				1
해주정			1		1
창녕조	5	1	1	2	9
풍양조			3		3
함안조	2				2
횡성조				1	1
상주주	1	1	1		3
웅천주	1				1
풍기진	1		1	1	3
인천채	2				2
전주최			2		2
충주최			1		1
화순최	3				3
홍해최	1				1
영순태	1				1
신창표	1				1
진양하		1	1		2
청주한		1			1
김해허	1			1	2
하양허	2				2
진주형	1			1	2
남양홍(당홍)			1		1
부계홍			1		1
장수황	1			1	2
창원황	1		5		6
평해황	1			1	2

중종~광해군대에는 총 142종의 성관에서 379명이 급제하였다. 10명이상 급제한 성관을 살펴보면 안동권씨(25), 진주강씨(17), 의성김씨·영천이씨·현풍곽씨(10) 순이었으며 9~5명은 17종, 4~2명은 56종, 1명은 64종으로 다양한 성관에서 소수의 문과급제자가 배출되었다. 이는 특정 성관을 중심으로 문과급제자가 배출되는 현상이 조선후기와 비교해 심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16세기 영남사림과의 진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도통을 확보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일어났다. 金宗直·金宏弼·鄭汝昌·李彦迪·李滉의 문하생을 중심으로 학파가 생성되고 그들의 주장에 의해 五賢을 문묘에 종사한다.⁶⁹⁾ 또한 임진왜란 때 의병을 주도하고 활동함으로서 향촌에서의 신망을 얻고, 향약·동약 등의 조직을 운영함으로써 향촌 내에서의 영향력을 강화하였다.⁷⁰⁾ 이러한 토대 위에 많은 영남 인물이 중앙정계에 진출하고 정치적 입장에 따라 봉당이 형성된다. 광해군대 북인들은 임진왜란 때 남인의 실책을 비판하며 삼사와 공론을 장악하고 민생의 안정을 주장하며 대동법과 양전을 실시하였다. 하지만 당시 정치적으로 소외받던 서인세력에 의해 인조반정이 일어나면서 북인의 영향력이 감소하고 서인과 남인의 연합정권이 형성된다.⁷¹⁾

인조부터 숙종까지의 문과급제 성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IV-7> 17세기(인조~숙종) 영남 문과급제자 성관

성관	17세기 왕대별				
	인조	효종	현종	숙종	계(명)
신천강	1				1
진주강		2	1	4	7
청주곽	1				1
현풍곽	4	2		1	7
안동권	3	2	7	14	26
예천권				2	2
봉화금	1			2	3
강릉김			1		1
경주김	3				3
광산김			1		1
금산김				1	1
김해김				5	5

성관	17세기 왕대별				
	인조	효종	현종	숙종	계(명)
영해신				1	1
평산신	1			2	3
광주안				1	1
순흥안	1			1	2
성산여	3		1	3	7
의령여	1				1
단양우	1				1
인동유				1	1
전주유	1	3	1	2	7
탐진유	1				1
풍산유				2	2
파평윤	1		2	4	7

69) 김용곤, 「16세기 사림의 문묘종사운동」, 『김철준박사화갑기념사학논총』, 1983; 이희권, 「동방오현 문묘종사 소고」, 『전북사학』 7, 1983; 설석규, 「조선시대 유생의 문묘종사 운동과 그 성격」, 『조선사연구』 3, 1994; 이수환, 「16세기 전반 영남사림과의 동향과 동방오현 문묘종사」, 『한국학논집』 45, 2011.

70) 정진영, 『조선시대 향촌사회사』, 한길사, 1998, 147~199쪽.

71) 정홍준, 「임진왜란 직후 정국의 추이와 북인정권의 성립」, 『사총』 34, 1988.

상락김	3		2	1	6
상산김	1		1	1	3
선산김(선궁)	1	1			2
선산김(추)	1		2		3
수안김				1	1
순천김	1			4	5
연안김	2				2
영동김	1			1	2
예안김	2		2	1	5
의성김	5	2	4	4	15
청도김	1				1
풍산김	2			2	4
합창김	2			1	3
해평김	1				1
수성나	1			1	2
영양남	4	1	1	4	10
의령남			1	1	2
광주노	1			1	2
성주도	1	2		3	6
갑천문				1	1
여흥민	1				1
군위박				2	2
무안박	2			1	3
밀양박	1			2	3
반남박			1	4	5
순천박				1	1
은풍박	1				1
충주박				1	1
합양박	2	2		3	7
성산매	1		1		2
대흥백				1	1
달성서	1				1
대구서	1				1
화원석	1				1
창녕성	2			1	3
경주손	1		1	3	5
밀양손				2	2
안동손	1		1		2
야로송	1		2	1	4
은진송		1			1
고령신				1	1
아주신	4	1		1	6
영산신			1		1

행주은				1	1
경산이		1			1
경주이	2	2	1	3	8
고성이				2	2
광주이	1	1	2	2	6
덕수이		1			1
벽진이	4			5	9
성산이	3		1		4
성주이			1		1
여주이				1	1
영천이	2		1		3
우계이				1	1
재령이		1			1
전외이		2	2	1	5
전주이	1		2	2	5
진성이	6			3	9
함안이		1			1
홍양이	1		1	1	3
풍천입				1	1
인동장	3	1	2	1	7
옥천전	3				3
용궁전				2	2
나주정				1	1
동래정	1			2	3
영일정	2				2
진양정	2		1	2	5
청주정				1	1
하동정	1				1
창녕조	4				4
한양조	1			3	4
함안조			1		1
인천채	2			2	4
경주최		1		1	2
영천최	1				1
화순최				1	1
진양하	1			2	3
청주한	2				2
양천허		1		1	2
남양홍(당홍)		1		2	3
부계홍		1			1
장수황				3	3
창원황	2			1	3
평해황	1				1

인조~숙종대에는 총 110종의 성관에서 346명이 급제하였다. 10명이상 급제한 성관을 살펴보면 안동권씨(26), 의성김씨(15), 영양남씨(10) 순이었는데 16세기와 비교해 현풍곽씨와 진주강씨의 급제인원이 줄었다고 할 수 있다. 9~5명이 급제한 성관은 22종, 4~2명은 42종, 1명은 43종으로 16세기와 비교해 전

체적으로 급제 성관이 감소하고 특정 성관에 급제자가 집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10명 이상 급제자를 배출하는 성관은 감소하였지만 9~5명을 급제자를 배출하는 성관이 증가하였다. 16세기와 비교해보면 문과급제 출신 성관이 줄었다고 할 수 있다. 16~17세기 급제한 성관들이 배출된 지역을 살펴보면 <표IV-8>과 같다.

<표IV-8> 16~17세기 거주지별 급제성관

지명	성관별(급제 수)	계(명)
거창	벽진이씨(2), 진주형씨(2), 동래정씨(1), 문화유씨(1), 신창표씨(1), 연안이씨(1), 진양정씨(1), 진주강씨(1), 선산김씨 선공계(1)	9종 (11)
경주	경주김씨(2), 경주이씨(2), 여주이씨(2), 웅천주씨(1), 전주최씨(1), 경주손씨(1), 안동권씨(1), 풍천임씨(1)	8종 (11)
고령	고령박씨(3), 경주김씨(2), 고창오씨(2), 성산이씨(1), 성주도씨(1), 영해신씨(1), 파평윤씨(1)	7종(11)
고성	안강안씨(1), 함안이씨(1)	2종(2)
군위	군위박씨(2), 영천이씨(1), 당홍 남양홍씨(1)	3종(4)
금산	성산여씨(4), 화순최씨(3), 진주강씨(2), 경주김씨(1), 광평이씨(1), 양천허씨(1), 영일정씨(1), 해주정씨(1)	8종 (14)
김해	김해김씨(2), 순흥안씨(1), 웅진이씨(1), 함중어씨(1)	4종(5)
단성	안동권씨(5), 성주이씨(3), 합천이씨(3) 진주강씨(1)	4종(12)
동래	동래정씨(1), 영산신씨(1), 진주강씨(1)	3종(3)
대구	현풍곽씨(9), 전의이씨(5), 안동손씨(3), 경산전씨(2), 성주도씨(2), 경주최씨(2), 경주김씨(1), 광주이씨(1), 달성서씨(1), 영일정씨(1), 영천이씨(1), 함안조씨(1), 화원석씨(1)	13종 (30)
문경	고령신씨(1)	1종(1)
밀양	밀양손씨(4), 밀양박씨(2), 풍천노씨(2), 벽진이씨(1), 여주이씨(1), 인동유씨(1), 광주안씨(1), 담양이씨(1), 죽산박씨(1), 충주석씨(1), 홍해최씨(1)	11종 (16)
봉화	안동권씨(2), 전주이씨(1), 청주정씨(1), 봉화금씨(1)	4종(5)
사천	사천이씨(1)	1종(1)
산청	함양오씨(1)	1종(1)
삼가	파평윤씨(2), 은진송씨(1), 죽산박씨(1)	3종(4)
상주	진주강씨(7), 상산김씨(7), 홍양이씨(4), 장수황씨(4), 경주손씨(3), 풍양조씨(3), 광주노씨(2), 옥천전씨(2), 의성김씨(2), 전주이씨(2), 진양정씨(2), 영동김씨(2), 창녕성씨(2), 청주한씨(2), 감천문씨(1), 개성고씨(1), 능성구씨(1), 대구서씨(1), 벽진이씨(1), 순천김씨(1), 순흥안씨(1), 신천강씨(1), 안강노씨(1), 안동권씨(1), 언양김씨(1), 영해신씨(1), 진양하씨(1), 창녕조씨(1), 청도김씨(1), 충주박씨(1), 행주은씨(1), 당홍 남양홍씨(1)	32종 (62)
선산	선산김씨 추계(5), 선산김씨 선공계(4), 밀양박씨(3), 안동고씨(2), 연안김씨(2), 해평길씨(2), 김해허씨(1), 덕수이씨(1), 벽진이씨(1), 비안박씨(1), 순천김씨(1), 안강노씨(1), 안동권씨(1), 인동장씨(1), 전주최씨(1), 초계정씨(1)	16종 (28)
순흥	김해김씨(1), 우계이씨(1)	2종(2)
양산	양산김씨(1)	1종(1)
안의	거창유씨(1), 단양우씨(1), 밀양박씨(1), 진양정씨(1), 창녕조씨(1), 초계정씨(1), 평택임씨(1), 함양오씨(1), 선산김씨 선공계(1)	9종(9)
영산	분성배씨(2), 영산신씨(2), 창녕성씨(1), 탐진유씨(1)	4종(6)

성주	의성김씨(8), 안동권씨(5), 야로송씨(5), 성산여씨(5), 성주도씨(5), 벽진이씨(3), 성산배씨(3), 성산이씨(3), 인동장씨(2), 파평윤씨(2), 해평김씨(2), 경산이씨(1), 고성이씨(1), 광주이씨(1), 달성배씨(1), 문의박씨(1), 순천박씨(1), 양산이씨(1), 이천서씨(1), 청주정씨(1)	20종 (52)
안동	안동권씨(15), 의성김씨(13), 전주유씨(7), 풍산김씨(7), 풍산유씨(5), 상락김씨(4), 영양남씨(4), 고성이씨(4), 순흥안씨(4), 진성이씨(3), 동래정씨(3), 영산신씨(2), 부계홍씨(2), 순천김씨(2), 봉화금씨(2), 청주정씨(2), 흥해배씨(2), 순천장씨(1), 안동김씨(1), 예안김씨(1), 예안이씨(1), 원주변씨(1), 의령여씨(1), 전주이씨(1), 합천이씨(1), 강릉김씨(1), 능성구씨(1), 당홍 남양홍씨(1)	28종 (92)
영해	안동권씨(6), 영양남씨(4), 무안박씨(3), 한양조씨(2), 재령이씨(1), 함양박씨(1), 대홍백씨(1)	7종(18)
영덕	수안김씨(1)	1종(1)
榮川	경주이씨(6), 반남박씨(6), 예안김씨(5), 야로송씨(4), 무안박씨(3), 안동권씨(3), 우계이씨(3), 인동장씨(2), 수성나씨(2), 전의이씨(2), 진성이씨(2), 창녕성씨(2), 함창김씨(2), 감천문씨(1), 경주손씨(1), 고창오씨(1), 공주이씨(1), 단양우씨(1), 봉화금씨(1), 상락김씨(1), 성산배씨(1), 여흥민씨(1), 연안김씨(1), 영천이씨(1), 옥천전씨(1), 장수황씨(1), 창원황씨(1), 풍기진씨(1), 풍산김씨(1), 한양조씨(1)	30종 (59)
永川	창녕조씨(3), 하양허씨(2), 광주안씨(2), 영일정씨(2), 밀양박씨(1), 성산이씨(1), 안동전씨(1), 영천이씨(1), 영천최씨(1), 현풍곽씨(1)	10종 (15)
의령	진주강씨(2), 광주안씨(2), 분성배씨(1), 안동권씨(1), 고성이씨(1)	5종(7)
예안	영천이씨(5), 광산김씨(4), 진성이씨(3), 봉화금씨(2), 상락김씨(2), 예안김씨(2), 순천김씨(1), 안동권씨(1), 풍산유씨(1), 횡성조씨(1)	10종 (22)
예천	함양박씨(6), 진성이씨(5), 안동권씨(4), 김해김씨(3), 예천권씨(3), 영일정씨(2), 의성김씨(2), 예안김씨(2), 경주이씨(1), 나주정씨(1), 반남박씨(1), 상산김씨(1), 성주이씨(1), 순천김씨(1), 순흥안씨(1), 연안이씨(1), 영산신씨(1), 영순태씨(1), 영양남씨(1), 은풍박씨(1), 인동장씨(1), 평산신씨(1)	22종 (41)
용궁	용궁전씨(3), 안동권씨(2), 개성고씨(2), 진주강씨(2), 감천문씨(1), 강릉김씨(1), 동래정씨(1), 성주이씨(1), 여주이씨(1), 영양남씨(1), 옥천전씨(1), 울진장씨(1), 전주이씨(1), 풍산유씨(1)	14종 (19)
의성	아주신씨(7), 영천이씨(4), 상락김씨(3), 함양박씨(2), 영양남씨(1), 재령이씨(1), 진성이씨(1), 파평윤씨(1), 당홍 남양홍씨(1)	9종 (21)
인동	벽진이씨(1), 순천김씨(1), 인동장씨(1), 평산신씨(1)	4종(4)
진주	진주강씨(4), 진양정씨(3), 진양하씨(3), 전주유씨(2), 금산김씨(1), 밀양손씨(1), 울산김씨(1), 청주한씨(1), 함안이씨(1), 화순최씨(1)	10종 (18)
창녕	파평윤씨(4), 고성이씨(1), 벽진이씨(1), 영산신씨(1), 창녕장씨(1)	5종(8)
청도	김해김씨(2), 밀양박씨(1), 상락김씨(1)	3종(4)
청송	여흥민씨(1)	1종(1)
창원	창녕조씨(2), 김해김씨(1), 남평문씨(1)	3종(4)
초계	광주노씨(1), 성주이씨(1), 여주이씨(1), 합천이씨(1), 선산김씨 선궁계(1)	5종(5)
칠원	상주주씨(2), 광주이씨(1), 현풍곽씨(1)	3종(4)
칠곡	광주이씨(4), 벽진이씨(2), 인천채씨(1), 진주강씨(1), 평산신씨(1)	5종(9)
현풍	현풍곽씨(6), 선산김씨 선궁계(1)	2종(7)
함안	함안조씨(2), 고창오씨(1), 광주안씨(1), 분성배씨(1)	4종(5)

풍기	창원황씨(8), 평해황씨(3), 풍기진씨(2), 함창김씨(2), 상산김씨(1), 순흥안씨(1), 안동권씨(1), 영양김씨(1), 전주이씨(1), 청주곽씨(1), 함양박씨(1)	11종 (22)
함양	하동정씨(2), 나주임씨(1), 남원양씨(1), 삼척박씨(1), 성주도씨(1), 진양하씨(1), 진주강씨(1), 풍천노씨(1)	8종 (9)
함창	인천채씨(5), 함양박씨(4), 안동권씨(3), 순천김씨(2), 의령남씨(2), 창녕조씨(2), 경주이씨(1), 동래정씨(1), 양천허씨(1), 충주최씨(1), 평산신씨(1), 한양조씨(1)	12종 (24)
합천	창녕조씨(4), 남평문씨(3), 서산정씨(2), 진주강씨(2), 김해허씨(1), 상주주씨(1), 순천박씨(1), 전주유씨(1)	8종 (15)
계		173종 (7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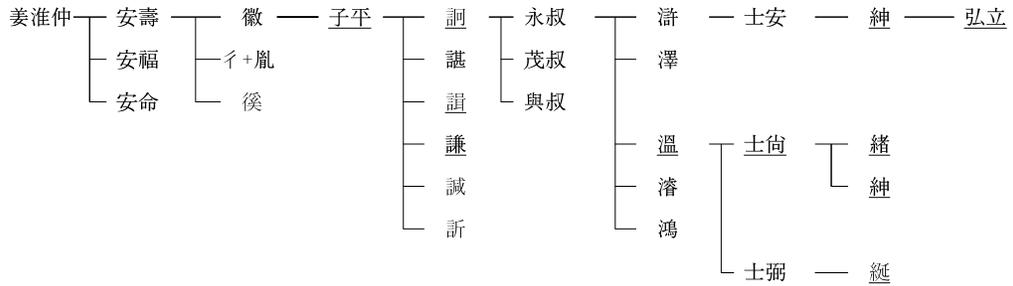
영남의 경우 16~17세기에 48개의 지역에서 725명이 급제하였다. 급제자가 많이 배출된 지역을 살펴보면 안동(92명), 상주(62명), 榮川(59명), 성주(52명), 예천(41명), 대구(30명), 선산(28명), 함창(24명), 예안·풍기(22명), 의성(21명)으로 안동·상주·성주·대구와 같이 군현의 크기가 큰 지역 외에도 예천·예안·풍기·의성과 같이 군현의 크기가 작은 지역에도 많은 급제자가 배출되고 있었다. 특히 안동의 안동권씨, 상주의 진주강씨, 대구·현풍의 현풍곽씨에서 많은 급제자가 배출되었고, 성주와 안동의 안동김씨에서도 많은 인물이 배출되었는데 19세기에도 많은 인원이 급제하였다. 17세기에는 안동과 영해의 영양남씨에서 집중적으로 급제자가 배출되었으며 이후 급제자가 많이 배출되지 못했다. 이들 가문은 金宗直, 李滉의 문인 이었으며 영남사림파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었다. 그 가계를 다음 절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2) 영남지역 급제자 가문

① 안동의 안동권씨

안동의 안동권씨는 영남에서 문과급제자가 많이 배출된 대표적인 가문으로 19세기에 급제인원이 감소하였지만 그 이전까지 가장 많은 급제자를 배출한 성관이다. 16~17세기 안동의 안동권씨 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계도IV-2> 상주 진주강씨 가계도 (통계공파 일부)



상주의 진주강씨는 초기에 진주에 거주하였으며 관료에 임명되는 인물이 많아지면서 경기도 양평과 진주를 오갔다. 姜淮仲의 후손 중 金宗直의 문인이 많았다. 姜訥은 대사간을 역임하였지만 연산군이 폐비 윤씨를 황후로 복위하고 신주를 안치하려고 하자 이를 반대하였다. 이로 인해 결국 姜訥 자신과 그 형제들, 아들인 姜永叔 그리고 그 형제들 모두 참형을 당하고 그 족속도 화를 입었다. 姜永叔의 부인인 익산이씨는 부군의 영구와 자식들을 데리고 친가인 상주로 피난 가 산양에 정착한다. 이후 그 자손들이 상주에 세거한다.

중종~숙종대의 경우 永叔-濬계의 후손에게서 많은 급제자가 나왔다. 姜濬의 아들 姜士尙의 경우 문과에 급제하고 우의정에 오른 인물로 자신의 가족과 동생인 姜士弼의 가족을 거느리고 서울로 이동하게 되었으며, 나머지 후손들은 계속 상주에 거주하였다.⁷⁵⁾

永叔-濬계의 姜弘立의 경우 아버지 姜紳이 姜士尙의 아들이었으나 姜士安의 양자가 된다. 즉 姜濬의 후손이었다. 姜弘立은 광해군의 측근이었으나 인조대에 역신으로 몰려 관직이 삭탈되고 후손들의 요절로 가계를 유지시키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상주의 진주강씨는 명문거족으로 성장하면서 서울과 경기지역에 세거하였으며, 문과·음직을 통해 중앙정계에 진출하여 재상, 공신, 부마 등을 지내며 대표적인 가문으로 성장한다. 하지만 일부세력이 광해군대 축출되고 후에 병자호란을 피해 다시 영남으로 이거한다. 이후 18세기에 정치적 변화가 이루어지며 영남에 이거한 진주강씨는 다시 중앙정계에 진출한다.⁷⁶⁾

75) 남재철, 「국포 강박의 시에 나타난 조선후기 양반 몰락의 한 실상」, 『한문학보』 18, 2008, 594쪽.

76) 법전에 정착한 강씨는 노론 계열로 아우인 강각은 소론계열로 분류되었으며, 영남 유력 가

수학하였고 임진왜란 때 현풍에서 의병을 일으켰다.

郭承華는 金宗直의 문인이었으며 承華의 손자인 郭之藩은 1520년 문과에 급제한다. 이후 之藩의 아들 郭越과 郭越가 문과에 급제하면서 가세가 번성하였다. 郭越의 아들 중 郭再祐는 의병장으로 유명하였으며 郭越의 손자인 郭灑은 郭再祐에게 학문을 배웠고 1627년 문과에 급제하였다. 郭灑은 후에 郭承陽의 후손인 郭壽龜에게 학문을 가르쳤으며 郭壽龜는 1687년 문과에 합격하였다. 郭越은 1546년 문과에 급제하고 문정왕후의 불교 부흥을 비판하고 관직에서 쫓겨났다. 임진왜란 때 초유사 金誠一의 활동을 도왔다.

대구와 현풍의 현풍곽씨는 金宗直의 문하로 영남사림과의 성장과 함께 중앙정계에 많이 진출하였다. 이후 曹植은 물론 李滉과 교류하였으며 家學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며 문과급제자를 배출하였다. 특히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의병을 일으켰고, 관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였다. 하지만 점차 중앙정계에서 남명학파가 약화되고 노론 중심의 국가운영이 이루어지면서 17세기 이후 이전과 같이 많은 급제자를 배출하지 못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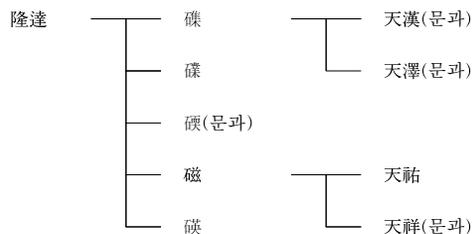
④ 안동·영해의 영양남씨

안동의 영양남씨는 南君甫를 파조로 하며 의령남씨로 불리기도 한다. 17세가 되면 급제자가 집중적으로 배출되었다. 특히 君甫의 5세손인 南輝珠가 안동 와룡리에 이거하면서 후손이 안동에 세거하였다. 輝珠의 손자 南義良은 무과에 급제하였으며 그의 손자 대에 안동에 사족적 기반을 확립한다.⁷⁷⁾ 南義良의 손자 南八凱는 일직면으로 정착하였고 이후 4세손인 장자 南興達은 일직면에 2자 南隆達은 풍산읍에 이거하였다. 이후 隆達의 후손들을 중심으로 문과급제자가 배출되었다.⁷⁸⁾

南礪의 장자인 南天漢은 1646년 문과에 급제하여 宋時烈·宋浚吉의 관작추

77) 서주석, 『안동문화산책』, 이화문화출판사, 2001, 270쪽.

78) 영양남씨 가계도를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탈을 주장하였으며, 2자인 南天澤도 문과에 급제하였다. 隆達의 3자인 南碩은 1624년 문과에 급제하고 병자호란 때 종군하였으며 4자 南磁의 경우 병자호란 때 아버지와 의병을 일으켰으며 그의 아들 南天祥도 문과에 급제하였다.

영해의 영양남씨의 경우 南洪輔의 후손으로 흥보의 8세손 南須는 대흥백씨와 혼인하여 처향인 영해로 이주한다. 南須의 장자 南農의 후손인 南世夏는 인량리에서 영양으로 이거하였고 손자인 南靖邦이 수안김씨와 혼인하면서 처향인 영해 괴시리에 정착한다.⁷⁹⁾ 그의 후손 중 南鵬翼은 權璟의 문하생으로 1673년 문과에 급제하고 괴시동 호지마을에 종택을 건립하였다. 南須의 3자 南莖은 진사를 지냈으며 그의 아들 南稔는 인량리 원구마을에 정착하였다. 南稔의 후손인 南慶薰은 임진왜란 때 의병을 일으키고 지역적 기반을 마련하였다.⁸⁰⁾ 이후 南慶薰의 후손인 南夏明과 老明·九明형제가 문과에 급제하였다. 영양남씨는 이후 18세기까지 문과급제자를 배출하다가 19세기에 문과에 급제하지 못한다.

16~17세기에는 특정 가계보다는 다양한 성관에서 급제자가 고르게 분포하고 있었다. 이는 특정 성관을 중심으로 급제자가 배출되기 보다는 학단을 중심으로 급제자가 배출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16세기에 李滉과 鄭述의 문인이 큰 세력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이들 학단을 중심으로 문과에 급제하였다. 안동의 급제자 중 李滉의 문인이 대다수였으며 이후 선조 초기에 柳成龍 문인이 후기에는 趙穆 문인이 많았다. 광해군대는 柳成龍이 정치적으로 실각하고, 대신 鄭述의 문인이 증가한다. 鄭述은 퇴계학과와 남명학과의 통합을 추구하였으며 이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그의 문하에 출입하였다. 17세기가 되면 영남에 뚜렷한 학단이 형성되지 못하다가 17세기 후반 李玄逸 문인 중 급제자가 급증한다. 이들 중 안동의 안동권씨 權穰 가계와 안동 의성김씨 가계의 인물이 많았다. 하지만 18세기가 되면 정치적 변동에 의해 영남의 급제자 수가 감소한다. 다음으로 영남의 문과급제자가 감소하는 18세기 이후 영남 남인의 대응과 변화를 살펴보겠다.

79) 이세나, 「괴시마을 당신화의 성립과 변화에 관한 연구」, 안동대 석사학위논문, 1999, 20쪽.

80) 이창기, 「영해 원구리 영양남씨의 문중조직과 종족활동」, 『민족문화논총』 49, 2011, 507~508쪽.

3. 18~19세기 영남 남인 가문의 문과급제

1) 18~19세기 정치적 변동과 영남의 대응

(1) 무신란과 영남 남인의 소외

17세기 후반 숙종대 영남의 대표적인 인물은 李玄逸이다. 그는 영남지역의 퇴계학맥을 통합시켰을 뿐만 아니라 기사환국을 통해 남인이 재집권하자 중앙 정계에 진출하여 정국 운영에 참여하였다. 이 시기 문과급제자를 살펴봐도 李玄逸의 문인이 압도적으로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李玄逸은 1689년(숙종 15) 폐출된 민씨를 보호하기 위해 別館에 거처시키자고 건의 하였으며,⁸¹⁾ 1694년(숙종 20) 崔淑媛이 영조를 낳자 적서간의 分義를 강조하며 숙종에게 의견을 묻기도 하였다.⁸²⁾ 민씨의 폐출과 영조의 등극은 노론이 적극적으로 개입한 사건이었으며, 李玄逸을 비롯한 남인은 민씨의 폐출에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결국 갑술환국 이후 영남 남인들은 ‘名義罪人’으로 처벌받았고 李玄逸은 강상죄로 귀양을 간다.⁸³⁾ 이 사건을 계기로 영남 남인 세력은 위축되기는 하였으나 정치적으로 완전히 배제 되지는 않았다. 이는 당시 소론이 노론을 견제하기 위해 영남 남인과 연합하였기 때문이다.

18세기 영남지역 문과급제자를 살펴보면 <표IV-9>와 같다.

<표IV-9> 15~18세기 영남지역 문과급제자 수의 변화

분류 \ 시기	15세기								16세기	
	태종	세종	문종	단종	세조	예종	성종	연산	중종	명종
전체	266	467	73	106	309	33	446	251	899	472
영남(%)	23 (8.6)	50 (10.7)	13 (13.2)	14 (13.2)	41 (13.3)	6 (18.1)	71 (15.9)	40 (15.9)	130 (14.5)	64 (13.6)

분류 \ 시기	16세기		17세기				18세기			계(명)
	선조	광해군	인조	효종	현종	숙종	경종	영조	정조	
전체	1,112	494	762	245	400	1,430	183	2,123	777	10,848
영남(%)	129 (11.6)	57 (11.5)	119 (15.6)	33 (13.5)	49 (12.3)	145 (10.1)	17 (9.3)	166 (7.8)	97 (12.5)	1,264 (11.6)

81) 『숙종실록』 21권, 숙종 15년 9월 24일 정사.

82) 『숙종실록』 26권, 숙종 20년 5월 23일 경신.

83) 정만조, 「조선후기 정국동향과 갈암 이현일의 정치적 위상」, 『퇴계학』 20, 2011, 20~21쪽.

<표IV-9>에 의하면 중종대 급제자의 비율이 높아졌으며 이후 감소하고 인조대에 다시 증가한다. 광해군대는 대북정권이 정국을 장악하고 있었지만 인조반정으로 서인과 남인 세력이 연합하여 영남 남인이 다시 정계에 진출하였다. 이후 서인과 남인간의 정치적 대립이 이루어지고 숙종대를 기준으로 남인의 세력이 약화되었다. 특히 18세기 영조대가 되면 전체 급제자 중 가장 비율이 낮았다. 이는 전체 급제자 수의 증가로 인한 수치의 변화라고 할 수 있지만 그 감소가 압도적이었다.

영조대 영남에 피해를 많이 준 사건은 무신란이다. 무신란은 경종이 죽고 정치적 위협을 받게 된 소론계 인물인 李有翼이 노론을 제거하려는 계획에서 시작되었다.

李有翼이 처음 이 흉언을 하였는데, 이유익은 朴弼顯에게 들었습니다. … 言根은 또 李日佐에게서 나왔는데, 이일좌는 李弘澤의 아들이며 李麟佐의 일가로 果川에 살면서 賊黨에 들어갔다고 합니다라고 하였으니, 대개 李有翼·朴弼顯이 沈維賢을 꾀어 흉언을 만들어 내게 하고, 또 李翼觀 형제, 閔觀孝·한세홍·이일좌 등과 함께 원근에 전파한 것이다. 이익관이 또 李天海에게 변을 일으키도록 사주한 형상이 이때에 이르러 모조리 드러났고, 이유익의 무리가 반드시 심유현을 꾀어 흉언을 만들어 낸 것은 심유현이 王室의 戚聯이기 때문에 그 말을 憑藉하여 사람들의 청문을 현혹시키려 한 것이다.⁸⁴⁾

위의 글은 무신란에 참여한 李翼觀의 공초를 정리한 것이다. 뒤에 사관이 그 의미를 정리하였는데 초기에 李有翼·朴弼顯을 중심으로 계획이 진행되고 이후 세력이 확대된 것으로 파악하였다. 영남지역의 경우 鄭希亮과 李熊佐가 무신란의 핵심적인 인물이었다. 鄭希亮은 鄭蘊의 후손으로 자기 가문의 경제력을 바탕으로 안음에서 120명의 군사를 동원할 계획이었다. 이후 元帥가 되어 반란을 일으키고 안음·거창·합천·삼가 등의 여러 고을을 제압하였으나 관군에 패배하고 참수된다.⁸⁵⁾

李麟佐의 동생인 李熊佐는 안동의 사족을 포섭하려고 하였다. 이때 李熊佐가 접촉한 인물들은 權渠, 權德秀, 金敏行, 柳夢瑞 등이었다. 하지만 무신란을 진압하고 관련자를 심문하면서 진술이 엇갈렸다. 曹世樞는 1728년 3월 11일 李熊佐가 안동에 도착해 權渠 등에게 행동을 촉구했지만 이들은 이전의 약속과 달리 애매한 태도를 취했다고 하였으며, 鄭宜璉은 3월 10일 李熊佐가 안동

84) 『영조실록』 3권, 영조 1년 1월 17일 병진.

85) 『영조실록』 16권, 영조 4년 3월 26일 병자; 『영조실록』 16권, 영조 4년 3월 27일 정축.

에 사람들을 동원하려고 하였는데 안동 사람들이 ‘어찌 이러한 일을 하는가.’라고 꾸짖고 반대하자 성내를 떠났다고 주장하였다.⁸⁶⁾ 이상의 주장들을 통해 안동 사족들의 구체적인 행동을 확인할 수 없지만 무신란에 직접적으로 안동인들이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노론은 무신란을 통해 영남 남인을 정치적으로 배제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생각하였다. 또한 영조도 반란에 대해서는 가혹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경상도 관찰사 朴文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안음현을 분속하였으며,⁸⁷⁾ 노론계 인물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무신란에 영남인이 참여했다는 주장이 거론되었다.

嶺南은 名賢이 쏟아져 나왔고 遺風이 泯滅되지 아니하였는데, 鄭希亮·李熊輔와 같은 여러 역적들이 불행하게도 그 땅에서 나왔으니, 놀라 통탄하고 분하여 미워함이 반드시 다른 사람들보다 갑절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賊招에 나온 사람들은 일체 신문하지 않으시니, 마땅히 한번 탐구 분석하시어 討罪할 만한 자는 토죄하고 용서할 만한 자는 용서해야 할 것인데, 어찌 姑息으로 가리고 덮으려는 뜻으로 마치 반측자(反側者)를 안심시키려는 것처럼 하여 영남 사람을 부끄럽게 할 수 있겠습니까.

공조 판서 朴師洙가 아리기를, 영남 백성들이 지난날 역적의 무리가 되었던 것은 서울 사람들이 罔測한 말을 조작했었기 때문입니다. 무신년에 鄭希亮의 무리를 엄중하게 다스리지 않았기 때문에 權德秀의 무리가 그 고을에서 掌議가 되었습니다.⁸⁸⁾

吳璦은 노론의 대표적인 인물이며, 朴師洙는 영조의 탕평책에 참여하여 영남에 대해 긍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이들은 공통적으로 무신란 때 영조가 적극적으로 안동의 인물들을 처벌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남 남인들이 亂民이 되었다고 하였다.

일부 소론은 영남 남인이 무신란 세력과 무관하다는 것을 주장하며 남인과 정치적으로 연합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朴文秀, 閔應洙를 비롯한 소론 인물은 李光庭, 李守淵, 金世烈, 河德望, 姜聖和, 曹世鵬 등의 인물을 등용할 것을 청하였다.⁸⁹⁾ 하지만 노론 중심의 정국이 주도되는 과정 속에서 남인에 대한 차별을 해소시키기에는 부족하였다.

86) 이육, 「조선 영조대 무신란과 안동 지방의 ‘의병」, 『한국사학보』 42, 2011, 145쪽.

87) 『영조실록』 18권, 영조 4년 7월 7일 병진.

88) 『영조실록』 21권, 영조 5년 3월 19일 계해; 『영조실록』 47권, 영조 14년 9월 1일 경술.

89) 『영조실록』 43권, 영조 13년 3월 3일 신묘.

삼가 듣건대, 筵臣들이 嶺南의 일을 진달했다 하는데, 이는 대개 인재를 선발하여 등용하려는 뜻이었습니다. … 우리 영남이 어찌하여 대처하기가 어려우며 또한 어떤 모양의 事變이 알기 어려운 것이 있기에 진정시키려고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는 아마도 凶逆의 무리인 鄭希亮·曹聖佐가 출생하였기 때문에 영남 사람을 다 의심하는 것이 아닌지요 … 영남 사람들이 비록 다른 장점은 없으나 그래도 염치와 의리의 귀중한 것을 대략은 알고 있으므로 白衣로 鳥嶺을 넘어가는 것을 예로부터 부끄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부질없이 의도적인 미끼를 던져서 도리어 無心한 물고기를 유혹하려고 하는 것입니까.⁹⁰⁾

위의 글은 정랑 金五應을 비롯한 영남 출신 관리들이 인재 등용의 차별성을 없애달라는 뜻으로 국왕에게 상소한 것이다. 남인 중 반란에 참여한 인물은 극소수이고 의병을 일으켰다고 하고 있지만 사실상 무신란 이후 남인의 정계진출이 어려워 졌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 한편 노론 중심으로 정국이 주도되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 탕평책이 적극적으로 시행되었다. 영조는 朴世采의 탕평론을 수용하여 군주를 중심으로 각 당파의 예설·사문·시비를 배척하고 국가를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이에 따라 노·소론의 조정에 힘썼지만 노론의 辛壬義理를 무시할 수 없다는 한계성을 가지고 있었다.⁹¹⁾

정조의 경우 이러한 한계를 의식하고 사도세자의 추송을 주장하는 세력도 거부하며 탕평을 유지하고자 하였다.⁹²⁾ 특히 ‘군주도통설’을 주장하며 군주 중심의 탕평정치를 적극적으로 진행시켰다.⁹³⁾ 이러한 변화로 인해 인재 등용이나 개혁적 정치도 적극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으며, 영남 남인 또한 蔡濟恭과 같은 국왕의 측근세력과의 교류에 힘을 쓴다.⁹⁴⁾ 또한 『무신창의록』 작성과 李玄逸 신원 운동을 통해 이전 시기에 훼손된 자신들의 명예를 회복하고자 노력하였다.⁹⁵⁾ 정조도 영남 남인 등용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

90) 『영조실록』 33권, 영조 9년 2월 25일 정축.

91) 박광용, 「영조대 탕평정국과 왕정체제의 정비」, 『한국사』 32, 1997; 정호훈, 「18세기 전반 탕평정치의 추진과 『속대전』 편찬」, 『한국사연구』 127, 2004.

92) 정조가 즉위하자 안동 유생 이응원은 사도세자 죽음으로 몰아넣은 관련자를 처벌하라는 청원을 올렸는데 이응원을 대역죄인으로 처벌하고 안동을 부에서 현으로 강등시켰다. 이러한 현상은 아직 노론의 세력이 강성했던 현실과 당쟁을 금지시키고자 하는 정조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이욱, 「사도세자 관련 만민소의 정치적 의미」, 『남도문화연구』 35, 2018, 176쪽).

93) 김성운, 『조선 후기 탕평정치 연구』, 일조각, 1997; 최성환, 「정조대 탕평정국의 군신의리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09.

94) 영조 말기는 노론을 중심으로 주도되던 정국에 분열이 이루어지면서 체제공을 중심으로 하는 청남계열, 박문수 등이 주도하는 소론 준론계로 분열이 이루어졌다. 영남의 남인들은 체제공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였으며 그의 사후 문집 출간에 힘을 기울인다 (백승호, 「변암 체제공의 문자정치」, 『진단학보』 101, 2006; 정재용, 「18세기말~19세기초 의리문제를 둘러싼 남인과 노론의 대립」, 안동대 석사학위논문, 2016).

다. 그 대표적인 예가 도산별과의 시행이다. 1792년 3월 도산서원에서 별과를 시행하였는데 응시자만 7,228명이고 거둔 시권만 3,632장으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⁹⁶⁾ 정조가 직접 시권을 살펴보고 상주에 거주하는 姜世白과 안동의 金熙洛을 합격시켰다. 이 두 명은 이후 1794년 정시에 급제한다.

영조대 무신란으로 영남 남인은 정치적으로 소외되었지만 정조대 탕평책의 적극적인 시행하여 다시 중앙 정계에서 부각된다. 이를 바탕으로 19세기가 되면 영남에서 다시 급제자의 수가 증가한다.

(2) 세도정치와 영남 남인의 반응

세도정권은 안동김씨, 풍양조씨를 비롯한 몇몇 가문의 연합하고 있었다. 이들은 정치적으로 노·소론 완론 계열이었으며, 왕실 또는 서울에 거주하는 특정 가문을 중심으로 중첩적으로 혼반을 맺었다.⁹⁷⁾

1800년 정조가 급사하고 정순왕후가 수렴청정을 시작하게 되자 남인들은 정계에서 배제되었다.⁹⁸⁾ 대신 정권을 다시 잡은 노론은 정조의 ‘壬午義理’를 부정하며 사도세자의 잘못을 주장하였다. 하지만 정순왕후가 죽고 순조가 친정을 하자 노론 벽파가 제거되며 세도정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원래 정조는 순조에게 양위하고 자신은 상왕으로서 수원 화성에서 개혁 정치를 시행하고자 하였다.⁹⁹⁾ 하지만 정조가 급사를 하자 金祖淳은 선왕의 개혁 정치를 이어받았다.

지난 경신년 에 嚮考께서 소자의 손을 잡고 말씀하시기를, ‘지금 내가 이 신하에게 너를 부탁하노니, 이 신하는 반드시 非道로 너를 보좌하지 않을 것이다. 너는 그렇게 알라.’라고 하셨는데, 어제의 일과 같아 아직도 귀에 쟁쟁하다. 寶位에 오른 지 30여 년 동안 보필의 중요한 자리를 맡겼던 것은 왕실의 가까운 戚親이었던 까닭만은 아니었다. … 참으로 先王께서 부탁하여 맡기신 聖意를 저버리지 않은 所致인데, 이제는 끝났다.¹⁰⁰⁾

95) 고수연, 『『무신창의록』을 통해 본 18,19세기 영남 남인의 정치동향』, 『역사와 담론』 65, 2013; 이재현, 「18세기 이현일 문인의 신원 운동과 추송사업」, 『대구사학』 117, 2014.

96) 이수환, 「조선후기 영남 만인소」, 『만인의 청원, 만인소』, 한국국학진흥원, 2017, 50쪽.

97) 이 가문들은 전주이, 연안이, 한산이, 경주이, 반남박, 남양홍, 풍산홍, 대구서, 청송심, 파평윤, 해평윤, 동래정, 평산신 등으로 주로 서울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가문들이었다 (권기석, 「19세기 세도정치 세력의 형성 배경(上)」, 『진단학보』 90, 2000, 125쪽).

98) 정석중, 「순조 연간의 정국변화와 다산 해배 운동」, 『조선후기의 정치와 사상』, 한길사, 1993, 469~533쪽.

99) 유봉학, 『개혁과 갈등의 시대』, 신구문화사, 2009, 173~185쪽.

100) 『순조실록』 32권, 순조 32년 4월 3일 기묘.

위 글은 金祖淳이 죽자 순조가 그를 애도하며 내린 하교의 내용이다. 정조는 순조를 보좌할 인물로 金祖淳을 점지하고 그를 순조의 측근 세력으로 키우고자 하였다. 金祖淳은 순조가 즉위한 이후에도 측근 세력으로서 국가를 운영하였고 정치 개혁을 추구하기 보다는 안정적인 국가 운영에 주력하였다. 균역법, 호포법과 같은 정책은 거부하였으며, 정조의 묘인 건릉의 이장과 같은 왕실 전례에만 적극적으로 진행하였다. 다만 인재등용에 대해서는 다른 입장을 취하였다.¹⁰¹⁾

永安府院君 忠文公 金祖淳은 ‘庶子の 부류를 벼슬길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은 오랜 세월을 거쳐 오면서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나라에서도 일찍이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처음 庶子の 부류를 벼슬길에 나가지 못하도록 청하게 한 연유를 말씀드리면, 보잘 것 없고 무식한 사람이 감정을 품고 보복을 하려는 계책에 지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 소통을 논의한 일을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의 위대한 현인들이 모두 여러 세대에 걸친 이름난 신하에 훌륭한 재상이 아님이 없으니, 막고 소통하는 사이의 옳고 그름과 옳고 옳음을 분별하지 않더라도 저절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사람의 귀하고 천함과 궁색하고 영달함은 모두 태어난 이후의 일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는 그 몸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천하며, 그 운명은 부여받기 전에 이미 궁색합니다. 어찌 하늘과 땅 사이에 태어나는 사물의 이치가 진실로 이와 같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자식과 동생이 되고서는 감히 아버지와 형이라 부르지 못하고, 혈통을 이어갈 살붙이가 되고서도 차례를 이어받지 못한 데에 이르러서는 도리어 천하 고금에 일반적인 일도 아니고 正道에도 위배되는 일 이옵니다.’라고 말씀하시니, 더욱 간곡하고 절실한 것이었습니다.¹⁰²⁾

위 글은 경주 여주이씨의 적서향전과 관련된 사실들을 모아놓은 『옥원사실』에 적힌 내용이다. 金祖淳은 정조의 탕평책의 영향을 받아 서얼허통과 內寺奴婢 혁파 등과 같이 인재등용에 대해서는 상당히 개혁적인 입장을 견지하였다. 金祖淳의 인재 등용에 의해 정조 이후에도 영남지역 문과급제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한다.

101) 김용홍, 「19세기 전반 세도정치의 형성과 정치운영」, 『한국사연구』 132, 2006, 207쪽.

102) 『옥원사실』, 「부잡설」 (옥원사실은 영남권역 한국학자료센터에서 번역본이 제공되고 있다.)

<표IV-10> 조선 후기 영남지역 왕대별 평균급제 인원

분류\왕대	인조	효종	현종	숙종	경종	영조	정조	순조	헌종	철종	고종
영남지역 평균	4.6	3.3	3.3	3.2	4.3	3.2	4.0	4.5	4.9	5.7	6.1
전체평균	29.3	24.5	26.7	31.1	45.8	40.8	32.3	30.9	30.3	33.6	56.9

※ 위 표의 수치는 각 왕의 즉위기간 중 1년마다 선발된 인원의 수치이다.

<표IV-10>을 보면 순조대 영남지역 문과급제자를 살펴보면 165명으로 고종(189명), 영조(165명) 다음으로 많은 인원들이 급제하였다. 평균 급제인원은 4.5명으로 18세기에 비해 많은 인원들이 급제하였다.

순조는 즉위 8년에 각 관서의 실무자를 불러들이고 지방에 암행어사를 파견하여 『만기요람』을 작성하는 등 時事를 파악하였다. 또한 오위도총부를 강화하여 안동김씨에 의해 장악된 군권을 회복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인사권을 장악한 金祖淳에 의해 순조는 국왕의 친위세력을 형성하지 못한다.¹⁰³⁾

1834년 순조가 승하하자 8살인 현종이 왕위에 즉위한다. 원래 효명세자가 대리청정을 통해 국가를 운영하고 있었지만 일찍 요절함에 따라 어린 세손이 국왕에 임명된다. 왕의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金祖淳의 딸이고 효명세자의 어머니인 순원왕후가 대리청정을 한다. 순원왕후는 정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보다는 효명세자를 익종으로 추송하고 종묘를 중수하는 등 왕실의 권위를 강화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현종의 처가인 풍양조씨와 안동김씨 간의 갈등을 중재하였다.¹⁰⁴⁾ 하지만 현종 6년 순원왕후의 撤簾이 이루어지면 서 풍양조씨와 안동김씨 간의 갈등이 시작된다.

풍양조씨의 세도정치는 趙萬永, 趙寅永형제 때부터 강화되었다. 풍양조씨는 정치적으로 노론의 입장에 있었지만 산림을 배출하지 못하는 등 사림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러한 가문의 배경은 趙寅永이 신분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여러 사람을 교유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趙寅永의 교유관계를 살펴보면 청대 고증학에 정통한 金正禧는 물론 成大中, 趙秀三, 姜潛과 같은 庶族, 전주이씨인 李止淵 등이 있었다.¹⁰⁵⁾ 위와 같은 인물들의 교유를 통해 趙寅永은 주자학의 의리지학 근본 아래 청대의 고증학을 결합한 한송절충

103) 오수창, 「세도정치의 전개」, 『한국사』 32, 1997, 243~267쪽.

104) 임혜련, 「조선후기 현종대 순원왕후의 수렴청정」, 『한국인물사연구』 3, 2005, 217쪽.

105) 김근태, 「석운 조인영의 교유양상과 목계산장」, 『한문고전연구』 35, 2017.

론을¹⁰⁶⁾ 수용하였다.¹⁰⁷⁾ 또한 노론 벽파와도 교류하였는데 이들은 안동김문의 외척 정치를 반대한 인물들이 주를 이루었다. 특히 위정척사론에 입각하여 공론을 확보하여 천주교 문제에 유연한 안동김씨를 공격하였다.¹⁰⁸⁾

趙寅永은 공론정치를 강조하며 노론의 주요 인물들을 추송하였다. 宋時烈的 6대손이며 金正默의 문인인 宋穉圭와 주리론을 강조한 吳羲默의 시호를 내렸으며 당시 대표적인 노론 산림들을 등용하였다. 또한 異端을 거부하고 주자학의 근본을 강조하여 도산서원을 비롯한 여러 서원에 특전을 내릴 것을 주장하였다.

신이 지난번 斥邪論을 撰進하였을 때 正學을 밝힘으로써 異端을 물리치는 근본으로 삼은 것은 마치 중국이 융성하면 오랑캐가 감히 업신여기지 못하고, 元氣가 충실하면 疾病이 침범할 수 없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 各道の 書院 가운데 關西의 仁賢, 海西의 紹賢, 松京의 崧陽, 畿輔의 道峰, 湖南의 竹林, 嶺南의 玉山·陶山, 湖西의 華陽·黔潭의 여러 곳은 모두 道統과 관계되는 분을 제향하는 곳인데, 우리 聖上께서 登極하신 후에 사모하시는 뜻을 전달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이제 만약 일례로 致祭하는 恩典이 있게 되면, 儒學을 존송하는 정치를 더하고 道德을 숭상하는 뜻을 보이는 데 충분할 것입니다.¹⁰⁹⁾

이러한 趙寅永의 주장은 이전에 왕성했던 주자학의 근본으로 돌아가 서양 세력을 배격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 근본을 강화하기 위해 조선의 대표적인 유학자를 모신 서원에 致祭를 주장하였다. 그 대상 중 영남의 경우 李滉을 모시는 도산서원과 李彦迪을 모시는 옥산서원이 포함되었다.

1839년 12월 13일 경주부윤 兪章煥의 주도 아래 옥산서원에서 치제가 진행되었다. 제문은 왕명에 의해 예문관에서 작성하였으며, 치제 당시 유생 425명이 참석하는 등 대규모 행사가 진행되었다.¹¹⁰⁾ 또한 같은 시기에 안동의 도산서원에서도 관 주도로 치제가 이루어졌다.

106) 한송절충론은 청대 유행한 고증학(漢學)과 송대 유행한 성리학(宋學)의 장점을 수용하고 절충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말한다. 김정희의 한송절충론의 경우 송학의 관념적이고 비현실적인 세계관을 비판하고 이전의 예를 복구하고 유학의 정통성을 확립하고자 노력하였다 (정혜린, 「김정희의 청대 한송절충론 수용 연구」, 『한국문화』 31, 2003).

107) 김문식, 『조선후기 경학사상연구』, 일조각, 1996, 79~80쪽.

108) 김명숙, 「윤석 조인영의 정치운영론」, 『조선시대사학보』 11, 1999, 180~181쪽; 노대환, 「18세기 후반 ~19세기 중반 노론 척사론의 전개」, 『조선시대사학보』 46, 2008.

109) 『헌종실록』 6권, 헌종 5년 11월 10일 임인.

110) 이병훈·이수환, 「1839년 옥산서원 치제 제문」 해제, 영남권역한국학자료센터(치제문 외에도 『사제시도기』와 『심원록』을 통해 인원이 확인된다).

비록 노론 계열 세도정치 세력에 의해 진행된 행사였지만 많은 인원이 참여하였다. 이는 천주교에 대한 배척과 주자학을 바로 세우겠다는 정치적 명분이 영남 남인과 일치하였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당시 척사에 대한 영남의 분위기를 읽을 수 있는 것이 바로 柳健休가 지은 『이학집변』이다. 柳健休는 李象靖-柳長源의 학문을 이은 인물이었다. 그가 지은 『이학집변』은 노자와 제자백가설, 역사학·문장학, 도교·불교·서학과 같이 당시 유행하던 다양한 학설을 비판하고 정확한 퇴계학을 강조한 서적이다.¹¹¹⁾ 즉 중앙정치에서 척사가 중요해지자 영남도 이에 맞추어 적극적으로 대응한 것이다. 趙寅永 중심의 반안동김씨 세력은 헌종이 후사 없이 승하하고 철종이 즉위하면서 정치적으로 퇴조한다. 하지만 일부세력은 중인과 결합하여 세력을 확대하고 대원군의 개혁정치에 참여한다.

헌종 사후 다시 수렴청정을 맡은 순원왕후는 안동김씨와 풍양조씨 세력을 중재하기 보다는 權敦仁, 金正禧를 비롯한 풍양조씨 세력을 제거하고 안동김씨 인물로 정국을 재편하였다.¹¹²⁾ 이후 철종 2년에 순원왕후는 철렴하고 정국은 안동김씨에 의해 주도된다. 철종은 국왕의 친위 세력을 확보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먼저 그는 초기에 축출된 풍양조씨 인물뿐만 아니라 權敦仁과 같이 귀양 간 사람들의 사면을 진행하였다. 또한 『선원보략』의 수보를 통해 경평군, 익평군, 영평군 등 종친세력을 유사당상으로 임명하고 국정을 보좌하게 한다. 하지만 안동김씨의 세력이 강성한 상황에서 이러한 노력은 수포로 돌아간다.

철종의 왕권강화와 관련하여 영남 남인이 참여한 예로 철종의 존호 추상이 있다. 철종의 선대는 회평군 李元慶의 모반 사건에 연관되어 대부분이 희생을 당하였으며, 철종 자신조차 확실치 않지만 서자 출신일 가능성이 있다.¹¹³⁾ 이후 왕이 된 철종은 자신의 선대를 재정립시키고 순조와 순원왕후의 가계를 확실히 할 필요가 있었다. 철종 초반에 순조와 순원왕후, 익종과 익종비, 헌종과 헌종비의 존호 추상이 이루어졌으며 이후 정조와 사도세자의 존호추상을 진행시켰다. 사도세자의 존호추상은 이 문제를 공론화하여 노론세력을 견제하고자 하는 철종의 의도로 진행된 사건이다.¹¹⁴⁾

111) 이상호, 「류건휴의 『계호학적』과 『이학집변』에 나타난 후기 영남학파의 ‘도통’과 ‘벽이단’의 식」, 『동양철학』 32, 2009.

112) 『철종실록』 3권, 철종 2년 7월 15일 기해.

113) 김우철, 「헌종 10년(1844) 회평군 이원경 모반사건과 그 의미」, 『역사와 담론』 55, 2010.

114) 홍인희, 「철종대 정국과 철종의 왕권 확보 노력」,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2010.

영남 남인은 정조대부터 사도세자의 추존 만인소를 진행하였다. 영남 남인은 사도세자 탄신 2주갑을 맞아 철종이 사도세자의 존호를 추가한다는 소식을 듣고 만인소를 계획한다. 1851년 병산서원에서 사도세자의 신원을 위해 2월 22일 안동향교에서 도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의 통문을 옥산서원에 보냈다. 철종과 영남 남인 세력 간에 어떠한 연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확실치 않다. 다만 李源祚, 柳致明을 비롯한 영남 남인이 중앙 정계에 진출하여 활약하고 있던 시기라는 점에서 중앙 정계의 소식이 영남지역에도 전파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안동을 제외한 영남의 다른 지역은 미온적인 입장을 취하였다. 1855년 3월 29일 柳致明은 정조의 휘호를 추가로 올리려면 사도세자를 추존해야 한다는 상소를 올린다. 이 상소로 인해 柳致明은 탄핵을 받아 유배를 간다.

이에 자극을 받은 영남 남인은 4월 15일 문경향교에서 도회를 개최하고 유생 20여명과 상경하여 소청을 마련하였다. 하지만 참여가 저조하여 시기를 미루고 5월 11일 복합하여 상소 봉입을 청했지만 실패하고 15일 다시 시도를 하여 철종의 명으로 봉입된다. 이때 상소에 참여한 인원은 10,094명이었다. 疏頭 李彙炳을 위시한 소유들은 상소문에서 “나라의 큰 의리가 영남에 있다.”라는 정조의 말을 환기시키며 莊獻世子の 존호를 올리는 의식을 하루 빨리 거행하여 국가의 의리를 바로 세우자고 주장하였다.¹¹⁵⁾ 하지만 철종은 이 상소에 대해 민감한 문제이니 더 이상 거론하지 말라는 뜻으로 승정원에 상소를 돌려보내 효유하게 하였다.¹¹⁶⁾ 權載大 또한 사도세자의 추송을 항상 생각했다는 점을 들어 속히 결단을 내려줄 것을 주장하였다.¹¹⁷⁾ 이에 노론은 남인들을 견제하기 위해 尹宜擧와 尹拯, 曹錫雨, 李玄逸을 추탈하라는 내용의 상소를 올렸다. 하지만 철종은 이 논의도 확대시키지 않고 李玄逸 등의 추탈을 주장한 疏頭를 停擧시켰다.¹¹⁸⁾

영남 남인은 철종이 왕위의 정당성을 얻기 위해 사도세자의 추송에 힘쓰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초기에는 안동 지역의 유생을 중심으로 사도세자 추송 주장이 개진되었지만 이후에는 경주를 비롯한 다른 지역의 인물들도 참가하였다.¹¹⁹⁾ 비록 노론의 반발로 일이 성공하지 못했지만 영남 남인이 정치적으로 다시 결집하는 계기가 되었다.

115) 이욱, 「사도세자 관련 만인소의 정치적 의미」, 『남도문화연구』 35, 2018, 187쪽.

116) 『철종실록』 7권, 철종 6년 5월 15일 병자.

117) 『철종실록』 7권, 철종 6년 7월 22일 계미.

118) 이욱, 「사도세자 관련 만인소의 정치적 의미」, 『남도문화연구』 35, 2018, 190쪽.

119) 이병훈·이수환, 「1855년 옥산서원 회문」 해제, 영남권역한국학자료센터.

이상의 내용을 보면 현종대 영남지역 문과급제자를 살펴보면 73명이고 평균 급제인원 4.9명이었으며, 철종대 영남지역 문과급제자는 80명이고 평균 급제인원 5.7명이었다. 왕대별 평균 급제인원을 살펴보았을 때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였다. 이렇게 급제자가 증가한 것은 당시 노론 중심의 정권 운영이 약화되고 세도정치가 실시된 시대적 상황이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세도정치기는 안동김씨를 중심으로 정국이 운영되는 시기였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세도정치 가문 내에서도 정권을 둘러싸고 치열한 갈등이 발생하였다. 또한 약화된 왕권을 강화하고 국왕 중심의 정권을 운영하려는 국왕의 욕심도 개입되었다. 이에 따라 세도정치 주도 가문 또는 국왕의 성격에 따라 정계의 재편이 이루어졌다. 안동김씨의 경우 정조 탕평책의 영향을 받아 정치적으로는 시파적 성향을 띠었으며 풍양조씨에 비해 다양한 당색을 등용하였다. 현종이 친정하는 시기에 안동김씨에 대항하는 풍양조씨 세력이 형성되자 이에 대항하기 위해 남인이 등용되었다. 풍양조씨의 경우에도 안동김씨에 대항하기 위해 척사론을 주장하였는데 주자학 중심으로 사악함을 배제한다는 입장에서 영남 남인과 동질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이는 후에 대원군시기에 영남 남인과의 관계에서도 드러난다. 철종의 경우에도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선왕의 추승사업을 진행시켰으며 이 때 사도세자의 문제가 다시 불거졌다. 영남 남인은 정조대 ‘壬午義理’를 강조하며 만인소를 통해 사도세자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세도정치기 영남 남인들은 정치적 변화에 맞춰서 적극적으로 중앙 정계에 진출하였다. 이 시기 영남 남인은 세도정치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세력을 확대하기 힘들다는 한계성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사도세자 만인소에 보듯 강한 결집력으로 정치 세력화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었다.

(3) 흥선대원군과 영남 남인의 연합

대원군의 등장은 철종의 왕권강화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철종은 측근 세력을 확보하기 위해 종친부의 역할을 강조하며 여러 종친들을 유사당상에 대거 등용하였다. 하지만 안동김씨의 반대에 의해 대부분이 축출된다.¹²⁰⁾ 종친 중 홀로 남게 된 흥선군은 안동김씨에 대항하기 위해 풍양조씨와 연합하였다.

철종이 후사 없이 죽게 되자 신정왕후는 고종을 왕으로 임명하고 대원군이

120) 홍인희, 「철종대 정국과 철종의 왕권 확보 노력」,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2010, 37~38쪽.

실권을 장악한다. 이때 홍선군은 안동김씨와 일정한 교류가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외척세력의 반발이 덜하였다.¹²¹⁾ 이후 고종 3년 신정왕후가 철령을 하면서 사실상 대원군이 집권하게 된다.

대원군은 세도정치의 중심지인 비변사를 폐지하는 대신 의정부체제를 부활시키고 여러 가지 개혁을 시도하였다. 이 과정에서 남인과 소론 등 이전에 노론에 대항한 세력을 등용하였다. 철종 시기 한직에 머물던 柳厚祚가 중용되었으며 이때 李源祚 또한 당상관으로 존재하고 있었다. 柳祈穆은 노론계인 김수근 서원의 건립을 주도하였으며,¹²²⁾ 1858년 柳厚祚는 문과에 급제하고 金左根의 추천으로 通政大夫에 加資되는¹²³⁾ 등 풍산유씨 가문은 당색에 대해서는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또한 세도시기부터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소론계의 鄭元容, 복인 출신 姜(彳+老) 등 당색에 상관없이 많은 인물들이 중용되었다.¹²⁴⁾ 대원군은 과거 영남지역을 순방하였다. 상주의 柳厚祚를 비롯하여 의성의 申錫祐, 경주의 李彦迪 후손가와 봉화의 진주강씨 등에는 대원군과 만남 기록이나 구전이 남아있다.

대원군이 상주의 낙동을 지나다가 청령강직하기로 이름 높은 강고 유심춘을 만나게 되었다. 유심춘과 대원군은 밥을 먹게 되었는데 밥상에는 김치와 된장, 간장 한 종이, 보리밥 그리고 맹물을 끓인 백비탕이 있었다. 소박한 밥상이었지만 유심춘은 부끄러움이 없었다. 며칠 후 대원군은 작별을 고하자 유심춘은 노잣돈을 주었다. 대원군이 얼마쯤 길을 가자 유심춘의 하인이 찾아와 사돈의 부의금이 없어서 급하니 돈을 돌려달라고 하였다.¹²⁵⁾

위의 내용은 柳厚祚의 아버지인 柳尋春과 대원군의 만남을 정리한 것으로 청렴한 영남 선비를 강조한 이야기이다. 대원군은 이러한 바탕이 있었기에 남인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¹²⁶⁾

대원군과 柳厚祚는 영남 남인을 등용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내부 갈등을 해결하였다. 그 대표적인 일이 병호시비 보합이다. 병호시비는 오랜 시간동안 발생한 갈등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 또는 향촌의 학연·지연 등을 동원함으로써 문제가 더욱 확대되었다. 대원군은 삼계서원, 병산서원에 통문을 보내

121) 김병우, 「대원군정권의 권력기반과 개혁정책」, 경북대 박사학위논문, 2004.

122) 김성윤, 「안동 남인의 정치적 일상과 지역정치의 동향」, 『영남학』 15, 2009.

123) 『철종실록』 10권, 철종 9년 5월 20일 갑오.

124) 안외순, 「대원군집정기 인사정책과 지배세력의 성격」, 『동양고전연구』 1, 1993, 120~123쪽.

125) 위의 내용은 유교넷 수암종택의 유씨 가문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한 것이다.

126) 정진영, 「19세기 후반 영남유림의 정치적 동향」, 『지역과 역사』 4, 1997, 182쪽.

보합을 촉구하는 한편 柳道性과 金聖欽에게 편지를 보내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등 이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보합의 분위기가 마련되자 병과와 호파의 주장을 담은 『여강지』와 『대산실기』 서적·목판은 대구 감영에서 모두 소각되었다.¹²⁷⁾

이러한 대원군의 개입은 영남지역에서 대원군의 영향력을 강화하고 영남 내부의 갈등을 해소하여 통합된 정치세력을 형성하여 국정에 등용시키고자 하는 노력이었다. 대원군과 영남 남인과의 결합은 1873년 고종이 친정을 하고 대원군이 정계에 복귀를 하려는 과정에서 드러난다.

副司果 李彙林이 올린 상소의 대략에, 근래 듣건대, 大院君 閣下께서 궁궐 밖으로 거처를 옮기시고는 도성에 생각을 두지 않는다기에 온 나라 사람들은 의심하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신이 먼 시골에 있으므로 무슨 이유로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렀는지 모르겠으나 대원군 합화가 번잡한 곳을 버리고 한적한 곳을 취하여 즉시 돌아오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하가 대원군의 뜻을 순순히 따르리라 마음먹고 곧 돌아오기를 청하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까...대원군 합화가 설사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처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나친 행동에서 나온 것이라고 하더라도 전하로서는 응당 황송해서 몸 둘 바를 몰라 하며 흥분을 가라앉히도록 부드러운 말로 아버지의 마음을 돌려세워야 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달 귀를 기울여도 아직 행차하여 돌아오도록 청한 조치가 있었다는 것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신은 실로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신만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朝野가 모두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일입니다.¹²⁸⁾

대원군이 궁의 출입이 금지당하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자 1874년 柳厚祚와 풍산유씨, 진성이씨 가문을 중심으로 대원군 복권 만인소를 진행하였다. 하지만 만인소는 실패한다.¹²⁹⁾

한편 서양세력의 침범으로 개화에 대한 의견이 개진되는 과정에서 고종은 개화파를 지지하였다. 1880년 金弘集이 『조선책략』을 가져오자 개화에 대해 전국적으로 유생들이 반발하였고 영남 또한 적극적으로 척사 만인소를 실행하였다. 이는 대원군의 복권 외에도 주자학을 지키고자 하는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고종시기 영남에서 총 189명이 급제하였는데 이는 왕대별로 비교했을 때 가장 많은 급제자가 배출된 것이다. 물론 당시의 문과가 인재 등용 뿐만 아니라 성관별·지역별 합격자 분배를 통한

127) 설석규, 「퇴계학파의 분화와 병호시비」, 『퇴계학과 한국문화』 45, 2009, 359~363쪽.

128) 『고종실록』 11권, 고종 11년 11월 29일 무진.

129) 정진영, 「19세기 후반 영남유림의 정치적 동향」, 『지역과 역사』 4, 1997, 206~214쪽.

지역의 불만해소, 유생들의 위무, 종친 세력의 강화 등으로 이용되어 급제자 수가 급증하였다.¹³⁰⁾ 하지만 정조대 이후로 계속적으로 급제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과 대원군 정권과 영남 남인과의 결합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이 시기 문과급제자의 증가는 시기의 변화에 발맞춰 영남 남인이 문과에 응시하였고 만인소 등의 활동을 통해 정치적 의견을 개진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기 급제한 성관은 진성이씨, 안동권씨, 인동장씨, 의성김씨와 같이 영남의 대표적인 성관이었으며 이들은 정치적으로 남인의 입장을 취하였다. 다음으로 18~19세기 급제자들의 성관과 그 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 영남 남인 주요 가문의 급제자 추이

18세기가 되면 李玄逸의 실각과 무신란의 영향으로 문과급제자가 급감한다. 19세기가 되면 노론 중심의 정국 운영이 약화되고 대신 왕실과 외척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세력이 등장한다. 외척세력은 정권을 장악하였으며 이에 반발하여 국왕은 왕권 강화를 추구하였다. 영남 남인은 정치적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만인소 또는 정계진출을 통해 자신들의 의견을 개진하였다. 이 장에서는 영남 급제자가 증가한 19세기를 중심으로 영남 가문을 상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문인록』의 분석을 통해 문인의 급제자 수 감소 현상을 제시하겠다.

(1) 18~19세기(경종~고종) 문인 급제자 수 변화

16~17세기에는 李滉·鄭述·李玄逸 문인을 중심으로 문과급제자가 많이 배출되었다. 그렇다면 18~19세기에 문인 중 급제자의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겠다. 18~19세기에 영남의 문인록에 등재된 문인 중 급제자 수를 살펴보면 <표IV-11>과 같다

130) 성대경, 「대원군정권의 과거운영」, 『대동문화연구』 19, 1985; 박현순, 『조선 후기의 과거』, 소명출판, 2014.

<표IV-11> 영조~고종 문과에 급제한 문인 수

스승 시기	이상정	이현일	이재	장현광	최홍원	김굉	허전	유치명	유주목	김도화	김홍락
영조	6	5	1	1	1						
정조	5				4	2					
순조	1				3	6	1	1			
헌종							1	3	1		
철종							3	5	2		1
고종	1			1			10	2	11	3	4
계	13	5	1	1	8	8	15	11	14	3	5

<표IV-11>에서 보듯 16~17세기와 비교해 전체적인 문과급제자 수가 줄어들었으며 고종대 까지 문인별 급제자 수가 10명 내외를 넘지 못하였다. 李象靖의 문인록에 등재된 인물은 271명, 崔興遠은 122명, 金(土+宏) 75명으로 영남지역에서 학단의 영향력이 감소되지 않았지만 이 중 문과급제로 중앙정계에 진출한 인물이 급감했다고 할 수 있다. 전체 문인록에 등재된 문인 중 급제자의 비율을 살펴보면 李象靖 4.8%, 崔興遠 6.6%, 金(土+宏) 10.7%, 許傳 3.0%, 柳致明 2.3%, 柳疇睦 4.4%, 金道和 2.3%, 金興洛 1.0%로¹³¹⁾ 李象靖, 崔興遠, 金(土+宏), 柳疇睦의 문인들의 비율이 높았다.

18세기는 李象靖과 崔興遠의 문인을 중심으로 소수지만 지속적으로 중앙정계에 진출하였다. 李玄逸 학단은 숙종대 크게 성장하면서 노론의 공격을 받았지만 18세기까지 지속적으로 문과급제자를 배출하였다. 李象靖은 李玄逸의 외손자였으며 퇴계학맥을 계승한 인물로 이후 그의 학문은 柳致明에까지 전해진다. 崔興遠의 경우 특정한 학통을 계승한 인물이라고 할 수 없지만 李象靖과의 교류를 통해 향촌사회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미쳤다. 학문적 특성도 이기설 보다는 현실적 문제인식과 해결에 중점을 두었다.¹³²⁾ 金(土+宏)은 李象靖의 문인이었으며 1777년(정조 1)년 문과에 급제하고 참판에까지 오른 인물이다. 18세기 급제한 문인을 살펴보면 비록 소수지만 당시 중앙정계에 진출하여 당상관까지 임명된 인물의 제자들이 많은 수를 차지하였다.

고종대가 되면 許傳 문인의 성장이 두드러졌다. 許傳은 기호남인의 대표적

131) 19세기 문인 중 영남지역 문과급제자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李象靖	崔興遠	金(土+宏)	許傳	柳致明	柳疇睦	金道和	金興洛
영남	13	8	8	15	11	14	3	5
전체	271	122	75	493	472	320	322	692

132) 정진영, 「백불암 최홍원의 학문과 향약」, 『퇴계학과 유교문화』 29, 2001.

인 인물로 성호학파의 학문을 계승하였다. 그는 고종 즉위 후 김해부사에 임명되었으며 이후 경상우도를 중심으로 많은 인물이 수학하였다. 하지만 1867년 공무 중에 강학한 행위로 인해 ‘僞學’으로 지목을 받아 조사를 받게 된다. 이에 함안의 문인인 趙性濂, 文郁純, 趙昺奎이 변호를 하여 혐의가 없으므로 문제가 해결된다.¹³³⁾ 그의 문인 중 金麟變은 柳致明과도 교류하였으며 1846년 문과에 급제하고 성균관전적 등 벼슬을 지내다가 이후 낙향하여 학문에 전념한다. 이후 1862년 단성농민항쟁을 주도한다.¹³⁴⁾ 許元栻은 1864년 문과에 급제하고 지평, 정언 등의 직책을 거쳤으며 1866년 병인양요가 일어나자 격문을 발송하여 군량미를 지급하였다. 고종대는 대원군의 섭정을 반대하는 崔益鉉의 주장을 반박하였다.¹³⁵⁾

또한 퇴계학을 계승하고 있는 柳疇睦, 柳致明의 문인을 중심으로 급제자가 많이 배출하였다. 특히 柳疇睦 문하에서 많은 인물이 급제하였다. 柳疇睦은 柳成龍의 9대손으로 柳厚祚의 아들이었다. 柳厚祚는 대원군의 측근으로서 정승에 임명되었으며 영남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 柳疇睦은 대원군의 천주교 탄압과 통상거부정책을 지지하였다.¹³⁶⁾ 柳致明은 李象靖의 학문을 계승하였으며 1805년 문과에 급제하여 관직에 나갔지만 주로 향촌에서 후학 양성에 주력하였다. 그는 지역·가문·재산 등이 아닌 학문적 기량과 능력을 기준으로 인재를 등용하고, 과거도 공평하게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이양선이 증가하고 서양 세력의 침범의 위기가 고조되자 군사를 훈련시키고 장수를 특별히 선별하여 외적의 침입에 대비하자고 하였다.¹³⁷⁾ 柳疇睦, 柳致明은 상주와 안동의 대표적인 학자로 대원군의 정책을 지지하며 성리학을 바로 잡고 서양 세력을 배척해야 한다는 주장을 견지하였다.

18세기 이후 영남이 정치에서 소외되면서 급제자가 감소하였고 문인록에 등재된 문인 중 급제자 수도 급감하였다. 하지만 19세기가 되면 급제자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에 반해 문인 중 급제자는 감소하고 있었다. 16~17세기와 비교해보면 이러한 경향을 더욱 확실히 알 수 있다.

133) 강동욱, 「성재 허전의 강우지역 문인 고찰」, 『남명학연구』 31, 2011, 8쪽.

134) 허권수, 「단계 김인섭의 생애와 학문」, 『남명학연구』 31, 2011.

135) 정경주, 「경상우도 성재 허전의 학단을 중심으로: 성재 허전의 학문 사상과 그 학술사적 위상」, 『남명학연구』 31, 2011, 230~231쪽.

136) 우인수, 「계당 류주목과 민산 류도수의 학통과 그 역사적 위상」, 『퇴계학과 유교문화』 44, 2009.

137) 김지은, 「정재 류치명의 현실인식과 경세관」, 『조선시대사학보』 72, 2015, 377~378쪽.

조선시대 24개 문인록에 등재된 문인 중 문과에 급제한 인물은 총 339명이었다. 이 중 다른 학단에서 수학한 인물도 있으므로 이들을 제외한다면 275명이 확인된다. 문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鄭述(42명), 李玄逸(37명), 李滉(33명), 張顯光(30명), 柳稷(24명), 申元祿(16명), 曹植(15명), 許傳(15명), 趙穆(15명), 柳疇睦(14명), 柳成龍(12명), 李象靖(13명), 柳致明(11명) 郭再謙(9명), 金宇顥(8명), 崔興遠(8명), 朴承任(8명), 金(土+宏)(7명), 張興孝(6명), 金興洛(5명), 金彦璣(4명), 金道和(3명), 李栽(3명), 金宏弼(1명) 순이었다. 申元祿의 경우 及門錄 보다는 交友錄의 성격으로 스승과 제자관계보다는 교우관계를 기록한 것이었다. 이를 제외하면 鄭述, 李滉, 李玄逸, 張顯光, 柳稷, 曹植, 許傳 의 문하에서 많은 인물들이 급제하였다.

급제자가 많이 배출된 7개 문인록에 등재된 문인의 왕대별 변동을 살펴보면 <표IV-12>와 같다.

<표IV-12> 영남지역 시기별 문인 급제자 수

시기		스승	이황	조식	정구	장현광	이현일	유직	허전	계(명)
16세기	중종	2		3						5
	명종	17		7						24
	선조	14		5	15	5				39
	광해				17	8				25
17세기	인조				10	15		4		29
	효종							7		7
	현종						4	9		13
	숙종						28	4		32
18세기	경종									0
	영조					1	5			6
	정조									0
19세기	순조								1	1
	헌종								1	1
	철종								3	3
	고종					1			10	11
계			33	15	42	30	37	24	15	196

<표IV-12>에 의하면 16세기 전반(중종~선조) 李滉·曹植 문인을 중심으로 급제자가 배출되고 있었다. 이후 16세기 후반~17세기 전반(선조~인조) 鄭述·張顯光, 17세기 중반(효종~현종) 柳稷, 17세기 후반(숙종) 李玄逸 문인이 급제하고 18세기에는 문인 중 급제자가 급격히 감소하였다. 대신 李象靖과 崔興遠의 문인을 중심으로 문과에 급제하였다. 19세기에는 許傳, 柳疇睦, 柳致明

의 문인이 급제하였다.

영남은 초기에 李滉과 曹植 학파가 번성하였으며 李滉·曹植의 문인에 의해 학파가 세분화되고 발전하였다. 鄭述, 張顯光 학단의 경우 李滉 학파가 분화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중종~광해군대까지 李滉과 曹植의 문하에서 급제자가 많이 배출되었지만 남명학파는 광해군 이후로 영향력이 감소하기 시작하여 일부가 퇴계학파에 흡수되었다.

선조대에는 鄭述 학단과 張顯光 학단의 성장이 눈에 띄었다. 이 두 학단의 특징은 다른 학단을 배격하기 보다는 공존하려는 성향이 강하다는 점이다. 鄭述는 李滉과 曹植의 尊師 문제에 대해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였으며 鄭仁弘이 李彦迪·李滉의 문묘종사를 반대하자 이를 비판하였다. 張顯光은 鄭述의 문인으로 특이하게 영남지역에서 주리론을 강조하지 않았으며 유연한 입장을 취하였다. 이는 당시 서인의 영향력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공존을 강조하는 학단에 많은 문인이 참여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이후 점차 영남 남인들이 중앙정치에서 소외되는 중에 李滉의 학설을 강조하는 柳稷과 李玄逸의 문인이 문과에 많이 급제하였다. 특히 李玄逸은 당시 영남의 대표적인 산림으로 그의 문하생 중 많은 인원들이 중앙정계에 진출하였다. 서인은 李玄逸을 영남 남인의 주요 인물로 인식하고 정치적으로 공격하였다. 갑술환국으로 서인이 정권을 장악하게 되자 당시 이조판서였던 李玄逸은 인현왕후를 모해하였다는 이유로 유배를 간다.¹³⁸⁾ 이 사건은 이후 지속적으로 서인이 영남 남인을 공격하는 하나의 이유로 이용된다. 영조대 무신란으로 인해 영남지역 문과급제자가 급격히 감소한다. 19세기가 되면 許傳의 영향을 받은 인물들, 그리고 柳疇睦, 柳致明의 문인을 중심으로 급제자가 배출되었다. 이들 문인은 대원군의 정책을 지지하며 위정척사를 강조하였다. 하지만 19세기에는 영남지역 문인록에 등재된 문인 중 많은 인물들이 문과에 급제하지 못했다. 이는 18세기 이후 영남 남인의 영향력이 감소하고 노론의 영향력이 강화되면서 중앙 정계에서 정치적·사상적 결집 집단인 문인 보다는 특정 가문의 중심으로 인재를 등용하였기 때문이다.

(2) 19세기 영남 남인 문과급제자의 가문 분석

19세기에 영남지역 문과급제자를 살펴보면 주로 과거 영남 남인의 대표적

138) 안병걸, 「갈암 이현일의 유학적 삶과 경세론」, 『민족문화』 29, 2006.

인 가문 출신의 인물들이 많았으며 이전 시기와 비교해 특정 문인에서 문과급 제자가 배출하지 못하였다. 이는 세도정치기, 대원군 집정기에 향촌 사회에서 특정한 위치에 있는 가문의 후예를 등용함으로써 향촌사회의 불만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정치적 표현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향촌사회에서도 양반계층에서 족적·혈연적 결집이 강화되면서 가문의 영향력이 강화되었다.

먼저 19세기 급제 성관과 거주지를 살펴보겠다. 급제성관은 <표IV-13>과 같다.

<표IV-13> 순조~고종 시기 영남지역 문과급제자 성관 수

시기 성관	순조	헌종	철종	고종	계(명)
신천강		1			1
진주강	7	4	8	10	29
개성고				1	1
제주고				1	1
현풍곽		1			1
능성구				1	1
안동권	8	5	5	9	27
봉화금		1			1
강릉김				1	1
경주김				1	1
광산김		1		2	3
김녕김				1	1
김해김	1	1		4	6
부령김			1		1
상락김		1			1
상산김	3	1	1		5
서흥김	2	1	1	3	7
선산김(선공)	2		2	1	5
선산김(추)	2	1		1	4
순천김	2			1	3
안동김			2		2
연안김	1		1	1	3
영암김				1	1
영양김				1	1
영천김		1			1
예산김	3			1	4
용궁김	1				1
의성김	8	1	1	6	16
인동김	1				1
진주김				1	1
청풍김			1		1
풍산김	2	2	2		6

시기 성관	순조	헌종	철종	고종	계(명)
탐진안				1	1
남원양	1			3	4
밀양양		1			1
해주오				1	1
단양우	3				3
전주유	2		2	1	5
진주유	1		1		2
풍산유	2	3	4	1	10
영천윤	1				1
파평윤			1	2	3
행주은			1		1
경산이	1	1			2
경주이	1	1	1	4	7
고성이		1			1
광주이	3			5	8
덕수이	1				1
벽진이	4	1	2		7
성산이	2		1	2	5
성주이	4			2	6
여주이	5	5	4	3	17
연안이	1		1	1	3
영천이	1			1	2
재령이		1	1	1	3
전의이	4				4
전주이	3	2	2	6	13
진성이	7	5	8	15	35
하빈이	1				1
환산이			1	2	3
예천임				1	1
덕수장			1		1
순천장				1	1
인동장	3	3	2	9	17

함창김	1	1			2
해평김				2	2
광주노				3	3
풍천노	1			1	2
성주도	1			1	2
여흥민				3	3
고령박	1			1	2
밀양박	5	2	3	3	13
반남박	3	2		1	6
순천박	1	2	1	7	11
춘천박				1	1
성산배	1	1			2
홍해배		2		1	3
대흥백	1				1
원주변	1			2	3
초계변				1	1
대구서	3	1			4
충주석		1			1
창녕성	2	1			3
경주손	2	2	1	2	7
밀양손	1		1	1	3
비안손	1				1
안동손				1	1
여산송	2	1			3
거창신	1		1	2	4
고령신				1	1
아주신	1	1			2
영산신	1			1	2
영해신	1				1
평산신	2				2
청송심	1	1		1	3
광주안				2	2
순흥안	1		1		2

담양전				1	1
나주정		1			1
동래정	1		1	2	4
봉화정				1	1
영일정	1			3	4
진양정	1	1		3	5
청주정	1	1	2	2	6
초계정				1	1
하동정	1		2	3	6
해주정		2		2	4
수안조				1	1
창녕조	1		1	3	5
풍양조	2			3	5
한양조	3			1	4
함안조	3			2	5
여양진	1				1
연안차				2	2
인천채			1	1	2
평강채			1		1
안동천			1		1
영양천				1	1
경주최	3	1	1	1	6
양천최		1			1
전주최	2			2	4
진양하	1	1			2
청주한			1		1
김해허			1		1
남양홍(당홍)			1	1	2
남양홍(토홍)				1	1
장수황	2	1			3
창원황		1		2	3
평해황				2	2

19세기 영남에서는 총 128종의 성관이 급제하고 있었다. 이는 16·17세기에 비해 특정 성관을 중심으로 급제자가 집중되는 현상을 볼 수 있다. 10명 이상 급제한 성관은 진성이씨(35), 진주강씨(29), 안동권씨(27), 여주이씨·인동장씨(17), 의성김씨(16), 밀양박씨·전주이씨(13), 순천박씨(11), 풍산유씨(10) 등 순이었다. 이들은 영남의 대표적인 성관으로 특히 李滉과 李彦迪, 張顯光의 후손인 진성이씨, 여주이씨, 인동장씨의 가계에서 많은 인원이 급제하였다.

이 급제 성관의 거주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Ⅳ-14> 19세기 거주지별 급제성관

지명	성관별(급제 수)	계(명)
개령	김해허씨(1)	1종(1)
거창	연안이씨(1)	1종(1)
경산	경주최씨(1)	1종(1)
고령	선산김씨 선궁계(4), 경주최씨(1), 양천최씨(1), 연안차씨(1)	4종(7)
경주	여주이씨(12), 경주손씨(4), 밀양박씨(3), 경주최씨(2), 영일정씨(2), 경주이씨(1), 대구서씨(1), 안동권씨(1)	8종(26)
군위	행주은씨(1), 의성김씨(1)	2종(2)
급산	선산김씨 추계(1), 청풍김씨(1), 창녕조씨(1)	3종(3)
김해	김해김씨(2), 경주김씨(1), 영양천씨(1)	3종(4)
단성	안동권씨(7), 순천박씨(6), 성주이씨(4), 진주유씨(2), 남원양씨(2), 밀양박씨(1), 상산김씨(1), 진주강씨(1), 청송심씨(1), 당홍 남양홍씨(1)	10종(26)
대구	순천박씨(4), 김녕김씨(1), 김해김씨(1), 성주도씨(1), 현풍곽씨(1)	5종(8)
문경	진성이씨(2), 순천박씨(1), 연안이씨(1), 인동장씨(1), 한양조씨(1)	5종(6)
밀양	광주안씨(2), 경주손씨(1), 동래정씨(1), 밀양박씨(1), 밀양손씨(1), 밀양양씨(1), 벽진이씨(1), 여주이씨(1), 장수황씨(1)	9종(10)
봉화	안동김씨(1)	1종(1)
산청	여흥민씨(2), 반남박씨(1), 해주정씨(1)	3종(4)
삼가	전주이씨(1), 전주최씨(1)	2종(2)
상주	진양정씨(5), 풍양조씨(5), 상산김씨(4), 여산송씨(3), 진주강씨(2), 창녕성씨(2), 인천채씨(2), 장수황씨(2), 연안김씨(2), 순천김씨(2), 개성고씨(1), 경주손씨(1), 경주이씨(1), 광주노씨(1), 덕수장씨(1), 밀양박씨(1), 밀양손씨(1), 봉화정씨(1), 비안손씨(1), 신천강씨(1), 여흥민씨(1), 연안차씨(1), 예천임씨(1), 재령이씨(1), 전주이씨(1), 평산신씨(1), 제주고씨(1), 풍산유씨(1), 한산이씨(1)	29종(48)
선산	선산김씨 추계(3), 밀양박씨(3), 벽진이씨(2), 전주최씨(2), 청송심씨(2) 덕수이씨(1), 여주이씨(1), 연안이씨(1), 전주이씨(1), 창녕조씨(1), 해주오씨(1), 당홍 남양홍씨(1), 토홍 남양홍씨(1)	13종(20)
성주	성산이씨(4), 청주정씨(3), 해평김씨(2) 경산이씨(2), 전의이씨(2) 경주이씨(1), 벽진이씨(1), 성산배씨(1), 성주도씨(1), 영일정씨(1), 인동장씨(1), 전주이씨(1), 선산김씨 선궁계(1)	13종(21)
순흥	대구서씨(2), 안동권씨(2), 의성김씨(2), 밀양박씨(1), 순흥안씨(1), 진성이씨(1), 홍해배씨(1)	7종(10)
안동	진주강씨(20), 안동권씨(11), 의성김씨(11), 풍산유씨(9), 전주유씨(5), 진성이씨(3), 풍산김씨(2), 광산김씨(2), 한산이씨(2), 한양조씨(2), 고령박씨(1), 고령신씨(1), 담양전씨(1), 대구서씨(1), 반남박씨(1), 순천김씨(1), 안동김씨(1), 순천장씨(1), 순흥안씨(1), 여주이씨(1), 예안김씨(1), 전주이씨(1), 청주한씨(1)	23종(80)
안의	거창신씨(4), 성산이씨(1), 초계정씨(1)	3종(6)
양산	성산배씨(1), 파평윤씨(1), 안동손씨(1)	3종(3)
영산	영산신씨(2)	1종(2)
영양	한양조씨(1)	1종(1)
榮川	풍산김씨(4), 반남박씨(3), 평해황씨(2), 함창김씨(2), 예안김씨(2), 고령박씨(1), 나주정씨(1), 연안김씨(1), 전의이씨(1), 춘천박씨(1)	10종(18)
永川	창녕조씨(3), 영일정씨(1), 영천윤씨(1), 예안김씨(1), 용궁김씨(1), 전주이씨(1)	6종(8)
영해	안동권씨(2), 강릉김씨(1), 경주이씨(1), 대홍백씨(1), 영천이씨(1), 영해신씨(1)	6종(7)
예안	진성이씨(28), 봉화급씨(1), 전주이씨(1),	3종(30)
예천	원주변씨(3), 안동권씨(2), 청주정씨(2), 경주손씨(1), 인동장씨(1), 전주이씨(1), 함양박씨(1), 홍해배씨(1)	8종(12)
용궁	동래정씨(2), 성주이씨(1), 여주이씨(1), 청주정씨(1)	4종(5)
의령	안동권씨(2), 전의이씨(1), 진주강씨(1), 탐진안씨(1)	4종(5)
의성	아주신씨(2), 경주이씨(1), 광산김씨(1), 상락김씨(1), 영천이씨(1), 의성김씨(1)	6종(7)
의안	하빈이씨(1)	1종(1)

의흥	밀양박씨(1)	1종(1)
인동	인동장씨(13), 밀양박씨(1)	2종(14)
진보	경주이씨(1)	1종(1)
진해	전주이씨(1)	1종(1)
진주	함안조씨(3), 해주정씨(3), 경주최씨(1), 김해김씨(1), 남원양씨(1), 능성구씨(1), 밀양박씨(1), 성주이씨(1), 의성김씨(1), 재령이씨(1), 전주이씨(1), 전주최씨(1), 진양하씨(1), 진주강씨(1), 창원황씨(1), 초계변씨(1)	16종(20)
창녕	서흥김씨(4), 단양우씨(3), 파평윤씨(2), 광주노씨(2), 경주이씨(1), 김해김씨(1), 여양진씨(1), 인동김씨(1), 진양하씨(1), 창녕성씨(1), 충주석씨(1)	11종(18)
청도	경주최씨(1), 고성이씨(1), 서흥김씨(1), 안동천씨(1), 인동장씨(1)	5종(5)
청송	진주김씨(1), 함안조씨(1)	2종(2)
칠곡	광주이씨(8), 벽진이씨(3), 진주강씨(3), 동래정씨(1)	4종(15)
풍기	창원황씨(2), 여주이씨(1), 영천김씨(1), 전주이씨(1), 진성이씨(1), 평강채씨(1), 홍해배씨(1)	7종(8)
함안	밀양손씨(1), 함안조씨(1), 재령이씨(1), 수안조씨(1)	4종(4)
함양	하동정씨(6), 풍천노씨(2), 김해김씨(1), 남원양씨(1), 영암김씨(1), 진주강씨(1), 평산신씨(1)	7종(13)
합천	부령김씨(1), 전주이씨(1)	2종(2)
현풍	서흥김씨(2), 반남박씨(1), 전주이씨(1)	3종(4)
계		129종(494)

영남의 경우 19세기에 47개의 지역에서 494명이 급제하였다. 급제자가 많이 배출된 지역을 살펴보면 안동(80명), 상주(48명), 예안(30명), 경주·단성(26명), 성주(21명), 선산·진주(20명)으로 안동과 상주를 중심으로 급제자가 많이 배출하였다. 특히 예안의 경우 급제자 수가 증가하였으며 경주와 단성에서 급제자 수가 증가하였다.

급제 인원이 많은 성관과 거주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예안의 진성이씨, 안동의 진주강씨, 안동과 단성의 안동권씨, 경주의 여주이씨, 인동의 인동장씨, 안동의 의성김씨, 안동 풍산유씨 등이었다. 영남지역에서 전통적으로 많은 급제자를 배출하던 안동의 안동권씨 급제자는 감소하고 대신 예안 진성이씨의 수치가 급증하였다. 전주이씨의 경우에도 19세기 급제수가 증가하였는데 왕권 강화를 목적으로 고종대에 璿派儒生應製가 진행된 영향으로 보인다.¹³⁹⁾ 하지만 이들이 여러 거주지에 산발적으로 등장하는 모습을 볼 때 영남지역에서는 특정가계보다는 개인별로 문과급제가 이루어졌다.

19세기에는 영남 남인의 대표적인 성관들의 급제가 많이 이루어졌다. 여기서는 그 중 많은 급제자를 배출한 예안의 진성이씨, 안동의 진주강씨, 안동과 단성의 안동권씨, 경주의 여주이씨, 인동의 인동장씨, 안동의 의성김씨 등의 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139) 박현순, 「19세기 문과에 대한 고찰」, 『조선 후기의 과거』, 소명출판, 2011, 227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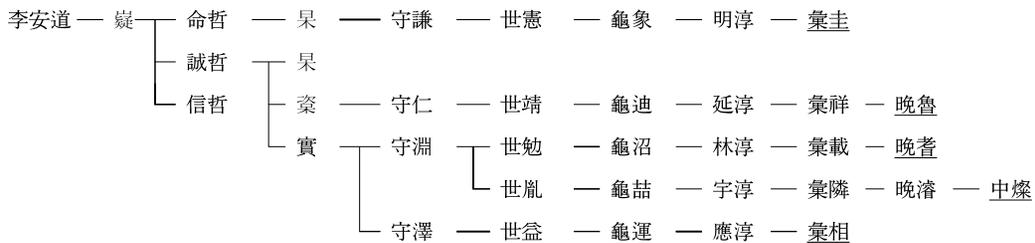
① 예안의 진성이씨

예안의 진성이씨는 원래 진보현 향리 출신이었으나 李子修가 문과에 급제하고 흥건적의 난을 토벌하여 송안군에 봉해지면서 사족으로 성장한다. 이후 안동부 풍산현 마에리에 이주하여 안동김씨, 안동권씨, 풍산유씨, 풍산홍씨, 풍산김씨 등 안동의 토성가문과 혼인을 맺고 재지적 기반을 마련한다.

子修의 후손인 李繼陽은 봉화훈도로 부임하다가 살펴본 예안 온계에 복거하게 된다. 특히 그는 종조 李仲位의 수양자였기 때문에 부모 전래 외에도 종조의 재산을 물려받아 상당한 재산을 확보한다.¹⁴⁰⁾ 이후 李繼陽의 아들인 李滉은 토계로 이거하였으며 그의 후손들을 중심으로 많은 문과급제자가 배출된다. 예안은 조선전기 대표적인 잔읍이었으며 18세기 정약용이 지은 『경세유표』에서 소현으로 처리할 정도로 경제적 기반이 약한 지역이었다. 이에 따라 과거부터 대표적인 사족이 없었다. 하지만 진성이씨가 거주하면서 산간지역을 중심으로 예안이 개발되기 시작하였다.

19세기 李滉의 가계를 자세히 살펴보면 총 28명의 급제자가 배출되었다.¹⁴¹⁾ 이는 19세기 진성이씨 전체 급제자 중에 80%를 차지하는 수치로 이 가계를 중심으로 많은 급제자가 배출되었다. 繼陽-埴-滉-雋계 중 먼저 장자인 李安道의 경우 5명, 純道계는 6명, 詠道계는 15명으로 詠道계에서 많은 인물이 급제하였다. 먼저 安道계의 가계도를 보면 다음과 같다.

<가계도IV-4> 예안 진성이씨 가계도 (계양-식-황-준-안도계 일부)



安道는 토계에 세거하였으며 琴愷의 딸과 혼인을 하였는데 安道의 손자 李命哲 또한 봉화금씨와 혼인을 맺었다. 부포의 봉화금씨는 문과에 급제한 후 후손이 상경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면서 명문사족으로는 성장하지 못했

140) 정진영, 「원촌마을과 진성이씨」, 『안동 원촌마을』, 예문서원, 2011, 47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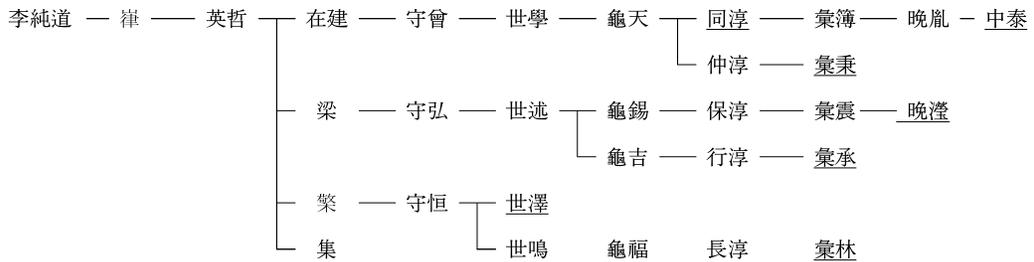
141) 27명이 이황의 후예였으며 이원호는 이황의 형인 이하의 후손이었다.

다. 이후 安道계는 봉화김씨 외에도 광산김씨와의 혼맥을 통해 친족의 범위를 확장하였다.¹⁴²⁾ 李安道는 음직으로 관직에 진출하였으나 아버지의 병으로 귀향한다. 이후 후사 없이 죽고 李詠道の 둘째아들 嶷이 安道에게 출계한다. 李命哲도 자손을 낳지 못해 李誠哲의 장남 李昊를 양자로 들이며 가계를 계속적으로 유지시킨다.

李滉으로부터 시작된 가학적 전통은 李安道, 李守淵, 李世靖에게 이어졌는데 이들의 후손들을 중심으로 문과급제자가 배출되었다.¹⁴³⁾ 李晚耆의 경우 1852년 문과에 급제하고 관직은 승지까지 이르렀으며 고종에게 『성학십도』의 병풍을 바쳤다. 후에 외세의 침입이 심화되자 李晚燾와 같이 벼슬을 버리고 낙향하였고 『퇴계집』의 발문을 썼다. 또한 李彙相의 경우 애일당속로회를 주도하며 향촌 사회에서 진성이씨의 영향력을 강화하였다.¹⁴⁴⁾

순도계의 가계도는 다음과 같다.

<가계도IV-5> 예안 진성이씨 가계도 (계양-식-황-준-순도계 일부)



李純道는 李雋의 2자로 趙穆과 金富弼의 문하에서 학문을 배웠으며 선산김씨와 혼인을 하였다. 이후 純道の 후손들은 의성김씨, 전주유씨, 풍산유씨 등 영천·안동 지역의 퇴계학파의 인물들과 혼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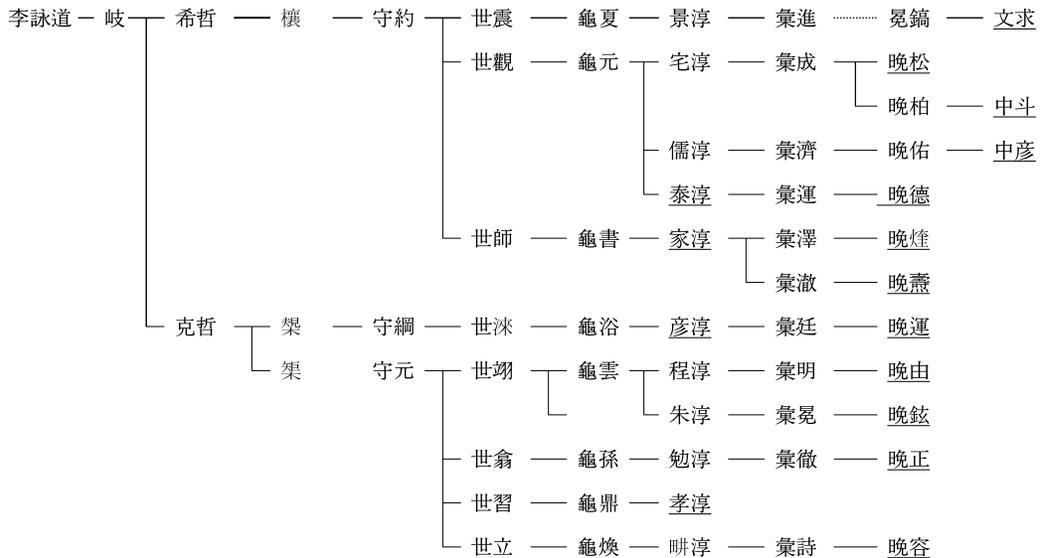
純道계는 가계를 유지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이는 李英哲·

142) 박현순, 「16~17세기 예안현 사족사회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05, 225~227쪽.
 143) 『계산세고』는 이안도, 이수연, 이세정의 시문집을 모아서 편찬하였다. 이이순, 이증응이 쓴 발문에는 이 세 사람이 이황의 가학을 이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한국국학진흥원 유교넷).
 144) 애일당속로회는 농암 이현보가 아버지와 고을 어른들을 모시고 애일당에서 잔치를 벌인 것이 시초가 되어 애일당구로회라고 불렸다. 이후 퇴계 이황이 70세로 이 모임에 참여하는데 이때 모임을 애일당속로회라 명칭했다. 이후 1902년 이휘상의 주도로 속로회가 개최되었는데 병 때문에 참석하지 못했다 (「임인년 애일당속노회첩」, 「1902년 이휘상 서간」, 영남권역한국학자료센터).

李集의 분재기와 유언 등의 고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후손들의 요절로 실질적으로 純道계는 李集의 후손을 중심으로 가계를 형성하였다.¹⁴⁵⁾ 종가인 梁계는 李守弘의 아들 李世述에 이르러 묘소관리와 위토확보에 주력한다. 李世澤의 경우 1753년 문과에 급제하고 李滉의 저서인 『성현도학연원』을 영조에게 바치고 이후 천거로 당상관에 임명된다. 李彙承은 원래 安道계의 인물이었으며 行淳의 양자가 된다.

영도계의 가계를 보면 다음과 같다.

<가계도Ⅳ-6> 예안 진성이씨 가계도 (계양-식-황-준-영도계 일부)



李詠道는 權槩의 손녀와 결혼하였으며 임진왜란 때 의병을 조직하고 명군의 식량을 조달하였다. 이 공으로 관직에 진출하여 선무원종공신에 책봉된다. 詠道계는 安道の 경우와 같이 17세기 전반에는 趙穆·琴蘭秀 가문과 혼맥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17세기 후반 다양한 가문과 혼인하였다.

李冕鎬의 아들 李文求是 가계가 『청구씨보』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을 보아 후세에 추가된 가계로 파악된다.¹⁴⁶⁾ 希哲계의 경우 希哲의 후손인 李世師부터

145) 「1678년 이영철 5자녀 분재기」, 「1681년 이영철 유서」, 「1695년 고 장자 이량 처 권씨 분재기」, 「1738년 이집 분재기 중 유서」, 영남권역한국학자료센터.

146) 송기하·송윤식, 『청구씨보』, 陟瞻臺, 1926.

안동의 진주강씨는 크게 姜澂의 후손인 법전문중과 姜淵의 후손인 춘양문중으로 크게 나뉜다. 춘양문중 姜渭聘은 선조대에 천거로 관직을 시작하였고 병자호란이 발생하자 순국하였다. 이후 증손자인 姜天與 대에 후손이 끊어지면서 법전문중의 姜再輔를 양자로 들인다. 사실상 법전문중은 姜恪계와 혈연적으로 같다고 할 수 있다.¹⁴⁹⁾ 춘양의 진주강씨는 姜再輔가 양자로 들어오면서 가학이 발전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학자들과도 활발히 교류하였다. 姜樞의 경우 1811년 柳範休의 강회에 참여하여 영남 남인과 교류하였고 이후 柳致明 등 학봉학단에 영향을 받았다.¹⁵⁰⁾

법전문중의 경우 김포에 세거하고 있던 姜恰, 姜恪형제가 병자호란을 피해 법전 성зам에 들어가고 이후 음지말과 양지말을 개척하며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姜恪의 아들인 姜鄴은 尹拯의 문인이었으며, 이에 영향을 받은 姜再輔가 춘양문중의 양자가 되면서 춘양가문은 소론의 영향을 받게 된다. 姜鄴의 증손자인 姜澂의 경우 성리학이 뛰어났으며 후학 양성에 힘을 쏟았다. 실제로 姜澂계에서 집중적으로 문과급제자들이 배출한다. 이후 姜澂은 후손에 의해 1818년(순조 18)에 이조참의로 추증된다.¹⁵¹⁾

안동의 진주강씨는 정치적 입장은 기호학과와 가까웠다.¹⁵²⁾ 특히 姜恪은 尹拯의 문하로 소론과 가까웠다. 더군다나 영남의 대표적인 가문이라 할 수 있는 진성이씨, 의성김씨 등과 중첩적인 혼인관계를 맺었다. 위와 같이 사상적·학문적 다양성이 안동 진주강씨의 큰 장점이었으며 姜澂계를 중심으로 19세기에 급제자가 급증한다.

③ 단성·안동의 안동권씨

안동권씨는 權幸을 시조로 하는 안동의 대표적인 토성이다. 영남지역에서 총 83명이 급제하였으며, 북야공파·부정공파에서 54명으로 전체 영남 안동권씨 급제자 중 65%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19세기 단성의 안동권씨는 7명, 안동의 안동권씨는 11명으로 총 18명이 급제하였다. 19세기 안동권씨 전체 급제자(27명)와 비교했을 때 67%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단성의 안동권씨 가계를 살

149) 춘양문중의 간략한 가계도는 다음과 같다.

淵 - 愬 - 應生 - 渭聘 - 壽賢 - 天與 - 再輔 - 臣一 - (의+策) - 樞 - 必應 - 夏奎

150) 『수집사료해제집2』, 국사편찬위원회, 2008.

151) 『순조실록』 21권, 순조 18년 12월 19일 임오.

152) 김윤조, 「18세기 영남과 기호 소론가의 학문과 문학 교류」, 『한국학논집』 53, 2013; 임규완, 「법전 진주강씨와 해은 강필효」, 『한국학논집』 53,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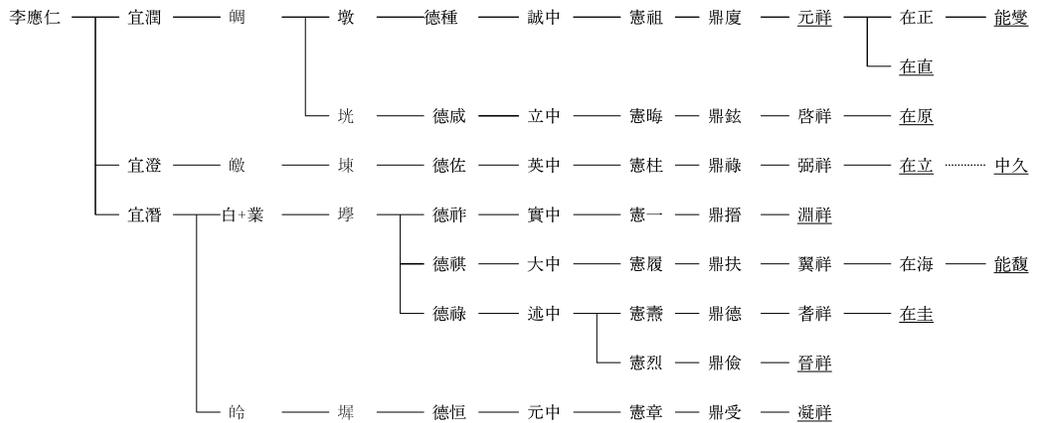
다. 이 시기 급제자들은 姜必孝·柳致明 문인이었으며 그 중 일부는 개항기의 병화에 참여하였다. 東美계의 경우 장남인 權采 후손을 중심으로 李光庭의 문하인 權正忱, 柳致明의 문하 權泳夏 등이 문과에 급제하였다.

안동권씨의 경우 안동과 단성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급제자가 배출되었다. 17세기 이전에는 단성 안동권씨의 다양한 가계에서 문과급제자가 배출되었지만 이후 世春-濤-克敦계, 안동에서는 機-東輔계를 중심으로 급제자가 배출되었다. 또한 18세기 이후 영남 전체의 안동권씨 급제자수는 감소하지만 안동 유곡과 단성에서는 19세기 급제자가 증가한다.

④ 경주의 여주이씨

경주의 여주이씨는 李世貞을 시조로 하는 경주파 인물들이다. 19세기 경주에서 12명이 문과에 급제하였는데 19세기 전체 경주이씨 문과급제자(17명)에 비교하면 71%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들은 李彦迪의 아들인 李應仁의 자손으로 무침당과 4명, 설천정과 2명, 수졸당과 5명, 李彦适이 파조인 향단과 1명(李在瀚)이었다. 李彦迪가문의 종가인 무침당파와 수졸당파를 중심으로 많은 인원이 급제하였다. 李應仁계의 가계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계도IV-9> 경주 여주이씨 가계도 (응인계 일부)



경주의 여주이씨가 양동마을에 세거하게 된 것은 李壽會의 아들 李蕃이 孫昭의 딸과 혼인하면서부터이다. 이후 李彦迪가 태어난다. 李彦迪는 조선시대 대표적인 유학자로 문묘에 배향된다. 19세기 풍양조씨에 의해 옥산서원에서

致祭를 하였고, 홍선대원군이 이 가문을 방문하였다. 하지만 내부적으로 적서간의 갈등이 치열하였다. 서파는 장산서원을 건립하여 자신들의 파조인 李侁을 모시고, 옥산서원 운영에 지속적으로 참가하려고 하였다. 이에 적파에서도 李彦迪의 손자인 李宜濶을 모시는 경산사를 건립하였다.¹⁵⁶⁾ 서파와의 갈등이 계속되자 무침당파를 중심으로 중앙정계에 진출하여 영향력을 강화하고 문중운영에 힘썼다.

李在直은 柳尋春의 문인으로 1827년 문과에 급제하여 홍문관 교리를 지냈다. 그의 처는 경주 최부자택의 주손 崔祈永의 딸이었으며 李在直의 손녀는 다시 崔祈永의 손자 崔萬瑞와 혼인하는 등 경주최씨와 중첩적인 혼반을 맺었다. 그의 아들 李能變의 경우 1848년 문과에 급제하고 안동김씨에 대항했던 李世輔가 귀양을 가게 되자 그를 두둔하는 상소를 한다.¹⁵⁷⁾

무침당파 외에도 李宜濶의 수졸당파 후손들에게서도 10명의 문과급제자를 배출했는데 19세기에 5명이 있었다. 李淵祥은 문중 서당을 건설하여 후학들을 양성하였으며 李源祚를 비롯하여 柳徽文, 柳健休, 柳致明 등 당시 유명한 영남 학자와 교류하였다.¹⁵⁸⁾ 李淵祥 외에도 여주이씨의 인물들은 풍산유씨와 성산이씨 李源祚 등과 교우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¹⁵⁹⁾

중앙정계에 진출한 여주이씨 인물들은 이후 향촌에 돌아와 서파와 대립하며 옥산서원을 통해 향촌의 지배를 확립하였다. 하지만 1884년 관의 개입으로 인해 옥산서원 원임직에 서얼허통이 허락되었다.¹⁶⁰⁾

⑤ 인동의 인동장씨

인동의 인동장씨는 총 13명의 문과급제자를 배출하였다. 19세기 인동장씨 전체 문과급제자(17명) 중 76%의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이들은 모두 張顯光의 후손이었다. 그 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56) 이수환, 「18~19세기 경주 옥산서원 원임직 유통을 둘러싼 적서간의 향전」, 『고문서연구』 17, 2000.

157) 『고종실록』 1권, 고종 즉위년 12월 20일 임진.

158) 유휘문, 『호고와선생문집』, (주)미디어한국학, 2012; 「1846년 이해상과 이연상 간찰」 (영남권역한국학자료센터).

159) 유휘문, 『호고와선생문집』, (주)미디어한국학, 2012; 유의정, 『시와집』, (주)미디어한국학, 2012; 「1846년 이해상과 이연상 간찰」; 「1851년 이진상 간찰」 (간찰은 영남권역한국학자료센터에 번역되어 있다).

160) 이러한 사실은 『옥원사실』이라는 일기를 통해 알 수 있다. 이 일기는 적파에 의해 작성되었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현재 영남권역한국학자료센터에 번역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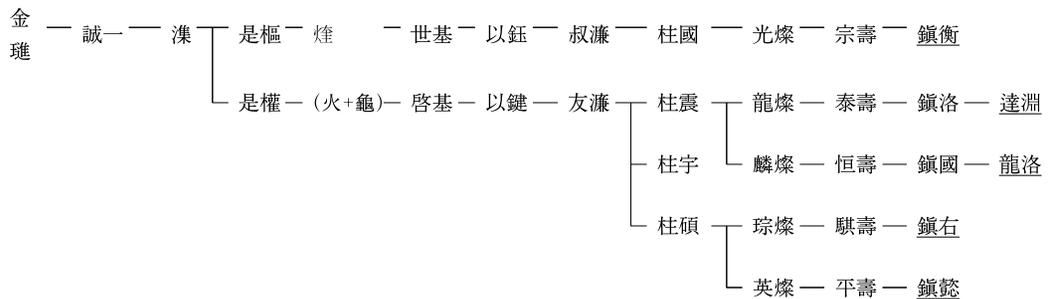
계를 만들었다.¹⁶⁴⁾ 그의 아들 張承遠 또한 1885년 문과에 급제한다. 이 시기 급제한 인동장씨는 대부분 張福樞의 문하생이거나 가학을 전승받은 인물이었다.

⑥ 안동의 의성김씨

안동의 의성김씨는 19세기 11명이 급제하였다. 19세기 전체 문과에 급제한 의성김씨(16명) 중 69%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들은 모두 金龍庇를 파조로 하는 침사공파의 후손이었다. 그중 金璣의 후손인 청계공파는 7명, 金宇宏의 후손인 개암공파는 4명이었다.

먼저 청계공파 중 많은 급제자가 배출된 학봉공파의 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계도Ⅳ-12> 안동 의성김씨 가계도 (진-성일계 일부)



안동김씨는 9세 金龍庇·金龍弼·金龍珠대에 가계가 확실해지고 후손들이 번성하기 시작하였다. 金龍庇의 아들 중 金宜의 후손들은 영남지역에, 金紘의 후손들은 충주·선산에, 金英의 후손들은 성주에, 金世勒의 후손들은 전라도 지역에 세거한다. 金龍庇의 8세손인 金漢啓는 세종대에 문과에 급제하였으며 漢啓의 장자 金萬謹은 임하의 해주오씨와 혼인을 맺어 임하 천전으로 이거하였고, 장자 金仁範은 선산으로 차자 金禮範은 임하 천전에 세거하였다. 禮範의 후손이 바로 분석 대상인 金璣 가계이다.

金璣은 천전에 세거하며 가사경영에 힘을 썼다. 다섯 아들들은 李滉의 문하에 출입하였으며 3명의 아들이 문과에 급제하면서 가문이 성세해졌다. 장자

164) 이광우, 「장석룡 막암수계서」해제, 영남권역한국학자료센터.

앞에서 언급한 金璉계는 金龍庇의 장자 金宜의 후손이고 希參계는 金龍庇의 삼자 金英의 후손으로 성주에 세거하였다. 金希參은 1540년 문과에 급제하여 부사를 지냈고 그의 아들 중 金宇弘·宇宏·宇顛은 문과에 급제하였다. 이들은 曹植과 李滉의 문하로 당시 尹元衡 등 외척세력에 배척하는 상소를 주도하였다.

金宇宏은 성주 출신이었으나 처가인 남양홍씨가 거주하는 상주 개암에 별장을 마련하고 세거한다.¹⁶⁷⁾ 이후 宇宏의 아들 金得可는 李滉의 종질손의 딸과 결혼하였으며, 金璫은 봉화금씨와 혼인하며 예안으로 이거한다.¹⁶⁸⁾ 이후 金秋吉은 세 아들을 두었는데 장자 金聲厚는 金功의 증손인 金宗衍의 딸과 혼인하여 내성현으로,¹⁶⁹⁾ 金聲久는 안동권씨 權穆과 혼인하여 봉화 해저리에 정착한다.¹⁷⁰⁾

金聲厚의 후손인 金熙周는 李象靖의 문인으로 대사간을 지냈고 李象靖의 증직과 시호를 올리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사도세자의 신원을 위한 상소에 참여하였다.¹⁷¹⁾ 이후 그의 후손인 金奎永은 1885년 문과에 급제한다. 金聲久는 1669년 문과에 급제하여 宋時烈을 탄핵하였으며 갑술환국으로 노론이 득세하자 향촌에 물러났으며 李玄逸과 친분이 있었다. 장남 金汝鍵 또한 1687년 문과에 급제하고 홍문관수찬에 올랐으나 소론의 탄핵으로 유배를 간다. 金建銖는 1830년 문과에 급제하고 헌종에게 중농과 교육진흥을 상주하였다. 金遇洙는 柳致明의 문인으로 1834년 문과에 급제하였으며 임천서원 사액을 청하는 상소를 올렸다. 希參계는 원래 성주에 거주하고 있던 세력으로 남명학파의 영향을 받았으며 이후 안동으로 이주하며 퇴계학과와도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 18세기가 되면 중앙정계에 진출하여 치열하게 노론과 갈등을 벌였다.

지금까지 19세기 영남지역에서 급제자를 많이 배출한 6개의 성관과 그 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그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67) 『청대선생문집』 권13, 「행장」, “庚申 遭外艱 居憂諸節 一從家禮 易威兩盡 服闋後 開別墅於開巖之南 在尙州治東二十里洛江之上 先是 公自星州移家於州城東門外 愛開巖山水奇勝 往來遊賞處也 後學因稱開巖先生”

168) 『학사선생문집』 권7, 「묘갈명」.

169) 『만곡선생문집』 권17, 「유사」.

170) 최미정, 「봉화 해저마을 의성김씨 문중의 유림권 의거 참여」, 『한국독립운동사연구』 49, 2014, 89쪽.

171) 「1851년 병산서원 통문」, 영남권역한국학자료센터; 이돈우, 『소정일록』, 영남권역한국학자료센터.

첫째 후손이 번성한 가계에서 많은 급제자가 배출되었다. 문과 응시 자격인 남자 후손이 많은 가계에서 문과급제자가 많다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다. 하지만 후손이 적은 가계에서 문과급제자가 적게 배출되었다. 단성의 안동 권씨의 경우 거주지의 계속적인 이동으로 가문 결속력이 약화되고 심지어 가계가 소멸되었다. 춘양의 진주강씨와 이황의 차자인 순도계의 경우 후손이 없어 양자를 들여서 가계를 유지하였다. 이후 이들 가계는 문과급제자를 많이 배출하지 못한다. 하지만 의성김씨 璣 - 克一계의 경우 양자를 들인 金是樞이 많은 자손을 낳으면서 문과급제자가 많이 배출되었다.

둘째 종손에게서 문과급제자가 배출되지 않았다. 15·16세기에는 학문이 뛰어나고 문과에 급제한 인물들이 중앙정계에 진출하여 관료 생활을 경험하고 이후 처향이나 고향으로 돌아온다. 후에 후손들은 이러한 조상을 중심으로 문중을 형성한다. 문중이 형성되기 시작하면서 종손의 권위가 증가한다. 종손은 위토와 임야를 장악하였으며 서원·가묘 등의 소유자가 되었다. 또한 시조의 가계를 잇고 제사를 주관하였고, 대외적으로는 문중의 대표로 손님을 접대하였다.¹⁷²⁾ 하지만 17~18세기 봉당으로 인해 급격한 정치적 변화가 이루어지면서 많은 인물들이 귀양을 가거나 탄핵을 받았다. 특히 18세기 무신란으로 인해 영남 남인의 영향력이 감소하면서 영남 출신 인물의 관직 생활은 더욱 어려워졌으며, 종가를 운영하는 종손은 향촌사회에서 가문을 유지시키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하지만 여주이씨 무침당파와 같이 예외의 경우도 존재하였다. 이는 당시 향촌사회의 주도권을 가지고 적파와 서파가 치열하게 대립했다는 상황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19세기 경주의 여주이씨는 많은 인원들이 문과에 급제하여 향촌 사회의 지배권을 강화하고 직계 가계의 조상들을 추숭함으로써 서파와의 갈등에서 우위를 차지하고자 노력하였다.

셋째 영남 남인의 대표적인 유학자들의 후손이 많이 급제하였다. 진성이씨 李滉, 여주이씨 李彦迪, 인동장씨 張顯光, 의성김씨 金誠一, 안동권씨 權穰의 후손들을 중심으로 19세기가 되면 급제자들이 많이 배출되었다. 물론 노론계열의 진주강씨도 존재하였지만 姜恪계의 경우 소론의 입장에서 영남의 여러 가문과 활발히 교류하였다. 이들은 가학적 전통을 유지하였으며 자신들의 조상을 강조함으로써 중앙정계에서 자신의 권위를 강화하였다. 그 대표적인 예가 진성이씨 李晩耆가 홍문관에 임명되자 고종에게 『성학십도』의 병풍을 바친 일이다.¹⁷³⁾

172) 조강희, 「영남의 성장과 사회화 과정: 사회변화와 종손의 역할」, 『민족문화논총』 22, 2000.

173) 『고종실록』 5권, 고종 5년8월18일 입술 기사.

이러한 모습은 선조대 李滉이 『성학십도』를 만들어 올린 모습을 재현한 것이다.¹⁷⁴⁾ 영조대에는 李世澤이 李滉이 편찬한 『聖賢道學淵源』를 영조에게 바쳤으며 영조는 『성학십도』에 서문을 親製하고 도산서원에서 致祭하였다.¹⁷⁵⁾ 이후 『성학십도』의 구판이 사라졌다가 李晚蒼가 『성학십도』가 그려진 병풍을 바쳤다. 유명한 선조를 부각시키고 자신들의 권위를 강화하는 것은 18세기까지 중앙정계에서 소외를 받다가 19세기 중앙정계에 진출한 영남 남인들이 생존하기 위한 확실한 방법 중 하나였다. 이후 이들 가계를 중심으로 조상과 관련된 계를 부활시키고 문집을 간행하는 등 조상 추숭이 많이 이루어졌다.

한편 18세기 무신란 이후 영남 남인의 영향력이 약화되면서 노론의 지원을 받은 신출노론 세력이 등장하여 향촌 사회에서 치열하게 대립하게 된다. 다음 절에서는 이 때 성장한 신출노론 세력과 그들이 문과급제를 통해 권력을 재생산 했는지를 살펴보겠다.

4. 18·19세기 영남지역 신출노론의 등장과 한계

1) 18세기 노론 집권과 영남지역 신출노론의 등장¹⁷⁶⁾

16세기 영남사림파가 중앙 정계에 진출하여 자신들의 세력을 확대하고 李滉과 曹植학과를 중심으로 많은 인물들이 문과에 급제하였다. 17세기가 되면 붕당정치로 인해 각 당파별 학통의 차별성을 강조하게 되었고, 집권명분을 획득하기 위해 명분논쟁이 활발하게 벌였다.¹⁷⁷⁾ 특히 영남의 경우 퇴계학맥을 이어받아 여러 학단의 성장이 눈에 띄었다. 하지만 1694년 갑술환국 이후 이러한 균형이 깨지고 점차 노론 중심으로 정국이 주도되기 시작하였고, 이 과정에서 영남의 영향력이 점차 감소한다.

18세기 영남지역 급제자 수를 살펴보면 <표IV-15>와 같다.

174) 『선조실록』 202권, 선조39년8월23일 기미 기사.

175) 『영조실록』 86권, 영조31년12월14일 계축 기사.

176) 이수건의 경우 갑술환국 이후 영남에 등장한 노론세력을 설명하여 ‘신생노론’, ‘신출노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신출노론은 노론이 향촌사회의 분열체에 따라 출현된 것으로 이해 되었으며, 최근에는 학통과 혼맥에 의한 자연스러운 전향에 의해 노론화된 가문으로 확대한 연구도 나왔다. 여기서는 학통과 혼맥은 물론 노론으로 변절한 인물을 포함한 의미로 신출노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이수건, 『영남학파의 형성과 전개』, 일조각, 1995; 이연숙, 「17~18세기 영남지역 노론의 동향」, 『실학사상연구』 23, 2012).

177) 설석규, 「조선시대 유생의 문묘종사 운동과 그 성격」, 『조선사연구』 3, 1994, 149~151쪽.

<표IV-15> 16~18세기 영남지역 문과급제자 수의 변화

시기 분류	16세기				17세기				18세기			계(명)
	중종	명종	선조	광해	인조	효종	현종	숙종	경종	영조	정조	
전체	899	472	1,112	494	762	245	400	1,430	183	2,123	777	10,848
영남 (%)	130 (14.5)	64 (13.6)	129 (11.6)	57 (11.5)	119 (15.6)	33 (13.5)	49 (12.3)	145 (10.1)	17 (9.3)	166 (7.8)	97 (12.5)	1,264 (11.6)

<표IV-15>에 의하면 광해군대 영남지역의 급제자 비중이 감소하다가 인조대에 다시 증가한다. 이후 효종대를 기준으로 감소하다가 18세기가 되면 영남 문과급제자가 전체 급제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 아래로 낮아지고 영조대에 가장 최저의 비중을 차지한다. 18세기에 영남 남인의 영향력이 감소한 것이다.

갑술환국 이후 명분논쟁의 계기가 된 것은 1709년(숙종 35) 崔錫鼎이 저술한 『예기유편』을 둘러싼 갈등이었다. 『예기유편』은 崔錫鼎이 『예기』를 분류·편찬한 책으로 『중용』, 『대학』, 『효경』 등 다양한 경전을 편입해 주석을 붙여 놓았다. 하지만 이것이 朱熹의 뜻을 어기는 것이라고 하며 노론의 공격을 받게 되고 결국 崔錫鼎이 정계에 물러나 소론의 영향력이 감소한다.¹⁷⁸⁾ 崔錫鼎은 소론의 대표적인 정치가로 李慶億의 사위였다. 李慶億의 4대조 李福은 金宗直·金宏弼의 문인이었다. 崔錫鼎의 당평론은 남인을 등용하는 朴世采의 변통론을 확대하여 서얼의 허통에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다.¹⁷⁹⁾ 안동의 향리인 權喜學의 경우 경상도관찰사였던 崔錫鼎을 따라 상경하여 학문을 배우고 중국을 다녀오며 사족으로 성장한다.¹⁸⁰⁾ 그러나 崔錫鼎의 실각은 이후 영남 남인이 중앙정계에 진출하기 어려워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후 정치적 우위를 점하게 된 노론은 金長生·宋時烈·宋浚吉의 문묘종사를 요청하는 상소를 올린다.¹⁸¹⁾ 갑술환국 이전에도 金長生·宋浚吉의 문묘종사운동이 일어났지만 영남 유생들의 집단적인 반발이 일어나자 중앙정계에서 공론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하였다.¹⁸²⁾ 하지만 노론이 정권을 장악한 후

178) 양기정, 「『예기유편』의 輯판과 火書에 관한 연구」, 『민족문화』 39, 2012.

179) 김용흠, 「숙종대 소론 변통론의 계통과 당평론」, 『한국사상사학』 32, 2009, 239~241쪽.

180) 김인호, 「18~19세기 안동향리 권희학가의 사패소송」, 안동대 석사학위논문, 2012.

181) 설석규, 「조선시대 유생의 문묘종사 운동과 그 성격」, 『조선사연구』 3, 1994; 한기범, 「우암 송시열에 대한 후대인의 추승과 평가」, 『한국사상과 문화』 42, 2008; 이근호, 「18세기 전반 송시열 문묘종사 논란의 정치적 의의」, 『한국사학보』 62, 2016.

182) 『숙종실록』 13권, 숙종 8년 4월 22일 기해, “金長生有功世教 膾炙無愧 而從祀重典也 謀之必廣 處之必審 然後事體尤重 姑俟他日 恐合重祀典之道; 金長生從祀 宜待士論之僉同; 至於文

1716년(숙종 42) 교서관에서 宋時烈이 엮은 『주자대전차의』를 간행하였으며,¹⁸³⁾ 宋時烈을 제향한 화양서원과 宋浚吉을 제향한 흥암서원에도 御書한 편액이 내려졌다.¹⁸⁴⁾ 1717년(숙종 43)에는 金長生의 문묘 종사가 결정되었다.¹⁸⁵⁾

노론세력은 兩宋 종사 운동의 지지기반과 활동 세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론계 인물의 서원과 원우 건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특히 金長生·宋時烈·宋浚吉 종사에 적극적으로 반대한 영남지역에 노론계 서원을 건립하였다. 숙종대 영남에 건립된 서원·원우를 살펴보면 <표IV-16>과 같다.

<표IV-16> 영남에 건립된 노론계 서원과 원우 현황

지역	서원명	건립년도	배향인물	비고
경주	인산서원	숙종 45(1719)	송시열	1764년 사액, 1868년 훼손
상주	흥암서원	숙종 28(1702)	송준길	1705년 사액
	운계서원	숙종 37(1711)	신석열	1868년 훼손
	서산서원	숙종 39(1713)	김상용, 김상헌	1868년 훼손
청송	병암서원	숙종 28(1702)	이이, 김장생	1702년 사액, 1868년 훼손
안의	성천서원	숙종 29(1703)	송준길, 이숙	1868년 훼손
永川	상덕사		윤명운	현감 재직 후 건립
거제	반곡서원	숙종 31(1705)	송시열	1718년 추가배향, 1868년 훼손
장기	죽림서원	숙종 33(1707)	송시열	1868년 훼손
성주	노강서원	숙종 38(1712)	송시열	1868년 훼손
대구	용강서원	숙종 22(1696)	허득량, 허복량	1868년 훼손
	상덕사	숙종 8(1682)	이숙, 유척기	관찰사 재직 후 건립
인동	현암사	숙종 18(1692)	장잠	

<표IV-16>에 의하면 숙종대 건립된 노론계 서원·원우는 총 13개였다. 우도는 상주 3개, 안의·거제·성주 각1개, 좌도는 대구 2개, 경주·청송·永川·장기·인동 각 1개로 우·좌도에 상관없이 다양한 지역에서 서원·사우가 건립되었다. 이 지역들은 宋時烈이 유배지이거나 왕래한 지역 또는 노론계 인물이 목민관으로 임명된 지역이었다. 13개의 수치는 숙종대 전국에 건립된 노론계 서원·원우(50개)의 26%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노론이 영남 남인들을 포섭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것을 의미한다.¹⁸⁶⁾

한편 兩宋 종사 운동에 대응하여 경기·황해·충청의 소론계 유생을 중심

元公學問道德之高明 予所洞知 而第念 文廟從享 事體至重 今不可率爾陞配 大臣收議中 姑俟後日云者 亦甚得宜”

183) 『숙종실록』 58권, 숙종 42년 9월 24일 경진.

184) 『숙종실록』 58권, 숙종 42년 10월 14일 경자.

185) 『숙종실록』 59권, 숙종 43년 2월 29일 갑인.

186) 설석규, 「숙종조 원우동향과 봉당의 사회적 기반」, 『국사관논총』 34, 1992, 144~145쪽.

으로 宋時烈·宋浚吉 외에도 朴世采를 포함하여 3인의 종사를 청원하였다. 朴世采에 대한 주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程子の 가르침인 '敬'자를 공부하는 것을 제일의 뜻으로 삼아 理氣와 心性的의 오묘함과 公私·義利의 구분과 王道·霸道, 성실·거짓의 구분과 고금의 常禮·變禮를 모두 원류를 따져 밝혔는데, 드러난 데에서 은미한 데로 이르게 했습니다. 禮學이 向方을 모르는 것을 민망히 여겨 『教法要旨』를 저술하였고, 箕聖이 남긴 학문이 인멸되는 것을 두려워하여 『範學全編』을 저술하였고, 동방의 道統이 흑시라도 문란해질까 염려하여 『東儒師友錄』을 지었고, 후세의 師道가 크게 무너질까 걱정하여 『師道考證』을 지었고, 『心學至訣』과 『六禮疑輯』과 같은 책은 규모가 이미 방대하고 조목 또한 세밀하였으므로, 西山의 『心經』과 朱子の 『通解』 같은 책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을 만큼 훌륭합니다. 그 밖에 『二書要解』·『家語外編』·『春秋補編』·『聖賢遺模』·『淵源續錄』·『稽治錄』·『論敬要旨』 등과 같은 책은 경전의 뜻을 드러내기도 하고 斯文을 옹호하기도 하고 학문하는 차례를 논하기도 하고 至治를 이루는 데에 중요한 일을 말하기도 하는 등 지난 자취를 잇고 앞길을 열어놓은 공적은 실로 우리 동방의 諸儒로서는 하지 못했던 점입니다.¹⁸⁷⁾

위에서 보듯 朴世采는 程子の 가르침을 공부하고 다양한 서적을 지은 것을 근거 삼아 眞德秀·朱子에 뒤지지 않는 인물이라고 주장하였다. 반대로 宋時烈·宋浚吉의 행적은 형식적으로 제시하여 朴世采를 더욱 강조하고 있었다. 이후 노·소론의 문묘종사운동은 朴世采의 참여 여부로 인해 많은 갈등이 발생하였다.

경종대에는 노론세력이 정국을 주도하였으며 노론 4대신[金昌集, 李頤命, 李健命, 趙泰采]의 주도로 인원왕후의 하교를 받아 연잉군을 왕세제로 책봉하였다. 또한 왕세제의 대리청정을 주장하다가 소론의 공세를 받아 4대신은 귀양을 가서 사사된다. 이후 소론의 영향력이 증대되고 宋時烈의 문묘종사 논의가 감소된다. 또한 도봉서원에서 宋時烈의 출향이 이루어졌다.¹⁸⁸⁾

영조가 즉위하면서 다시 노론이 정국을 주도하게 된다. 초기에 노론은 소론에 대한 공격에 집중하다가 이후 노론 정권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1725년 다시 宋時烈이 도봉서원에 복향되었으며 노론 4대신을 제향하는 서원이 건립되었다.¹⁸⁹⁾ 또한 1735년(영조 11) 관학유생 洪鳳漢의 연명상소를 시작으로 兩宋에 대한 문묘종사 운동이 활발히 일어난다.¹⁹⁰⁾ 1735

187) 『숙종실록』 61권, 숙종 44년 2월 26일 을사.

188) 조준호, 「송시열의 도봉서원 입향논쟁과 정치적 성격」, 『조선시대사학보』 23, 2002.

189) 『영조실록』 3권, 영조 1년 1월 11일 경술; 『영조실록』 4권, 영조 1년 3월 2일 경자.

~1736년 2년간에 약 20건 이상의 兩宋 문묘종사 요청 상소가 제출되었다.¹⁹¹⁾ 이때 상소를 주도한 세력이 관학 유생과 경상도 유생이었다.¹⁹²⁾

노론은 성균관을 장악하여 泮村에 소청을 설치하고 捲堂을 통해 공론을 주도하였다. 영남지역의 경우 영남 남인 세력을 분열시키고 신출노론이 활동할 장소를 마련하기 위해 숙종대부터 노론계 서원·원우를 건립하였으며, 영조대에 兩宋의 문묘종사에 대한 연합상소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金長生의 문묘종사 때는 공론을 형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자 노론 세력이 연합소라는 방법을 이용해 자신들의 의견을 개진한 것이다.

이러한 노론의 연합상소에 반대하여 영남의 유생을 중심으로 4천여 명의 대규모 상소가 일어났다. 이 때 반대 상소를 주도한 李麟至는 遠配되었지만¹⁹³⁾ 兩宋 문묘종사는 영남의 공론에 의해 저지당한다. 이후에도 노론에 의한 문묘종사 운동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영조는 掌議·疏頭를 停擧시키고 문묘종사 청원 상소를 봉입하는 승지는 推考하였다. 또한 숙종 40년 이후 私的으로 건립된 모든 원우를 褫絶하도록 명령하였다. 이와 같은 국왕의 개입으로 종사운동은 잠시 수그러들었다. 하지만 영조 중반에 노론 준론의 신임의리가 강조되면서 노론 4대신의 신원이 이루어졌고 영조 22년에는 소론의 탕평 인물인 趙泰耆, 崔錫恒의 관직이 삭탈된다. 특히 영조 25년에는 세자의 대리청정이 이루어지면서 국왕 중심의 탕평정치를 지지한 노론 준론의 의견이 강화되었다.¹⁹⁴⁾ 이러한 정치적 변동으로 인해 영조 20년 문묘종사 운동이 다시 전개되었고 영조 32년 兩宋의 문묘종사가 이루어졌다.

18세기에는 노론 중심으로 정국이 주도되어 갔다. 노론 세력들은 자신들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론의 대표적인 인물인 兩宋을 문묘에 종사시키고자 노력하였다. 그 대표적인 방법이 상소 활동이었으며 영남의 신출노론들도 적

190) 『영조실록』 40권, 영조 11년 8월 18일 갑신.

191) 이근호, 「18세기 전반 송시열 문묘종사 논란의 정치적 의의」, 『한국사학보』 62, 2016, 153쪽.

192) 설석규, 「조선시대 유생의 문묘종사 운동과 그 성격」, 『조선사연구』 3, 1994, 154~155쪽. <양송의 문묘종사 청액 상소 횡수>

	관학	경기	경상	충청	전라	황해	강원	평안	함경	연합	불명	계
숙종			1		2					2		5
경종	1	1										2
영조	27	4	21	11	10	5	1		5	16	5	105
계	28	5	22	11	12	5	1		5	18	5	112

193) 『영조실록』 41권, 영조 12년 3월 12일 병오.

194) 최성환, 「영조대 후반의 탕평정국과 노론 청론의 분화」, 『역사와 현실』 53, 2004.

극 참여하였다. 숙종~영조시기 兩宋 상소 활동에 참여했으며 문과에도 급제한 영남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IV-17> 양송 문묘종사 운동에 참여한 영남지역 문과급제자

번호	성명	본관	거주지	문과급제시기
1	朴崇古	반남	榮川	1705년(숙종 31) 식년시
2	朴敏古	반남	榮川	1715년(숙종 41) 식년시
3	金堊	예안	榮川	1738년(영조 14) 식년시
4	李漢龍	전주	함창	1777년(정조 1) 증광시
5	蔡命寶	인천	함창	1726년(영조 2) 식년시
6	南躋	의령	함창	1727년(영조 3) 증광시
7	李益海	덕수	선산	1773년(영조 49) 증광시
8	朴天行	밀양	선산	1774년(영조 50) 정시
9	金聲振	선산	선산	1801년(순조 1) 정시
10	許錫	양천	금산	1717년(숙종 43) 식년시
11	朴守謹	충주	금산	1725년(영조 1) 증광시
12	朴時泰	함양	영해	1729년(영조 5) 식년시
13	田光玉	행주	영해	1747년(영조 23) 식년시
14	南溟翮	영양	안동	1738년(영조 14) 식년시
15	姜潤	진주	안동	1747년(영조 23) 식년시
16	全光濟	용궁	용궁	1743년(영조 19) 정시
17	李穰	여주	용궁	1754년(영조 30) 증광시
18	趙重稷	함안	대구	1727년(영조 3) 증광시
19	禹洪迪	단양	대구	1729년(영조 5) 식년시
20	許鐔	김해	진주	1733년(영조 9) 식년시
21	河必淸	진양	진주	1738년(영조 14) 식년시
22	金壽聃	순천	인동	1687년(숙종 13) 식년시
23	李柱天	벽진	성주	1691년(숙종 17) 증광시
24	李錫禧	전주	고령	1735년(영조 11) 식년시
25	權相龍	안동	문경	1738년(영조 14) 식년시
26	宋心基	야로	순흥	1741년(영조 17) 식년시
27	南濟萬	영양	경주	1741년(영조 17) 식년시

숙종~영조대 양송 문묘종사 운동에 참여하고 문과에 급제한 인물은 총 27명으로 성관을 살펴보면 진주강·안동권·순천김·예안김·선산김·의령남·충주박·함양박·밀양박·야로송·벽진이·여주이·덕수이·단양우·행주전·용궁전·함안조·인천채·진양하·김해허·양천허 각 1명, 영양남·반남박·전주이 각 2명으로 특정 성관이 주도하기보다는 다양한 성관에서 兩宋 문묘종사 운동에 참여하였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함창·榮川·선산 각 3명, 금산·대구·안동·영해·용궁·진주 각 2명, 인동·순흥·성주·문경·고령·경주 각 1명으로 함창·선산·금산과 같은 상주·성주권, 안동·영해·용궁과 같은 안동권의 인물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다. 특히 당시 공론을 주도하던 안동에 대

한 노론 분열책이 어느 정도 성공적이었음을 의미한다.

문과급제자 외에도 자신이 문묘종사운동에 참여하고 그 아들이 문과에 급제한 경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IV-18> 양송 문묘종사 운동에 참여한 영남 출신 인물

번호	성명	본관	거주지	비고
1	姜濼	진주	선산	子 姜棐 급제
2	金裕壽	선산	선산	子 金夢華 급제
3	金埴	순천	선산	子 金聖欽 급제
4	李福海	덕수	선산	子 李敬彬 급제
5	李觀海	덕수	선산	子 李宅彬 급제
6	崔光岳	전주	선산	子 崔龍羽 급제
7	洪有圭	남양	상주	子 洪(圭+奭)급제
8	河應洛	진양	상주	子 河大淵 급제
9	申光周	평산	상주	子 申聖宅 급제
10	金國采	의성	안동	子 金履常 급제
11	金始弘	의성	안동	子 金虎運 급제
12	金汝鎔	의성	안동	子 金景沈 급제
13	金煜	영천	풍기	子 金龍基 급제
14	李尙白	전주	풍기	子 李仁東 급제
15	李東英	광주	칠곡	子 李萬運 급제
16	李恒春	벽진	칠곡	子 李泰宇 급제
17	南國衡	영양	경주	子 南濟萬 급제
18	李雲培	경주	경주	子 李鎭宅 급제
19	權澣	안동	문경	子 權相龍 급제
20	李埰	전주	고령	子 李錫禧 급제
21	鄭師沂	영일	금산	子 鄭謙 급제
22	朴成德	함양	예천	子 朴重慶 급제
23	朴泰來	반남	榮川	子 朴弘僞 급제
24	白命聃	대흥	영해	子 白思潤 급제
25	李宜明	영천	의성	子 李英發 급제
26	李世翊	진성	예안	子 李龜雲 급제
27	鄭珣	동래	용궁	子 鄭重岱 급제
28	孫胤初	밀양	창녕	子 孫錫謨 급제
29	尹誠	영천	永川	子 尹天覺 급제
30	權欽	안동	의령	子 權宇亨 급제
31	金重器	선산	거창	子 金千鑑 급제
32	朴就章	밀양	진주	子 朴泰彦 급제
33	朴來吉	고성	고성	子 朴廷儉 급제

<표IV-18>에 의하면 총 33명의 인원이 확인되었는데 진주강·영천김·순천김·영양남·밀양박·함양박·고성박·반남박·대흥백·밀양손·평산신·영천윤·광주이·영천이·진성이·벽진이·경주이·동래정·영일정·전주최·남양홍·진양하 각 1명, 덕수이·전주이·선산김·안동권 각 2명, 의성김 3명이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선산 6명, 상주·안동 각 3명, 풍기·칠곡·경주 각 2명, 창녕·진주·의성·의령·용궁·예천·예안·영해·永川·榮川·문경·금산·고성·고령·거창 각 1명이다. 선산, 상주, 안동을 중심으로 많은 인물이 兩宋 문묘종사 운동에 참여하였다.

노론의 종사운동에 참여하고 문과에 급제한 인원을 살펴보면 특정 성관보다는 다양한 성관에서 많은 인원들이 참여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지역별로 살펴보면 상주권·안동권에 많은 인원들이 있었으며 특히 선산·상주에 인원이 집중되고 있었다. 상주는 경상도와 충청도의 경계에 위치하였으며 宋時烈 문인이 많은 지역이었다. 선산은 상주에 근접한 지역으로 李珥의 동생인 李瑀 가문이 세거한 지역이었다.¹⁹⁵⁾ 또한 남인세력이 강성하였던 안동에서도 兩宋 문묘종사에 참여한 인물들을 많이 확인되었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숙종대에 영남에서 노론계 서원·사우가 많이 지어졌으며 영조대에도 노론계 서원·사우 건립이 지속되었다. 특히 1736년(영조 12) 노론이 兩宋 문묘종사를 진행하다가 영남 유생들의 대규모 반발을 받게 되자 노론은 영남의 공론을 분열시키기 위해 안동에 노론계 서원을 건립하고자 노력하였다.¹⁹⁶⁾ 안동은 퇴계학의 중심지로 많은 문과급제자가 배출되었으며, 영남의 사론을 주도한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경상도 지역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다.¹⁹⁷⁾ 노론의 입장에서는 안동에 노론 세력을 성장시켜 영남의 공론을 분열시킬 필요가 있었다.

김상헌서원은 1721년 처음 노론의 주도로 안동에 건립하고자 하였으나 남인 유생의 반발로 실패한다. 하지만 노론의 집권이 강화되고 1738년 경상도관찰사로 兪拓基, 안동부사로 魚有龍이 부임하면서 서원건립이 본격적으로 진행

195) 이연숙, 「17~18세기 영남지역 노론의 동향」, 『실학사상연구』 23, 2012, 92~93쪽.

196) 김상헌서원의 건립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그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정만조, 「영조14년의 안동 김상헌서원 건립시비」, 『한국학연구』 1, 1982; 김형수, 「1738년(영조 14년) 안동 학동서원의 치폐와 지방관의 역할」, 『영남학』 17, 2010; 정진영, 「18세기 서원건립을 둘러싼 향촌사회의 갈등관계」, 『조선시대사학보』 72, 2015; 정진영, 「18세기 영남 노론의 존재형태」, 『한국사연구』 171, 2015.

197) 심수철·오덕훈, 「법성일기」 『국역 조선후기 영남사림일기』, 한국국학진흥원, 2008, “鄙等切嘗問 嶺中士論 必出於貴鄉 盖以貴鄉 卽古所稱鄒魯 而文足獻徵故也”

되었다. 兪拓基는 노론 준론의 대표적인 인물로 당시 영조의 신임을 받고 있었으며 세자의 보호를 부탁받은 인물이었다.¹⁹⁸⁾ 魚有龍은 趙泰耆를 탄핵하면서 노론 3대 대간으로 불린 인물이다. 이에 안동향교 유생들이 집단적으로 김상헌서원 건립 반대 呈訴를 올렸으나 관아에서 반응이 없자 직접 成造所를 습격하고 인부를 동원하여 사당건물을 훼손하였다. 이 일이 조정에 보고되자 사실상 서원 건립을 철회한다는 전교가 내려오고 문제가 해결되는 듯 보였다. 하지만 서원 훼손에 대해 노론이 반발하고 결국 영조는 조정의 허락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상도 관찰사 兪拓基와 안동 부사 魚有龍를 파직시켰으며, 서원을 훼손한 주모자를 멀리 귀양보내는 등 중립적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하였다.¹⁹⁹⁾ 이후 김상헌서원은 원래 세우려던 법성동이 아닌 金尙憲이 은거한 서미동에 사당을 세우며 사건은 마무리 된다. 김상헌서원 건립은 비록 실패하였지만 노론이 영남 남인의 중심지에 자신들의 세력을 형성하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서원건립은 관료들에 의해 주도되었지만 이를 지원하는 신출노론 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 신출노론 세력은 삼안[향안, 교안, 원안]에 포함된 인물도 있었으며 문과에 급제한 인물도 존재하였다.²⁰⁰⁾

兩宋 문묘종사 운동과 영남 노론계 서원·사우 건립에 참여한 영남 신출노론의 성관은 총 50종으로 거창신, 경주이, 고성박, 광주이, 김해허, 남양홍(당홍), 단양우, 대홍백, 덕수이, 동래정, 밀양박, 밀양손, 반남박, 벽진이, 선산김(선궁계), 선산김(추계), 순천김, 순흥안, 안동권, 안동김, 야로송, 양천허, 여주이, 영동김, 영양남, 영일정, 영천김, 영천윤, 영천이, 예안김, 용궁전, 의령남, 의성김, 인동장, 인천채, 재령이, 전주이, 전주최, 진성이, 진양하, 진주강, 창녕조, 충주박, 파평윤, 평산신, 풍산김, 함안조, 함양박, 합천이, 행주전 등 다양한 성관에서 참여하였다.

18세기 영남에는 노론의 입장을 대변하는 노론 세력이 형성되었다. 다음에는 위에서 제시된 신출노론 세력 중 兩宋 문묘종사 운동과 영남 노론계 서원·사우 건립에 참여한 가문과 그 가계의 모습을 살펴보겠다.

198) 최성환, 「영조대 후반의 탕평정국과 노론 청론의 분화」, 『역사와 현실』 53, 2004, 53쪽.

199) 청량산박물관, 『국역 무오일기』, 민속원, 2015, 139~140쪽.

200) 姜樂, 姜棟, 權得中, 金養根, 金宇淳, 安復駿, 安鍊石, 申(日+稷) 등의 인물들은 자신 또는 그의 아들이 문과에 급제한 인물이었다.

2) 영남지역 신출노론 급제자 가문

兩宋 문묘종사 운동과 영남 노론계 서원·사우 건립에 참여한 신출노론 중 문과에 급제한 인물은 총 74명이 확인되었다. 신출노론으로 문과급제자가 배출된 숙종~철종 시기 영남지역 문과급제자(730명)와 비교해 약 10.1%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18세기부터 문과급제자를 배출하기 시작한 성관은 고령신, 경주정, 고성박, 금산김, 성산김, 여양진, 울산이, 인동김, 인동유, 인천이, 천안김, 행주전, 거창신, 청송심, 여산송, 수안김, 한산이 총 17종으로 이 중 신출노론 문과급제자는 거창신, 고성박, 행주전 3종이었다. 고성의 고성박씨 중 朴來吉은 적개공신 朴植의 후손으로 영조 2년 3월 양송 문묘 청원에 참여하였으며,²⁰¹⁾ 그의 아들 朴廷儉은 1795년 문과에 급제하였는데 고성박씨 중 유일하게 문과에 급제한 인물이다. 행주전씨 중 영해의 田光玉은 영조 12년 3월 양송 문묘 청원에 참여하였으며,²⁰²⁾ 1747년 문과에 급제한다. 행주전씨 중 문과에 급제한 인물은 田光玉뿐이었다. 그는 양송 문묘 청원에 참여하였지만 퇴계학의 영향을 받은 南國翰, 南濟明 등 영양남씨 등과 교류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상황에 따라 다양한 입장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대다수는 이전에 문과급제자를 배출한 성관이였다. 즉 이전부터 노론과 혈연적·학문적으로 연관되어 있거나 후에 노론 세력으로 변절한 인물들이었다.

金尙憲 후손인 안동김씨[신안동]의 경우 18세기 1명, 19세기 2명이 문과에 급제하였다.²⁰³⁾ 이 중 金養根은 그의 아버지 金字淳과 함께 김상헌 사당 건립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으며 향촌 사회에서 영남 남인과 갈등을 일으켰다.

대체로 양근이 이 책자를 만든 것은 오로지 제사 때 술잔을 올리는 차례 때문입니다. ... 지난 숙종 임술년에 김씨들의 상소로 청한 것이 허락을 받아 잔 드리는 차례를 바꾸었었다가 그 뒤 8년 만에 신의 문중에서 맞서서 상소하여 해명한 결과 옛 규례를 다시 회복하였습니다. 영조 정해년에 김씨들이 또 상소하여 다투자 영조께서 그 글을 돌려주면서 예법을 엄격히 지켜 분쟁의 단서를 없애라는 하교를 하였고, 그 당시 연석에서 또 동시에 잔을 드린다면 선후의 구분이 저절로 없어질 것이라는 하교가 있었습니다. 이리하여 세 자리에 동시에 잔 드리는 규례가 시행되어 권씨와 김씨의 분쟁이 해소되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잔드리는 조치

201) 『승정원일기』 613책, 영조 2년 3월 26일 무오.

202) 『승정원일기』 821책, 영조 12년 3월 12일 병오.

203) 안동김씨는 크게 金方慶을 시조로 하는 상락김씨(구안동)와 金宣平을 시조로 하는 안동김씨(신안동)로 분류하였다. 이 두 성관은 안동이라는 본관은 같았으나 혈연적으로 다른 성관이였다. 특히 안동김씨는 상경하여 명문거족으로 성장하여 장동김씨라고 불리기도 하였다.

도 오히려 만족스럽지 못해 이겨보려는 마음이 점점 북받쳐 오르기 때문에 양근의 책자가 만들어진 것입니다.²⁰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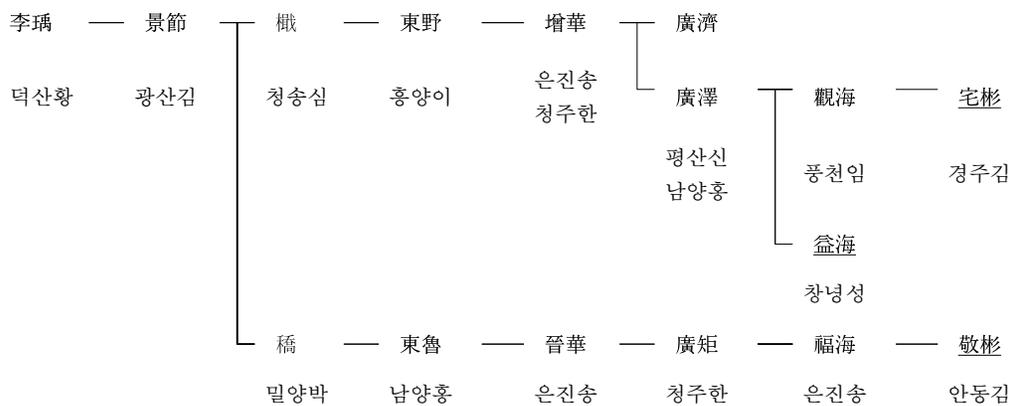
위의 내용은 金養根이 『태사묘사적』을 간행하여 權幸을 모함하자 안동권씨 후손들이 이에 반대하며 상소한 것이다. 18세기가 되면 金養根은 金尙憲은 물론 시조인 金宣平의 권위를 확보함으로써 향촌사회 내에서 권력을 강화하고자 노력하였다. 김상헌 서원 건립과 관련하여 일시적으로 노론세력과 손을 잡았지만 19세기 이후 養根의 가계에서는 문과급제자를 배출하지 못하였다.²⁰⁵⁾

신출노론으로 영남에서 문과급제자를 배출한 성관은 진주강(5명), 덕수이(3명), 평산신(2명), 순흥안(2명)으로 그들의 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덕수이씨

신출노론으로 문과에 급제한 덕수이씨는 총 3명으로 모두 선산에 거주하였다. 이 수치는 숙종~정조시기 영남전체 덕수이씨의 문과급제자(4명)의 75.0%의 비중을 차지한다. 그 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계도Ⅳ-14> 신출노론 덕수이씨 세계도



* 인명은 급제자를 나타낸다.
 * 인명 밑의 성관은 妻의 성관임 (이하 동일)

204) 『정조실록』 32권, 정조 15년 6월 22일 을축.
 205) 김우순의 처는 안동권씨 부호장공파의 權緝으로 남인계열이었고, 김양근의 처는 무신란을 진압한 李衡祥의 후손 李志松으로 소론 계열로 혼인을 통해 다른 당색의 인물들과 교류를 하고 있었다.

신출노론으로 문과에 급제한 인물들은 모두 李瑀의 가계였다. 李瑀는 李珮의 동생으로 선산 출신인 黃耆老의 사위가 되어 처향을 따라 이거한다. 李瑀는 서인 가문 출신이었지만 한강 鄭述와 같이 영남의 주요 유학자들과 활발히 교류하였다. 하지만 인조반정으로 서인의 영향력이 강해지자 일부 인물들이 서인에 접근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선산의 덕수이씨는 尙州圈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었다.²⁰⁶⁾ 李瑀의 아들 李景節은 서인인 沈光世의 딸과 혼인하였으며 광해군대 폐모론을 반대하고 병자호란 때 의병을 일으켰다. 이후 李景節의 후손을 중심으로 문과급제자가 배출되었다.

李觀海는 양송 문묘종사 청원에 참여하였고²⁰⁷⁾ 풍천임씨 가문과 혼인을 하였다. 그의 아들 李宅彬은 1803년 문과에 급제하였으며 김상헌의 사당인 서간사 건립 상소를 할 때 製疏로 참여하였다.²⁰⁸⁾ 李益海는 1773년 문과에 급제하였으며 양송 문묘종사 청원에 참여하였고²⁰⁹⁾ 李益海의 사촌인 李福海는 宋時烈의 문묘종사 운동에 참여하였다.²¹⁰⁾ 덕수이씨의 혼반관계를 살펴보면 평산 신씨, 창녕성씨, 은진송씨 등 노론의 대표적인 가문들과 중첩적으로 혼인하고 있었다.

선산의 덕수이씨는 원래 서인 가문이었지만 영남에 이거하면서 서인세력 뿐만 아니라 曹植, 鄭述 학파와 교류하였다. 하지만 인조반정 이후 남명학파가 약화되면서 많은 가문들이 노론으로 변화를 꾀하였고 이에 따라 덕수이씨의 영향력도 자연적으로 강화되었다.

(2) 진주강씨

진주강씨 급제자 중 신출노론인 인물은 총 5명으로 거주지는 안동 4명, 선산 1명이었다. 숙종~고종대까지 진주강씨 영남 전체 44명 중 11.4%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지역별로 보면 대다수가 안동 출신으로 이 가계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6) 이연숙, 「17~18세기 영남지역 노론의 동향」, 『실학사상연구』 23, 2012, 92~93쪽.

207) 『승정원일기』 815책, 영조11년 12월 18일 계미; 『승정원일기』 832책, 영조12년 8월 20일 신사.

208) 『승정원일기』 1596책, 정조10년 2월 22일 병신.

209) 『승정원일기』 1111책, 영조30년 9월 6일 임오.

210) 『승정원일기』 584책, 영조1년 1월 11일 경술; 『승정원일기』 807책, 영조11년 8월 18일 갑신; 『승정원일기』 815책, 영조11년 12월 18일 계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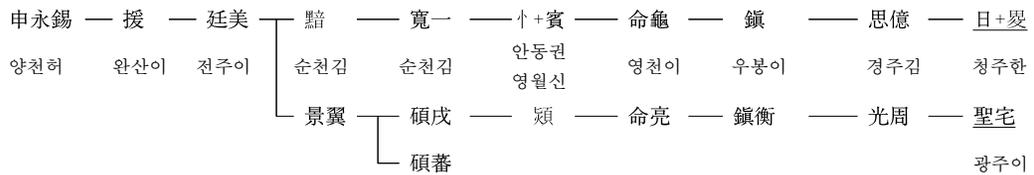
지역의 대표적인 사족인 진성이씨(李世翁)·안동권씨(權玉+休) 등 다양한 인물들과 혼반을 맺었다. 이는 진주강씨가 정치적으로는 노론의 입장에 있었지만 영남 남인과도 교유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姜鍵의 손자인 姜璠樞의 경우 郭鍾錫의 문하에서 수학하였으며, 姜(道/木)의 경우 李象靖의 문인이었다.²¹⁶⁾

선산의 姜栳는 1774년 문과에 급제하고 1836년 순원왕후의 수렴청정을 비판하다가 추자도로 귀양간다. 그의 아버지 姜灑의 경우 영조 12년 8월 송시열 문묘종사 청원에 참여하였으나, 金宏弼의 제자인 鄭鵬을 선산 금오서원에 추향하는 상소에도 참여하는 등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였다.²¹⁷⁾ 姜栳는 金元行의 문하였으며, 어머니는 양송 문묘종사 운동에 참여한 평산신씨 申光周의 딸이었다. 그의 아들 姜時煥 또한 문과에 급제하였고 처는 평산신씨 申曠의 딸이었다.

(3) 평산신씨

평산신씨 신출노론은 총 2명으로 안동 1명, 상주 1명이었다. 숙종~고종시기 영남전체 평산신씨의 문과급제자(8명)과 비교했을 때 25.0%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신출노론 평산신씨는 申浩를 파조로 하는 사간공파의 후손이었다. 특히 浩-敬源-祐-永錫계의 인물이었다. 그들의 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계도IV-16> 신출노론 평산신씨 세계도



申永錫의 후손인 申寬一은 순천김씨 金霽의 딸과 혼인하였고 광해군대에 영창대군을 죽인 일이 인륜을 무너뜨린다고 생각하여 벼슬을 버리고 안동 구담에 세거한다.²¹⁸⁾ 寬一의 손자 命龜는 노론 계열로 우의정을 지낸 尹趾完의

216) 강도는 裊綺의 딸과 혼인을 맺었는데 裊綺의 아들 裊相益은 1804년 문과에 급제하였으며 裊相益은 裊相說의 문인이다. 배상열은 이상정의 문인이었다.

217) 『승정원일기』 832책, 영조 12년 8월 20일 신사; 『승정원일기』 1282책, 영조 44년 7월 6일 신묘.

218) 송치규, 『강재집』 8, 「양신재 신공 묘지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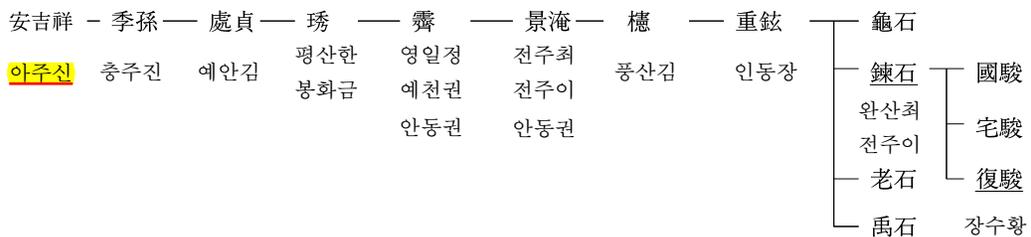
천거로 참봉에 임명된다. 申鎭은 金長生의 문하생인 李有謙의 딸과 혼인을 하였으며, 申思億은 金長生의 문인인 金一運의 딸과 혼인하였다. 申(日+巛)은 韓如海의 후손인 韓宇朝의 딸과 혼인하였다. 위에서 보듯 안동의 평산신씨는 혼반을 통해 영남지역에서 노론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申(日+巛)과 그의 형인 申嚇 또한 김상헌서원 건립에 참여하였다.

상주의 평산신씨 중 申碩蕃은 鄭經世의 문인이었다. 이후 宋時烈의 천거로 봉림대군 사부로 임명되었으며 宋浚吉의 천거로 정랑에 임명된다. 그의 후손인 申光周는 양송 문묘종사운동에 참여하였으며 그의 아들 申聖宅은 1750년 문과에 급제한다. 원래 상주는 퇴계학파의 영향을 받았지만 혼인으로 상주와 연을 맺은 宋浚吉의 영향과 노론계 수령의 임명 등으로 노론계 사족이 늘어났다. 더군다나 무신란 이후 향촌사회에서 노론과 남인간의 분열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실제로 상주 상주향교에는 당색에 따라 별도의 향안이 작성된다.²¹⁹⁾ 또한 영남지역 최초로 노론계 서원인 흥암서원이 건설되었다.²²⁰⁾

(4) 순흥안씨

순흥안씨 신출노론은 총 2명으로 안동 1명, 안강 1명이었다. 숙종~고종 시기 영남전체 순흥안씨의 문과급제자(5명)과 비교했을 때 40.0%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김상헌서원 건립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안동 순흥안씨의 경우 安永儒를 파조로 하는 추밀공파(1파)의 후손이었다. 그들의 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계도IV-17> 신출노론 순흥안씨 세계도



219) 1747년에 만들어진 『丁卯加錄』와 1749년 작성된 『己巳四月日錄』에는 각각 다른 인원이 기록되어 있다 (임운섭, 「상주 향안에 대한 일고찰」, 영남대 석사학위논문, 2003, 28쪽).

220) 유기선, 「17~18세기 상주향교의 청금유생」, 영남대 석사학위논문, 2012; 송석현, 「17세기 후반~18세기 초반 도남서원의 운영과 상주 사족의 동향」, 『조선시대사학보』 79, 2016.

安霽는 李滉의 문인으로 1580년 문과에 급제하고 가구 마을을 개척하였다. 이후 이 가계의 후손들을 가구안씨라고 불린다. 安景淹은 안동권씨 權春蘭의 아들인 權泰一의 딸과 혼인을 맺었으며, 安重鉉은 張顯光의 손자인 張詠과 혼인을 하였다. 초기 가구의 순흥안씨는 영남의 유력 가문과 혼인을 맺고 퇴계학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다.

하지만 安鍊石대부터 순흥안씨가 노론으로 전환하였다. 安鍊石은 李玄逸의 문인으로 1705년 문과에 급제하고 1722년 당시 왕세제인 영조를 지지하다가 소론의 공격을 받았다. 그가 노론으로 전향한 것은 무신란의 영향으로 보인다.²²¹⁾ 安鍊石은 노론으로 전향하였지만 남인과의 교류도 유지하고 있었다. 『죽암정칠노회도』에 의하면 安鍊石은 金侃·權斗經·李栽·羅學川·趙德鄰 등과 모임을 유지하고 있었다.²²²⁾ 1738년이 되면 安鍊石의 아들인 安宅駿은 김상헌서원 건립을 위해 도내에 통문을 썼으며,²²³⁾ 도회를 설치할 때 도유사로 安鍊石의 동생인 安禹石이 추대되었다.²²⁴⁾ 김상헌서원 건립에 참여한 순흥안씨의 혼반을 살펴보면 안동권씨, 평산신씨, 진주강씨, 청송심씨, 남양홍씨, 진보이씨, 창녕성씨와 같이 김상헌 서원 건립주도 세력이었다.²²⁵⁾ 원래 남인과 교류가 있던 순흥안씨 가문이 김상헌 서원 건립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자 영남 남인들은 집중적으로 가구안씨를 공격하였다.

근자에 안우석 숙질이 영똥한 뜻을 내어, 한편에서 분주히 논의를 일으키고 향교에서 황급히 의견을 모아서 향중의 노소들을 모아서 가부를 권점하였는데, 다소간 의견이 멀어서 사론이 합치되지 않았습니다.… 택준의 무리들이 온 고을을 원수같이 보고 자기들과 뜻이 다른 사람을 중상하였습니다. 지금 또 증거 없는 의견에 가탁하여 술책일 벌이고 다른 읍의 무리배들을 불러들여 고을의 중서들을 유혹하고 위협합니다.

안택준은 온 고을이 버린 사람으로 돌아갈 곳이 없는데 자신의 소굴을 만들어 더러운 장난을 치려는 계획이지 현인을 존송하는 뜻이 아닙니다.²²⁶⁾

첫 번째 글은 1738년 4월 25일 김상헌서원 건립을 반대하는 유생들이 모여

221) 『영조실록』 36권, 영조 9년 12월 25일 임신.

222) 김미영·박정혜, 『세전서화첩』, 민속원, 2012, 83쪽.

223) 심수철·오덕훈, 「범성일기」 『조선후기 영남사림일기』, 한국국학진흥원, 2008, 111쪽.

224) 청량산박물관, 『국역 무오일기』, 민속원, 2015, 51쪽.

225) 정진영, 「18세기 영남 노론의 존재형태」, 『한국사연구』 171, 2015, 217~218쪽.

226) 청량산박물관, 『국역 무오일기』, 민속원, 2015, 51쪽.

작성한 문文의 내용이며, 두 번째 글은 4월 26일 정문을 받은 부사가 마을의 사람을 불러서 대질하는 중 장로들이 진술한 내용 중 일부다. 이에 의하면 순흥안씨는 향중의 중론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의견을 주장하며 서원의 건립을 위해 외부의 인물들을 끌어들이었다고 비난하였다. 하지만 김상헌서원 건립 문제는 관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어서 남인의 생각대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결국 1738년 6월 26일에 서원 건립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모여 흉악한 무리를 죽이고 安宅駿을 毀家하자는 과격한 주장이 일어나기도 하였다.²²⁷⁾ 이후 김상헌서원이 건립되지 않았지만 신출노론 세력을 중심으로 향촌에서 계속적으로 정문과 통문을 돌리며 강제로 서원을 훼파한 유생들을 엄형으로 처리할 것을 주장하였다. 결국 1771년 서간서당을 세우고 서간사라는 편액을 하사하는 것으로 김상헌 서원건립 사건이 마무리 되었다. 서간서당 건립에도 安宅駿은 물론 安復駿이 참여하였다.

이밖에도 양송 문묘종사운동과 노론계 서원·사우 건립에 참여한 가문은 밀양박씨(진주 1명, 선산 1명)²²⁸⁾, 안동권씨(의령 1명, 문경 1명) 등이 있었다. 또한 대구의 옥천전씨, 대구의 인천채씨, 함창의 인천채씨(蔡命寶 급제), 봉화의 남양홍씨, 인동의 인동장씨, 성주 창령성씨 등이 영남의 대표적인 노론 가문이었는데²²⁹⁾ 함양의 인천채씨를 제외하고는 18~19세기에 문과급제자가 배출되지 않았다.

18세기가 되면 노론의 일당집권이 강화되면서 정권장악의 정당성을 위해 노론계 인물의 문묘 종사에 힘을 기울이게 된다. 초기에는 일부 유생들이 상소를 통해 의견을 개진하였지만 영남 남인의 대규모 연명소에 의해 번번이 그들의 주장이 좌절된다. 이에 노론은 전국에 노론계 사원과 사우를 건립하여 영남의 노론세력을 형성하고 영남 남인의 공론을 분열시키고자 노력하였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영남지역에서도 집중적으로 노론계 서원과 사우가 건립되

227) 심수철·오덕훈, 「법성일기」, 『조선후기 영남사림일기』, 한국국학진흥원, 2008, 132쪽.

228) 비록 18세기에 문과급제자를 배출하지 못했지만 청도의 밀양박씨는 대표적인 신출노론 가문 중 하나였다. 朴陽復은 이이의 문하였으며, 양북의 손자인 朴宜章은 김장생의 문인, 의장의 손자인 朴太古는 거제에 귀양간 송시열을 방문하여 그의 문하가 되었다. 이 가문은 양송 문묘종사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229) 조준호, 「17~18세기 영양지방 한양조씨의 문중연구」, 『북악사론』 4, 1997; 김성우, 「1800년 인동작변을 둘러싼 다중의 시선들」, 『역사와 현실』 82, 2011; 백도근, 「대구서인 단구 전극념의 노론의식 연구」, 『철학논총』 68, 2012; 김준형, 「조선후기 영남지역 향전의 분석」, 『남명학연구』 43, 2014; 주매, 「조선후기 가족 및 친족질서 연구」, 성균관대 박사학위논문, 2015; 채광수, 「18세기 말 19세기 초 영양현 운곡영당의 치폐」, 『영남학』 64, 2018.

있고 신출노론이 등장한다. 이들은 숙종과 정조시기에 양송문묘 종사 운동에 연명하거나 상소를 주도하기도 하였고, 자신이 거주하는 향촌 지역에 노론계 서원을 건립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를 통해 세력을 성장시킨 신출노론 일부는 문과에 급제하여 중앙정계에 진출하였다.

양송 문묘종사 운동과 서원 건립 운동에 참여하고 자신이나 그 아들 중 문과에 급제한 인물을 살펴보면 총 75명이 확인되었는데 대다수가 18세기에 문과에 58명이 급제하였다. 하지만 성관별로 살펴보면 특정 성관 보다는 다양한 성관에서 소수의 급제자가 배출되었다. 이는 이전에 문과에 급제하지 못하다가 노론 중심 국정 운영 흐름에 편승하여 중앙정계에 진출하고자 하는 가문이 많아졌음을 의미한다.²³⁰⁾ 지역별로 살펴보면 18세기 영남 전체 급제자 수가 줄어드는 가운데 상주권을 중심으로 신출노론세력이 등장하였다.

신출노론 중 문과급제자를 많이 배출한 가문을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의 특징이 있었다.

첫째, 기존에 노론의 입장을 견지하고 노론계 가문과 혼반을 맺은 가문으로 진주강씨, 평산신씨, 덕수이씨 등이 대표적이었다. 이들은 중앙정계의 변화나 전란을 피하여 영남지역에 은거하였지만 노론세력과 지속적인 교류 때문에 향촌사회에서도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이러한 가문들은 19세기에 많은 문과급제자를 배출하였다.

둘째, 향촌사회에서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론으로 전향한 가문으로 순흥안씨, 안동김씨 등이 대표적이었다. 안동김씨는 물론 상경한 장동김씨와 혈연적으로 밀접한 사이였지만 영남 남인과도 혼인을 맺었다. 다양한 혼반으로 인해 김상헌서원 건립 때에 같은 안동김씨 내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게 된다. 순흥안씨는 경종과 영조 즉위시기에 노·소론의 갈등이 심화되고 무신란으로 영남 남인의 세력이 약화되자 노론으로 전향하였다. 이후 향촌사회에서 적극적으로 노론의 입장을 대변하였다. 하지만 이 가문들은 19세기에 많은 문과급제자를 배출하지 못하였다.

노론은 자신들의 의견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무신란의 주모자거나 李玄逸의 문인으로 연관시켜 정당성을 약화시켰으며, 반대로 소론과 영남 남인들은 신출노론을 換面輩라고 부르며 향촌에서 치열하게 대립하였다.²³¹⁾ 하지만 영남

230) 18세기 급제자가 가문에서 유일한 급제안 성관은 고성박씨(1명), 행주전씨(1명)이었다. 이 밖에도 신출노론 급제인물이 18세기 이후 전체 급제자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한 성관은 순흥안씨(2명, 40%)도 이때 많은 급제자가 배출되었다.

의 신출노론 가문은 오랜 시간 중첩된 남인의 학문적·혈연적 결속을 와해시키기에 그 영향력이 부족하였다. 정조 이후 신출노론 세력으로 서원·사우 건립, 양송 문묘청원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가계를 살펴보면 기존에 노론 세력이었던 진주강씨를 제외하고 대다수가 계속적으로 문과급제자를 배출하지 못했다. 宋時烈의 문인록인 『화양연원록』을 살펴봐도 영남의 인물을 총 47명인데²³²⁾ 이 중 문과에 급제한 인물은 3명으로²³³⁾ 영남의 신출노론은 문과를 통해 권력을 재생산하지 못하였다. 또한 19세기 세도정치와 대원군 집정기를 거치면서 일부 영남 남인세력들이 중앙정계에 진출하면서 영남의 신출 노론 세력들이 큰 세력으로 성장하지 못하게 된다.

이 장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6세기 훈구파에 대항세력으로 사림파의 중앙정계 진출이 이루어졌다. 사림파는 영남지역에 경제적 기반을 갖춘 인물이 많았으며 학문적으로는 金宗直, 金宏弼, 金安國 등의 영향을 받았다. 비록 사회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었지만 중종대를 기준으로 사림파가 정권을 장악하였다. 이에 따라 16~17세기 많은 영남인들이 문과에 급제하였다. 가문별로 살펴보면 상주의 진주강씨, 안동의 안동권씨 등 기존에 명문이라고 할 수 있는 가문에서 급제자가 많이 배출되었다. 또한 대구의 현풍곽씨, 영해의 영양남씨 등의 가문도 문과를 통해 많은 인물이 중앙정계에 진출하였다. 하지만 17세기 이후 위의 가문들에서 급제자가 감소하였으며, 사림파를 주도하던 金宗直, 金駙孫 가계에서 문과급제자를 지속적으로 배출하지 못했다. 전체적인 급제 성관을 보았을 때도 다양한 성관에서 문과급제자가 있었다. 이는 16·17세기에 혈연적 가계가 문과급제에 많은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시기 영남지역 문과급제에 많은 영향을 미친 것은 학파로 보인다. 중종대 사림파가 중앙정계에 진출하면서 성리학적 국가통치가 강조되었으며 학문적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영남지역에 李滉, 曹植, 李彦迪 등의 유학자들이 등장하게 되고 그들의 문하에서 많은 인물들이 성장한다. 이후 이들이 중앙정계에 진출하면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강조하기 위해 五賢을 문묘

231) 『영조실록』 36권, 영조 9년 12월 25일 임신; 『승정원일기』 873책, 영조 14년 6월 23일 갑진.

232) 이연숙, 「우암학과 연구」, 충남대 박사학위논문, 2003, 61~62쪽.

233) 송시열의 문인이며 문과에 급제한 영남인은 선산출신 李尙逸, 선산출신 李東溟, 의령출신 權宇亨이 있었다.

에 종사하고 점차 정치세력화하면서 특정 학파를 중심으로 많은 급제자들이 배출되었다. 중종~광해군대에는 李滉·曹植, 선조~인조대에는 鄭述, 인조대에는 張顯光, 현종대에는 柳稷, 숙종대에는 李玄逸의 문인에서 급제자를 많이 배출하였다. 이는 기존에 영남학파의 주도권이 李滉 - 柳成龍·鄭經世 - 鄭述·張顯光 - 李玄逸로 발전했다는 주장과 같은 경향이였다.²³⁴⁾ 하지만 갑술환국을 전후한 시기 李玄逸이 실각하면서 영남의 문인에서 많은 급제자를 배출하지 못했다. 더군다나 무신란의 영향으로 영남이 '반역향'이 되면서 영남의 영향력이 감소하였다.

18세기 영남지역 문과급제자의 감소 하지만 상주와 선산 등의 지역을 중심으로 급제자가 증가하였다. 이는 상주·선산이 충청도와 경상도의 접경에 위치하였으며 퇴계학파는 물론 노론의 영향도 많이 받아 신출노론이 성장하기 유리한 지역이었기 때문이다. 18세기 노론의 일당 집권이 이루어지면서 노론계 관리의 지원을 받은 신출노론이 兩宋 문묘종사 운동, 노론계 사우와 서원을 건립하였다. 특히 영남 남인의 중심지였던 안동에 김상헌 서원을 건립하는 등 영남 남인의 공론을 분열시키고자 하는 움직임이 발생하였다.

19세기 정조대 이후로 영남의 문과급제자는 이전의 수치를 회복하였으며, 세도정치와 대원군의 집권으로 노론의 일당 전제가 약화되었다. 특히 대원군은 영남 남인과의 연합을 통해 왕권을 강화하고자 하였고 이에 따라 안동을 중심으로 급제자가 증가하였다. 이 시기 급제자의 특징은 문인 중 급제자 수가 감소하고 진성이씨 李滉, 여주이씨 李彦迪, 인동장씨 張顯光, 의성김씨 金誠一과 같이 영남 남인의 대표적인 가문의 후손을 중심으로 문과급제자가 배출되었다. 이는 왕권 강화를 목표로 한 중앙 정치세력이 정치적·사상적 결집체인 문인 보다는 영남 남인의 대표적인 인물의 후손들을 등용시킴으로서 영남인의 불만을 잠재우고 영남 유생을 통합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한편 영남 남인의 입장에서는 정국의 변동에 맞춰 정치적 영향력을 강화하고 18세기 실각된 명예를 회복시킬 좋은 기회로 인식하였다. 이로 인해 19세기가 되면 영남지역의 문과급제자가 다시 증가하였다.

234) 김학수, 「17세기 영남학파의 정치적 분화」, 『조선시대사학보』 40, 2007.

V. 영남지역 문과급제자의 시기별 관직 진출

IV장에서 정치적 변화에 따른 영남지역 문과급제자를 가계별로 분석하였다. 조선전기에는 사림파의 성장과 다양한 학파의 형성·교류를 통해 특정 성관보다는 여러 성관에서 문과급제자가 배출되었으며, 선조 이후 정치적 입장에 따라 당파를 형성하였다. 하지만 당파간 갈등이 격화되고 정치적 변동이 심화되면서 영남 남인이 점차 정치적으로 소외받았다. 이후 조선후기가 되면 다시 영남지역 문과급제자 수가 증가하였는데 이 때 학파보다는 특정 가계를 중심으로 급제자가 배출되었다. 이렇게 등용된 영남 출신 인물이 실제 국가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그 과정 속에서 차별이 없었는지를 임명된 관직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관직에 대한 정보는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등 관찬사료 외에도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한국역대인물 종합정보시스템과 경상북도의 『경북인물사전』 등의 사전, 또는 금석문, 행장을 사용하였다.

영남인들이 관직에 진출하여 승진하는 과정을 크게 세단계로 나누어 보았다. 먼저 문과급제와 삼관분관에 이르는 단계, 다음으로 初職과 참서관에 오르는 陞六까지의 단계, 마지막으로 당서관에 오르는 단계이다. 이러한 단계를 중심으로 각 시기별로 구분하여 살펴보겠다.

1. 영남지역 문과급제와 삼관 분관

영남 문과급제자가 진출한 관직을 살펴보기에 앞서 전체적인 급제자의 연령과 삼관 분관하는 모습을 살펴보고자 한다. 문과급제에 특별한 연령의 한계가 없었지만 연령이 낮을 경우 현실적으로 관직을 승진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관직에 진출하기 전 급제자의 연령의 전체적인 변화를 제시하겠다.

1) 문과급제자의 연령 분석

문과에 응시하는 자격은 여성이나 특정 범죄자를 제외하고는 양인이면 모두 응시가 가능하였으며 연령도 특별한 규정이 없었다.¹⁾ 영남지역의 경우 15세 裒孟厚부터 79세 權啓應까지 다양한 연령이 급제하였다. 전체 1,766명 중

1) 『경국대전』에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재물을 취득한 관리와 그 아들, 큰 범죄를 저지른 자, 재혼하거나 행실이 나쁜 여자의 아들과 손자 등의 문과응시를 금지하였다. 서얼의 경우 점차 허통이 이루어지면서 문과응시가 가능해졌다.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인물은 1,518명이었다. 이들 연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V-1> 시기별 영남지역 문과급제자의 연령

연령 시기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계
14세기		3						3
15세기	10	53	32	8				103
16세기	3	70	96	26	3			198
17세기		86	172	93	27	5		383
18세기	2	65	138	97	24	10	2	338
19세기	14	105	193	121	47	13		493
계(%)	29 (1.9)	382 (25.2)	631 (41.6)	345 (22.7)	101 (6.7)	28 (1.8)	2 (0.1)	1,518 (100)

<표 V-1>에서 보듯이 문과급제 당시 연령은 30대가 631명(41.6%), 20대가 382명(25.2%), 40대가 345명(22.7%), 50대가 101명(6.7%), 10대가 29명(1.9%), 60대가 28명(1.8%), 70대가 2명(0.1%) 등으로 30대·20대·40대·50대·10대·60대·70대의 연령순으로 급제하였다. 15세기까지 20대에서 가장 많은 문과급제자가 배출되고 있었지만 16세기부터는 30대가 가장 많고 20대가 그 다음 순위를 유지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조선시대 전국 문과급제자 연령 분석과 같은 경향이였다.²⁾ 또한 지역사회에서 경제적 기반을 갖추고 있던 사림파가 20~30대에 문과에 급제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선조 이후 30대 급제자가 증가하고 50대 급제자가 배출되었다. 특히 임진왜란을 전후하여 20대가 서서히 감소하고 30대·40대가 증가하였다. 또한 숙종대가 되면 40대가 증가하기 시작하였는데 계속되는 환국으로 급제 연령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17세기부터는 60대가 급제하기 시작하여 이후 나이 많은 연령층의 수가 급증하였다. 또한 18세기에는 전체 연령에서 급제인원이 감소하였지만 19세기에는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였으며 특히 10대와 50대의 증가가 눈에 띄었다.

급제자의 연령을 보았을 때 20~30대를 중심으로 급제자가 배출되었으며, 후기로 갈수록 급제 연령이 고령화되었다. 이는 임진왜란과 정치적 변동에 따른 영남지역의 급제자 수 감소와 19세기 이후 문과 응시자의 증가로 인해 과

2) 차장섭, 「조선전기 문과급제자의 성분」, 『조선사연구』 3, 1994; 차장섭, 「조선후기 문과급제자의 성분」, 『대구사학』 47, 1994.

거를 치르는데 경쟁이 더욱 치열해졌기 때문이다.

시기별 변동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왕대별 평균연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V-2> 왕대별 영남지역 급제자 평균연령

왕대 분류	태조	정종	태종	세종	문종	단종	세조	예종	성종	연산	중종	명종	선조
영남	23.0		25.2	28.1	37.0	23.0	28.6	35.0	29.8	32.2	31.7	32.4	36.4
전체	25.2	24.0	29.2	28.7	30.4	27.0	29.9	38.0	31.7	31.6	32.1	32.6	34.0

왕대 분류	광해	인조	효종	현종	숙종	경종	영조	정조	순조	헌종	철종	고종	계
영남	38.6	37.6	38.8	35.6	37.0	36.9	40.0	36.5	38.0	38.5	36.3	38.2	36.7
전체	35.8	35.7	35.4	35.6	36.0	36.8	37.1	37.9	36.8	35.9	35.3	34.4	34.3

<표 V-2>에 의하면 영남은 명종대까지 전체 평균연령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젊은 인물들이 문과에 급제하였다. 문종대는 그 수치가 급격히 증가하는데 이는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인물이 적어서 발생한 것이다. 명종대까지 20~30대 초반의 젊은 영남의 인물들이 중앙정계에 진출하였다. 하지만 선조대를 기준으로 영남의 평균연령이 전체 평균을 넘었다. 선조대는 임진왜란이 있었으며 이 시기 영남은 왜적이 조선을 침입한 경로로 피해가 누적되었다.

적선의 元數가 거의 1만여 척에 이르고 熊川에 머무르고 있는 적들은 채소를 심고 꽃을 가꾸면서 스스로 오래 머물 계획이라고 한다 하며 … 昌原에 주둔하고 있는 왜적은 보리와 밀을 경작하여 이미 除草를 마쳤고 3월 그믐에는 모두 자기들이 수확한다고 합니다. 金海에는 촌민들이 모두 왜적에게 부역하여 영남의 크고 작은 도로에 모두 향도가 되어 있고, 鄉吏인 金變虎와 晝者인 裴仁 등은 왜적의 장수가 되어 매번 분탕질할 때마다 반드시 앞잡이가 되니, 적중에 머물고 있는 백성들은 이들의 소행을 보고는 모두 倭服을 입고, 다시 도망쳐 나오려는 뜻이 없다고 합니다. 또 왜구가 연전에는 매번 나와서 약탈을 자행했었는데 지금은 소굴에만 들어앉아서 출입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右道の 聞慶·咸昌·尙州·金海·昌原·熊川과 左道の 善山·大丘 이하에도 모두 다 왜적이 주둔하고 있다고 합니다.³⁾

위의 내용은 元均의 동생인 元堧이 비변사에 올린 계본의 내용으로 왜적이 영남에서 장기전을 준비하고 있고 조선인 중에 변절한 인물도 있다며 당시 영남의 상황을 전하고 있다.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영남에 피해가 증가되었다. 이

3) 『선조실록』 38권, 선조 26년 5월 21일 갑술.

후 영남의 급제자의 평균 연령이 전체 급제자 평균 연령보다 수치가 높아졌다. 임란전후 시기 영남 평균연령을 살펴보면 선조 초기 급제자 평균 연령이 34.9세였는데, 임란 이후 평균연령이 38.9세로 증가하였다. 또한 임란이후 영남 급제인원과 전체 급제인원간의 연령 차이가 감소하다가 영조대가 되면 연령이 급격히 높아진다. 영조대 영남은 무신란으로 ‘반역향’으로 낙인찍히며 점차 정치적으로 소외받았다. 하지만 정조의 경우 왕권강화를 위해 새로운 계층인 영남 남인에게 관심을 기울였으며 도산서원에서 별시를 시행하였다. 이후 세도 정치기에 평균연령이 증가하였으며 철종대에 잠시 감소하지만 다시 고종대에 증가한다. 이를 보았을 때 영조대를 기준으로 평균 30대 후반에 문과에 급제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문과에 응시하는 유형은 소과를 치르고 대과에 응시하는 유형, 관직에 있다가 문과에 응시하는 유형, 바로 문과에 응시하는 유형이 있었다. 문과에 바로 응시한 사람 중 문과급제 연령을 알 수 있는 인원은 774명으로 평균연령은 36.1세였으며, 소과에 응시한 인원은 559명으로 문과급제의 평균연령이 36.4세였다. 관직자는 185명으로 평균연령 40.0세에 문과에 급제하였다. 前歴이 관직자인 인물을 제외하고 소과를 치르고 문과에 급제하는 연령과 바로 문과에 급제하는 연령은 큰 차이가 없었다.

영남의 소과 급제자의 평균연령과 소과에서 문과에 급제하는 평균기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태조 소과급제 평균 연령은 21.0세 / 문과급제까지 걸리는 기간은 1.5년이고, 태종 21.4세/3.6년, 세종 22.5세/4.4년, 문종 24.0세/6.5년, 단종 19.0세/당해년도, 세조 24.1세/5.4년, 예종 27.0세/8.0년, 성종 22.7세 /7.1년, 연산군 21.6세/9.5년, 중종 23.4세/8.7년, 명종 27.0세/7.5년, 선조 28.2세 /9.0년, 광해 31.4세/9.7년, 인조 28.4세/9.8년, 효종 32.3세/7.4년, 현종 28.8세 /7.9년, 숙종 29.4세/11.1년, 경종 30.9세/7.0년, 영조 31.8세/9.4년, 정조 28.7세 /7.8년, 순조 32.6세/10.8년, 헌종 30.8세/11.4년, 철종 35.7세/11.4년, 고종 31.8세 /10.5년 이었다.⁴⁾

위에서 보듯 소과 급제연령과 문과급제 연령 사이에 연관관계를 살펴보면 후기가 될수록 소과의 급제연령이 높아지면서 이후 문과급제 연령도 높아졌

4) 최진옥의 연구에 의하면 조선시대 소과에 급제하는 평균 연령이 15세기 25.72세, 16세기 전반 24.14세, 16세기 후반 31.05세, 17세기 전반 32.11세, 17세기 후반 32.12세, 18세기 전반 34.41세, 18세기 후반 35.15세, 19세기 전반 35.44세, 19세기 후반 37.81세였다 (최진옥, 『조선시대 생원진사연구』, 집문당, 1998, 61쪽).

다. 특히 영조대 이후 소과에서 문과에 급제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길어졌다. 영조대 이후로 영남이 점차 정치에서 소외되면서 소과에 급제한 후 문과에 늦게 응시하거나 응시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졌다. 이에 따라 소과에 급제했다는 사실만으로도 향촌사회에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게 되었다.⁵⁾

國初부터 文學을 숭상하고 장려하여 士林으로서 명망을 쌓는 것은 반드시 생원시와 진사시의 장원에서부터 비롯된 까닭이었다.⁶⁾

조선시대에 생원·진사시에 합격하면 사람의 명망을 얻을 수 있었다. 특히 18세기 영남지역에 문과급제가 어려워지자 소과에서 경쟁이 치열해졌고 생원·진사라는 명칭만으로도 양반의 지위를 보장받을 수 있었다.⁷⁾ 조선 후기가 되면 소과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소과 급제의 평균연령도 대읍이 35.1세, 소읍은 35.7세로 지방 거주자가 합격하는데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이에 따라 소과 급제를 위해 일생을 보내는 사람이 많아졌다.⁸⁾ 결국 소과 급제연령이 높아지고 문과급제 시기도 길어지게 되면서 바로 문과에 응시하는 인원이 증가하였다. 특히 생원·진사가 아니더라도 성균관, 四學, 都會 등에 참여한 유학들도 문과 응시가 가능해지면서 조선 후기가 되면 유학의 직역을 가지고 바로 문과에 응시하는 인원이 증가하였다.

영남은 조선 초기 전체 평균연령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20·30대 초반의 젊은 인물들이 문과에 급제하였다. 하지만 선조대를 기준으로 급격히 연령이 높아졌다. 조선후기가 되면 전체 평균연령과 영남 평균연령 사이에 차이가 심해졌으며 특히 영조대가 되면 평균연령이 40대까지 높아졌다. 이후 정조대 남인이 등용되면서 평균연령이 낮아지고 이후 30대 후반의 인물들이 문과에 급제한다.

2) 문과급제자의 삼관 분관

문과에 급제한 인물들 중 대부분은 바로 실직을 받지 않고 성균관, 승문원, 교서관에 分官되어 임시직인 權知에 임명되었다. 분관은 실무를 익히게 한다

5) 진사대과 같이 택호에 이용되기도 하며 생원공과와 같이 파의 명칭으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생원·진사는 유학과 별개로 자신이 사족임을 표현하는 직역 중 하나였다.

6) 『영조실록』 65권, 영조 23년 2월 14일 갑술.

7) 이수환, 「조선 향촌사회 속의 생원·진사」, 『한국사시민강좌』 46, 2010, 121~122쪽.

8) 최진옥, 『조선시대 생원진사연구』, 집문당, 1998, 63쪽.

는 목적이 있었으나 한정된 관직과 급제 인원의 증가로 적체가 심화되면서 여러 문제가 발생하였다.

문신으로서 四館 에 들어간 사람은 8~9년이 되어도 나오지 못합니다. 때문에 문신의 부족함이 이때보다 심한 적이 없으니, 別薦 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신들은 조금하게 진출하려는 폐단을 막아야 한다는 것 때문에 별천하지 않고 있지만 한결같이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으로 마땅히 변통을 해야 합니다.

四館權知들이 科擧가 잦아 다수가 침체되어 있는 채 여러해 동안 遷轉할 수가 없어 도리어 蔭職 만도 못하다고 했다.⁹⁾

비정기시의 잦은 실행과 급제자 수의 증가로 권지에 임명되더라도 오랜 시간동안 실직을 받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중종대의 경우 현량과와 別薦으로 새로운 세력인 사림파에게 실직을 임명하였지만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권지 적체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¹⁰⁾

영남의 경우 1,766명 가운데 권지직을 확인할 수 있는 인물은 526명¹¹⁾으로 전체의 29.8%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수치가 적은 이유는 『승정원일기』가 나오기 이전에 권지직을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을 반영하여 인조 이후의 시기를 살펴보면 영남 1,120명 중 분관이 확인된 인원은 509명(45.4%)이었다.

권지 인원 526명의 평균연령은 36.8세로 문과 전체 연령 36.7세와 비교했을 때 약 1년 내에 분관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는 대부분의 사람이 문과에 급제하고 바로 분관을 받았음을 의미한다. 실제로 문과에 급제하고 분관까지 대기하는 기간은 당해연도 312명, 1년 154명, 2년 32명, 3년 11명, 4년 5명, 5년 2명, 6년 2명, 7년 2명, 8년 1명, 9년 1명, 12년 1명으로 문과에 급제하고 3년 내에 분관되었다.

분관된 연령을 시기별로 살펴보면 15세기 24.7세, 16세기 27.6세, 17세기 37.4세, 18세기 36.4세, 19세기 37.6세로 17세기를 기준으로 분관하는 평균 연

9) 『중종실록』 56권, 중종 20년 12월 27일 신해; 『중종실록』 66권, 중종 24년 12월 25일 정해.

10) 『선조실록』 6권, 선조 5년 9월 4일 정해; 『영조실록』 26권, 영조 6년 6월 13일 경술.

11) 1792년 급제한 姜學濬과 朴榮東 등 2명의 경우 분관 관청은 적혀있지 않고 단지 부정자라고 적혀있었다. 또한 갑과로 급제하였지만 1486년(성종17) 김일손, 1865년(고종2) 이능화, 1882년(고종19) 정우묵, 1885년(고종22) 장병익의 경우 승문원에 분관하였다. 이들은 장원이 아니고 2등이나 3등으로 급제한 사람들이었다.

령이 높아졌다. 분관 관청을 통해 살펴보면 승문원은 36.7세, 성균관은 37.6세, 교서관은 35.6세로 성균관이 가장 나이가 높았으나 승문원과 큰 차이가 없었다.¹²⁾ 삼관에 분관하는 기준은 초기에 나이와 능력이었다. 승문원은 나이가 적고 총민한 자를, 성균관에는 老成하여 德望있는 자를, 교서관에서는 古今の 사적에 널리 통달한 자를 임명하였다.¹³⁾ 물론 성균관의 평균연령이 가장 높았으나 승문원의 경우 성균관과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지 않았다. 승문원에 분관된 자는 外官에 나가지 않아도 승진이 가능하였다. 또한 다른 곳은 이조에서 분정하나 승문원은 박사 이하 관원의 自薦을 통해 분정 하였다. 이에 따라 조선 초기 승문원의 위상이 높았으며 많은 사람들이 분관되기를 원하였다.

다음으로 시기별 삼관 분관이 이루어지는 인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V-3> 영남지역 급제자 분관인원

삼관 \ 시기	15세기	16세기	17세기	18세기	19세기
승문원	6(75.0)	6(100)	23(33.3)	49(72.1)	318(85.3)
성균관	2(25.0)		37(53.6)	13(19.1)	37(9.9)
교서관			9(13.1)	6(8.8)	18(4.8)
계(%)	8(100)	6(100)	69(100)	68(100)	373(100)

<표 V-3>은 사료에 분관이 기록되지 않는 시기가 있어서 정확한 수치라고 할 수 없다. 하지만 전체적인 흐름을 살펴보면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부정자라고 기록된 2명을 제외하고 총 373명 영남인의 분관 관청을 확인할 수 있었다. 17세기 영남은 성균관의 분관 인원이 많았으며, 18세기 이후 성균관의 분관 인원이 감소하고 대신 승문원의 분관인원이 증가하였다. 17세기(인조~숙종) 전체 분관 인원과 비교해 보면 성균관 분관자 215명, 교서관 분관자 106명, 승문원 분관자 96명이었는데¹⁴⁾ 영남의 경우 성균관 분관자가 17.2%(37명), 승문원 분관자가 23.9%(23명), 교서관 분관자가 8.5%(9명)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를 통해 17세기에 성균관과 승문원에 많은 인원이 분관되는 것을 알 수 있다.

12) 조선초기 분관 연령을 살펴보면 성균관 35.5세, 교서관 28.3세 승문원 26.9세였다 (김창현, 『조선초기 문과급제자 연구』, 일조각, 1999, 129~130쪽).

13) 김창현, 『조선초기 문과급제자 연구』, 일조각, 1999, 129쪽.

14) 이창걸, 「조선시대 문과급제자의 분관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학논총』 31, 2009, 312쪽.

성균관은 소과에 급제한 유생들이 공부하는 장소 일뿐만 아니라 공론을 형성하여 정치에 참여하는 관청이었다.¹⁵⁾ 성균관 관직자와 유생들은 권당이나 공관을 통해 특정인물을 탄핵하거나 사면시키며 정치권에 압박을 가할 수 있었다. 1738년(영조 14) 성균관 유생들이 권당을 하고 일부 대신들의 요청에 의해 李玄逸·金聖鐸 등이 사면 받았다.¹⁶⁾ 18세기가 되면 영남지역 문과급제자가 감소하면서 성균관의 분관인원이 줄어들었고 19세기가 되면 급제자 수가 이전의 수치를 회복하면서 성균관에 분관하는 인원도 다시 증가하였다.

승문원의 경우 후기로 갈수록 분관 인원이 증가하였으며 특히 영남의 급제 인원이 제일 많은 19세기에 승문원 분관 인원이 가장 많았다. 승문원은 외교 문서를 맡는 관직이지만 이후 중앙의 관직에 진출하기 쉽다는 점에서 급제자들에게 인기가 많은 관청이었고 정치 세력의 입김이 작용하였다.

槐院의 分館은 마땅히 변통하는 방도가 있어야 하겠습니까. 金文夏·朴萬鼎·李東標 세 사람의 과실은 모두 한때의 작은 허물이 아닌데, 出身하는 시초에 반드시 淸選에 두려고 하니, 신은 옳은 것인지 알지 못하겠습니다.¹⁷⁾

위에서 보듯 승문원 분관에는 정치적 영향력이 많은 영향을 미쳤다. 李滉의 후예인 李東標의 경우 1683년(숙종 9) 문과에 급제하고 1684년 승문원에 분관 되었으나 영의정 金壽恒의 반대로 분관되지 못한다. 당시 李東標는 소퇴계로 불릴 정도로 영남에 영향력을 미친 인물이었으나 宋時烈的 죄를 종묘에 고하자는 告廟疏에 참여한 이유로 노론의 견제를 받아 승문원에 분관되지 못한다. 이후 1687년 찰방에 임명되고 1689년 남인 영의정 權大運의 천거로 승육한다.¹⁸⁾

교서관은 중인과 서자, 시골 출신들이 배정되는 것이 통례였다.¹⁹⁾ 실제 영남에서 서자 출신으로 확인된 인물 30명 중 13명이 교서관에 분관되거나 초직으로 교서관직에 임명되었다.²⁰⁾ 17세기에는 서자 외에도 교서관에 분관된 인

15) 김영주, 「조선시대 성균관 유생의 권당, 공관 연구」, 『언론과학연구』 8, 2008.

16) 『영조실록』 47권, 영조 14년 5월 22일 계유.

17) 『숙종실록』 15권, 숙종10년 8월 3일 병신.

18) 『숙종실록』 20권, 숙종15년 윤3월 13일 경술.

19) 이창걸, 「조선시대 문과급제자의 분관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학논총』 31, 2009, 310쪽.

20) 13명은 현종 1명, 숙종 8명, 경종 2명, 정조 1명, 철종 1명이었다. 구체적인 인물을 보면 이윤림, 이해준, 홍우, 손경익, 황계후, 강필중, 신유한, 황윤후, 정중대, 이식명, 배운명, 정현조, 박내봉이었다.

물이 있었다. 그 중 한명은 張興孝의 문하인 南之望으로 1646년(인조 24) 殿講에서 좋은 점수를 받아 회시에 직부하였고,²¹⁾ 1648년 문과에 급제한다. 이후 약 4년 뒤 교서관에 분관되고 다음 달에 실직인 봉사(奉事)에 임명된다. 南之望의 경우 권지의 적체로 대기시간이 길어지자 교서관에 임시적으로 임용되고 1달 후에 실직으로 바로 진출하였다. 하지만 18세기 이후에는 교서관이 규장각에 예속되면서 서자 외에도 사족의 진출이 활발해진다.²²⁾

이상의 내용을 보았을 때 17세기에는 청요직을 지낸 집단을 중심으로 학맥과 가문이 보수화되어갔으며²³⁾ 분관의 기준으로 門地가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²⁴⁾ 하지만 18세기에는 門地뿐만 아니라 당색도 분관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槐院에 分館된 尹得相은 곧 무신년의 역적 安焜의 생질입니다. 그의 형 尹龜相이 國子監의 진출이 막혀 있는데, 그 동생인 윤득상이 외람되게 槐選에 참여하는 것은 결단코 불가하니, 圈點을 삭제하고 그 권점을 주장한 사람은 파직하도록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²⁵⁾

尹得相은 서울 출신으로 영남의 인물은 아니었다. 하지만 무신란에 연관되었다는 이유로 승문원 분관에서 제외되었다. 무신란으로 ‘반역향’으로 낙인찍힌 영남의 인물은 이보다 더 심한 대우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榮川 출신 金瑞復은 1777년(정조 1) 식년시에 급제하여 1778년 승문원에 분관된다. 하지만 자격이 없는 인물이라는 이유로 조정 관리들에게 비난을 받게 되고 결국 권지직에서 물러나고 그를 추천한 관리는 파직된다.²⁶⁾ 하지만 金瑞復은 金榮祖의 현손이었다. 따라서 가계보다는 당색이 문제가 되었다.

19세기가 되면 이러한 기준조차 무너지면서 신분이 낮은 계층의 승문원 진출이 증가한다. 정조는 「정유절목」을 반포하여 서자의 성균관 입학(幸學)을 허용하였으며, 철종대는 「신해허통」을 통해 서열의 승문원 분관이 가능해졌다.²⁷⁾ 또

21) 『승정원일기』 94책, 인조24년 8월 15일 무자.

22) 교서관은 정조대 문풍 진작을 위한 목적으로 규장외각이 되었으며 이후 외각이라 불리기도 하였다. 이후 규장각 관원이 교서관 관원을 겸임하게 되었다 (『정조실록』 4권, 정조1년 12월 21일 계축, 『정조실록』 5권, 정조2년 3월 25일 을유, 『정조실록』 11권, 정조5년 2월 29일 임신).

23) 남지대, 「조선후기 당쟁의 종합적 검토」, 『조선후기 당쟁의 종합적 검토』,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2, 448~451쪽.

24) 원창애, 「조선시대 문과급제자의 관직 진출 양상」, 『조선시대사학보』 43, 2007, 31쪽.

25) 『영조실록』 69권, 영조 25년 3월 27일 을해.

26) 『정조실록』 5권, 정조 2년 1월 6일 정묘; 『정조실록』 5권, 정조 2년 1월 7일 무진.

한 교서관도 규장각에 예속되면서 양반계층의 분관이 이루어졌으며 권지 교서관 인물 중에 당상관까지 임명된 인물도 존재하였다.

분관 후 초직에 진출한 인원수를 살펴보면 승문원 분관자 402명 중 200명(49.8%), 성균관 분관자 89명 중 57명(64.1%), 교서관 분관자 33명 중 28명(84.8%)이었다. 권지 승문원 중 실직을 받는 인물이 적었는데 승문원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권지 적체 현상이 심각해진 것을 의미한다. 권지 이후 실직을 받지 못한 인물은 총 37명이었는데 19세기(31명)에 집중되어 있었다. 19세기는 세도정치로 인해 자신이 스스로 관직을 관두고 돌아가는 경우도 있었으며, 급제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관직 적체가 증가하면서 초직을 받기 힘들어졌기 때문이다.²⁸⁾

2. 16~17세기 영남지역 문과급제자의 관직 진출

1) 문과급제자의 초직

16~17세기(중종~숙종) 급제한 인물은 총 726명으로 『조선왕조실록』과 『승정원일기』를 통해 초직을 확인할 수 있는 인물은 396명이었다. 이 중 갑과로 급제하여 참상관에 오른 인물과 천거·문음으로 참하관에 임명되고 후에 문과에 급제한 인물은 20명이었다. 문음으로 임명된 관직을 살펴보면 정7품 副率이 1명, 종7품 직장이 6명, 종8품 봉사가 1명, 종9품 참봉이 11명, 정9품 부봉사가 1명으로 문과에 급제한 후 감찰 1명, 좌랑 1명, 정언 2명, 부수찬 1명, 평사 1명, 전적 6명으로 승진하였다.

이들을 제외하면 357명이 초직으로 참하관에 임명되었다. 영남 문과급제자들이 16~17세기 357명 중 초직에 임명될 때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인물은 271명으로 평균연령은 36.3세였다. 이 중 음직과 천거로 참하관 초직을 받은 인물의 평균연령은 42.1세였고, 문과에 급제하고 초직을 받은 평균 연령은 36.0세로 문과에 급제한 인물들이 음직이나 천거를 받은 인물들에 비해 젊은 나이에 실직을 받았다.

영남의 인물들이 초직에 임명된 연령과 권지직에서 실직을 받을 때 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7) 한영우, 『과거, 출세의 사다리』(3), 지식산업사, 2013, 447~448쪽.

28) 『고종실록』 2권, 고종 2년 7월 1일 계해; 『고종실록』 5권 고종 5년 11월 21일 갑오.

<표 V-4> 16~17세기 영남지역 급제자 초직 평균연령·기간

왕대 분류	중종	명종	선조	광해	인조	효종	현종	숙종
평균연령(세)	31.8	34.4	32.4	32.3	36.6	39.5	37.1	37.3
기간(년)	0.3	0.7	0.7	0.4	1.0	1.3	1.0	1.3

왕대별로 살펴보면 명종대 일시적으로 평균연령이 증가한다. 명종과 선조대에는 사회와 임진왜란 등으로 영남의 급제자들이 초직을 받는 시기가 늦어졌다. 특히 광해군대 이후 대북정권이 무너지면서 인조대 영남의 초직 연령이 증가하였다. 초직을 받기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보면 후기가 될수록 1년 이상의 기간이 걸렸다. 조선 전체 16~17세기 소요기간을 살펴보면 권지 성균관 학유의 경우 15.8개월, 승문원 부정자 11개월, 교서관 26개월로 영남의 경우와 유사하였다.²⁹⁾

인조대는 119명의 영남인이 급제하였고 鄭經世와 張顯光 등 영남의 대표적인 인물들이 등용되었다. 하지만 점차 근기남인의 비중이 증가하면서 영남 남인의 영향력이 감소되고 정치적으로 소외되었다.³⁰⁾ 또한 이후 서인의 정치적 영향력이 점차 증가하면서 서인과 남인간의 갈등이 심화되었다.

효종은 붕당간의 세력균형을 통해 왕권을 강화를 추구하였다. 이 과정에서 남인을 등용하고자 하였지만 서인과의 갈등 관계에서 남인세력은 축출된다. 또한 서인 산림계와 효종간의 타협이 이루어졌고³¹⁾ 이때 중앙정계에 진출한 일부 영남 남인들 또한 피해를 입었다.

말하거나 행동하는 즘은 군자가 신중히 하는 바이니 길흉과 화복의 조짐이 여기에서 먼저 나타나는 것입니다. 더구나 임금은 한번 말하면 법이 되고 한번 행동하면 준칙이 되니 그 관계되는 바가 어떻겠습니까. 신이 지난번에 대신들에게 내린 비답을 보건대 말씀하는 사이에 抑揚이 중도를 잃음이 어찌 그리도 심합니까. 준엄한데 관계되지도 않고 겸양하는 데 가깝지도 않으며, 단정한 때의 분노를 통쾌하게는 하지만 그것이 도리어 스스로를 경망한 곳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임을 깨닫지 못하시니, 위중함을 손상시킴이 이보다 더 심할 수 없습니다.³²⁾

위의 글은 효종대 영남 출신으로 중앙정계에 진출한 인물인 洪汝河가 국왕

29) 이창걸, 「조선시대 문과급제자의 분관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학논총』 31, 2009, 316쪽.

30) 정만조, 「조선후기 정국동향과 갈암 이현일의 정치적 위상」, 『퇴계학』 20, 2011.

31) 오항녕, 「조선 효종대 정국의 변동과 그 성격」, 『태동고전연구』 9, 1993, 20~21쪽.

32) 『효종실록』 17권, 효종 7년 12월 4일 정축.

에게 공정성을 강조한 대목이다. 洪汝河는 柳稷에게 수학하였으며 효종대 문과에 급제하여 중앙정계에 진출하였다. 이루 언관으로서 활약한다. 당시 효종은 서인 산림계와 연합하여 중국 정벌을 계획하며 형벌과 군직을 강조하였다. 洪汝河는 이에 반발하며 聖君의 자세를 강조하며 세력간의 균형을 유지시킬 것을 주장하였다. 이후 그는 宋時烈 등 서인 산림세력과 갈등을 벌이다 반대파에 배척을 받아 낙향한다.³³⁾

초직으로 영남 급제자들이 임명된 관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V-5> 16~17세기 영남지역 급제자 초직 인원

관직명	성균관 학유	부정자	정자	예문관 검열	직장	성균관 학록	한성부 참군	성균관 학정	훈도
품계	중9품	중9품	정9품	정9품	중7품	정9품	정7품	정8품	정9품
수(명)	142	106	54	31	11	9	2	1	1

<표V-5>에서 보듯 357명의 인원이 9개 직책에 진출하였다. 많이 진출한 관직을 살펴보면 성균관 학유, 부정자, 정자, 예문관 검열, 직장, 성균관 학록, 한성부 참군, 한성부 학정, 훈도 등의 순서였다. 대체적으로 삼관 분관이 이루어진 관청의 중9품 관직의 진출이 가장 많았다.

영남인 중 권지 승문원인 자가 초직으로 진출한 관직을 보면 승문원 부정자(60명), 별검(59명), 승문원 정자(22명), 수봉관(22명), 승정원 주서(15명) 등이었는데 승문원 외에도 능관, 주서에 진출한 인물이 많았다. 권지 성균관인 자가 진출한 관직을 보면 성균관 학유(22명), 성균관 학록(8명), 성균관 학정(5명), 교서관 정자(3명), 봉사(3명) 등이었으며, 권지 교서관인 자가 진출한 관직을 보면 교서관 부정자(15명), 참봉(5명) 등 삼관 분관이 이루어진 관청의 실직에 임명되는 경우가 많았다.

임명된 관서를 보면 성균관 152명, 승문원 98명, 교서관 45명, 예문관 31명, 홍문관 9명, 종부시 2명, 한성부 2명, 군자감 1명, 내섬시 1명, 사도시 1명, 사섬시 1명, 승릉 1명, 종묘 1명 등으로 성균관에 임명된 인물들이 많았다. 성균관은 보통 통문을 지방 향교에 발송하여 의견을 개진하고 공론정치를 주도하였다.

33) 『현종실록』 1권, 현종 즉위년 6월 4일 기사; 『현종실록』 1권, 현종 즉위년 6월 16일 을사; 『현종실록』 2권, 현종 1년 1월 28일 갑신.

전일에 成均館에서 인재를 뽑을 때 인재가 매우 적어 과거에 오른 사람은 모두 朝士였으니,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儒士들이 다른 技藝에 들어가서 士躋이 바르지 못한 까닭이었습니다. 청컨대 지금부터 조사에게는 別擧에 가지 못하게 하면 사람들이 모두 권장 격려되어 秀才를 얻게 될 것입니다.³⁴⁾

成均館·四學 의 관원은 員數가 매우 많아서 죄다 잘 가려 쓸 수는 없으나, 간간이 물망이 있고 사체를 아는 선비를 쓰면 사장이 엄중해져서 유생도 두려워 복종할 것이다.³⁵⁾

위의 글은 중종대 성균관에 인재들이 모두 조정의 관리들과 인연이 있으니 이를 타파하고 유생들을 등용해야 한다며 李長坤이 올린 상소이다. 李長坤은 金宏弼에게 수학하였으며 기묘사화 때 趙光祖 등 신지사류를 보호한 인물이었다. 조선 초기 사림파는 성리학 기반을 통해 성균관에 진출하고 지역의 유생들과 교류를 하고 있었다. 이후 성균관을 중심으로 공론을 형성하여 鄭夢周를 비롯한 五賢의 문묘 종사 운동이 이루어졌다.³⁶⁾

성균관 다음으로 승문원에 초직을 받은 인물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었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승문원은 16세기 이후 그 위상이 높아졌으며 승문원 출신자 중 당상관에 임명되는 인물이 많았기 때문에 승문원 관원 임명을 둘러싸고 정쟁이 많이 발생하였다.³⁷⁾

槐院에서 圈點할 때 그 사람이 마땅한지의 여부는 전혀 따지지 않고 오로지 팔뚝을 걷어붙이고 잘 싸우고 화와 일을 만들어 내기를 좋아하는 자를 良才로 여겨, 한마음으로 똘똘 뭉쳐 죽자고 배척하면서 단지 한 사람만을 천거하였으니, 이는 참으로 천고에 없었던 일입니다.···한 부서를 간인을 기르고 당파를 심는 한 소굴로 만들고 있으니, 어찌 어진이를 가로막음이 심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槐院의 선발은 오로지 그들의 好惡에서 나옵니다. 圈點을 할 때에 서로 간교한 계책을 내어, 비록 연소하고 총명한 자라고 하더라도 참으로 자기들과 다른 쪽 사람이면 모두 물리쳐버립니다.

金鎭商·李雲龍 같은 사람은 그 지체와 才望이 槐院의 選任에 참으로 합당한데, 까닭없이 누락되었으니, 진실로 애석합니다. 만약 圈點을 고칠 수 없다면 마땅히 銓部로 하여금 槐院의 例와 같이 調用해서 遷轉하게 하소서.³⁸⁾

34) 『중종실록』 5권, 중종3년 2월 13일 신사.

35) 『중종실록』 23권, 중종10년 9월 5일 무자.

36) 『중종실록』 29권, 중종12년 8월 18일 신유; 『광해군일기』(중초본) 29권, 광해2년 5월 2일 병오.

37) 정만조, 「조선시대 삼공의 관력분석」, 『한국학논총』 31, 2009.

38) 『광해군일기』(중초본) 91권, 광해7년 6월 17일 임진; 『광해군일기』(중초본) 110권, 광해8년

위의 글은 승문원에 관직임명은 당색이 많은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준다. 광해군대 대북 정권이 권력을 장악하자 대북의 인물들이 승문원에 임명하였다. 또한 숙종대에는 金鎭商, 李雲龍(개명 李聖龍)의 경우와 같이 서인세력들이 승문원 관직 임명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정권을 장악한 정치 세력들이 승문원에 자신들의 사람들을 임명함으로써 세력을 넓히고 정치적 영향력을 강화하고자 한 것이다.

성균관, 승문원 외에도 예문관 검열에 임명되는 인물도 많았다. 기존의 연구에 의하면 권지자들이 실직으로 나가는 참서관직은 적어도 49자리가 되었다.³⁹⁾이 중 사관의 성격을 가진 예문관 검열과 승정원 주서는 청요직으로서 사림에 인기가 많았고, 명망을 얻기 쉬운 직책이었다. 특히 예문관 검열은 당상관에 오르는 엘리트코스 중 하나였으며, 대표적인 淸直이었다. 예문관 검열은 1년 두 번의 도목에서 2명을 거관하였는데 대상자들은 문과급제자, 분관자, 8품 이하 관원까지도 포함되어 있어서 임명의 경쟁이 치열하였다. 15세기 후반 사림정치기로 들어서면서 한림 분관 인원이 더욱 늘어나고 위상이 높아졌다.⁴⁰⁾

비록 영남 급제자 중 초직으로 주서를 받는 인물을 확인할 수 없었지만 이후 주서에 임명되는 인물도 많이 존재하고 있었다. 주서는 승정원의 정7품 관직으로 문관만을 등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⁴¹⁾ 국정과 관련된 여러 문서를 기록하고 朝報를 작성하여 배포하기도 하였으며 국왕의 근처에서 국정 운영을 직접 견문하기 때문에 대표적인 청요직 중 하나로 인식되었다.⁴²⁾

검열과 주서는 이후 당상관에 오른 인물들이 참서관일 때 임명된 대표적인 관직이었다.⁴³⁾ 검열의 경우 총 35명이 임명되었는데 문음·천거자 중 검열에 임명된 자는 8명이고 나머지는 모두 문과급제자였다. 이 중 17명(48.6%)이 후에 당상관에 임명되었다. 주서의 경우 50명이 임명된 것을 확인하였는데 이

12월 16일 입자; 『숙종실록』 56권, 숙종41년 9월 29일 신유.

39) 이창걸, 「조선시대 문과급제자의 분관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학논총』 31, 2009, 315~316쪽.

40) 차장섭, 『조선후기 벌열연구』, 일조각, 1997; 김경수, 「조선 중종대의 사관연구」, 충남대 박사학위 논문, 1995; 원창애, 「조선시대 예문관 분관 실태와 한림의 관직 승진 양상」, 『조선시대사학보』 57, 2011.

41) 『경국대전』, 「이전」, 경관직조.

42) 최진옥, 『역주조선왕조실록』, 한국학진흥사업단.

43) 16~17세기 相臣에 임명된 176명중 참서관직을 살펴보면 검열 37명, 저작 21명, 홍문관정자 18명, 가주서 11명, 주서 10명, 승문원부정자 6명이었다 (정만조, 「조선시대 삼공의 관력분석」, 『한국학논총』 31, 2009, 135~140쪽).

중 15명(30.0%)이 후에 당상관에 임명되었다. 예문관검열과 주서 모두에 임명된 인물은 총 7명이었는데 이 중 4명(57.1%)이 당상관에 임명되었다.

검열과 주서에 임명된 인원을 시기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V-6> 16~17세기 영남지역 검열·주서 임명자 수

왕대 분류	중종	명종	선조	광해	인조	효종	현종	숙종	계
예문관검열	9	2	12	5	3	1		3	35
승정원주서	11	6	9	5	15		3	1	50
계	20	8	21	10	18	1	3	4	85

검열과 주서에 임명된 인물을 살펴보면 총 85명인데 이 중 중복된 인원을 제외한다면 실제로 78명이 임명되었다. 시기별로 살펴본다면 광해군 대를 기준으로 임명자 수가 급격히 줄어들었다.

기존의 연구에 의하면 전체적으로 16세기 457명이 한림에 임명되었으며 17세기에는 354명이 한림에 임명되었다.⁴⁴⁾ 영남의 경우 16세기(중종~광해) 59명으로 전체 한림 임명자 중 12.9%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지만 17세기(인조~숙종) 26명으로 7.3%의 비중을 점하고 있었다. 즉 17세기를 기준으로 한림에 임명되는 영남인들이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수치의 감소는 인조대 이후 참하관 관직부터 영남인이 정치적으로 소외받았으며 이후 높은 관직에 임명될 가능성이 더욱 감소하였음을 의미한다.

2) 문과급제자의 승육

참상관은 종6품 이상 정3품 이하 관직으로 조회에 참석할 수 있고 큰 죄를 저지르지 않는 이상 직첩을 빼앗기지 않았다. 특히 지방의 수령으로 파견되어 한 고을의 행정·사법·군사를 운용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조선시대 승육하는 것은 명예로운 일로 인식되었다.

영남 문과급제자 1,766명 가운데 참상관 이상에 오른 인물은 1,615명이었으며, 승육을 하지 못한 인물들은 135명, 실직조차 임명받지 못한 인물은 16명이었다.⁴⁵⁾ 이 1,615명 가운데 16~17세기 참상관 이상에 임명된 인물들은 675명

44) 원창애, 「조선시대 예문관 분관 실태와 한림의 관직 승진 양상」, 『조선시대사학보』 57, 2011, 214쪽.

45) 위의 수치는 1894년 갑오경장으로 개편된 관료제가 포함된 수치이다. 판임관은 참하관, 주

이었다. 이중 갑과에 급제하여 종6품 이상의 실직을 받은 인물은 35명, 문음·천거·공신 등으로 6품 이상의 실직을 받은 인물은 15명이고 나머지 625명은 분관 또는 참하관을 거쳐 참상관에 오른 인물이었다.

675명 중 승육한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인물은 330명이었다. 이에 의하면 영남인은 평균 40.5세에 승육하였는데 영남인의 초직 평균연령은 36.3세였으므로 초직을 받고 참상관에 임명되는데 약 4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다. 실제 초직을 받고 승육하기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인물이 215명이었는데 이들은 참하관에 있다가 평균 4.2년 이후 참상관에 임명되었다. 또한 문과에 급제하고 참상관에 오르는데 5.1년의 시간이 걸렸다.

음직으로 실직을 받고 있다가 문과를 통해 승육한 인물의 평균연령을 살펴보면 48.1세였으며 승육까지 소요된 기간은 4.6년이었다. 문과 갑과에 급제하여 바로 승육한 인물의 경우 평균 39.3세였다. 을·병과 문과급제자의 평균연령을 살펴보면 40.3세였으며 초직에서 승육까지 소요된 기간은 5.6년이었다. 승육하기까지 걸린 기간과 평균연령을 살펴보면 문과를 통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었다.

승육하는 평균 연령의 시기적 변동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V-7> 16~17세기 영남지역 급제자 승육 평균연령·기간

왕대 분류	중종	명종	선조	광해	인조	효종	현종	숙종
평균연령 (세)	35.9	37.8	40.8	35.3	42.6	42.3	40.2	41.0
초직~승육기간 (년)	3.1	3.4	6.8	4.8	4.9	3.7	3.4	4.0
문과~승육기간 (년)	5.5	5.6	6.8	4.0	6.2	5.4	4.2	5.5

<표 V-7>에 의하면 중종대부터 참하관직에서 참상관직에 오르는데 보통 3~4년이 걸리며 문과에 급제하고 참상관에 오르는데 약 5~6년이 걸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태종시기 柳伯淳이 상소를 올려 보면 성균관은 8년, 교서관은 4년을 지난 후에야 비로소 6품직에 승진하는데 그 때의 나이가 30~40대가 된다고 주장하였다.⁴⁶⁾ 이에 의하면 조선 초기부터 문과급제자 승진에 상당한

임관은 참상관, 칙임관은 당상관으로 파악하였다. 칙임관은 4명, 주임관은 16명, 판임관은 14명이었다.

46) 『태종실록』 20권, 태종 10년 10월 29일 입술.

어려움이 존재하였고 승육하는데 평균적으로 7~8년이 걸린 것으로 보인다. 영남의 경우에는 이보다 짧은 기간이 걸리고 있었다. 이는 성종대 이후 영남을 비롯한 향촌의 사림파가 중앙정계에 진출하여 훈구파와 대립하였고, 이를 통해 영남사림파의 영향력을 강화되고 있었기에 가능하였다. 또한 중종과 광해군대부터는 ‘別薦’, ‘加薦’과 같이 권지직의 승진이 활발히 이루어졌다.

典籍의 결원이 많고 문신의 監察도 아직 임명하지 않은 것이 많으니, 四館 관원 중에서 전례에 의하여 別薦하기를 청합니다.

조광조가 用事할 때에 彈駁을 크게 벌여 조정에 온전한 사람이 없어서 육조의 郎官을 채우지 못하면 벼슬하지 않던 사람을 천거하여 佐郎으로 삼기도 하였는데, 그래도 죄다 채우지 못하면 번번이 사관의 관원을 특별히 천거하여 가려 쓰기를 청하였다.

지난번에 金安老가 이 폐단을 제거하고자 하여 權知 4員 이상을 加薦하는 법을 설치하였는데, 김안로가 쫓겨 나면서 이법이 쓰여지지 않고 말았습니다. 공자가 ‘사람 때문에 말까지 폐지하지는 말라.’고 하였으니, 그렇다면 김안로의 법이라고 하여 쓰지 않는 것은 크게 공정한 도리가 아닌 듯합니다. 지금 다시 이 법을 권지들에게 쓴다면 권지들이 침체되는 폐단을 막을 수 있으며, 六品에 인재를 등용하는 길도 넓히게 되어서 매우 합당할 듯합니다.⁴⁷⁾

別薦과 加薦은 인사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조선 초기에 시행되는 정책 중 하나였다. 하지만 단순히 인사적체 해소뿐만 아니라 趙光祖와 金安老와 같이 자파 세력을 늘리는데 활용되기도 하였다. 특히 중종대는 사림파의 세력을 확대하고자 하는 국왕의 의지가 작용하면서⁴⁸⁾ 영남의 인물들이 상대적으로 젊은 나이에 참서관직에 오를 수 있었다. 하지만 임진왜란으로 인해 관직 진출이 늦어지고 이후 평균 연령이 40대로 급격히 높아졌으며 인조 이후 참서관에서 참서관에 오르는데 걸리는 기간이 길어진다.

다음으로 승육하면서 임명된 관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47) 『중종실록』 10권, 중종 5년 2월 12일 무술; 『중종실록』 40권, 중종 15년 10월 8일 임진; 『명종실록』 15권, 명종 8년 7월 15일 기미.

48) 차미희, 『조선시대 과거시험과 유생의 삶』,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12, 55~58쪽.

<표V-8> 16~17세기 영남지역 급제자 승육 관직 인원

관직명	전직	찰방	좌랑	정언	주부	감찰	도사	수찬	교수
품계	정6품	중6품	정6품	정6품	중6품	정6품	중5품	정6품	중6품
수(명)	118	59	45	32	15	14	10	9	9

관직명	부수찬	사서	현감	정랑	교검	별제	직감	판관	평사
품계	중6품	정6품	중6품	정5품	정6품	정6품	정5품	중5품	정6품
수(명)	7	7	5	5	3	2	2	2	1

<표V-8>에 의하면 18개 직역에서 345명이 확인되었다. 이들은 임명된 관직은 전직, 찰방, 좌랑, 정언, 주부 등이 대다수였다.

전직은 도서의 수장·출납·관리를 담당하는 직책이었으며 유생은 물론 종친들의 교육까지 담당하였다. 초기에는 문관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되었지만 연산군대는 정원이 6명으로 감소되었다.⁴⁹⁾ 하지만 영남의 관직자의 경우 전직에 많은 수가 진출하고 있었다.

찰방의 경우 외방직으로 역참의 운영, 역리와 노비의 차정 및 관리, 관사 보수, 지방 규찰 등의 임무를 담당하였다. 특히 중종대에는 역승이 폐지되고 찰방체제로 변화되면서 문관이 승육하는데 적극적으로 활용되었다.⁵⁰⁾ 성균관·교서관에 분관된 인물들이 많이 임명되는 관직이었다.

정언은 간관·언관 중에 하나로 국왕에 대한 간쟁과 봉박을 담당하는 직책이었다. 조선 초기 중앙정계에 진출한 사림파는 언론활동을 중심으로 자신들의 정치적 이상을 실현시켜 나갔다.⁵¹⁾ 연산군대에 정언이 일시적으로 혁파되었다가 중종대 이후 다시 설치되고 영남사림파의 임명이 많아졌다. 영남의 경우 급제자가 많았던 중종(10명), 선조(9명) 시기에 정언에 임명된 인원들이 많았다. 또한 좌랑·정랑의 경우 15세기까지 여러 관직을 거친 후에 낭관에 임명되었지만, 16세기 이후 육조낭관도 승육이 가능해지면서 승육 후 처음 제수되는 관직으로 좌랑의 수가 증가하였다.

여러 참서관직 중 당상관에 진출할 가능성이 많은 관직은 홍문관의 관직이었다. 홍문관은 관직의 종류가 많아서 참상청요직의 모집단을 이루고 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었다.⁵²⁾

49) 『연산군일기』 61권, 연산 12년 1월 6일 병술.

50) 『중종실록』 79권, 중종 30년 6월 1일 경인.

51) 최이돈, 『조선중기 사림정치구조연구』, 일조각, 1994; 최승희 『조선초기 언론사연구』, 지식산업사, 2004.

52) 남지대, 「조선후기 당쟁의 종합적 검토」, 『조선후기 당쟁의 종합적 검토』, 한국정신문화연구

홍문관을 玉堂이라 하고 文士로서 여기에 입선되는 것을 사람들이 ‘瀛洲에 올랐다.’고 일컫고 있으니, 여기에 있는 자는 의당 문학에 전력하여 성상께서 권면하시는 뜻을 받아들여 옳은 일입니다.⁵³⁾

당시 사람들은 홍문관에 임명된 것을 당 태종대 18학사에 일에 비유(登瀛州)하여 높은 관직에 올랐다고 인정하고 있었다. 원창애의 연구에 의하면 홍문관 임명자 3,619명 가운데 2,756명이 당상관에 임명되었는데 전체 당상관을 지낸 4,308명 중 64.0%가 홍문관을 거쳐 당상관에 임명된 인물이었다.⁵⁴⁾ 홍문관의 대표적인 관직을 살펴보면 수찬, 교리, 응교, 직제학, 집의 등이었다. 수찬 65명 중 당상관에 오른 인물은 37명(56.9%), 교리 16명 중 당상관에 오른 인물은 8명(50.0%), 응교 18명 중 당상관에 오른 인물은 12명(66.7%), 직제학 13명 중 당상관에 오른 인물은 12명(92.3%), 집의 52명 중 당상관에 오른 인물은 34명(65.4%)이었다.

이러한 관직에 진출한 영남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V-9> 16~17세기 영남지역 홍문관 관직 임명자 수

관직 \ 왕대	중종	명종	선조	광해	인조	효종	현종	숙종	계(명)
수찬	19	5	18	8	5	1	4	5	65
부수찬	6	2	10	4	3		4	4	33
부교리	2	1		1				1	5
교리	7		2	3			1	3	16
응교	7	2	5	1	1		1	1	18
직제학	9	1	3						13
집의	9	4	11	2	8	4	7	7	52
계(명)	59	15	49	19	17	5	17	21	202

<표 V-9>에 당상관에 오르는 대표적인 참서관직에 오른 인물은 202명이었다. 이 중 중복적으로 관직에 임명된 인물을 제외한다면 125명이었다. 위의 7개 직책에서 69명이 당상관에 올랐다. 나머지 다른 참서관을 거친 후 당상관에 오른 인물은 63명인 것을 보았을 때 위의 관직들이 당상관에 오를 확률이 높은 직책임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이 시기 참서관에 임명된 인물은 총 675

원, 1992, 450쪽.

53) 『명종실록』 25권, 명종 14년 2월 8일 경술.

54) 원창애, 「조선시대 문과급제자의 관직 진출 양상」, 『조선시대사학보』 43, 2007, 41쪽.

명으로 이 중 홍문관·직제학·집의에 임명된 비중은 18.5%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는 홍문관 관직에 임명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양사와 옥당의 계사에 배척하고 공격함이 원수보다 더 심합니다. 그러나 이는 애당초 외척 중 臺諫이 된 사람이 몰래 私黨을 결성하여 公議라고 거짓 핑계하면서 마음에 품은 생각을 감행하여 의리를 지키는 사람을 아무 거리낌없이 마구 법에 걸어 빠뜨린 데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나이준은 집이 永川에 있는데, 先朝 때에 玉堂에 뽑혀 들어갔었다. 이때에 이르러 영남 사람들이 모두 기뻐 뛰면서 와서 날마다 除授되고 달마다 遷轉하니, 淸宦과 顯職을 지푸라기 줍는 것처럼 하였다.⁵⁵⁾

위의 글은 광해군대 좌의정이었던 鄭仁弘이 사직을 청하며 당시 조정의 상황을 전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玉堂 즉 홍문관과 兩司가 탄핵권을 활용하여 정국을 운영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영남인의 경우 중종과 선조대에 홍문관에 많은 인원이 임명되었으나 광해군대 이후 점차 이 홍문관 관직자가 감소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영남인 중 홍문관 관직에 임명된다는 것은 영예로운 일이 되었다. 羅以俊은 영조대에 노론으로 변절하였지만 숙종대에는 대표적인 남인 인물 중 한명이었다. 그가 홍문관직에 임명되고 정치적 영향력이 강화되면서 영남인의 지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전체적으로 사림파가 많이 진출하던 중종시기에 홍문관직과 집의에 많은 인물들이 임명되고 있었다. 특히 수찬과 부수찬은 중종과 선조시기에 많은 인물들이 임명되었다. 수찬은 정6품 관직으로 왕의 명령이나 글을 대신 지었으며 경연에 참여하여 국왕의 자문 및 교육을 담당하는 직책이었다. 따라서 국왕과 접할 기회가 많았고 또한 실록을 만들 때도 참여하여 사람들에게 청요직으로 인식되었다.

직제학과 집의의 경우에도 당상관에 임명되는 비중이 높았다. 홍문관직제학 또한 경연에 참여하였으며 정3품 참서관으로 당상관에 오를 확률이 높았다. 하지만 영남의 경우 선조 이후로 이 직책에 임명되지 못했다. 집의 또한 종3품으로 참서관 중 상급관직으로 조강에 참석하고 언론 활동을 진행하기도 하였다. 특이하게 인조대 이후로 홍문관 관직에 임명되는 영남인이 줄어드는 과정에서 집의에 임명되는 인물들이 많았는데 노론 중심으로 정국이 운영되는

55) 『광해군일기』(중초본) 82권, 광해 6년 9월 13일 입술; 『숙종실록』 4권, 숙종 1년 10월 18일 입신.

과정 속에서도 공론을 통한 대항세력으로 영남 남인들이 주목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3) 문과급제자의 당상관 진출

당상관은 평소의 物議와 평판을 기준으로 관행에 따라 이조에서 注擬를 거쳐 임명되었다.⁵⁶⁾ 이러한 방식에 의하면 당상관에 임명되는 기준은 경력과 능력 외에도 당시 정치적 상황이나 국왕의 의지가 많이 개입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당상관에 임명되는 인원을 확인하면 당시 정치적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

중종~숙종 시기 당상관에 임명된 영남인들은 총 132명이었다. 이들 중 처음 당상관에 임명된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인물은 106명이었다. 이들이 당상관에 임명되는 평균연령은 56.3세였으며 30대에서 90대까지 나이층이 다양하였다. 참상관을 거쳐서 당상관에 임명되는 기간은 평균 17.9년이었으며, 문과에 급제하여 당상관에 임명되기까지 평균 23.0년이 걸렸다.

문음과 천거로 관직을 시작하여 이후 문과에 급제하고 당상관에 오른 인물은 11명으로 당상관에 임명되는 평균연령은 58.3세로 문과에 급제하고 당상관에 이르기까지 16.3년이 걸렸다. 문과 갑과에 급제하여 바로 6품직을 받고 이후 당상관에 오른 인물은 6명으로 당상관에 임명되는 평균연령은 53.8세였으며, 문과에 급제하고 당상관에 이르기까지 23.2년이 걸렸다. 한편 을·병과에 급제하고 참하·참상관을 거쳐 당상관에 오른 인물은 115명으로 당상관에 임명되는 평균연령은 56.2세였으며, 문과에 급제하고 당상관에 이르기까지 23.7년이 걸렸다.

문음·천거자의 경우 당상관에 임명되는데 평균연령이 높았으나 당상관에 임명되기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가장 짧았다. 하지만 문음·천거에 혜택을 얻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대부분이 문과에 급제하여 관직에 진출하고 있었다. 문과 갑과와 을·병과에 합격하고 당상관에 이르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큰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갑과에 임명되면 바로 6품 관직에 임명될 수 있었기 때문에 당상관에 임명되는 평균 연령이 을·병과에 비해 짧았다.

당상관에 임명되는 시기별 변동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56) 정만조, 「조선시대 삼공의 관력분석」, 『한국학논총』 31, 2009, 141쪽.

<표 V-10> 16~17세기 영남지역 급제자 당상관 평균연령·기간

왕대 분류	중종	명종	선조	광해	인조	효종	현종	숙종
평균연령 (세)	50.1	52.2	53.9	54.3	67.6	59.7	49.9	69.0
승육~당상기간 (년)	14.7	11.9	14.6	9.6	26.7	20.5	17.7	25.1
문과~당상기간 (년)	20.1	21.0	20.1	15.0	33.5	26.2	20.2	32.1

<표 V-10>에 의하면 광해군대와 인조대에 당상관 평균연령과 당상관까지 임명되는 기간에 급격한 변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광해군대에 당상관에 임명된 인물을 살펴보면 姜弘立, 裴大維, 朴守緒, 金中淸, 朴宗胄 등 광해군의 측근이거나 북인계열의 인물이 많았다. 姜弘立은 1608년(광해 즉위년) 보덕이 되었고 1609년 한성부우윤에 임명되었다. 1619년 명나라의 원병으로 가서 임금의 명으로 청나라에 투항하였다. 朴宗胄은 鄭仁弘의 심복으로 인목대비 폐모에 참여하였으며 1622명 승지에 올랐다.⁵⁷⁾ 裴大維는 계축옥사와 인목대비 폐모에 참여하였으며 1619년 승지와 참의에 임명되었다.⁵⁸⁾ 하지만 이들은 인조반정으로 삭직된다. 광해군 이후 인조반정으로 대북계의 인물이 몰락하고 서인 중심으로 정권이 재편되면서 이후 당상관에 오르는 연령이 높아지고 기간이 늘어났다.

인조대에 당상관에 오른 인물들을 살펴보면 李垞, 全滉, 崔暉, 鄭蘊, 李民歲, 李彦英, 金榮祖, 李潤雨, 權濤, 洪鎬 등으로 柳成龍·鄭述·張顯光의 문인으로 남인계열의 인물이 많았다.

李垞은 柳成龍의 문인으로 1611년(광해 3) 鄭仁弘이 李滉을 비난하자 그를 배척하고 낙향하게 된다.⁵⁹⁾ 이후 인조반정이 일어나자 다시 관직에 나가 서인 세력과 대립하고 1624년 이괄의 난, 1627년 정묘호란이 발생하자 의병을 일으켰고 1628년 승지에 임명되고 부제학에까지 이르렀다. 鄭蘊은 鄭仁弘의 문하였으나 폐모론을 반대하였고 인조반정이 일어나자 절의를 가진 인물로 평가되어 사간에 임명되었다.⁶⁰⁾ 이후 참의, 대제학, 이조참판을 역임하였고 1636년(인조 14) 병자호란 때 척화를 주장한 인물이다. 金榮祖는 金誠一의 사위로 광

57) 『인조실록』 1권, 인조 1년 4월 29일 무자.

58) 『광해군일기』 144권, 광해 11년 9월 11일 경인.

59) 『광해군일기』 40권, 광해 3년 4월 11일 경진.

60) 『인조실록』 1권, 인조 1년 3월 16일 병오.

해군대 낙향하였다가 인조반정 이후 관직에 나가 언관직으로서 서인과 대립하였다.⁶¹⁾ 1637년 대사헌에 임명되고 이조참판에까지 임명되나 私적으로 인재를 등용했다는 이유로 파직된다.⁶²⁾ 하지만 점차 서인의 권력이 강화되고 李玄逸의 실각으로 남인의 정치적 영향력이 점차 감소하였다.

다음으로 당상관에 임명된 관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V-11> 16~17세기 영남지역 급제자 당상관직 인원 수

관직명	승지	참의	첨지사	대사간	부윤	판결사
품계	정3품	정3품	정3품	정3품	종2품	정3품
수(명)	51	17	10	6	6	5

관직명	대사성	부제학	관찰사	동지사	대사헌	우윤
품계	정3품	정3품	종2품	종2품	종2품	종2품
수(명)	3	3	3	2	1	1

<표V-11>에 의하면 영남인들은 승지, 참의 등 경관직에 많이 임명되고 있었다. 승지와 참의는 당상관에 오를 때 임명되는 대표적인 관직이었다.

승지의 경우 왕명의 출납뿐만 아니라 왕의 근시로서 국왕의 모든 행사에 같이 참여하였으며 왕을 대리하여 사신을 영접하거나 국가 제사나 외방시를 주관하기도 하였다. 참의는 판서와 참판을 보좌하여 정사를 운영하였다. 또한 이후 무난하게 정2품 이상의 관직에 승진하였기 때문에 청요직으로 인식되었다. 또한 대사간과 같이 언론 활동을 관리하는 중요관직이나 노비 관련 쟁송을 관리하는 판결사와 같이 전문 관직도 있었다. 판결사는 조선 초기 사대부의 재산인 노비와 관련된 업무를 관장하기 때문에 엄격히 가려서 임명하였다.⁶³⁾

정치적 변동으로 인해 영남인들은 당상관에 오르기는 어려웠지만 16·17세기에는 승지와 참의와 같은 대표적인 당상관에 임명되는 인물이 많았으며, 대사간, 판결사와 같이 중요 관직에 임명되는 인물도 많았다.

61) 『인조실록』 9권, 인조 3년 5월 17일 갑자.

62) 『인조실록』 43권, 인조 20년 6월 25일 계해.

63) 최진옥, 『역주조선왕조실록』, 한국학진흥사업단.

3. 18~19세기 영남지역 문과급제자의 관직 진출

1) 문과급제자의 초직

18~19세기(경종~고종) 급제한 인물은 총 774명으로 『조선왕조실록』과 『승정원일기』를 통해 초직을 확인할 수 있는 인물은 546명이었다. 이 중 갑과로 급제하여 참서관에 오른 인물과 천거·문음으로 실직을 받은 인물들을 제외하면 518명이 권지직을 거쳐 초직으로 참서관에 임명되었다. 전체 774명 중 66.9%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음직이나 천거로 참서관에 임명되고 후에 문과에 급제한 인물은 10명이었다. 임명된 관직을 살펴보면 종9품 참봉 6명, 종9품 수봉관 1명, 정9품 훈도 1명, 종8품 봉사 2명이었으며, 문과에 급제한 후 직장 1명, 수찬 1명, 부수찬 1명, 예문관검열 1명, 전직 1명, 교수 1명, 승문원정자 1명, 찰방 2명으로 다양한 관직에 승진하고 있었다.

영남의 문과급제자 중 18·19세기에 초직에 임명된 나이를 알 수 있는 인물은 529명으로

평균연령은 38.5세였는데 16·17세기 36.3세보다 연령이 높아졌다. 이 중 음직·천거로 참서관 초직을 받은 인물의 평균연령은 37.9세, 문과에 급제하고 초직을 받은 평균 연령은 38.5세로 문과에 급제한 인물들이 음직이나 천거를 받은 인물들에 비해 연령이 높았다. 이는 16·17세기와 비교해 음직·천거자의 나이가 젊어졌고 문과급제자는 연령이 높아지면서 일어난 현상이었다.⁶⁴⁾ 18세기 이후 영남 남인들이 정치적으로 소외를 받게 되면서 영남 급제자의 연령이 높아지기 시작하였다. 더군다나 18세기 문과급제자가 감소하면서 음직을 받는 경우도 감소하였다.

초직 임명자의 시기별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V-12> 18~19세기 영남지역 급제자 초직 평균연령·기간

왕대 분류	16·17세기	경종	영조	정조	순조	헌종	철종	고종
평균연령 (세)	35.9	36.1	40.5	37.0	38.6	38.9	37.0	38.6
기간 (년)	1.0	1.0	3.6	3.4	0.5	0.2	0.5	0.7

64) 16·17세기 음직과 천거로 참서관 초직을 받은 인물의 평균연령은 42.1세였고 문과에 급제하고 초직을 받은 평균 연령은 36.0세였다.

<표V-12>에 의하면 영남인은 16·17세기에 비해 18·19세기 초직 임명의 평균연령이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영조대를 기준으로 권지직에서 실직을 받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정사책』에 의하면 권지직에서 실직에 나가는데 소요되는 기간이 평균 3년이 걸렸다.⁶⁵⁾ 더군다나 영조대는 탕평정치가 시행되면서 서북지방을 중심으로 다른 지역에서 많은 인물들이 중앙정계에 진출하면서 상대적으로 영남의 급제자가 감소하였다. 또한 무신란으로 영남 남인의 영향력이 급격히 감소하였다.

이후 정조대 잠시 영남인의 초직 임명 평균연령이 감소하기 시작하였고, 30대 후반에 초직을 받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으로 정착하게 된다. 순조대는 권지직에서 실직을 받기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이전 왕조시기에 권지 적체 현상이 심화되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조정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이다.

당하 문신의 진도가 적체되었으니, 이제 겨우 도당의 회권을 행하였다는 것으로서 구애될 수 없습니다. 청컨대 부제학을 차출하고 이어 본관록을 속히 거행하게 하소서.⁶⁶⁾

사직서 영은 일찍이 괴원의 참상으로 청관에 통의되지 못한 자의 적체된 한 자리를 문신으로 차제하였었는데, 근래에는 괴원에도 별로 적체될 우려가 없으나⁶⁷⁾

삼관에서 출륙한 뒤에 차례로 직책을 주는 것은 바로 사람들을 등용하는 정사와 관계됩니다. 그러나 자리수는 제한되어 있고 사람은 많기 때문에 적체되는 염려가 없지 않다고 합니다. 성균관의 참하직인 전적을 옛 규례대로 회복하여 다시 참상의 자리로 삼아 처리하게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⁶⁸⁾

문관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이전부터 시행하였던 ‘別薦’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였다. 또한 과거의 관직을 회복시켜서 참서관직에 오를 수 있는 관직을 늘리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국왕의 의지와 정국 주도 세력의 동의가 있어야지 가능한 일이었다. 정조대 이후 영남 남인들에 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초직의 승진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65) 원창애, 「조선시대 문과급제자의 관직 진출 양상」, 『조선시대사학보』 43, 2007, 37쪽.
 66) 『순조실록』 28권, 순조 26년 5월 25일 병오; 『순조실록』 6권, 순조 4년 5월 2일 경인.
 67) 『헌종실록』 4권, 헌종 3년 9월 25일 경자.
 68) 『고종실록』 7권, 고종 7년 7월 30일 갑오.

영남인이 초직으로 승진한 관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V-13> 18~19세기 영남지역 급제자 초직 인원 수

관직명	승문원 부정자	별검	성균관 학유	교서관 부정자	수봉관	정자	직장	예문관 검열	훈도
품계	종9품	종8품	종9품	종9품	종9품	정9품	종7품	정9품	종9품
수(명)	408	65	58	27	23	10	8	3	3

<표V-13>에서 보듯 영남인 605명이 9개 직책에 임명되었다. 많이 진출한 관직을 살펴보면 승문원 부정자, 별검, 성균관 학유, 교서관 부정자, 수봉관, 정자, 직장, 예문관 검열, 훈도 등이었다. 16·17세기 성균관 학유, 부정자, 정자, 예문관 검열, 직장, 성균관 학유, 한성부 참군, 성균관 학정, 훈도 등의 순으로 성균관 관직이 많은 수를 차지하였으나 18세기 이후 승문원 부정자에 임명된 인물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또한 별검, 수봉관과 같은 능직에 임명되는 인물이 많아졌다.

임명된 관서를 보면 승문원 415명, 성균관 68명, 교서관 27명, 예문관 3명, 사포서 1명 등으로 승문원 초직에 임명된 인물들이 많았다. 승문원에 분관되는 인원이 인조대 이후로 증가하면서 승문원 관직에 임명되는 인물도 자연스럽게 많아졌다.

괴원의 간택은 곧 신진의 청선입니다. 반드시 젊고 총민하며 재주와 명망이 평소에 드러난 자를 취하기 때문에 일단 간택한 뒤에는 사람들이 이의가 없습니다. 이번에 천거된 자는 열 사람이나 되는데, 혹은 요로에 있는 자와 친근하여 덕없이 뽑히기도 하고 혹은 엽관하여 진출하기도 하였으므로 물의가 떠들썩하게 일어나 모두들 난잡하게 천거되었다고 합니다.⁶⁹⁾

괴원 분관에서 취사가 공정하지 않아 외람되고 잡스런 것이 많으니, 청컨대 해당 장무관은 삭출하고, 참좌한 세 사람은 모두 파직하소서⁷⁰⁾

승문 분관 중에서 김서복에게는 마땅히 권점이 없어야 하는데 잘못 알고 혼동해서 권점을 찍었습니다. 권점을 주관한 여러 사람들이 연명하여 정순 하고 있으니, 청컨대 김서복의 권점을 삭제 하소서.⁷¹⁾

69) 『인조실록』 43권, 인조 20년 6월 18일 병진.

70) 『경종실록』 13권, 경종 3년 8월 8일 을묘.

71) 『정조실록』 5권, 정조 2년 1월 6일 정묘.

위의 글에 의하면 승문원 관직을 거치면 당상관에 오를 확률이 높아지면서 새로 중앙정계에 진출한 인물들이 승문원에 임명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승문원 관직자 임명이 정쟁으로 비화되기도 하였다. 특히 숙종 후반 이후부터 점차 남인 급제자들이 승문원 분관에서 제외되기 시작하였다.⁷²⁾ 金榮祖의 현손인 金瑞復의 경우에도 가계가 확실하지 않은 인물이 승문원에 분관되었다는 이유로 분관이 취소되고 이를 담당한 관리들도 파직되었다.

하지만 정조대 이후로 영남 남인에 대한 차별이 어느 정도 완화하기 시작하였다.

외방의 인재도 의당 널리 뽑아야 하는데 嶺南은 곧 士大夫들이 冀北 이고 西北과 松都에 대해서는 일찍이 受教가 있었으니, 반드시 모두 收用함으로써 나의 뜻에 부합하게 하라.⁷³⁾

정조는 영남을 冀北 즉 인재가 많이 배출된 지역으로 인식하고, 서북지역과 함께 직접적으로 인재를 등용할 것을 언급하고 있다. 이후 도산별시를 시행하여 영남의 사기를 진작시켰으며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영남인의 승문원 진출이 증가하였다.

초직으로 승문원에 임명된 시기를 살펴보면 경종대 영남 급제자 중 초직으로 승문원부정자에 임명된 비중은 23.5%(4명), 영조 27.7%(46명), 정조 39.2%(38명), 순조 70.4%(107명), 헌종 72.6%(53명), 철종 76.2%(61명), 고종 56.1%(106명)로 정조대 이후로 승문원 임명자가 증가하였다.

한편 참하관직 중 당상관에 오를 확률이 높은 검열과 주서에 임명된 인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V-14> 18~19세기 영남지역 검열·주서 임명자 수

왕대 분류	경종	영조	정조	순조	헌종	철종	고종	계(명)
예문관검열		2		1				3
승정원주서		11	2	4	1	4	8	30
계(명)	0	13	2	5	1	4	8	33

72) 차미희, 「조선후기 문과급제자의 분관」, 『한국사학보』 6, 1999, 92~93쪽.

73) 『정조실록』 2권, 정조 즉위년 12월 29일 병인.

검열과 주서에 임명된 인물은 중복적으로 임명된 인원을 제외한다면 총 32명이었다. 사림과의 진출이 활발하였던 중종대에 임명자가 많았으나 숙종대 이후로 임명자가 감소하였다. 18·19세기가 되면 이러한 현상이 더욱 심화되어 검열 임명자가 한 명도 없는 시기도 존재하였다. 조선 후기에 예문관검열 임명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었으나 영남에서는 오히려 감소하였다.⁷⁴⁾

주서의 경우에는 그 수가 줄어들었지만 지속적으로 영남인이 임명되었다. 17세기까지 주서는 注薦制를 통해 인사권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18세기 영조대 개혁에 의해 주서 圈點과 召試로 변화하면서 주서 임명에 국왕의 개입이 증가하였다. 18세기 이후 국왕들은 영남인을 등용하여 측근세력을 만들고자 하여 예문관검열과는 달리 주서는 지속적으로 임명되었다.

내가 영남 사람을 收用하는 까닭은 이를 남에게 자랑하여 빛내자는 것이 아니라, 그 鄒魯의 고장이기 때문에 수용한 것이니, 너도 또한 나의 뜻을 본받으라

임금이 明政殿에 친림하여 生員·進士의 科榜을 발표하였다. 申光鼎·文演樸 등 2백 인을 뽑았는데, 모두 涵仁亭에서 소견하였다. 嶺南은 과방에 든 자가 30여 인이며 儒學의 고장이고 또 名賢의 자손이 많다 하여, 銓曹에서 재주에 따라 調用하여 침체되지 말게 하라고 명하였다.⁷⁵⁾

무신란으로 인해 비록 ‘반역향’이 되었지만 영조는 영남이 유학이 발전하고 과거 많은 인물들이 배출된 지역이라고 하며 인재를 고르게 등용하고자 노력하였다. 이 시기에 趙德隣, 金(1+政), 權相一, 申正樸 등이 등용되었다.

19세기가 되면 능직에 임명된 사람들도 많았다. 임명된 능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참봉(6명), 별검(64명), 직장(22명), 수봉관(23명)으로 총 급제자 494명 중 23.3%를 차지하고 있었다. 원래 능직은 문관이 참여할 수 있는 초직 중 하나였으며,⁷⁶⁾ 17세기부터 참하관의 적체를 해결하기 위해 능직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1711년 8릉의 능관 각 2명 중 1명을 직장으로 고치고, 11릉 능관 2원 중 1명을 봉사로 고쳤다.⁷⁷⁾ 별검의 경우 원래 무록관으로 8품 한직이었으나 후기로 갈수록 별검이 배속되는 관서가 증가하면서 정원이 증가하였다.⁷⁸⁾

74) 18~19세기 相臣에 임명된 122명 중 참하관에 임명된 관직을 보면 검열 34명, 가주서 23명, 설서 23명, 주서 7명, 대교 6명이었다 (정만조, 「조선시대 삼공의 관력분석」, 『한국학논총』 31, 2009, 131~132쪽).

75) 『영조실록』 98권, 영조 37년 10월 27일 임진; 『영조실록』 81권, 영조 30년 4월 17일 병신.

76) 『경국대전』, 「이전」, 경관직조.

77) 『승정원일기』 461책, 숙종 37년 6월 26일 갑신.

또한 19세기에는 국왕의 私親의 묘소인 원을 지키는 종9품 수봉관이 문관의 초직으로 추가되면서 영남인 중 수봉관에 임명되는 인물이 증가하였다.⁷⁹⁾

18세기에 정치적으로 소외받자 참하관 주요관직에 임명되는 영남인이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19세기 문과급제자가 증가하고 영남 남인이 다시 관심을 받게 되면서 승문원 부정자, 능직을 중심으로 많은 인물들이 초직을 받게 된다.

2) 문과급제자의 승육

18~19세기 참상관 이상에 임명된 영남인은 680명이었다. 이 중 갑과에 급제하여 종6품 이상의 실직을 받은 인물은 24명, 문음·천거·공신 등으로 6품 이상의 실직을 받은 인물은 8명이었고 나머지 648명은 권지직·참하관을 거쳐 참상관에 오른 인물이었다.

680명 중 처음 승육한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인물이 510명으로 평균 43.2세에 승육하였다. 영남인의 초직 평균연령은 38.5세인데 초직을 받고 약 5년 뒤에 승육하였다. 초직을 받고 이후 승육하는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인물은 433명으로 참상관에 임명되기까지 평균 4.3년의 시간이 걸렸다. 또한 문과에 급제하고 참상관에 오르는데 5.4년의 시간이 걸렸다.

참상관에 임명되는 평균연령을 살펴보면 16·17세기(평균연령 40.5세)와 비교해 18·19세기에 평균연령(평균 43.2세)이 높아졌으나 승육하기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16·17세기(초직~승육기간 4.2년, 문과~참상기간 5.1년)와 큰 차이가 없었다. 음직으로 실직을 받고 이후 승육한 인물들의 평균연령을 살펴보면 44.8세였으며, 문과에 급제하고 승육까지 걸린 기간은 1.7년이었다. 한편 문과 갑과에 급제하여 바로 승육한 인물의 경우 평균연령이 33.4세였다. 을·병과에 급제하고 승육한 인물의 평균연령을 살펴보면 43.3세였으며 초직에서 승육까지 걸린 기간은 4.2년, 문과에 급제하고 승육까지 걸린 기간은 5.5년이었다.

승육까지 걸린 기간과 평균연령을 살펴보면 문과 갑과에 급제하는 것이 참상관에 임명 되는데 가장 빠른 방법이었으며 다음은 문과에 합격하고 참하관을 거치는 경우였다. 문음의 경우 문과보다 승육하는데 소유되는 기간이 길었으나 문과급제자의 참하관의 초직 진출이 늦어지면서 문음과 문과급제자의 차

78) 『대전통편』, 「경관직」, 전릉원묘조.

79) 1753년(영조 29) 처음 수봉관을 두었으며 주로 국왕 후궁의 원에 배정되었다. 정조대에 사도세자의 원에도 수봉관 2명을 두었다 (『대전통편』, 「경관직」, 전릉원묘조).

이가 점차 줄어들었다.

승육하는 평균 연령의 시기적 변동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V-15> 18~19세기 영남지역 급제자 승육 평균연령 · 기간

왕대 분류	16·17세기	경종	영조	정조	순조	헌종	철종	고종
평균연령 (세)	40.5	40.3	45.0	41.2	43.9	42.5	42.2	43.2
초직~승육기간 (년)	4.2	3.4	4.2	3.4	5.6	3.8	4.1	3.3
문과~승육기간 (년)	5.5	5.0	7.5	6.3	6.0	3.9	4.7	3.6

<표 V-15>에 의하면 경종대부터 참하관에서 참상관에 오르는데 소요되는 기간이 약 4~5년으로, 문과에 급제하고 참상관에 오르는데 약 5~6년이 걸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18세기 초 특히 영조대에는 승육의 평균연령이 높아지고 초직~승육 소요기간이 길어졌으나 순조 이후 초직~승육 소요기간이 줄어들었다.

순조대는 주서와 한림을 중심으로 특별히 승육을 시키는 경우가 많았으며 국왕의 측근을 특별히 승진시켰다.⁸⁰⁾ 하지만 영남인의 경우 검열과 주서에서 소외되면서 승육의 기회가 줄어들었다. 헌종 이후 남인의 승육이 많아졌는데 영남 남인이 다시 문과에 급제하고 관직에 진출하던 시기와 일치하였다.

다음으로 승육하면서 임명된 관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V-16> 18~19세기 영남지역 급제자 승육 관직 인원

관직명	전직	찰방	주부	감찰	정언	좌랑	정랑	도사
품계	정6품	중6품	중6품	정6품	정6품	정6품	정5품	중5품
수(명)	333	54	31	25	18	17	5	5
관직명	령	현감	수찬	부수찬	별제	교검	교수	
품계	중5품	중6품	정6품	중6품	정6품	정6품	중6품	
수(명)	4	3	3	2	2	1	1	

위에 의하면 영남인들은 15개 직역에서 504명이 임명되었다. 대다수가 전

80) 『순조실록』 1권, 순조 즉위년 8월 16일 병인; 『순조실록』 3권, 순조 1년 12월 1일 계묘; 『순조실록』 12권, 순조 9년 8월 15일 계묘; 『순조실록』 15권, 순조 12년 3월 29일 신축.

적, 찰방, 주부, 감찰 등이었다. 16·17세기에 참서관에 많이 임명된 관직은 전적, 찰방, 좌랑, 정언 순이었다. 하지만 18·19세기가 되면 전적, 찰방, 주부, 감찰 등의 순으로 전적 임명자가 급증하였으며 좌랑, 정언의 수는 감소하고 대신 주부, 감찰이 증가하였다. 이는 영남인들이 점차 공론을 주도하는 직역에서 제외되었음을 의미한다. 또한 비변사가 정치를 운영하면서 육조의 실무자인 좌랑의 권한과 정원이 감소하고 대신 다른 직역에 임명자가 증가하게 되었다. 그 대표적인 관직이 감찰이다. 감찰은 감찰 실무를 담당한 관직으로 주로 회계감사와 의전행사의 감독 임무를 맡고 있었다. 초기에는 모든 관서를 감독하였지만 후기에는 군자감·장흥고와 같은 재정담당 부서만 관리하면서 그 영향력이 감소하였고 대간 임무에 참여하지 못해 청요직보다 낮은 관직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한편 여러 참서관직 중 당서관에 진출할 가능성이 많은 홍문관직과 집의의 임명자 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V-17> 18~19세기 영남지역 홍문관 관직 임명자 수

관직 \ 왕대	경종	영조	정조	순조	헌종	철종	고종	계(명)
수찬		10	10	14	7	8	24	73
부수찬		6	4	6	10	9	20	55
교리		5		3	3	4	1	16
응교		3	2	1			9	15
집의		9	4	4	4	2	9	32
계(명)	0	33	20	28	24	23	63	191

<표V-17>에 당서관에 오르는 대표적인 참서관직에 오른 인물은 191명이었다. 이 중 중복하여 관직에 임명된 인물을 제외한다면 총 126명이었다. 이러한 수치는 16·17세기와 큰 차이가 없는 수치였다.

수찬·부수찬·교리·응교·집의를 거쳐 당서관에 임명된 인물은 75명(16.3%)이고, 다른 참서관을 거친 후 당서관에 오른 인물은 69명(8.9%)으로⁸¹⁾ 수찬·부수찬·교리·응교·집의가 당서관을 거치면 당서관에 오를 확률이 높았다. 하지만 이러한 수치는 16·17세기와 비교했을 때 그 비중이 조금 감소했다고 할 수 있다. 조선 전체 시기를 살펴봐도 홍문관직에 임명되는 인물이 증가하면서 당서관에 오르는 것이 더욱 치열해졌다.⁸²⁾ 이는 급제자 수가 늘어

81) 18·19세기에 참서관에 임명된 영남인은 총 774명이었다.

나면서 중앙관직에 진출한 인물이 많아졌으며 관직 승진에 경쟁이 치열해졌음을 의미한다.

李光佐를 大提學으로, 金一鏡을 弘文館提學으로, 尹筵을 修撰으로, 李夏源을 義州府尹으로 삼았다. …김일경은 사람됨이 거칠고 사나우며 경박했지만, 文藝가 약간 있었다. 지난 겨울 한 장의 상소로 인하여 외람되게도 鈔銓에 제수되자 기사년의 黨人을 끌어다 씌으로써 그 聲勢를 확장하고 追報하자는 의논을 창도하였는데, 권세와 총애를 믿고 더욱 교만하고 방자해졌으므로, 사람들이 모두 눈을 흘겼다.⁸²⁾

위 글에 등장하는 金一鏡, 李光佐는 모두 소론 계열의 인물로 홍문관에 이들 세력이 증가하자 이 기사를 쓴 사관이 비판하는 내용이다. 급제 인원수의 증가로 인해 경쟁이 심화되고 각 당색에서 자기 당색의 인물들을 등용하려고 노력하였다. 하지만 고종대에 영남 남인에 대한 차별이 완화되면서 홍문관직에 임명되는 인물이 이전 시기와 비교해 급격히 많아졌다.

18·19세기 승육한 영남인들을 살펴보면 16·17세기와 비교해 평균연령이 높아지고 초직~승육까지 걸리는 시간이 늘어났다. 임명된 관직을 살펴보면 정언·좌랑과 같은 주요관직에서 점차 제외되고 대신 찰방·전직·감찰에 임명되는 인물이 증가하였다.

당상관에 임명될 가능성이 많은 홍문관직에 임명된 인물을 살펴보면 16·17세기와 비교해 수치적으로 큰 차이가 없었지만 이후 실제 당상관에 오르는 비중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비록 영남인들이 참상관 주요관직에 임명되더라도 당상관에 오르는데 많은 한계가 있었던 것이다.

3) 문과급제자의 당상관 진출

경종~고종시기 당상관에 임명된 영남인은 총 147명으로 18~19세기 영남 전체 급제자(774명) 중 19.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16~17세기는 132명으로 16~17세기 전체 급제자(726명) 중 18.1%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18~19세기에 수적으로 당상관에 승진한 인물이 많아졌음을 알 수 있다.

82) 16~17세기 相臣 임명자 중 176명 중 홍문관 관직자는 182명이었고, 18~19세기 相臣 임명자 중 122명 중 홍문관 관직자는 253명으로 홍문관을 거쳐 相臣에 임명되는 비율이 줄어들었다 (정만조, 「조선시대 삼공의 관력분석」, 『한국학논총』 31, 2009, 136~139쪽).

83) 『경종실록』 7권, 경종 2년 4월 11일 을축.

이 중 처음 당상관에 임명된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인물은 139명으로 당상관에 임명되는 평균연령이 52.7세였다. 참상관을 거쳐 당상관에 임명되는 기간은 17.8년이었으며, 문과에 급제하여 당상관에 임명되기까지 21.2년이 걸렸다. 16~17세기와 비교해 당상관에 임명되기까지 걸리는 기간이 조금 줄어들었는데, 당상관에 임명되는 연령이 높아지면서 명예직으로 당상관에 임명되는 인물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문음·천거로 관직을 시작하여 이후 문과를 거쳐 당상관에 오른 인물은 7명으로 당상관에 임명되는 평균연령은 58.3세였으며, 문과에 급제하고 당상관에 이르기까지 5.0년이 걸렸다. 문과 갑과에 급제하여 바로 참상관이 되고 당상관에 오른 인물은 6명으로 당상관에 임명되는 평균연령은 52.3세였으며, 문과에 급제하고 당상관에 이르기까지 20.3년이 걸렸다. 문과에 급제하고 참하·참상관을 거쳐 당상관에 오른 인물은 134명으로 당상관에 임명되는 평균연령은 58.8세였으며, 문과에 급제하고 당상관에 이르기까지 22.1년이 걸렸다.

문음·천거로 실직에 임명되고 문과를 거친 인물이 가장 짧은 시간에 당상관에 임명되었다. 위와 같은 경우의 영남인 중 대표적인 인물이 柳厚祚였다. 柳厚祚는 柳成龍의 후예로 1858년 부사의 직책으로 문과에 급제하여 그해 바로 당상관인 승지에 임명되었다.⁸⁴⁾ 이후 대원군 집권기에 우의정에 된다. 柳厚祚는 흥선대원군의 측근으로 특별히 승진한 경우였으며 영남인 대부분은 문과에 급제하고 오랜 시간 여러 벼슬을 거쳐 당상관에 임명되었다.

당상관에 임명되는 시기별 변동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V-18> 18~19세기 영남지역 급제자 당상관 평균연령·기간

왕대 분류	영조	정조	순조	헌종	철종	고종
평균연령 (세)	63.6	60.1	61.2	57.4	53.7	48.7
승육~당상기간 (년)	20.8	22.5	22.0	16.5	11.1	6.9
문과~당상기간 (년)	25.6	23.7	28.5	19.4	14.7	8.6

<표 V-18>에 의하면 순조대까지 문신 적체 현상이 심화되면서 당상관에 오르는 평균연령과 당상관까지 승진하는데 걸리는 기간이 증가하였다. 하지만

84) 『철종실록』 10권, 철종 9년 5월 20일 갑오.

현종대 이후로 문신 적체가 서서히 해소되면서 고종대는 평균연령과 당상관에 임명되는 기간이 급격히 감소하였다. 특히 대원군집권기에 영남 남인에 대한 중용책으로 많은 인물들이 당상관에 임명되었다. 이 시기 당상관에 임명된 영남인들을 살펴보면 張原相(張顯光의 후예), 李中斗(李滉의 후예)와 같이 명현의 후손이거나 盧泳敬, 朴宗鉉과 같이 변란이 일어날 때 왕을 보좌하던 인물들이 당상관에 임명되었다.⁸⁵⁾

다음으로 당상관에 임명된 관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V-19> 18~19세기 영남지역 급제자 당상관직 인원 수

관직명	승지	참의	도정	첨지사	판결사	대사간	대사성	대사성	유수	지사
품계	정3품	종2품	종2품	정2품						
수(명)	54	35	28	9	4	4	1	1	1	1

<표V-19>에서 보듯 영남인이 임명된 당상관직 중 승지, 참의가 많았는데 이는 16·17세기와 같은 경향이였다. 하지만 18·19세기에는 도정과 첨지사·지사 등의 관직에도 많은 인원이 임명되었다.

도정은 실무가 없는 명예직으로 특히 돈녕부 도정은 19세기가 되면 나이가 많은 조정 관리나 심지어 생원·진사에게도 왕의 특명으로 임용되는 경우가 많았다.⁸⁶⁾ 첨지사의 경우 당상관의 예우를 위해 설치한 관서로 실제적인 직무는 없었으며, 『속대전』에는 정원 8명 가운데 3명이 衛將의 체아직으로 설정되어 있다. 이후 양반층을 비롯하여 일부 중인층이 임명되는 경우가 증가하자 중인과 서얼은 중추부 관직을 제수할 때 동지사와 첨지사를 넘을 수 없게 규정하였다.⁸⁷⁾ 지사의 경우에도 명예직이었지만 소속 관서의 업무에 일부 관여하기도 하였다.

18·19세기가 되면 승지·참의 외에도 실직이 없고 명예직에 임명된 인물이 많았다. 비록 국가 운영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미칠 가능성이 적지만 관직이 한정되고, 영남인이 다시 문과에 많이 급제하여 중앙 정계에 진출하는 현실 속에서 남인을 중용하기 위해 실직이 없는 명예직으로 당상관에 임명되는 인

85) 盧泳敬, 朴宗鉉은 임오군란 때 활약한 인물이었다. 朴宗鉉은 특히 임오군란 때의 공로를 인정받아 승지에 임명된다.

86) 『고종실록』 14권, 고종 14년 9월 15일 정묘; 『고종실록』 16권, 고종 16년 3월 1일 을사; 『고종실록』 19권, 고종 19년 1월 23일 경술.

87) 『대전통편』, 「병전」, 경관직, 정1품아문 중추부조.

물이 증가하였다.

위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시기별로 영남인이 임명된 관직을 살펴보면 초직은 15세기에는 예문관검열, 16세기는 성균관을 중심으로 승문원, 교서관의 종9품직, 18세기에는 승문원 관직, 19세기에는 승문원 관직 외에도 별검·수봉관에 임명되는 인물이 많았다.

승육 단계의 관직의 경우 15세기에는 정언, 16세기 정언·전적·좌랑, 17세기에는 전적·찰방·좌랑, 18세기 전적·찰방, 19세기 전적·찰방 등에 많은 인원이 임명되고 있었다. 또한 당상관에 임명되기 유리한 참서관 관직의 경우 전체적인 경향을 보았을 때 시기적으로는 일정한 수치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그 관직을 거쳐 당상관에 임명되는 비율은 조선 후기에 감소하였다. 당상관에 임명되는 수치를 왕대별로 살펴보면 인조대 이후 감소하기 시작하였지만 이후 예전의 수치를 점차 회복하고 고종대에 급격히 증가하였다. 조선 초기 영남인은 성균관 관직과 같이 공론을 주도하는 관직에 진출하여 국가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하지만 점차 이러한 관직에서 소외되며 공론의 중심으로 옮겨지게 된다. 이로 인해 조선 후기에 영남에서 만인소와 같은 방법으로 자신들의 의견을 개진하였다. 또한 중앙정치의 주요 관직에서 제외되며 관직임명 연령과 승진까지 소요기간이 길어졌고 특히 영조대 이러한 경향이 심화되었다.

당상관의 경우 후기가 되면 영남인 중 임명자 수가 증가하였지만 관직을 살펴보면 실직과 함께 명예직의 비중이 많아졌다. 일반적으로 문과에 성적이 좋을수록 당상관에 오를 가능성이 높았다. 갑과로 장원을 하면 참서관직을 바로 받을 수가 있었으나 을·병 급제자의 경우 분관과 초직, 승육 등 다양한 단계를 거쳐야 했으며, 그 과정 속에서 다양한 상황을 접해야 했다. 특히 17세기 문관 적체가 심해지면서 승진은 더욱 어렵게 되었으며⁸⁸⁾ 관직의 임명이 당쟁으로 비화되었다.

갑과 다음으로 당상관에 이르는데 까지 걸리는 기간이 가장 짧은 경우는 문음·천거로 실직에 나갔다가 문과에 급제하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조정에서는 문음·천거 출신자들을 줄이고 문과급제자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려고 노력하였다.⁸⁹⁾ 영남의 문음·천거 출신자는 15·17세기에 문과에 응시하여 자신

88) 『숙종실록』 64권, 숙종 34년 12월 27일 기사.

89) 『성종실록』 220권, 성종 19년 9월 28일 무자; 『중종실록』 37권, 중종 14년 12월 11일 신미; 『명종실록』 22권, 명종 12년 5월 11일 계해.

의 품계를 올리고 당상관까지 진출하고 있었다. 하지만 일반 응시자의 경우 현달한 조상이나 군공을 세우지 않는 이상 과거를 통해 관직에 진출하여 여러 실무를 경험하여 승진을 할 수밖에 없었다.

4) 문과급제자의 최고관직

영남 문과급제자 중 최고관직을 확인할 수 있는 인물이 총 1,749명이었다. 이 중 최고관직이 당상관인 경우 379명(21.7%), 참상관은 1,233명(70.5%), 참하관 137명(7.8%)으로 요절과 같이 큰 문제가 없는 이상 대다수가 관직에 임명되고 있었다. 품계별 최고관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V-20> 영남지역 문과급제자 최고관직 품계별 인원

품계	정1품	종1품	정2품	종2품	정3품 당상	정3품 당하	종3품	정4품	종4품	정5품
수(명)	13	18	37	140	167	156	111	88	134	249

품계	종5품	정6품	종6품	정7품	종7품	정8품	종8품	정9품	종9품	계
수(명)	130	289	60	20	1	11	2	22	63	1,711

<표 V-20>의 최고관직의 품계를 살펴보면 정5품~정6품까지 그리고 정3품 당상·당하 그리고 종2품과 종4품에 많은 인원이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⁹⁰⁾ 이 품계들은 당상관에 오르거나 승육에 오르는 관직이었으며 이후 한 품계 위에 관직에 임명된 후 관직생활을 마치는 인물들이 많았다.

품계별 최고관직의 관직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90) 칙임관의 경우 4명, 주임관은 16명, 판임관은 18명이었다.

<표 V-21> 영남지역 문과급제자 당상관 최고관직

관직명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	찬성	판사	대제학	유후	지사	참찬	판서
품계	정1품	정1품	정1품	종1품	종1품	정2품	정2품	정2품	정2품	정2품
수(명)	6	3	4	12	6	4	1	9	5	14

관직명	관윤	관찰사	대사헌	동지사	부윤	부총관	우윤	유수	제학	좌윤
품계	정2품	종2품								
수(명)	4	28	12	9	29	1	6	1	1	3

관직명	참판	대사간	대사성	도정	부제학	승지	참의	첨지사	판결사	계
품계	종2품	정3품								
수(명)	50	23	6	13	3	51	54	10	7	375

최고관직이 당상관인 경우는 375명으로 칙임관 4명까지 포함한다면 379명이었다.⁹¹⁾ 판서 이상의 고위급 관직에 임명된 인물을 살펴보면 태조대 1명, 태종 2명, 세종 4명, 문종 1명, 단종 1명, 성종 5명, 연산군 3명, 중종 5명, 명종 3명, 숙종 1명, 정조 1명, 순조 2명, 철종 1명으로 대다수가 사림파가 진출했던 성종과 중종시기에 집중되고 있었으며 명종 이후로는 대부분이 고위직에 임명되지 못하고 있었다.

『국조인물고』의 승진 사례를 살펴보면 정1품 議政 324명, 종1품 찬성·판사 152명, 정2품 판서·대제학 등이 932명, 종2품 참판·대사헌·관찰사 1,631명, 정3품 승지·참의·판결사 등이 1,524명이었다.⁹²⁾ 영남의 경우 정1품 13명으로 전체 당상관 중 4.0%, 종1품 18명으로 11.8%, 정2품 37명으로 4.0%, 종2품 140명 8.6%, 정3품 167명 10.9%로 최고관직이 정3품인 인물이 많았다.

시기별로 살펴보면 15세기에는 관찰사·부윤과 같은 외관직과 육조의 차관인 참판에 임명되는 인물이 많았다. 16세기에는 관찰사·부윤, 참판 외에도 승지와 참의 등에 임명되는 인물이 많아졌다. 17세기에는 부윤과 참의 외에도 첨지사에 임명되는 인물이 많아졌으며, 18세기에는 지사, 승지의 수치가 증가하였고 19세기에는 참판, 대사간, 승지, 참의, 도정 등의 관직에 임명되는 인물이 많아졌다.

영남인이 정치에서 소외되던 시기에는 당상관의 관직이 부윤과 같은 외관직과 참의와 같이

당상관에 오르면서 가장 먼저 임명되는 정3품 관직이 최고관직인 경우가 많

91) 칙임관 4명은 궁내부특진관이었다.

92) 원창애, 「조선시대 문과급제자의 관직 진출 양상」, 『조선시대사학보』 43, 2007, 42쪽.

았다. 하지만 영남인이 다시 중앙정계에 진출하면서 임명되는 당상관직이 다양해졌고 대사간, 승지와 같이 국정을 운영하고 간쟁을 주관하는 주요 관직에 나가기도 하였다.

최고관직이 참서관인 경우는 다음과 같다.

<표 V-22> 영남지역 문과급제자 참서관 최고관직

관직명	목사	정	직제학	통례	관교	보덕	부사	사간	부정	전한
품계	정3품	정3품	정3품	정3품	정3품	종3품	종3품	종3품	종3품	종3품
수(명)	54	71	7	17	7	5	47	16	3	3

관직명	집의	사성	상례	장령	필선	봉례	사예	사인	군수	침정
품계	종3품	종3품	종3품	정4품	정4품	정4품	정4품	정4품	종4품	종4품
수(명)	24	10	3	51	2	2	29	4	98	19

관직명	응교	서윤	경력	소윤	검상	교리	문학	정랑	지평	직강
품계	종4품	종4품	종4품	종4품	정5품	정5품	정5품	정5품	정5품	정5품
수(명)	9	2	5	1	1	8	1	114	66	45

관직명	헌납	교리	도사	도사 (경)	령	부교리	관관	현령	감찰	교검	사서
품계	정5품	종5품	종5품	종5품	종5품	종5품	종5품	종5품	정6품	정6품	정6품
수(명)	14	27	42	4	22	4	18	13	46	3	2

관직명	사평	수찬	전직	정언	좌랑	교수	인의	주부	찰방	현감	계
품계	정6품	정6품	정6품	정6품	정6품	종6품	종6품	종6품	종6품	종6품	
수(명)	1	7	94	42	94	3	1	5	22	29	1,217

최고관직이 참서관인 경우는 1,217명으로 주입관 16명까지 포함한다면 총 1,233명이었다.⁹³⁾ 부사·목사·군수·현령·현감과 같은 외관직, 정랑·좌랑과 같이 실무 행정을 담당했던 낭관직, 장령·지평과 같은 청요직에 임명된 후 관직생활을 끝마치는 경우가 많았다.

시기별 영남인이 임명된 최고관직을 살펴보면 15세기에는 정랑, 교리(종5품), 정과 같은 실직과 현감같은 외관직이 많았다. 16세기에는 경관직은 정, 정랑, 좌랑과 같은 실직과 목사, 부사, 군수와 같은 외관직이 많았다. 이전 시기와 비교해 상급 외관직이라 할 수 있는 목사와 부사가 최고관직인 인원이 급

93) 주입관 비서원승이 15명, 장례가 1명이었다.

격히 증가하였다. 17세기에는 위의 관직 외에도 전적이 최고 관직에 임명되는 인물이 많았다. 특히 점차 영남인이 정치적으로 소외됨에 따라 승육을 하고 관직을 그만두는 인물이 많아졌다. 18세기에는 이러한 현상이 더욱 심화되어 상급 외관직이 줄어들고 대신 도사에 임명되는 인물이 많았다. 19세기가 되면 전적, 지평, 정언, 장령, 정랑과 같이 경관직에 임명되는 인물이 다시 많아졌다.

영남인들 중 최고관직이 참서관인 경우가 가장 많았다. 문과급제자 수의 증가와 문신 적체 현상, 그리고 영남 남인의 정치적 소외로 문과에 급제하여 관직 생활을 하는데 평균연령이 높아졌으며 이에 따라 조선 후기가 되면 승육을 하고 관직을 마치는 경우가 많아졌다.

최고관직이 참서관인 경우는 다음과 같다.

<표 V-23> 영남지역 문과급제자 참서관 최고관직

관직명	박사	사정	설서	주서	직장	별검	사록	저작	학정
품계	정7품	정7품	정7품	정7품	종7품	정8품	정8품	정8품	정8품
수(명)	9	1	4	6	1	2	2	2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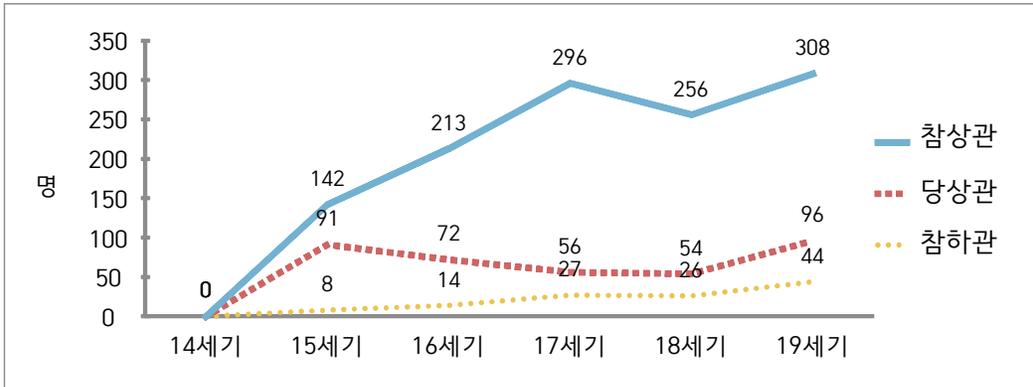
관직명	봉사	검열	정자	학록	부정자	참봉	학유	훈도	계
품계	종8품	정9품	정9품	정9품	종9품	종9품	종9품	종9품	
수(명)	2	4	17	1	38	1	21	3	119

최고관직이 참서관인 경우는 119명으로 판임관 18명까지 포함한다면 총 137명이었다.⁹⁴⁾ 부정자, 학유와 같이 초직에 임명된 후 관직을 그만두는 인물들이 많았다. 하지만 참서관이 최고관직인 인물(119명)보다 참서관에 임명되는 인물(1,217명)이 많은 것을 보았을 때 대다수가 참서관까지 임명되었다.

칙임관, 주임관, 판임관을 제외한 1,711명의 시기별 최고관직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94) 판임관은 비서원랑 3명, 시강 10명, 전사 4명, 직각 1명이었다.

<그래프 V-1> 시기별 영남지역 최고관직



위에서 보면 15세기까지 당서관에 임명된 영남인이 많은 수를 차지하였다. 15세기 이후가 되면 당서관에 임명되는 영남인은 줄어들었고 대신 최고관직이 참서관인 인원이 급격히 증가한다. 15세기는 영남사림파가 중앙정계에 진출하여 국정을 운영하던 시기로 많은 영남인들이 중앙정계에 진출하였다. 16세기가 되면 사림파간 학파적·정치적 입장에 의해 당파가 형성되고 당파간의 갈등과 공존이 일어났다.

영남의 풍속이 순후하여 名賢 碩儒가 모두 여기에서 배출되었습니다. 변란이 처음 일어났을 때 金沔과 鄭仁弘이 앞장서서 義兵을 일으켰고, 金澣 역시 의를 주창해 기병하였지만 불행히도 죽었으니 이 사람을 추후로 포장하여야 합니다.⁹⁵⁾

위의 글은 선조가 비변사에 인재를 천거할 것을 요청하자 경상도관찰사 韓孝純이 영남의 인물을 추천하면서 임진왜란 때 공을 세운 인물을 포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내용이다. 이에 의하면 영남은 조선 초기 많은 인재들이 배출된 지역이었으며 임진왜란으로 큰 피해를 받았지만 영남의 사대부들이 의병을 일으켜서 국란을 극복하는데 큰 도움이 주었다고 평가하였다. 이후 선조대 많은 영남인이 중앙정계에 진출하였다. 이에 따라 정랑에 임명되는 인물이 증가하였다. 정랑은 육조의 행정을 처리하던 실무자들로 육조직체제가 확립되면서 그 위상이 높아졌으며 특히 이조 정랑의 경우 통정권을 활용하여 삼사의 인사권을 장악하였기 때문에 청요직으로 인식되었다.

95) 『선조실록』 55권, 선조 27년 9월 13일 무자.

18세기 이후 노론의 일당 전제가 확립되며 정랑에 임명되는 인물이 감소하였고 영조대에는 통청권이 폐지되면서 정랑의 영향력이 더욱 약해졌다. 또한 외관직 중에서도 상급직이라 할 수 있는 목사·부사에 등용된 인물도 많았다. 전체적으로는 관직자가 감소하는 현상이 일어났는데 이는 탕평책의 일환으로 서북지역 인물들이 대거 중앙정계에 진출하며 상대적으로 영남의 급제자들이 감소하고 무신란이 발생하면서 영남 남인들이 노론에 의해 집중적으로 공격받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에 반발하여 소론 세력을 중심으로 영남 남인을 등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일어났다.

李泰佐가 進言하기를, 인재의 用捨에는 피차에 구애됨이 없어야 하니, 嶺南 사람을 각별히 調用 하소서.

副應教 鄭弼과 校理 吳命恒·洪致中 등이 應旨劄子를 올리니...사람을 얻는 데 있어서 또 朋黨을 깨뜨리는 것으로 사람을 얻는 근본을 삼으소서. 嶺南의 人才를 수용하소서.⁹⁶⁾

소론들은 노론에 대항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영남 남인의 인재를 등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따라 일부 영남 남인들이 중앙 정계에 진출하였으나 주요 관직에 임명되는 인물이 적었으며 최고 관직 중 도사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정조대에 가서 조금 완화되었다.

영남 사람은 淳厚한 풍속은 옛 鄒魯의 기풍이 남아 있고, 서북 사람의 억세고 사나운 버릇은 아주 朔岱 사람들이라고 말할만 하다. 국가에서 疏通해 가야 하는 행정을 마땅히 먼저 이 사람들부터 해야 한다. 또한 우리 列朝에도 顧念하여 撫摩해 온 사람들이니, 양조로 하여금 뽑아 임용하도록 해야 한다.⁹⁷⁾

정조는 탕평책의 일환으로 영남과 서북지역을 정확히 지적하며 영남인을 적극 등용할 것을 신하들에게 요구하였다. 이후 도산서원에 치제를 하였으며 별시를 설행하여 영남 유생들의 사기를 진작시켰다.⁹⁸⁾ 한편 세도정치와 대원군 집권기로 인해 노론 세력이 약화되고 왕권 강화의 일환으로 영남 남인들이 등용되면서 다시 당상관·참서관에 임명되는 인물이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이때의 관직을 살펴보면 종류도 많아졌으며 경관직뿐만 아니라 실제 업무가 없

96) 『숙종실록』 33권, 숙종 25년 12월 14일 무인; 『숙종실록』 50권, 숙종 37년 10월 8일 계해.

97) 『정조실록』 1권, 정조 즉위년 6월 20일 기미.

98) 『정조실록』 11권, 정조 5년 4월 23일 병인; 『정조실록』 12권, 정조 5년 7월 5일 을사.

는 명예직에 인물들도 많았다.

V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영남인은 평균 30대쯤에 문과에 급제하여 1년 이내에 삼관에 분관되었다. 초기에는 공론을 주도하는 성균관에 진출하는 사람이 많았으나 점차 영남인의 영향력이 강화되면서 승문원 진출이 증가하였다. 이후 3년 이내에 실직을 받게 되는데 보통 분관된 관청의 종8품 이하 벼슬을 받았다. 참하관 중 대표적인 청요직이라고 할 수 있는 예문관검열과 승정원주서에 임명된 인물의 경우 초기에 그 수가 많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임명되는 인원이 줄어들었다. 이후 약 4년이 지나면 40대쯤에 승육이 이루어졌다. 승육할 때 임명되는 관직의 대부분이 전적, 감찰, 좌랑 등이었으며 여러 관직을 거쳐 초기에는 정랑·군수·부사·장령 등의 관직에, 후기에는 전적, 지평, 정언, 장령, 정랑 등에 임명되고 이후 관직 생활을 끝마치게 되었다. 이 중 일부는 당상관에 오르게 된다. 당상관에 오르는 엘리트코스인 검열·주서-수찬·교리·응교·직제학·집의-승지를 거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⁹⁹⁾ 이에 적용되지 않고 당상관에 오른 비중은 34.8%였다. 하지만 참상관에서 홍문관수찬·교리·응교 등 참상관 청요직 벼슬을 받은 영남인은 총 251명으로 영남 급제자 중에 14.2%의 비중만 차지하고 있었다. 즉 대다수의 영남인들이 엘리트코스에서 제외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당상관에 오르는데 지역 출신자들에게 제약요소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 당상관에 오르더라도 영남인 중 판서급 이상에 오른 인물은 많지 않았다.

영남인들은 문과에 급제하여 관직에 진출하였지만 조선후기가 되면 관직 승진에는 많은 제약 요소들이 존재하고 있었다. 예문관검열, 주서를 비롯한 홍문관의 여러 관직에서 영남인들은 제외되었으며 어렵게 당상관에 오르더라도 판서 이상에 올라가는 사람은 극소수였다. 대다수가 참상관을 지내고 관직 생활을 마쳤다. 비록 문과에 의해 많은 인물들이 중앙 정계에 진출하고 있었지만 영남 남인의 정치적 영향력의 약화로 관직 생활은 평탄하지 못했다.

99) 정만조, 「조선후기 삼공의 관력분석」, 『한국학논총』 31, 2009.

VI. 맺음말

‘인재의 절반이 영남에서 나온다.’라고 불릴 정도로 영남은 많은 학자와 관료들을 배출한 지역이다. 경제적으로는 이양법이 보급되었으며, 田·民數가 많아 재지사족이 성장하기 유리하였다. 또한 학문이 발전하여 金宗直, 李滉, 鄭述, 李玄逸을 중심으로 문인이 형성되고 중앙정계에 진출하였다. 이글에서는 영남지역 문과급제자의 출신 배경과 시기별 변화를 살펴보고 영남인의 중앙정계 진출과 문과급제 양상을 究明하였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II 장에서는 영남지역의 문과급제자 수와 참여한 시험을 살펴보았다.

영남은 총 445회의 시험에서 1,766명이 급제하였는데 평균적으로 약 2년마다 1명씩 급제자가 배출되었다. 전국적으로는 약 1년에 1명씩 급제자가 배출되었다. 이러한 급제자 수는 서울 다음으로 많은 수치인데 영남은 전통적으로 경제적 선진지역이고 퇴계학을 중심으로 다양한 학단이 형성되었기에 가능했다. 또한 다른 지역과 비교해 많은 세액을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정의 입장에서 영남을 무시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科名별로 살펴보면 식년시에서 1,026명(58.1%), 증광시 306명(17.3%), 별시 206명(11.7%), 정시 144명(8.2%), 알성시 58명(3.3%), 친시 10명(0.6%), 현량시 6명(0.3%), 외방시 4명(0.2%), 춘당대시 4명(0.2%), 개시 2명(0.1%)이었다. 주로 식년시와 증광시를 중심으로 급제하였다. 이는 다른 비정기시에 비해 시험을 미리 준비하기 쉬웠고 초시로 향시가 설치되어 응시를 많이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시기별로 살펴보면 14세기 8명(0.5%), 15세기 241명(13.6%), 16세기 300명(17.0%), 17세기 383명(21.7%), 18세기 339명(19.2%), 19세기 495명(28.0%)이었다. 15~17세기까지 많은 인원이 급제하다가 18세기에 급격히 급제자 수가 감소하고 19세기에 다시 이전의 수치를 회복하였다. 왕대별 평균 급제자 수를 살펴보면 명종대와 영조대 평균 급제자 수가 급격히 감소하였다.

16~17세기는 영남사림파가 중앙정계에 진출하는 시기로, 별시·현량시를 통해 자신들의 세력을 확대해 나갔다. 인조반정 이후 서인의 세력이 강화되고 李玄逸의 실각, 무신란 등으로 인해 영남인은 정치적으로 소외되었다. 19세기가 되면 영남의 세금 징수액이 증가하고 정치적으로도 소외되면서 불만이 높

아졌다. 이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직부전시자의 수가 증가하였으며 정시에서도 향시를 실시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고 문과에서도 지역안배가 이루어졌다. 영남은 17세기 중반 특히 숙종대 갑술환국 이후 정치적으로 소외되었다는 것이 일반적 인식이다. 물론 전체적으로는 급제자의 비중이 감소하고 있었지만 정조 이후부터 급제자 비중이 17세기 수치로 서서히 회복하였다. 즉 기존의 인식과 달리 영남지역은 정치적 부침이 있었지만 지속적으로 문과급제자가 배출되었다.

Ⅲ장에서는 영남지역 급제자의 출신 배경인 전력, 거주지, 성관 등을 통해 문과에 급제한 영남인의 구체적인 양상을 제시하였다.

영남의 전력을 살펴보면 전체 문과급제자와 비교해 官職官品者보다는 未仕者의 비율이 더 많았다. 조선 초기에는 많은 영남인이 관직에 진출하고 그의 자제들이 문음을 통해 실직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17세기 이후 점차 정치적 영향력이 감소하면서 未仕者의 비율이 증가하였다. 未仕者는 전체적으로 유학이, 17세기까지 생원이 많았다. 官職官品者는 전체적인 추세와 비교해 찰방·교수관과 같이 외방적인 경우가 많았다.

군현별 특징을 살펴보면 부·목·도호부와 같이 상급행정기관 외에도 군·현(현감)과 같이 하급행정기관과 경제적 규모가 작은 지역에서도 급제자가 많이 배출되었다. 이는 사족의 유무가 영향을 미친 것이다. 반대로 문과급제자를 한 명도 배출하지 못한 지역을 살펴보면 경제 규모가 적고 군현의 변동이 심해 사족의 세력이 약한 지역이었다.

성관별로 살펴보면 영남은 총 237종의 성관에서 문과급제자가 배출되었다. 급제자를 50명 이상 배출한 성관은 조선 후기가 될수록 급제자 수가 증가했고, 30명 이상~50명 이하 급제자를 배출한 성관은 오히려 후기가 될수록 감소했다. 10명 이상~20명 이하 급제자를 배출한 성관은 후기가 될수록 증가하였다. 이는 조선 초기 30~50명의 급제자를 배출한 성관에서 지속적으로 급제자가 나왔지만 조선 후기가 되면 특정성관에 집중되어 급제자가 배출되었음을 의미한다. 즉 조선후기가 되면 특정성관을 중심으로 문과급제자가 배출되었는데 안동의 안동권씨·진주강씨·진성이씨·의성김씨가 대표적인 성관이다. 또한 10명 이하 소수 급제자를 배출하는 성관이 후기가 될수록 증가하였는데 신출노론의 성장과 새로운 성관이 문과를 통해 관직에 진출하였기 때문이다.

Ⅳ장에서는 사림파의 성장이 두드러졌던 16~17세기와 영남 남인이 소외되었던 18~19세기 정치적 변동과 급제자들의 변화를 비교하였다.

16세기는 훈구파의 대항세력으로 사림파의 중앙정계 진출이 이루어졌다. 사림파는 영남지역에 재지적 기반을 갖춘 인물이 많았으며 학문적으로는 金宗直, 金宏弼, 金安國 등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비록 사회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었지만 중종대이후로 사림파가 정권을 장악하였다. 16~17세기 영남출신의 인물이 문과에서 많이 급제하였다. 가문별로 살펴보면 상주의 진주강씨, 안동의 안동권씨 등 기존에 명문이라고 할 수 있는 가문에서 급제자가 많이 배출되었다. 또 대구의 현풍곽씨, 영해의 영양남씨 등의 가문도 이 시기 문과를 통해 성장했다. 하지만 17세기 이후 이 가문출신의 급제자가 감소하였으며, 전체적으로도 다양한 성관에서 문과급제자가 나왔다. 이는 16~17세기에 혈연적 가계가 문과급제에 많은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시기 영남지역 문과급제에 많은 영향을 미친 것은 학단이었다. 중종대 영남지역에 李滉, 曹植, 李彦迪 등의 유학자들이 등장하게 되고 그들의 문하에서 후학이 양성되었다. 이후 이 문하생이 중앙정계에 진출하면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해 五賢을 문묘에 배향하며, 정치 세력화하였다. 16~17세기에는 특정 학단을 중심으로 급제자를 많이 배출하였다. 중종~광해군대에는 李滉·曹植, 선조~인조대에는 鄭述, 인조대에는 張顯光, 현종대에는 柳稷, 숙종대에는 李玄逸의 문인에서 급제자를 많이 배출하였다. 이는 기존에 영남 학파의 주도권이 李滉 - 柳成龍·鄭經世 - 鄭述·張顯光 - 李玄逸로 발전했다는 주장과 같은 경향이었다. 그러나 갑술환국을 전후한 시기 李玄逸이 실각하면서 영남의 문인 중 급제자를 많이 배출하지 못하였다. 더군다나 무신란의 영향으로 영남이 ‘반역향’이 되면서 영향력이 급격히 감소하였다.

18~19세기 상주·선산을 중심으로 경상우도에서 급제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상주·선산은 충청도와 경상도의 접경에 위치하였고, 퇴계학파는 물론 노론의 영향을 받아 영남의 다른 지역에 비해 신출노론이 강성한 지역이었다. 18세기 노론의 일당 집권이 이루어지면서 노론계 관리의 지원을 받은 신출노론이 兩宋문묘종사운동, 노론계 사우와 서원을 건립하였다. 특히 영남 남인의 중심지였던 안동에 김상헌 서원을 건립하는 등 영남 남인의 공론을 분열시키고자 하는 움직임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상주의 덕수이씨, 상주의 평산신씨, 안동의 진주강씨 姜恰 후손과 같이 노론과 이전부터 교류가 있던 가문들을 중심으로 급제자를 많이 배출하였다.

19세기가 되면 정조대 이후로 영남의 문과급제자가 증가하였으며 세도정치와 대원군의 집권으로 노론의 일당 전제가 약화되며 이전의 수치를 회복하였

다. 이에 따라 특히 대원군은 영남 남인과의 연합을 통해 왕권을 강화하고자 하였고 이에 따라 안동을 중심으로 급제자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 시기 급제자의 특징은 문인의 급제자 수가 감소하고 진성이씨 李滉, 여주이씨 李彦迪, 인동장씨 張顯光, 의성김씨 金誠一과 같이 영남 남인의 대표적인 가문의 후손들을 중심으로 문과급제자가 배출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왕권 강화를 목표로 한 중앙 정치세력이 정치적·사상적 결집체인 문인 보다는 영남 남인의 대표적인 인물의 후손들을 등용시킴으로써 영남인의 불만을 잠재우고 영남 유생을 통합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이다. 한편 영남 남인의 입장에서는 정국의 변동에 맞춰 자신들의 영향력을 강화하고 18세기 실각된 명예를 회복시킬 좋은 기회로 인식하였다. 이로써 19세기 영남지역의 문과급제자가 다시 증가하였다.

V장에서는 영남 문과급제자의 관직 진출 양상을 살펴보았다.

영남인은 평균 30대 정도에 문과에 급제한 후 1년 이내에 삼관에 분관되었다. 초기에는 三館 가운데 공론을 주도하는 성균관에 진출하는 사람이 많았으나 점차 승문원 진출이 증가하였다. 이후 3년 이내에 실직을 받게 되는데 보통 분관된 관청의 종8품 이하 벼슬을 받았다. 참서관 중 청요직이라고 할 수 있는 예문관 검열과 승정원 주서에 임명된 인물은 16~17세기에 많았지만 18~19세기가 되면 줄어들었다.

이후 약 4년이 지나면 40대 정도에 陞六이 이루어졌다. 승육할 때 임명되는 관직의 대부분은 전적·감찰·좌랑 등이었으며 여러 관직을 거쳐 16~17세기에는 정랑·군수·부사·장령 등의 관직에, 18~19세기에는 전적, 지평, 정언, 장령, 정랑 등에 임명된 후 대부분 관직 생활을 마쳤다.

참서관에 오른 일부는 당상관에 올랐다. 당상관에 임명되는 엘리트코스는 검열·주서-수찬·교리·응교·직제학·집의-승지를 거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 코스를 거치지 않고 당상관에 오른 비중은 34.8%로 65.2%가 엘리트코스를 거쳐 당상관에 임명되었다. 그 가운데 참서관에서 홍문관 수찬·교리·응교 등 참서관 청요직 벼슬을 받은 영남인은 총 251명으로, 영남지역 급제자 중 14.2%만 차지하고 있었다. 대다수의 영남출신 관직자는 엘리트코스에서 제외되었다. 즉, 지역 출신자들이 당상관에 오르는데 제약요소가 많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당상관에 오르더라도 영남인 중 판서급 이상에 오른 인물은 많지 않았다.

영남인은 문과에 급제하여 관직에 진출하더라도 조선후기가 되면 관직의 승진에는 많은 제약이 있었다. 예문관 검열, 주서를 비롯한 홍문관의 여러 관

직에서 영남인은 제외되었으며 어렵게 당상관에 오르더라도 판서 이상에 올라가는 사람은 극소수였다. 대다수가 참상관에서 관직생활을 마쳤다. 비록 많은 인물들이 문과를 통해 중앙 정계에 진출하고 있었지만 관직 임명에 있어서는 여전히 폐쇄적이었다.

이 연구를 통해 영남지역 문과급제자의 양상은 크게 3가지 사실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영남지역 문과급제자는 18세기에 일시적으로 감소하지만, 조선 후기까지 많이 배출되었다. 기존에는 문과는 서울에 거주하는 특정성관 특히 17세기 후반 노론의 영향력이 강화되면서 노론세력의 권력을 재생산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었다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러한 견해는 서울을 중심으로 문과급제자를 대상으로 했을 때는 올바른 의견일 수 있지만 영남을 중심으로 살폈을 때는 맞아떨어지지 않는다. 영남은 16~17세기에 李滉·鄭述의 문인을 중심으로 중앙정계에 많이 진출하였다. 이후 무신란을 거치며 급제자 수가 급감하였지만 19세기에 이르면 18세기 이전의 수치를 회복하였다. 19세기가 되면 비정기시의 잦은 설행으로 급제자 수가 증가하였다. 하지만 영남의 급제자 증가 추세는 급격히 변화하였다. 세도정치와 대원군의 집권으로 노론 중심의 국정 운영이 개편되고 사도세자의 신원 만인소와 위정척사를 주장하던 영남 남인이 다시 조정에 주목을 받았다.

둘째, 시기별·정치적 변동에 따라 영남 문과급제자의 성격에 변화가 이루어졌다. 16~17세기는 영남지역에서 李滉과 曹植의 문인을 중심으로 학단이 다양하게 형성되었다. 남명학파는 경상우도를 중심으로 전파되었는데, 鄭仁弘이 퇴계학과와 갈등을 벌이면서 曹植의 문인 중 일부가 퇴계학과로 전환하였고, 대북정권이 몰락하면서 영향력이 축소되었다. 반면, 퇴계학과는 안동 출신의 柳成龍, 趙穆의 영향력이 강화되었고, 상주를 중심으로 鄭述학단이 번성하였다. 이 시기 문과에 급제한 문인은 대다수가 李滉과 鄭述의 문인이었다. 鄭述은 李滉과 曹植의 학문을 통합하였으며 柳成龍, 趙穆등의 퇴계학과에 비해 유연한 입장을 취했다. 이에 인조반정 이후 서인과 남인이 공동으로 정국을 운영할 때 鄭述의 문하에서 많이 참여할 수 있었다. 하지만 점차 서인의 영향력이 강화되고 禮說 논쟁이 벌어지면서 李玄逸이 부각되었다. 그는 주리론을 강조하며 퇴계학의 통합을 추구하였다. 李玄逸의 문인이 문과에 급제하고 중앙정계에 진출하였다.

18~19세기가 되면 이러한 양상에 변화가 생긴다. 李玄逸의 실각과 무신란

으로 많은 급제자를 배출하던 안동권은 ‘반역항’으로 공격받으며 정치적 영향력이 감소하였다. 이에 따라 문인의 급제자 수도 감소하였다. 하지만 정조의 탕평책과 사도세자 신원 만인소 그리고 위정척사 강조, 대원군과의 연합으로 인해 19세기가 되면 문과급제자가 다시 증가하였다. 이때 급제자를 살펴보면 특정 문인보다는 진성이씨 李滉, 여주이씨 李彦迪, 인동장씨 張顯光, 의성김씨 金誠一의 후예들이 중심을 이루었다. 이는 정치·사상적으로 결합한 문인보다는 지역사회에서 상징적 위치에 있던 인물들을 등용하고 이들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한 것이다. 또한 영남 남인의 주요 가문은 이 시기 문과에 급제하여 가문의 권위를 높이고 실각된 영남의 명예를 회복하는데 주력하였다.

셋째, 많은 인물들이 문과에 급제하더라도 주요·핵심 관직에 임명되지 못했다. 16·17세기에는 당상관에 임명되기 유리한 관직인 예문관 검열, 주서, 홍문관 주요 관직에 임명되는 인물이 많았지만 18·19세기가 되면 이 엘리트 코스에 임명되는 인물이 감소하여 당상관에 임명되는 인물도 감소하였다. 설령 당상관에 임명되더라도 행정적·정치적으로 실권을 행사하는 관직보다 명예직에 임명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영남인의 정치적 소외는 문과급제보다는 관직 임명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본 연구는 그동안 연구되지 못했던 영남 문과급제자의 구체적인 양상을 분석함으로써 정치적 변동에 따른 영남인의 중앙정계 진출과 변화양상을 도표화하여 그 가계별로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영남인은 당시 정치적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였고 적극적으로 다른 세력으로 전환하거나 의견을 개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19세기 영남의 新鄕과 중인층의 성장, 그리고 다른 지역과 구체적으로 비교하지 못하였다. 부족한 점을 유념하여 앞으로의 과제로 남겨 두고자 한다.

참고문헌

1. 자료

1) 기본자료

- 『國朝文科榜目』 (택학사, 영인본, 1984)
- 『國朝文科榜目』 (규장각 古4650.26)
- 『嶠南科榜目』 (규장각 古351.306)
- 『朝鮮王朝實錄』 (<http://sillok.history.go.kr>)
- 『承政院日記』 (<http://sjw.history.go.kr>)
- 『經國大典』 (韓國法制研究院, 1993)
- 『續大典』 (법제처, 1965)
- 『大典會通』 (朝鮮總督府中樞院, 1939)
- 『大典通編』 (법제처, 1963)
- 『增補文獻備考』 (명문당, 1981)
- 『燃藜室記述』 (영문사, 1976)
- 『世宗實錄地理志』 (朝鮮總督府中樞院, 1938)
- 『經世遺表』 (민족문화문고간행회, 1986)
- 『慵齋叢話』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 1962)
- 『新增東國輿地勝覽』 (술출판사, 1996)

2) 고문서류

- 『玉院事實』 (영남권역 한국학자료센터)
- 「1678년 이영철 5자녀 분재기」 (영남권역 한국학자료센터)
- 「1681년 이영철 유서」 (영남권역 한국학자료센터)
- 「1695년 고 장자 이량 처 권씨 분재기」 (영남권역 한국학자료센터)
- 「1738년 이집 분재기 중 유서」 (영남권역 한국학자료센터)
- 「1846년 이해상과 이연상 간찰」 (영남권역 한국학자료센터)
- 「1851년 병산서원 통문」 (영남권역 한국학자료센터)

- 「1851년 이진상 간찰」 (영남권역 한국학자료센터)
- 「1869년 이호순 서간」 (영남권역 한국학자료센터)
- 「임인년 애일당속노회첩」 (영남권역 한국학자료센터)
- 「장석룡 막암수계서」 (영남권역 한국학자료센터)
- 「1839년 옥산서원 치제 제문」 (영남권역 한국학자료센터)
- 「1855년 옥산서원 회문」 (영남권역 한국학자료센터)

3) 문집 · 일기류

- 李滉, 『退溪先生文集』
- 李植, 『澤堂集』
- 金應祖, 『鶴沙先生集』
- 權相一, 『淸臺先生文集』
- 李玄逸, 『葛庵集』
- 宋穉圭, 『剛齋集』
- 趙述道, 『晚谷先生文集』
- 柳宜貞, 『思窩文集』
- 柳徽文, 『好古窩先生文集』
- 李頤淳, 『溪山世稿』
- 金玲, 『溪巖日錄』, 한국국학진흥원, 2013.
- 심수철 · 오덕훈, 「국역 범성일기」, 『국역 조선후기 영남사림일기』, 한국국학진흥원, 2008.
- 李敦禹, 『疏廳日錄』 (영남권역 한국학자료센터).
- 청량산박물관, 『국역 무오일기』, 민속원, 2015.

4) 족보류

- 『南陽洪氏族譜』 (1940).
- 『德水李氏世譜』 (1713,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 『順興安氏族譜』 1~25 (1918).
- 『安東權氏世譜』 1~9 (1961).
- 『仁同張氏世譜』 1~5 (1900).
- 『晉州姜氏世譜 : 大同譜』 (1987).

『平山申氏世譜』 1~8 (1851,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義城金氏大同譜』 (1992).
 『眞城李氏安東派世譜』 (2000).
 『驪州李氏世譜』 1~11 (1917).
 『英陽南氏世譜』 1~25 (1937).
 『玄風郭氏續譜』 1~7 (1936).
 『名顯世譜』 (한古朝58-나6).
 성씨이야기편찬실, 『진주강씨 이야기(상·중·하)』, 올린피플스토리, 2015.
 송기하·송윤식, 『청구씨보』, 陟瞻臺, 1926.
 이재희, 『진성이씨안동파세보』, 뿌리찾기범국민계몽회, 2000.

2. 연구물

1) 단행본

고석규, 『19세기 조선의 향촌사회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8.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9-양반관료국가의 성립』, 탐구당, 1984.
 국사편찬위원회, 『수집사료해제집2』, 2008.
 김건태, 『조선시대 양반가의 농업경영』, 역사비평사, 2004.
 김돈, 『조선전기 군신권력관계연구』, 서울대출판부, 1997.
 김문식, 『조선후기 경학사상연구』, 일조각, 1996.
 김미영·박정혜, 『세전서화첩』, 민속원, 2012.
 김성우, 『조선시대 경상도의 권력 중심이동』, 태학사, 2012.
 김성윤, 『조선후기 탕평정치 연구』, 일조각, 1997.
 김영모, 『조선지배층연구』, 일조각, 1977.
 김창현, 『조선초기 문과급제자 연구』, 일조각, 1999.
 김태환, 『봉화의 전통마을』, 봉화문화원, 2006.
 남지대, 『조선정치사』상, 청년사, 1990.
 _____, 『조선후기 당쟁의 종합적 검토』,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2.
 미야지마 히로시, 『양반』, 너머북스, 2014.
 박현순, 『조선 후기의 과거』, 소명출판, 2014.

서주석, 『안동문화산책』, 이화문화출판사, 2001.

설석규, 『조선시대 유생상소와 공론정치』, 선인, 2002.

설석규·최병덕·박인호 외 3명, 『여헌학의 전개와 수용』, 보고사, 2010.

유봉학, 『개혁과 갈등의 시대』, 신구문화사, 2009.

이수건, 『영남사림파의 형성』, 영남대학교출판부, 1979.

_____, 『영남학파의 형성과 전개』, 일조각, 1995.

이수환, 『만인의 청원, 만인소』, 한국국학진흥원, 2017.

이원명, 『조선시대 문과급제자 연구』, 국학자료원, 2004.

이준구, 『조선후기 신분직역변동연구』, 일조각, 1993.

정구선, 『조선시대 천거제 연구』, 초록배, 1995.

정석중, 『조선후기의 정치와 사상』, 한길사, 1993.

정진영, 『조선시대 향촌사회』, 한길사, 1998.

_____, 『내앞 500년』, 의성김씨 천상문화보존회, 2011.

차미희, 『조선시대 과거시험과 유생의 삶』,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12.

차장섭, 『조선후기 별열연구』, 일조각, 1997.

최승희 『조선초기 언론사연구』, 지식산업사, 2004.

최이돈, 『조선중기 사림정치구조연구』, 일조각, 1994.

최진옥, 『조선시대 생원진사연구』, 집문당, 1998.

한영우, 『과거, 출세의 사다리(1~4)』, 지식산업사, 2013.

에드워드 와그너, 『조선왕조 사회의 성취와 귀속』, 일조각, 2007.

안동대 안동문화연구소, 『안동 원촌마을』, 예문서원, 2011.

_____, 『안동 부포마을』, 예문서원, 2012.

안동민속박물관, 『안동의 동제』, 1994.

유탣일, 『영남지성사우 급문록집성』, 양민서고, 2005.

이중환 저, 이익성 역, 『택리지』, 을유문화사, 2012.

한국지역인문자원연구소, 『경북인물사전』, 경상북도, 2015.

2) 학위논문

김경수, 「조선 중종대의 사관연구」, 충남대 박사학위 논문, 1995.

김문택, 「16~17세기 안동의 진성이씨 문중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 논문, 2005.

- 김병우, 「대원군정권의 권력기반과 개혁정책」, 경북대 박사학위논문, 2004.
- 김익재, 「내암 정인홍의 현실대응과 그 문인집단의 사승의식」, 경북대 박사학위논문, 2008.
- 김학수, 「17세기 영남학과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08.
- 박현순, 「16~17세기 예안현 사족사회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06.
- 성대경, 「대원군 정권 성격 연구」, 성균관대 박사학위논문, 1985.
- 설석규, 「16~18세기의 유소와 공론정치」, 경북대 박사학위논문, 1995.
- 월창애, 「조선시대 문과급제자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박사학위논문, 1997.
- 이연숙, 「우암학과 연구」, 충남대 박사학위논문, 2003.
- 주매, 「조선후기 가족 및 친족질서 연구」, 성균관대 박사학위논문. 2015.
- 최성환, 「정조대 탕평정국의 군신의리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09.
- 김인호, 「18~19세기 안동향리 권회학가의 사패소송」, 안동대 석사학위논문, 2012.
- 안수연, 「봉화 진주강씨문중 누정의 건축적 특성에 관한 연구」, 안동대 석사학위논문, 2015.
- 유기선, 「17~18세기 상주향교의 청금유생」, 영남대 석사학위논문, 2012.
- 이규복, 「조선시대 제주지역 문과운영과 급제자 실태 분석」, 제주대 석사학위논문, 2011.
- 이상목, 「수곡 진양하씨 가문의 성장과정과 재지적 기반」, 경남대 석사학위논문, 2014.
- 이세나, 「괴시마을 당신화의 성립과 변화에 관한 연구」, 안동대 석사학위논문, 1999.
- 이지영, 「조선후기 서얼의 차대 철폐 운동과 그 지위의 변화」, 한남대 석사학위논문, 2012.
- 임운섭, 「상주 향안에 대한 일고찰」, 영남대 석사학위논문, 2003.
- 정민호, 「16~17세기 경상도 내성현 유곡 안동권씨 문중의 형성과정과 향촌활동」, 안동대 석사학위논문, 2013.
- 정재용, 「18세기말~19세기초 의리문제를 둘러싼 남인과 노론의 대립」, 안동대 석사학위논문, 2016.
- 홍인희, 「철종대 정국과 철종의 왕권 확보 노력」,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2010.

3) 연구논문

- 강동욱, 「성재 허전의 강우지역 문인 고찰」, 『남명학연구』 31, 2011.
- 고수연, 「『무신창의록』을 통해 본 18,19세기 영남 남인의 정치동향」, 『역사와 담론』 65, 2013.
- 권기석, 「19세기 세도정치 세력의 형성 배경(上), (下)」, 『진단학보』 90·91, 2000·2001.
- 권내현, 「18·19세기 진주지방의 향촌세력변동과 임술농민항쟁」, 『한국사연구』 89, 1995.
- 권연웅, 「『회연급문제현록』 소고」, 『퇴계학과 유교문화』 13, 1985.
- 권오영, 「18세기 호론의 학풍과 사상의 전승」, 『조선시대사학보』 63, 2012.
- 김경란, 「조선후기 무성층의 존재형태와 성관 획득 경로」, 『사학연구』 110, 2013.
- 김경수, 「세조대 단종복위운동과 정치세력의 재편」, 『사학연구』 83, 2006.
- 김경숙, 「조선후기 사대부가의 연명정소활동과 공론형성」, 『사학연구』 109, 2013.
- 김근태, 「석운 조인영의 교유양상과 목계산장」, 『한문고전연구』 35, 2017.
- 김두현, 「조선시대 울산·언양 지역 과거 합격자 배출양상과 및 과거 시험의 개방성」, 『교육사학연구』 26, 2016.
- _____, 「조선시대 수원 지역 과거 합격자 과목별 배출 양상과 시기별 추이 분석」, 『교육사학연구』 28, 2018.
- 김명숙, 「운석 조인영의 정치운영론」, 『조선시대사학보』 11, 1999.
- 김문기, 「퇴계구곡과 퇴계구곡시 연구」, 『퇴계학과 유교문화』 42, 2008.
- 김봉곤, 「노사학파의 남명 조식의 경의사상 계승」, 『한국사상사학』 52, 2016.
- 김성우, 「조선후기의 신분제」, 『역사와현실』 48, 2003.
- _____, 「조선시대 대구 읍세의 팽창 과정」, 『대구사학』 75, 2004.
- _____, 「15세기 중,후반~16세기 도학운동의 전개와 송당학파의 활동」, 『역사학보』 202, 2009.
- _____, 「1800년 인동작변을 둘러싼 다종의 시선들」, 『역사와 현실』 82, 2011.
- _____, 「조선시대 벽진이씨 금산파의 상장과 금산 사족사회에서의 위상」, 『대구사학』 126, 2017.
- 김성윤, 「영남의 유교문화권과 지역학파의 전개」, 『조선시대사학보』 37, 2006.

- _____, 「조선시대 성주권 유림층의 동향」, 『역사와 경계』 59, 2006.
- 김영주, 「조선시대 성균관 유생의 권당, 공관 연구」, 『언론과학연구』 8, 2008.
- 김용곤, 「16세기 사림의 문묘종사운동」, 『김철준박사화갑기념사학논총』, 1983.
- 김용흠, 「19세기 전반 세도정치의 형성과 정치운영」, 『한국사연구』 132, 2006.
- _____, 「숙종대 소론 변통론의 계통과 탕평론」, 『한국사상사학』 32, 2009.
- 김우철, 「헌종 10년(1844) 회평군 이원경 모반사건과 그 의미」, 『역사와 담론』 55, 2010.
- 김윤조, 「18세기 영남과 기호 소론가의 학문과 문학 교류」, 『한국학논집』 53, 2013.
- 김의환, 「영주지역 생원·진사 입격자와 사회적 지위」, 『국학연구』 35, 2018.
- 김준형, 「조선후기 영남지역 향전의 분석」, 『남명학연구』 43, 2014.
- 김준형·정진상, 「현대 사회 속의 양반문화: 양반문화의 해체과정과 잔존양상」, 『경남문화연구』 21, 1999.
- 김지은, 「정재 류치명의 현실인식과 경세관」, 『조선시대사학보』 72, 2015.
- 김충현, 「『명릉선생안』을 중심으로 본 조선후기 능관의 변화와 운용」, 『장서각』 39, 2018.
- 김태형, 「퇴계의 개별 인간자아론」, 『퇴계학보』 109, 2011.
- 김학수, 「17세기 영남학파의 정치적 분화」, 『조선시대사학보』 40, 2007.
- _____, 「조선중기 한강학파의 등장과 전개」, 『한국학논집』 40, 2010.
- _____, 「조선후기 영남지역 사족가문의 학파·정치적 분화와 그 존재양상」, 『한국사학보』 38, 2010.
- _____, 「갈암학파의 성격에 대한 검토」, 『퇴계학』 20, 2011.
- _____, 「영남학인 손덕승의 학자·관료적 성격」, 『퇴계학과 유교문화』 57, 2015.
- _____, 「조선시대 사대부 가풍의 계승 양상 연구」, 『국학연구』 31, 2016.
- 김형수, 「17·18세기 상주·선산권 지역사회와 서원·사우의 동향」, 『영남학』 7, 2005.
- _____, 「1738년(영조14년) 안동 학동서원의 치폐와 지방관의 역할」, 『영남학』 17, 2010.
- _____, 「17세기 초 월천학단과 예안지역사회의 재건」, 『민족문화연구』 65, 2014.
- 남재철, 「국포 강박의 시에 나타난 조선후기 양반 몰락의 한 실상」, 『한문학

- 보』 18, 2008.
- 노대환, 「18세기 후반 ~19세기 중반 노론 척사론의 전개」, 『조선시대사학보』 46, 2008.
- 미야지마 히로시, 「『안동권씨성화보』를 통해서 본 한국 족보의 구조적 특성」, 『대동문화연구』 62, 2008.
- _____, 「조선 후기 지배 계층의 재생산 구조: 비교 연구를 위한 초보적 탐구」, 『한국사학보』 32, 2008.
- 박광용, 「영조대 탕평정국과 왕정체제의 정비」, 『한국사』 32, 1997.
- 박노석, 「조선시대 전주출신의 문과급제자 현황」, 『전북사학』 30, 2007.
- 박명덕·박언곤, 「조선중기 동족마을의 종가 확산 성립과정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7, 1991.
- 박용국, 「임진왜란기 진주지역 남명학파의 의병활동」, 『남명학』 16, 2011.
- 박인호, 「여헌학파의 동향과 만회당 장경우의 위상」, 『지방사와 지방문화』 19, 2016.
- 박현순, 「19세기 문과에 대한 고찰」, 『한국문화』 54, 2011.
- _____, 「조선 후기 문과에 나타난 경향간의 불균형 문제 검토」, 『한국문화』 58, 2012.
- 박홍갑, 「조선전기 찰방」, 『사학연구』 40, 1989.
- _____, 「조선초기 문과급제자의 분관과 진출」, 『사학연구』 50, 1995.
- 배재홍, 「조선후기 서얼 과거합격자의 성분과 관력」, 『조선사연구』 2, 1993.
- 백도근, 「대구서인 단구 전극념의 노론의식 연구」, 『철학논총』 68, 2012.
- 백승호, 「번암 체제공의 문자정치」, 『진단학보』 101, 2006.
- 변광석, 「18·19세기 경상도 남부지역의 상품유통구조」, 『지역과 역사』 5, 1999.
- 설석규, 「숙종조 원우동향과 봉당의 사회적 기반」, 『국사관논총』 34, 1992.
- _____, 「조선시대 유생의 문묘종사 운동과 그 성격」, 『조선사연구』 3, 1994.
- _____, 「조선후기 영남사림의 학풍과 청송사림의 학파」, 『안동사학』 8, 2003.
- _____, 「여헌학의 역사적 위상」, 『선주논총』 8, 2005.
- _____, 「퇴계학파의 분화와 병호시비」, 『퇴계학과 한국문화』 45, 2009.
- 성대경, 「대원군정권의 과거운영」, 『대동문화연구』 19, 1985.
- 손병규, 「18세기 말의 지역별 ‘호구총수’, 그 통계적 함의」, 『사림』 38, 2011.
- _____, 「20세기 초 한국의 족보 편찬과 동족집단 구상」, 『대동문화연구』 91,

2015.

- 송석현, 「17세기 상주지역 사족의 동향」, 『영남학』 27, 2015.
- _____, 「17세기 후반~18세기 초반 도남서원의 운영과 상주 사족의 동향」, 『조선시대사학보』 79, 2016.
- 송응섭, 「김종직 문인 그룹 형성 무대로서의 서울」, 『서울학연구』 31, 2008.
- 안병걸, 「갈암 이현일의 유학적 삶과 경세론」, 『민족문화』 29, 2006.
- _____, 「16세기 榮川의 지성계에 대한 소고」, 『퇴계학』 22, 2014.
- 안외순, 「대원군집정기 인사정책과 지배세력의 성격」, 『동양고전연구』 1, 1993.
- 양기정, 「『예기유편』의 휘판과 火書에 관한 연구」, 『민족문화』 39, 2012.
- 여영기, 「15세기 地方教官政策의 정비와 訓導制의 성립」, 『교육사학연구』 23, 2013.
- 오기수, 「조선시대 각 도별 인구 및 전답과 조세부담액 분석」, 『세무학연구』 27, 2010.
- 오수창, 「세도정치의 전개」, 『한국사』 32, 1997.
- _____, 「조선시대 평안도 출신 문신에 대한 차별과 통칭」, 『한국문화연구』 15, 2008.
- 오항녕, 「조선 효종대 정국의 변동과 그 성격」, 『태동고전연구』 9, 1993.
- 우인수, 「조선 숙종조 과거 부정의 실상과 그 대응책」, 『한국사연구』 130, 2005.
- _____, 「계당 류주목과 민산 류도수의 학통과 그 역사적 위상」, 『퇴계학과 유교문화』 44, 2009.
- 원창애, 「조선시대 문과급제자의 관직 진출 양상」, 『조선시대사학보』 43, 2007.
- _____, 「조선시대 예문관 분관 실태와 한림의 관직 승진 양상」, 『조선시대사학보』 57, 2011.
- _____, 「조선시대 문과직부제 운영 실태와 그 의미」, 『조선시대사학보』 63, 2012.
- 유권중, 「회곡 권춘란의 생애와 학문」, 『철학탐구』 26, 2009.
- 윤인숙, 「17세기 단성현 엘리트의 조직 형성과 인적 네트워크」, 『대동문화연구』 87, 2014.
- 윤재환, 「근기남인학통의 전개와 성리학의 형성」, 『은지논총』 36, 2013.
- 이광우·이수환, 「자인, 경주 지역 재지사족의 동향」, 『고문서연구』 41, 2012.
- 이광우, 「1784년~1945년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향약계의 성격」, 『한국민족문

- 화』 56, 2015.
- 이근호, 「18세기 전반 송시열 문묘 종사 논란의 정치적 의의」, 『한국사학보』 62, 2016.
- 이병훈, 「조선후기 영남지역 원사의 건립과 변화 검토」, 『한국서원학보』 6, 2018.
- 이병휴, 「현량과 급제자의 성분」, 『대구사학』 12·13, 1977.
- _____, 「16세기의 정국과 영남사림파」, 『동방한문학』 22, 2002.
- _____, 「조선전기 소외관인의 은거생활:김안국·김정국의 경우」, 『역사교육논집』 31, 2003.
- 이상호, 「류건휴의 『계호학적』과 『이학집변』에 나타난 후기 영남학파의 ‘도통’과 ‘벽이단’의식」, 『동양철학』 32, 2009.
- _____, 「임란기 구미·선산 지역의 유학과 학맥」, 『국학연구』 30, 2016.
- 이수진, 「정조조의 영남만인소」, 『교남사학』 1, 1985.
- _____, 「17·18세기 안동지방 유림의 정치·사회적 기능」, 『대구사학』 30, 1986.
- _____, 「조선후기 영남만인소에 대하여」, 『이병도박사구순기념한국사학논총』, 1987.
- _____, 「고문서를 통해 본 조선조 사회사의 일연구」, 『한국사학』 9, 1992.
- _____, 「서애 유성룡의 학문과 학맥」, 『퇴계학과 유교문화』 23, 1995.
- _____, 「조선초기 ‘토성’ 연구」, 『민족문화논총』 17, 1997.
- 이수환, 「18~19세기 경주 옥산서원 원임직 유통을 둘러싼 적서간의 향전」, 『고문서연구』 17, 2000.
- _____, 「조선 향촌사회 속의 생원·진사」, 『한국사시민강좌』 46, 2010.
- _____, 「16세기 전반 영남사림파의 동향과 동방오현 문묘종사」, 『한국학논집』 45, 2011.
- _____, 「영남지역 퇴계문인의 서원건립과 교육활동」, 『국학연구』 18, 2011.
- 이연숙, 「17~18세기 영남지역 노론의 동향」, 『실학사상연구』 23, 2012.
- 이육, 「18세기말~19세기 진주권의 상품유통과 성격」, 『역사교육논집』 41, 2008.
- _____, 「조선 영조대 무신란과 안동 지방의 ‘의병」, 『한국사학보』 42, 2011.
- _____, 「사도세자 관련 만인소의 정치적 의미」, 『남도문화연구』 35, 2018.
- 이재철, 「비변사의 정치적 위상과 기능」, 『사학연구』 91, 2008.

- 이재현, 「18세기 이현일 문인의 신원 운동과 추숭사업」, 『대구사학』 117, 2014.
- 이창걸, 「조선후기 문과급제자의 분관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학논총』 31, 2009.
- 이창기, 「영해 원구리 영양남씨의 문중조직과 종족활동」, 『민족문화논총』 49, 2011.
- 이태진, 「18세기 남인의 정치적 쇠퇴와 영남지방」, 『민족문화논총』 11, 1990.
- 이해준, 「조선후기 진주지방 유희의 실태」, 『진단학보』 60, 1985.
- 이희권, 「동방오현 문묘종사 소고」, 『전북사학』 7, 1983.
- 이희평, 「여헌 장현과의 이기경위설 연구」, 『한국사상과 문화』 17, 2002.
- 임규완, 「법전 진주강씨와 해은 강필효」, 『한국학논집』 53, 2013.
- 임기영, 「영천 지역 간행 서적에 대한 서지적 고찰」, 『서지학보』 38, 2011.
- 임혜련, 「조선후기 헌종대 순원왕후의 수렴청정」, 『한국인물사연구』 3, 2005.
- 장동표, 「조선중기 고성지역 재지사족의 형성과 발전」, 『지역과 역사』 6, 2000.
- 장윤수·임종진, 「한강 정구와 조선 중기 대구권 성리학의 연계성에 관한 연구」, 『동양사회사상』 8, 2003.
- 전경목, 「조선후기 지방유생들의 수학과 과거응시」, 『사학연구』 88, 2007.
- 정경주, 「경상우도 성재 허전의 학단을 중심으로: 성재 허전의 학문 사상과 그 학술사적 위상」, 『남명학연구』 31, 2011.
- 정만조, 「영조14년의 안동 김상헌서원 건립시비」, 『한국학연구』 1, 1982.
- _____, 「조선후기 삼공의 관력분석」, 『한국학논총』 31, 2009.
- _____, 「조선후기 정국동향과 갈암 이현일의 정치적 위상」, 『퇴계학』 20, 2011.
- 정병석·권상우, 「대구권 성리학과 의병활동」, 『철학논총』 79, 2015.
- 정우락, 「구암 이정 연구의 반성적 모색」, 『퇴계학과 유교문화』 52, 2013.
- 정진영, 「임란전후 상주지방 사족의 동향」, 『민족문화논총』 8, 1987.
- _____, 「19세기 후반 영남유림의 정치적 동향」, 『지역과 역사』 4, 1997.
- _____, 「백불암 최홍원의 학문과 향약」, 『퇴계학과 유교문화』 29, 2001.
- _____, 「조선후기 향촌 양반사회의 지속성과 변화상(2)」, 『대동문화연구』 38, 2001.
- _____, 「농법으로 조선시기 ‘영남의 부침’을 읽다」, 『지방사와 지방문화』 16, 2013.
- _____, 「18세기 서원건립을 둘러싼 향촌사회의 갈등관계」, 『조선시대사학보』

- 72, 2015.
- _____, 「18세기 영남 노론의 존재형태」, 『한국사연구』 171, 2015.
- _____, 「재지사족, 향촌의 지배자가 되다」, 『조선시대사』 2, 푸른역사, 2015.
- 정혜린, 「김정희의 청대 한송절충론 수용 연구」, 『한국문화』 31, 2003.
- 정호훈, 「18세기 전반 탕평정치의 추진과 『속대전』 편찬」, 『한국사연구』 127, 2004.
- 정홍준, 「임진왜란 직후 정국의 추이와 복인정권의 성립」, 『사총』 34, 1988.
- 정훈, 「조선시대 남원 지역 문과급제자에 대한 고찰」, 『전북사학』 29, 2006.
- 조강희, 「영남의 성장과 사회화 과정: 사회변화와 종손의 역할」, 『민족문화논총』 22, 2000.
- 조병로, 「조선후기 찰방의 교체실태와 찰방해유문서에 대한 일고」, 『역사와 교육』 10, 2010.
- 조준호, 「17~18세기 영양지방 한양조씨의 문중연구」, 『북악사론』 4, 1997.
- _____, 「송시열의 도봉서원 입향논쟁과 정치적 성격」, 『조선시대사학보』 23, 2002.
- 차미희, 「조선후기 문과급제자의 분관」, 『한국사학보』 6, 1999.
- _____, 「조선후기 숙종대 임진과옥 연구」, 『민족문화연구』 42, 2005.
- 차장섭, 「조선전기 문과급제자의 성분」, 『조선사연구』 3, 1994.
- _____, 「조선후기 문과급제자의 성분」, 『대구사학』 47, 1994.
- 채광수, 「18세기 말 19세기 초 영양현 운곡영당의 치폐」, 『영남학』 64, 2018.
- 최미정, 「봉화 해저마을 의성김씨 문중의 유림권 의거 참여」, 『한국독립운동사연구』 49, 2014.
- 최성환, 「영조대 후반의 탕평정국과 노론 청론의 분화」, 『역사와 현실』 53, 2004.
- 최승희, 「조선시대 대가 관련 고문서와 문과방목 급제자의 문·무산계기재」, 『조선시대사학 보』 63, 2012.
- 최은주, 「일기를 통해 본 조선시대 영남지방 지식인과 과거시험의 형상화」, 『대동한문학』 38, 2013.
- 한기범, 「우암 송시열에 대한 후대인의 추승과 평가」, 『한국사상과 문화』 42, 2008.
- 한충희, 「왕권의 재확립과 제도의 완성」, 『한국사』 22, 1995.
- _____, 「조선초기 洛中 사림파의 형성과 전개」, 『한국학논집』 40, 2010.

- 허권수, 「단계 김인섭의 생애와 학문」, 『남명학연구』 31, 2011.
- 황위주, 「예천지역의 퇴계학맥」, 『퇴계학과 유교문화』 28, 2000.
- _____, 「경상우도 성재 허전의 학단을 중심으로」, 『남명학연구』 31, 2011.
- 황의동, 「진주 강문 유학자들의 학문과 사상」, 『한국사상과 문화』 50, 2009.

A Study of Successful Applicants for the National Civil Service Examination in the Yeongnam Area of the Joseon Dynasty

kim In Ho

*Department of Korea History,
Graduate School
Ando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e Yeongnam area turned out so large a number of Confucian scholars and public officials that there came about such a common saying as 'half the conspicuous scholars and public officials came from the Yeongnam area. From the standpoint of economy, rice transplantation was disseminated, and wide farming fields and a lot of human power were favorable to culturing intellectuals of Confucian learning. Academic development in the area formed circles of pupils centering around Jongjik Kim, Hwang Yi, Gu Jeong, and Hyeonil Yi, thus establishing a foothold for working for the national government. However, there has been no research on successful applicants for the national civil service examination in the Yeongnam area. This is thought to be due to the opinion that the national civil service examination was taken advantage of to reinforce the political power of the Noron Faction as successful applicants for the national civil service examination were concentrated in particular families in the late Joseon Dynasty. Thus this study focuses on the general aspects of successful applicants for the national civil service examination, their growth and decline according to political fluctuations, and their political

marginalization.

This study investigates the number of successful applicants for the national civil service examination in the Yeongnam area and how many examinations they took. From the total of 445 national civil service examinations, 1766 people succeeded. On average, one applicant coming from the Yeongnam area passed the national civil service examination every other year. This number of successful applicants is second only to Seoul. Referring to the sections of the examination, people from the Yeongnam area mainly passed the triennial examination (Siknyeonsi) and an examination in honor of the enthronement of a king (Jeunggwangsi). This was because it was easy to prepare for these examinations, and many people could apply for local examinations as the first-step to success in the national examination. From the 15th to the 17th century, a lot of applicants from the Yeongnam area passed national examinations. In the 18th century the number of successful applicants for the national examinations sharply declined. And in the 19th century the number of applicants who passed the national examinations returned to the levels in the 15th to 17th century. Contrary to existing opinions, the Yeongnam area consistently turned out successful applicants for the national civil service examinations despite political fluctuations. An investigation of personal histories of those who passed the national civil service examination showed that a larger number of successful applicants did not take official positions than those who were appointed as public officials. According to an investigation, lower administration offices (Gun and Hyeon) and regions of smaller economic scales turned out as many successful applicants for the national civil service examination as higher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Bu, Mok and Dohobu). This was affected by the existence or nonexistence of gentry families. Referring to its relations to families, 237 families in the Yeongnam area turned out successful applicants for the national civil service examination. In the early Joseon Dynasty, a large number of families turned out successful applicants for the national civil service examinations, but in the late Joseon Dynasty, the number of

families that turned out successful applicants declined.

The results of this study about the aspects of successful applicants for the national civil service examination in the Yeongnam area are organized as follows. Firstly, though the number of successful applicants in the area of Yeongnam temporarily declined in the 18th century, the region still turned out a large number of successful applicants up to the late Joseon Dynasty. Centering around the circles of students under the influence of Hwang Yi and GU Jeong, many intellectuals from the Yeongnam area were employed by the national government in the 16th and 17th century. Afterwards, through the Revolt of Injwa Yi, the number of successful applicants from the Yeongnam area sharply declined. But in the 19th century, the number rose to the levels before the 18th century. Ruling by king-commissioned power and Heungseon Daewongun's taking of power changed the political direction of the national administration that centered around the Noron Faction. Namin people from the Yeongnam area were welcomed by the national government. They led the Confucian students' collective plea to quench Prince Sado's bitter vexation and were against the reception of Western culture and materials.

Next, according to the political fluctuations of the times, the characteristics of successful applicants for the national civil service examination changed. In the 16th and 17th century, successful applicants from the Yeongnam area were people mainly from the circles of students under the influence of Hwang Yi and Sik Jo. Inhong Jeong of the Nami School was in conflict with the members of the Toegye School, leading to the decline of influence of the Nami School through the enthronement of King Injo after deposing King Gwanghae. On the other hand, the Toegye School strengthened its influence with the power of Seongryong Ryu and Mok Jo who came from Andong. A circle of students under the influence of Gu Jeong thrived around Sangju. Gu Jeong integrated two school branches of great Confucian scholars, Hwang Yi and Sik Jo, and he was more flexible than Seongryong Ryu and Mok Jo of the Toegye School. However, as the influence of Seoin people was gradually strengthened and arguments over

theories of manners came about, Hyeonil Yi stood out. Accordingly, many of the Confucian students belonging to the circle under the influence of Hyeonil Yi passed the national civil service examination, and were appointed to work for the national government. In the 19th century, the number of successful applicants for the national civil service examination increased again. A close investigation of those successful applicants showed that they belonged to certain families rather than particular circles of students under the influence of great Confucian scholars. Most of them were descendants of the following prestigious families: Hwang Yi's family from Jinseong, Eonjeok Yi's from Yeosu, Hyeongwang Jang's from Indong, and Seongil Kim's from Uiseong.

This was intended to exert influence on the Yeongnam region by appointing and utilizing descendants of symbolically valued persons in the community rather than members of circles united politically and ideologically. At this time, descendants of principal families of Namin people in the Yeongnam area passed the national civil service examination, raised the status of their families, and tried to recover the tarnished reputation of the Yeongnam area.

Finally, many of the successful applicants from the Yeongnam area were not appointed to important official positions. In the 16th and 17th century, many of those successful applicants were appointed to important official positions such as the Inspection Office of Royal Speeches and Writings, the Recording Office of the Royal Government, and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Library. These were institutions favorable to appointment as Dangsanggwon of a high ranking public official. However, the number of figures who were appointed to elite courses decreased, and the number of public officials appointed as Dangsanggwon of a high ranking public official also decreased. Even public officials who were appointed as Dangsanggwon were designated to honorary positions rather than to ones that could exert actual power. Political marginalization of people from the Yeongnam area was more conspicuous in their appointment as public officials than in passing the national civil service examination.